

전략연구 2015-00

충남 문화유산과 연계한 전통축제 육성방안

이인배 · 김경태 · 권미정

발 간 사

우리는 삶의 공간뿐만 아니라 관광을 위해 방문한 다른 여행지역에서도 그 지역에서 잠재력을 가진 가치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산 자원들은 지금까지 주로 교육적·문화적 자원으로 활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문화자원을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가진 자원으로 재인식함으로써 이를 활용하여 지역 사회를 활성화 시키려는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우리 문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자원으로서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창조하고, 변형과 확산, 그리고 융합의 과정을 통해 생명력을 불어 넣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인문학을 중심으로 하여 전통문화의 융복합을 통한 관광자원화 사업으로도 추진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충남에서도 국가 문화유산의 활용사업과 연계하여 보존 및 관리뿐만 아니라 활용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충남에서는 문화재를 지정하여 보존·관리를 하면서 지역 향토축제시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시연행사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전통축제의 활성화가 더욱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따라, 충남의 문화유산 중에서 전통축제와 연계하여 활용하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의 정체성이 있으면서 보존의 가치와 활용성이 높은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전통축제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이인배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한 김경태, 권미정 등 내부연구진과 그 동안에 많은 조언과 참여를 아끼지 않아주신 자문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연구수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연구심의위원회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 12월 31일

충남연구원장 강 현 수

연구 요약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에는 문화자원을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가진 자원으로 재인식함으로써 이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활성화 시키려는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배경 하에서 추진하였다.

-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삶의 공간은 지역별로 문화유산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어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 및 활용으로 자원화가 필요함
- 문화유산은 우리 문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자원으로서 다양한 문화적 가치의 창조, 변형, 확산, 융합의 근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현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문학 중심 전통문화의 융복합 관광자원화 사업이기도 함
- 문화의 우수성과 고유성을 대표하는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한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충남에서도 국가 문화유산 활용사업과 연계하여 보존 및 관리뿐만 아니라 활용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임
- 충남에서는 문화재를 지정하여 보존·관리를 하면서 지역 향토축제시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시연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전통축제의 활성화가 필요함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의 문화유산 중에서 전통축제와 연계하여 활용하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의 정체성이 있으면서 보존의 가치와 활용성이 높은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전통축제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1) 문화유산 관련 이론고찰과 활용 정책의 검토

① 한국 문화유산의 정의와 문화유산관광의 개념

문화유산의 문화적 가치는 시간의 추이에 따라 혹은 개인과 단체의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 될 수 있다. 문화재에서 제정한 제도와 법은 이와 같이 가치를 한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므로 '문화유산'의 범주는 '문화재'보다 훨씬 넓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문화유산의 영역은 일정한 규정과 제도에 의해 심의와 절차를 거친 객관적 실체의 문화재를 포함하여 개인의 주관적 가치기준에 의해 자료가치가 인정되는 문화 자산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영역으로는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인 전통축제의 육성방안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문화재와 세계문화유산, 유·무형의 전통축제 素材資源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에서는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하고 있다. 유형문화재는 건조물,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말한다.

문화유산관광(Cultural heritage tourism)은 역사적 유산을 지니고 있는 인류의 문화유산을 답사하는 관광이다. 문화관광은 역사문화기행, 영화, 축제, 이벤트, 미술관 관광 등 다양한 문화를 소재로 한 관광을 문화관광이라 말하고 있다. 문화유산관광은 문화적 가치를 활용하여 관광상품화 한 것으로서 문화유산 보존에 이바지하고 해당 지역에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가져다주며 방문객들에게는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 및 매력을 경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문화유산관광은 역사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유적 또는 유물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으로 일반 관광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문화유산관광지와 일반관광지가 다르게 갖고 있는 매력 중 하나는 시간적으로 과거라는 역사성과 공간적으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장소성, 내용적으로 유산과 관련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자원의 활용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② 지역축제와 문화유산과의 관계

축제는 역사·사회·문화의 산물이기에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 우리의 축제가 본래의 제 생명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생활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축제의 현대적 기능으로는, 첫째 원초 제의성의 보존, 둘째 향토민의 일체감, 셋째 전통문화의 보존, 넷째 경제적 의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적 의의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문화유산의 축제로서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유산의 전통축제 육성과 관련된 지역의 전통민속축제행사는 지역실정에 맞게 접근해야 한다. 행사의 내용, 성질, 규모 등도 중요하며, 전통민속축제 이용활성화 관련 요소는 직접, 간접요소들이 작용하게 된다. 앞의 두 가지 고찰에서 정리될 수 있는 문화유산과 연계한 전통축제의 연구대상은 다음과 같다.

- 문화유산은 세계문화유산과 유무형의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중 축제소재로서 양호한 자원을 대상으로 함.
- 전통축제는 역사인물 축제와 유물·유적축제, 민속공연과 제의와 관련된 축제를 대상으로 함
- 본 연구에서는 문화유산과 전통축제를 연계하여 국제규모행사와 소규모 지역축제, 민속·공연이벤트로 구분하여 연구대상으로 함

③ 문화유산 관련 정책의 검토

문화유산 활용은 ‘문화재 보존의 적극적인 개념’으로 문화재 활용이 보존을 전제한다는 의미로서 보존을 전제로 하되 보존에 머물지 않고 그 가치와 기능 또는 능력을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문화재 활용정책은 기본적으로 보존과 관리를 거쳐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문화재의 유형가운데 활용이 오히려 보존과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어 문화재의 성격을 고려하여 보존형태와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문화재청 활용정책지침에서 추진한 사업은 문화재 활용가이드북 제작 배포, 문화유산 관광해설 콘테스트 개최, 어린이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콘테스트, 문화유산 디지털콘텐츠 공모전,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전시회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문화유산 2011에서는 정책방향을 성장동력 및 잠재력 확충, 미래지향적 보존체계 확립, 협력적 소통확대, 가치 활용 활성화 등 4가지 제시하고 있다. 이 중 가치 활용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문화유산 관련 인문학적 기반확충, 문화산업 차원의 문화유산 활용전략 개발, 문화유산 활용기준 정립 등으로 향후 문화유산 활용을 위해서는 ‘가치활용 활성화(Cultivation)’를 제시하고 있다.

④ 이론고찰과 정책분석의 시사점

문화유산 관련 이론고찰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문화유산 활용성을 높여 현대적 가치의 이용성 제고
- 문화유산의 유형별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와 연계
- 문화유산의 관광자원 매력요소를 고려한 활용방향 설정
- 축제의 관광상품화 전제조건을 고려한 활용 시도
- 문화유산의 전통축제 육성을 위한 상호 관련요소 적용

중앙정부 정책 검토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최근 문화유산의 활용 추세를 고려한 접근 시도
- 기존 보존 중심에서 활용으로 전환되는 문화재 활용정책과 연계
- 문화유산2011의 문화재 가치활용 활성화 과제의 일환으로 사업 추진

2) 충남 문화유산 자원의 키워드 분석

① 문화유적 자원의 키워드 분석

충남 문화유적에 대한 키워드 검색 결과, 1위로 무령왕릉이 지난 1년간 총 197,055건의 검색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으로는 해미읍성이 171,358건, 현충사 167,14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검색이 많이 이루어진 무령왕릉과 부소산성, 공산성, 정림사지 5층석탑 및 정림사지 등은 백제 문화유적과 관련된 것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표 1] 문화유적 키워드 검색 결과(상위 1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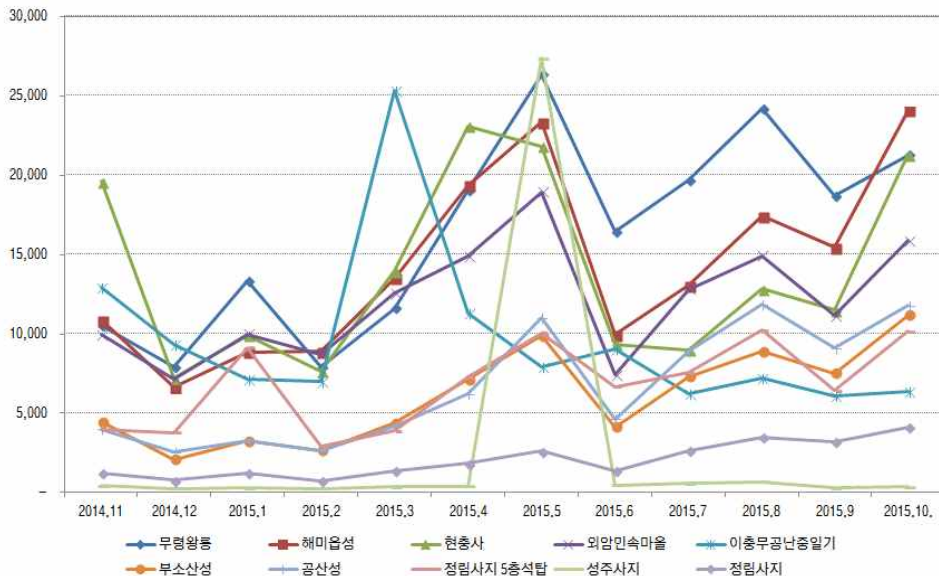
(단위 : 건)

순위	유적명	전체	PC	모바일	문화유적 유형
1	무령왕릉(송산리고분군제7호분)	197,055	71,021	126,034	분묘유적
2	해미읍성	171,358	42,523	128,835	관방유적/읍성
3	현충사	167,149	44,969	122,180	유교유적/서원사우
4	외암민속마을	144,299	32,634	111,665	주거건축/마을
5	이충무공난중일기	116,042	46,713	69,329	고서와고문서/국보
6	부소산성	89,759	26,600	63,159	관방유적/도성
7	공산성	80,215	27,354	52,861	관방유적/도성
8	정림사지5층석탑	82,038	30,726	51,312	불교유적/탑
9	성주사지	31,730	8,098	23,632	불교유적/사지
10	정림사지	24,555	10,923	13,632	불교유적/사지

주 : 전체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1년 합계임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시기별 키워드를 살펴보면 유적별로 집중되는 시기가 각기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검색은 4월, 5월과 10월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해미읍성의 경우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기간인 2015년 10월에 검색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주사지의 경우 2015년 5월에 27,354건으로 키워드 검색이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시기는 KBS 1박2일 프로그램의 성주사지 방영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이 된다.



[그림 1] 문화유적 시기별 키워드 검색 비교(상위 10개)

② 민속자원의 키워드 분석

충청남도의 민속자원 중 키워드 검색의 빈도수가 가장 높았던 자원은 의식주생활 중 조선시대 음식문화인 한산소곡주가 전체 106,099건의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생산품속 중 어업생산품속인 통발이 94,091건의 빈도수를 보였으며 머구리가 63,693건, 백중날이 44,164건, 달맞이 43,30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검색 순위가 높은 한산소곡주의 경우 충남을 대표하는 전통주로서 많은 인지도가 있는 상품이며, 통발과 머구리는 어업생산품속으로 현재까지도 전국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어법으로 모바일에서 많은 검색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2〕 민속자원 키워드 검색 결과(상위 10개)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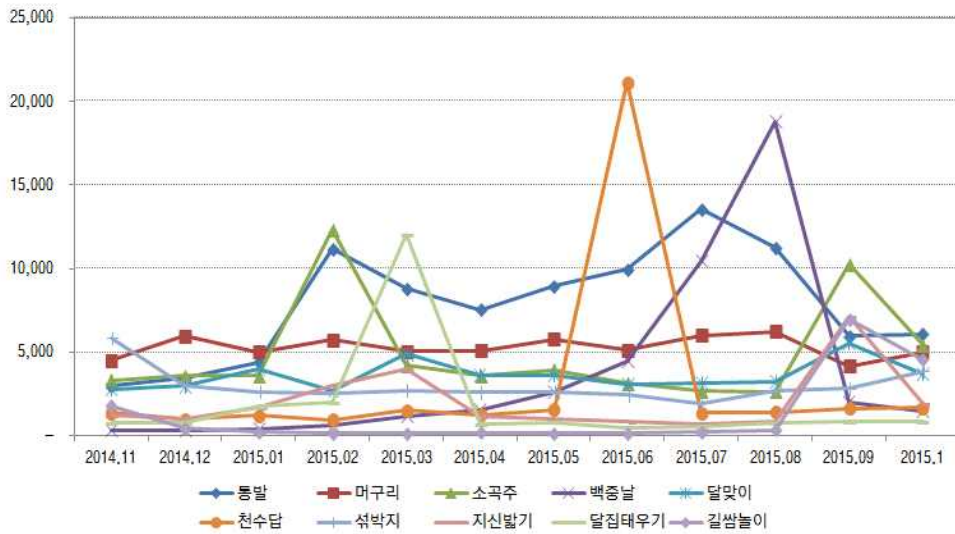
순위	자원명	전체	PC	모바일	민속자원 유형
1	한산소곡주	106,099	33,028	73,071	의식주생활/조선시대음식문화
2	통발	94,091	35,279	58,812	생산품속/어업생산품속
3	머구리	63,693	13,478	50,215	생산품속/어업생산품속
4	백중날	44,164	4,235	39,929	세시풍속/정월대보름
5	달맞이	43,308	12,803	30,505	세시풍속/추석
6	천수답	36,117	13,593	22,524	생산품속/농업생산품속
7	석박지	35,623	7,846	27,777	의식주생활/조선시대음식문화
8	지신밟기	24,742	10,071	14,671	세시풍속/정월대보름
9	달집태우기	22,361	7,449	14,912	세시풍속/정월대보름
10	길쌈놀이	15,486	3,478	12,008	세시풍속/추석

주1 : 전체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1년 합계임

주2 : 외암민속마을은 문화유적자원에서 제시됨에 따라 민속부문에서는 제외함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민속자원의 시기별 키워드를 살펴보면, 세시풍속 등과 관련된 자원들이 많아 검색어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색빈도가 가장 높은 한산소곡주의 경우 2월 설날과 9월 추석에 검색이 각각 16,720건, 19,338건으로 집중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0월에는 한산소곡주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타 시기보다 검색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2)민속자원 시기별 키워드 검색 비교(상위 10개)

③ 전통예술의 키워드 분석

충청남도의 전통예술의 검색빈도별 키워드를 살펴보면 안건의 몽유도원도가 98,667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냈으며, 칠지도 87,811건, 백제금동대향로 82,110건, 부여정림사지5층 석탑 82,038건 등의 순이다. 상위를 차지한 전통예술 자원들은 유형의 자원들이 많으며, 전통음악부문의 판소리 박동진이 31,773건으로 무형자원으로서 유일하게 상위 10개에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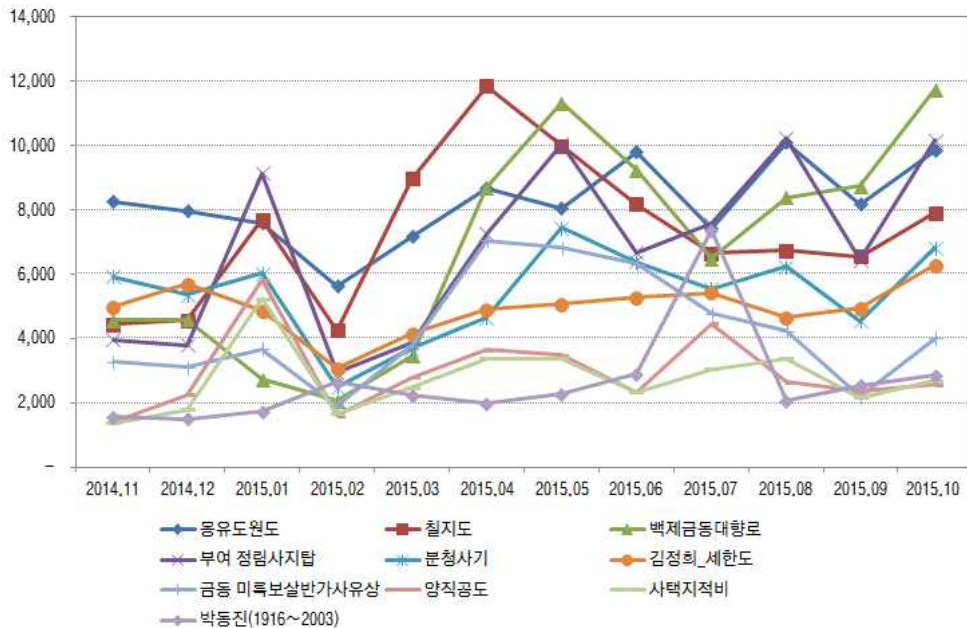
(표 3) 전통예술 키워드 검색 결과(상위 10개)

(단위 : 건)

순위	자원명	전체	PC	모바일	전통예술 유형
1	몽유도원도	98,667	40,057	58,610	전통회화/산수화
2	칠지도	87,811	36,102	51,709	서예/전통공예/백제시대
3	백제금동대향로	82,110	39,714	42,396	전통공예/철기와금동제품
4	부여정림사지5층석탑	82,038	30,726	51,312	전통조각/백제시대(석탑)
5	분청사기	65,152	27,737	37,415	전통공예/도자공예
6	김정희 세한도(歲寒圖)	59,303	22,055	37,248	전통회화/산수화
7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51,224	21,783	29,441	전통조각/백제시대(불상조각)
8	「양직공도(梁職貢圖)」	35,432	12,807	22,625	서예/백제시대
9	사택지적비(砂宅智積碑)	32,946	9,610	23,336	서예/백제시대
10	박동진(朴東鎭, 1916~2003)	31,773	11,359	20,414	전통음악/판소리

주 : 전체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1년 합계임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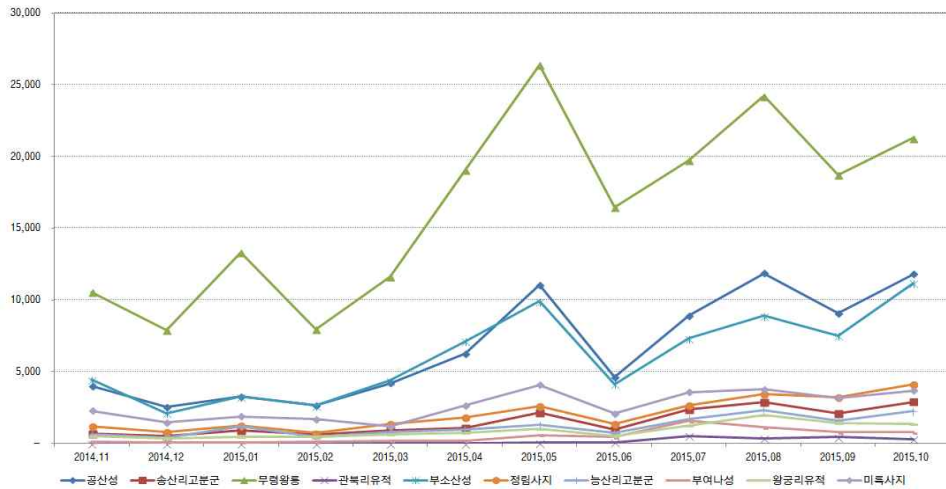
[그림 3] 전통예술 시기별 키워드 검색 비교(상위 10개)

시기별 키워드 검색빈도를 보면 상위에 랭크된 전통예술자원의 유형별로 시기별 차이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동진에 대한 검색빈도는 7월에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박동진 판소리 명창 · 명고대회가 7월에 개최됨에 따라 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④ 백제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자원 키워드 분석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자원을 살펴보면 공주의 송산리고분군 215,061건으로 가장 많은 검색빈도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공산성 80,215건,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이 74,633건, 익산의 미륵사지가 31,53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기별 검색빈도를 살펴보면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이 이루어진 2015년 5월에 검색 빈도가 높았으며 세계유산등재가 확정된 7월을 기점으로 다시 검색빈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주와 부여의 백제역사유적은 10월 백제문화제 개최와 더불어 검색 빈도가 높았다.



(그림 4) 백제역사유적지구 유산별 검색빈도

3) 문화유산의 지역축제 활용실태 분석

① 충남 축제의 현황과 특성

충남의 관광축제지수는 강원도와 전남의 4.5점에 이어 충남은 2.7점으로 3위를 차지하면서 도 평균인 2.4점과 전국평균인 1.7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의 관광축제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축제가 개최되는 서울과 전남, 강원, 경기도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고 지원을 해주는 문화관광축제는 2015년에 충남이 총 6건이 선정되어 한산모시문화제, 부여서동연꽃축제,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홍성역사인물축제 등 4건이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축제가 다수 개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축제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선택과 집중에 의하여 세계적 축제로 육성할 수 있는 단계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세계대백제전 메가이벤트의 특성

□ 행사의 방향과 목표

2010년에 개최된 세계대백제전은 1400년간 역사 속에 묻혔던 대백제국의 개척정신과 찬란한 문화의 가치를 되살리고, 백제문화제를 세계적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추진하였다. 축제의

주제는 ‘1400년전 대백제의 부활’로서 백제와 관련된 공연·전시·이벤트, 체험프로그램, 국제 학술회의 등의 부대행사프로그램은 운영하였다.

세계대백제전은 700년 대백제 문화강국의 가치와 진면목을 재발견하는 축제, 해양교류왕국 대백제의 기상을 오늘에 잇는 창의적인 축제, 대백제국의 후예로서 충청남도의 위상을 세계에 선양하는 축제, 소비성 축제에서 생산성 있는 주민 참여형 축제로 전환, 백제 콘텐츠를 세계적 보편성을 갖는 콘텐츠로 개발 활용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백제문화의 세계화·명품화를 위한 “글로벌 백제”의 새로운 출발점을 두기 위한 목표를 가진 메가이벤트로 개최되었다. 이 축제는 관람객수 내국인 349만명, 외국인 20만명 등 총 369만명이 방문을 하였고, 해외 참가국은 역사도시전시와 해외예술단, 학술회의 등 54개국에서 참여한 국제행사로 개최되었다.

□ 백제문화프로그램

세계대백제전을 찾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백제문화를 주제로 하는 공연과 전시의 고급화 전략을 시도한 수상공연인 공주의 사마이야기 및 부여의 사비미르 수상공연, 웅진성의 하루, 세계역사도시전, 사비성의 하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흥미있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부여수상공연과 웅진성의 하루, 공주수상공연, 세계역사도시전의 만족도가 높았고, 주제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부여수상공연, 공주수상공연, 웅진성의 하루가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반면,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세계역사도시전과 백제문화유산디지털영상, 백제유물특별기획전 등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상과 같이 백제문화의 기억, 흥미, 주제, 교육과 관련된 부대행사의 만족도에서 나타나고 있는바와 같이 백제문화를 콘텐츠로 한 현대적 야간공연과 역사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게 분석되어 이와 관련된 부대행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다.

□ 백제문화의 이해도

세계대백제전을 찾은 방문객들의 ‘백제 문화의 이해’에 대한 만족도는 공연프로그램 및 전시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보고 느끼는 체험형의 부대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마나루예술마당의 경우 웅진성의 하루와 세계역사도시전을 통해 세계역사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하고, 해설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백제문화유산 디지털 상영은 백제문화유산을 디지털로 복원하여 백제문화 전성기의 역사 다큐멘터리를 상영하였다.

부여의 경우 백제문화단지를 통해 사비궁의 하루 프로그램으로 백제시대 왕궁의 문화역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백제문화단지 내에서 펼쳐진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백제왕의 역사 문화 또한 느낄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또한 구드래와 왕흥사지에서는 백제 역사체험과 大백제기마군단행렬, 백제대왕행차재현, 계백장군 열무식 등 백제역사를 테마로 하는 부대 행사와 공연프로그램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백제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백제문화를 대상으로 한 문화유적이나 민속, 전통예술 자원을 소재로는 공연이나 전시, 체험형의 부대프로그램은 백제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③ 문화유산 관련 축제 개최 실태분석

□ 충남 문화유산 관련 축제 특성

충남에서 2015년에 개최된 지역 축제는 총 139건에서 이중 문화유산축제는 50건으로 36.0%를 차지하였다. 문화유산축제 중에서는 50건 중에서 민속축제 29건 58.0%, 문화유적축제 17건 34.0%, 전통예술축제 4건 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문화유산 관련 축제가 1건도 없는 지역은 보령시, 논산시와 계룡시 등으로 나타나 전통축제의 육성이 필요하였다. 가장 많은 지역은 당진시 9건과 서천군 8건 등으로 이들을 통합하거나 업그레이드 하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 문화유적, 민속, 전통예술 축제유형별 특성

충남 문화유산 관련 유형별 축제에서는 문화유적과 관련하여 백제문화제와 성웅이순신축제,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상록문화제, 서동연꽃축제, 한산모시문화제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와 전국적으로 지명도를 가진 축제가 많았다. 그리고 민속분야에서는 기지시줄다리기, 예산옛이야기 축제 등이 전국적 지명도를 가지고 개최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축

제 중에서 국제 수준의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축제를 선별하여 육성토록 해야 한다.

□ 계절별 개최 특성

충남에서 개최되는 문화유산 관련 축제를 계절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민속축제와 행사는 연중 개최되나 1월과 2월, 문화유적과 관련한 축제들은 9월과 10월 가을철에 집중되고 있으며, 전통예술행사는 가을철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축제들은 계절적 편중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의 타 축제와 연계하여 사계절에 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키워드 분석과 축제와 연계성

□ 문화유적의 축제 연계 시사점

문화유적 연계 주요 축제는 백제문화제,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성웅이순신축제, 짚풀문화제, 송국리청동기문화체험축제, 홍성역사인물축제, 추사추모전국회호대회 등이 개최되고 있다. 이들 축제의 특성은 백제문화제와 같이 여러 개의 문화유적들이 종합되어 하나의 축제 형태로 개최되기도 하고,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 축제와 같이 하나의 개별 문화유적을 대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들 축제들은 대주제와 부대행사, 세부프로그램 등에 다각적으로 콘텐츠를 활용하면서 국제적 축제로서 잠재력이 있는 축제는 메가이벤트로 발전시켜야 한다.

문화유적 중 관련 축제가 없는 자원은 성주사지, 남연군묘, 수덕사대웅전, 문헌서원, 결성향교, 윤증고택 등으로 이들 자원의 역사적 관련성과 주변 지역의 타 축제와 연계한 신규 축제나 이벤트의 발굴·육성이 요구된다.

□ 민속자원의 축제 연계 시사점

민속자원의 축제와 연계성에서는 민속자원 중 통발, 머구리, 백중날, 천수답, 석박지, 지신밟기, 길쌈놀이 등과 관련되어 개별적으로 개최되는 축제의 형태는 없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타 축제나 문화행사, 이벤트 등에 부대행사로 활용하거나 해당 지역의 예술제나 공동체 행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육성한다.

민속자원 관련 축제로는 한산소곡주축제, 내이랑달맞이축제, 기지시줄다리기, 안섬풍어당굿, 은산별신제, 계룡산산신제, 삼길포우럭독살축제 등이 개최되고 있다. 이들 축제 중 기지시줄다리기와 한산소곡주축제는 충남의 전통적 특성을 반영하는 축제로서 활성화가 필요하며,

은산별신제와 계룡산산신제 등도 지역의 정체성과 민속자원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전통예술의 축제 연계 시사점

전통예술 관련 축제는 안견예술제, 백제문화제, 계룡산분청사기축제, 추사추모전국회호대회, 박동진판소리명창명고대회 등이 개최되고 있다. 이들 축제는 앞의 문화유적이거나, 민속자원과도 연계되어 축제로 개최되고 있으므로 각각의 전통예술을 소재로 한 부대행사를 활성화시키도록 한다.

반면, 전통예술 중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사택지적비, 해금 한범수, 암문토기와 수막새, 청동거울, 산수무늬벽돌 등은 관련 축제가 없으므로, 이들과 연계된 축제나 문화행사, 전통행사프로그램의 발굴·육성도 필요하다.

4) 활용과제의 도출

① 충남 대표 문화유산축제의 세계화와 소재별 축제자원 활용성 다각화

충남의 문화유산 중 문화유적, 민속, 전통예술 등에서 백제문화제와 서동연꽃축제,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기지시줄다리기, 한산모시문화제 등은 2010세계대백제전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어 국제 및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개최되었다. 이들 축제는 충남의 대표하는 축제로서 기존의 축제를 업그레이드하여 메가이벤트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다른 문화유산 자원들도 유·무형의 문화재와 관련된 통합형 축제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한 유교 및 중국 관련 축제도 발굴하여 개최토록 한다. 이러한 충남의 대표축제와 기존축제의 업그레이드, 신규 발굴축제 등은 충남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적, 민속, 전통예술 등의 개별자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콘텐츠를 활용하여 주제와 부대행사, 체험프로그램, 축제의 기념품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활용성을 다각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축제는 현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재) 충남문화재단이 이들의 주제와 부대행사, 각종 공연과 전시 등에 대한 기획과 운영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충남의 문화유산의 활용성을 제고해야 한다.

② 유사축제의 통합과 지역내 타 축제의 부대행사프로그램과 연계 강화

충남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들은 문화유산축제와 문화관광축제로 대별된다. 이들 축제의 주제와 부대행사들은 충남 소재의 문화유적, 민속, 전통예술 등의 자원과 연계하여 유사축제로 개최되거나 문화관광축제의 부대행사나 프로그램으로 개최되기도 한다.

이들 중에는 특히, 민속과 관련된 해넘이·해돋이 축제, 달맞이, 달집태우기, 지신밟기 등의 축제는 우리의 세시풍속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사하게 인접지역에서 개최되기도 한다. 또한, 전통예술에 민요경창과 공연, 농악, 사물놀이 등도 역시 인접지역에서 유사하게 개최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역내의 타 축제 부대행사로 과거에는 다수 이루어졌으나 최근에 와서는 현대적 프로그램에 밀려 소외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지역 정체성을 대표하는 부대행사로 활성화해야 한다.

③ 공공주도형 축제 주관방식 및 협조체계의 개선

충남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의 주관방식은 충청남도과 각 시·군 및 면사무소 등의 공공기관과 문화재단·해당법인, 시·군 문화원, 지역 금융기관, 해당 유적의 단체뿐만 아니라 각 축제의 추진위원회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마을이장협의회, 마을운영위원회 및 마을자치위원회, 주민대책위원회, 지역발전협의회, 개발위원회, 상인회 및 번영회, 마을청년회, 영농조합법인과 사회적기업, 농업인단체 및 어촌계 등 매우 다양하고도 많은 축제의 주관·주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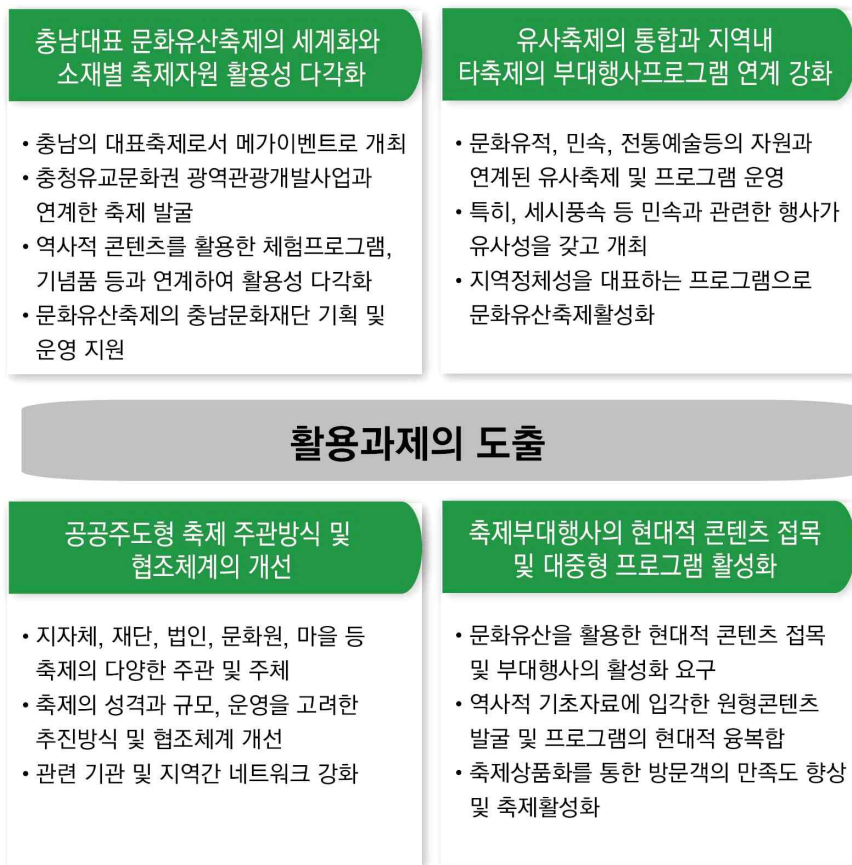
이러한 축제의 주관방식은 축제를 운영하는 재원의 조달과 인력운영, 프로그램의 진행 등뿐만 아니라 방문객의 만족도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기존에 지속되어온 축제의 주관방식을 지켜가면서 축제의 성격과 규모, 운영을 효율성을 고려하여 축제의 주관방식과 협조체계를 개선토록 해야 한다. 특히, 문화유산의 유사한 자원간의 연계와 지역의 타 축제에서의 부대행사프로그램으로 연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및 지역간의 네트워크와 협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④ 축제 부대행사의 현대적 콘텐츠 접목과 대중형 프로그램의 활성화

충남의 문화유산축제는 지역의 축제 중에서 3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축제는 기존에 지역의 문화예술제 형태의 공동체와 전통예술행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2000년대에 오면

서 현대적인 형태의 축제로 탈바꿈되면서 문화유산을 활용한 현대적 콘텐츠의 접목과 대중형 부대행사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충남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적, 민속, 전통예술 등의 자원도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 기초자료에 입각한 원형 콘텐츠를 바탕으로 축제의 명칭과 주제, 부대행사와 체험프로그램, 각종 공연과 전시 등에 이르기까지 현대적인 융복합을 통한 축제의 상품화로 일반 대중들까지 방문하여 만족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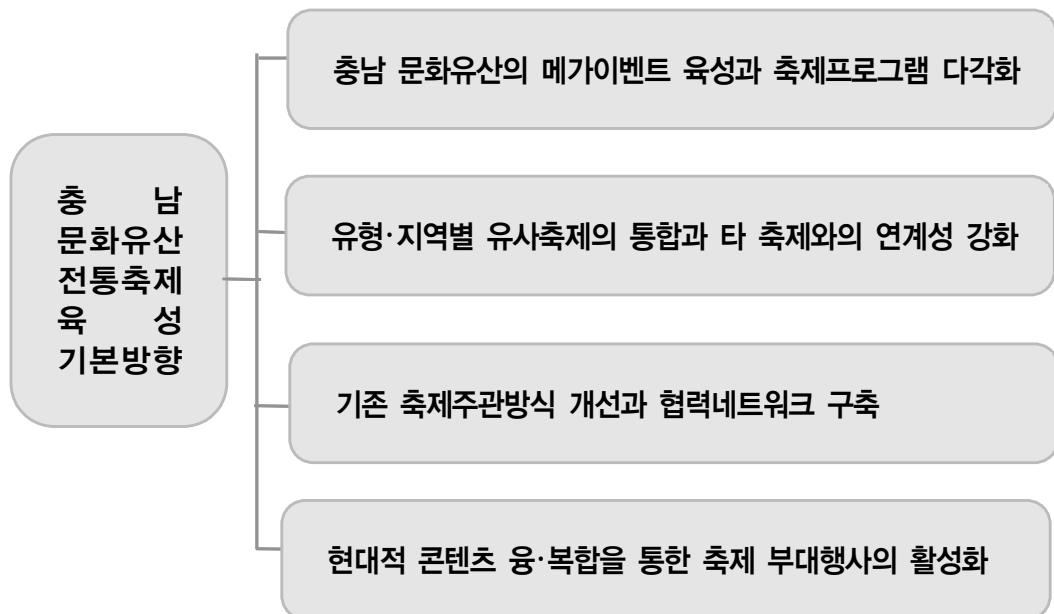


[그림 5] 충남 문화유산 키워드와 축제실태 분석을 통한 활용과제 도출

3. 정책제언

1) 문화유산 전통축제 육성의 기본방향

문화유산과 지역축제의 이론고찰, 정부의 문화유산 활용정책, 충남 문화유산 현황과 키워드 분석, 충남 문화유산 관련 축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이들 통해 정리된 충남 문화유산의 전통축제 육성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그림 6〕 충남 문화유산의 전통축제 육성 기본방향

2) 문화유산 전통축제 육성전략과 방안

① 충남 문화유산의 메가이벤트 육성과 축제프로그램 다각화

□ 백제문화 ‘세계유산대백제전’의 정기 개최

2010년에는 세계대백제전을 개최하여 기존 백제문화제를 세계 속에 알리는 국제행사로 발돋움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백제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자원으로써 가치를 제

고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대백제전’을 2020년경에 개최하도록 한다.

□ 충청 유교문화 ‘한·중 유교문화축전’ 개최

충청유교문화권은 인접한 중국 및 일본 등 타 국가의 문명과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황해권에 속하고 있다. 특히, 충청 환황해권 문화의 특징은 유교문화뿐만 아니라 불교와 천주교 문명의 전파 경로라는 점에서 지역의 유교와 관련된 인물뿐만 아니라 문화유적·민속·전통예술 등을 활용해 전통문화에 바탕을 둔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한·중 유교문화축전’을 개최하여 중국과의 문화교류와 중국관광객 유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 문화유적, 민속, 전통예술 연계 축제프로그램 다각화

충남의 문화유적, 민속, 전통예술 자원중에는 개별 축제로서 개최되거나 부대행사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백제와 관련된 문화유산과 전통예술, 성웅 이순신과 추사 김정희 등의 인물과 관련된 유산에 대한 개별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활용가치에 맞도록 연계 축제와 부대행사프로그램도 다각화하여 기존 축제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신규 소축제도 발굴하여 개최토록 한다.

② 유형·지역별 유사축제의 통합과 타 행사와의 연계성 강화

□ 내포 세계인류무형문화대전(세계아름드리 문화대전) 개최

충남에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문화유산(2010년)인 중요무형문화재 대목장을 비롯한 소목장, 단청장, 불화장, 목소장, 침선장, 각자장, 지승공예, 땃대장 보유자 등이 다수 있다. 그리고 충남 전통예술 관련 시설로는 한국전통문화학교(부여), 한국고건축박물관(예산)과 도내 전통공예공방이 170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이에 충남에서 목공예와 건축, 전통공예, 전통화법, 전통음식, 문화재 수리 등 국제무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축제를 발굴·육성해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행사지원과 연계한 통합 문화예술축제로 육성

충남에는 전통예술자원으로 전통회화, 전통공예, 서예, 전통조각, 전통무용, 전통음악 등이 있다. 이들 지원사업으로는 관광기금으로 지원하는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사업’과 ‘공연예술 행사 지원’ 사업,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사업 등 총 3개 사업을 통해 전국규모의

전통공연예술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앞의 3가지 사업유형에 맞추어 전통 공연예술행사 지원사업을 연차별로 선별하여 사업공모를 통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전국체전 등 전국단위 행사와 연계한 지역축제와 부대행사의 강화

국내에는 전국체육대회와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한민국미술대전, 대한민국연극제 등 전국단위의 행사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그러므로 충남에서 전국체전 등 전국단위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지역의 문화유적, 민속, 전통예술 등과 연계한 지역축제와 부대행사를 그 행사와 지역의 여건에 맞도록 개최하여 방문객들에게 우리 고장의 정체성을 홍보하고,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 기존 축제주관방식 개선과 협력 네트워크체계 구축

□ 메가이벤트와 전국규모의 축제는 공공주도형으로 개최

메가이벤트는 방문객수, 규모, 개최 비용 및 영향 정도의 측면에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이벤트로 국·내외적으로 지명도와 중요성을 지닌 대규모행사(event)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규모적인 메가이벤트나 지역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비용이 수반된다. 그러므로 충남에서도 문화유산과 관련된 메가이벤트로서 국제적 축제나 충남과 시·군을 대표하는 축제는 공공에서 주도하도록 한다.

□ 지역단위 문화유적·민속·전통예술 관련 축제는 단체와 주민주도형으로 개최

충남의 문화유산과 관련된 축제 중에서 충남과 시·군을 대표하는 축제는 대부분이 공공주도형으로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축제들은 외형적으로는 주민주도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에서의 재정적 지원과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도 다수가 있으므로 지역단위로 이루어지는 문화유적·민속·전통예술 축제나 이벤트는 점차적으로 주민주도형의 축제로 개최되도록 진화되어야 한다.

□ 충남문화재단과 지역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주도와 지원형 축제 양성

충청남도는 지역문화예술진흥과 도민의 다양한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2013년 말 충남문화재단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2014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다. 특히, 충남문화재단은 충남의

문화유산과 관련된 사업을 물론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지역주민들과 전통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유산축제들은 이제 충남문화재단과 시군 문화재단 및 문화원들이 주도하면서 지원하는 축제로 개칭되어야 한다.

□ 자율·자립형 축제주관과 운영을 위한 인력양성과 노하우의 축적

충남의 문화유적·민속·전통예술과 관련된 지역축제들이 지역단체와 주민주도형의 축제로 진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처럼 지역주민과 단체, 지역문화재단 등이 축제를 주관하거나 지원, 관리 및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축제를 기획에서부터 관리와 운영을 위한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문화유산축제 아카데미를 통해 축제관계자는 물론 자원봉사, 축제해설사 등에 대한 인력양성을 추진해야 한다.

④ 현대적 콘텐츠 융·복합을 통한 축제 부대행사의 활성화

□ 문화유산 원형에 현대 콘텐츠 융복합을 통한 대중참여형 축제도 병행 개최

충남의 문화유산의 문화유적·민속·전통예술 관련 축제로서 세계대백제전과 백제문화제,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를 비롯한 문화유적 관련 축제나 기지시줄다리기와 예산옛이야기 축제 등 민속축제, 온양온천문화예술제 등 전통예술축제 등이 있다. 이는 기존 축제들도 주제뿐만 아니라 부대행사인 공연과 전시, 체험프로그램 등에 있어서 현대적 콘텐츠를 융복합하여 대중 방문객들의 눈높이와 수요에 맞는 축제로 병행되어야 한다.

□ 문화유적·민속·전통예술 소재의 정체성 있는 소규모 부대행사의 활성화

문화유산의 문화유적·민속·전통예술 축제의 생명은 정체성과 재미이다. 따라서 문화유적·민속·전통예술의 각 유산이 가지고 있는 원형콘텐츠에 정체성이 있는 킬러콘텐츠의 대표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활용하면서, 관련 소재들과 연계한 소규모의 부대행사를 활성화시킨다.

□ 교육 및 체험형의 행사프로그램과 문화유산 축제해설사 운영

문화유산의 문화유적·민속·전통예술과 관련된 축제와 이벤트, 경영대회 등은 공연과 전시 등의 부대행사가 많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축제장의 부대행사에서 교육과 체험형의 전시나

유적지 방문프로그램은 축제의 해설사가 함께 할 때 축제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게 하는 양념적 요소이기 때문에 교육 및 체험형 행사프로그램의 확대와 축제아카데미 등을 통해 양성되는 축제해설사 등을 통해 문화유산축제의 방문율을 높여야 하겠다.

목 차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2.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연구범위	4
2) 연구방법	5
3. 연구 접근개념과 연구 흐름도	7
4. 선행연구와 차별성	8

제2장 문화유산 관련 이론고찰과 활용 정책의 검토

1.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10
1) 문화유산의 개념	10
2) 한국 문화유산의 정의와 영역	11
3) 문화유산의 분류	13
4) 문화유산관광의 개념과 속성	15
2. 지역축제와 문화유산과의 관계	18
1) 축제의 개념과 기능	18
2) 축제의 관광상품화와 전제조건	19
3) 전통민속축제의 활성화 요소	22
4) 문화유산과 연계한 전통축제 연구대상	27
3. 문화유산 관련 정책의 검토	27

1) 문화유산 활용의 추세	27
2) 문화재 활용정책 방향	29
3) 문화재 정책 중장기 비전 ; 문화유산 2011	30
4. 이론고찰과 정책분석의 시사점	31
1) 이론고찰의 시사점	31
2) 중앙정부 정책검토의 시사점	33

제3장 충남 문화유산자원의 키워드와 지역축제 활용실태 분석

1. 분석의 방법	35
1) 분석의 틀	35
2) 분석방법	36
2. 충남 문화유산 자원의 키워드 분석	37
1) 충남의 지정문화재 현황	37
2) 문화유적의 키워드 분석	39
3) 민속자원의 키워드 분석	58
4) 전통예술의 키워드 분석	67
5)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자원 키워드 분석	77
3. 문화유산의 지역축제 활용실태 분석	79
1) 지역축제 개최현황	79
2) 2010 세계대백제전 메가이벤트 개최 현황분석	82
3) 충남의 문화유산 관련 축제 개최 실태	89
4. 소결 및 활용과제의 도출	96
1) 충남 문화유산 키워드 분석의 시사점	96
2) 문화유산 관련 지역축제 활용 실태분석의 시사점	103
3) 활용과제의 도출	107

제4장 충남 문화유산의 전통축제 육성방안

1. 접근 틀과 기본방향	110
1) 접근 틀	110
2) 기본방향	111
2. 문화유산의 전통축제 육성전략	112
1) 충남 문화유산의 메가이벤트 육성과 축제프로그램 다각화	112
2) 유형·지역별 유사축제의 통합과 타 행사와의 연계성 강화	113
3) 기존 축제주관방식 개선과 협력 네트워크체계 구축	114
4) 현대적 콘텐츠 융·복합을 통한 축제 부대행사의 활성화	116
3. 문화유산과 연계한 지역축제의 육성방안	117
1) 충남 문화유산의 메가이벤트 육성과 축제프로그램의 다각화	117
2) 유형·지역별 유사축제의 통합과 타 행사와의 연계성 강화	122
3) 기존 축제주관방식 개선과 협력 네트워크체계 구축	129
4) 현대적 콘텐츠 융·복합을 통한 축제 부대행사의 활성화	132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134
1) 요약 및 종합정리	134
2) 정책제언	140
2. 향후 연구과제	142

참고 문헌	143
-------------	-----

부록 1	145
------------	-----

부록 2	147
------------	-----

부록 3	219
------------	-----

표 목 차

[표 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표 2] 세계유산의 분류	11
[표 3] 민속문화유산의 종류	12
[표 4] 유형별 문화유산 분류	14
[표 5] 문화유산관광의 유형	16
[표 6] 유산관광자원의 매력 구성요소	17
[표 7] 민속축제의 관광상품개발 전제조건	21
[표 8] 문화유산과 전통축제 연구대상	27
[표 9] 문화재 활용정책의 목표	30
[표 10] 분석의 틀	35
[표 11] 충남 문화유산 키워드 분석의 개요	36
[표 12] 전국 및 충남 문화재 현황	38
[표 13] 충남 시군별 문화재 분포현황(2014년 기준)	38
[표 14] 문화유적 키워드 검색 결과(상위 10개)	39
[표 15] 문화유적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40
[표 16] 선사유적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41
[표 17] 분묘유적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원삼국백제, 고려시대)	42
[표 18] 분묘유적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조선시대, 대한제국)	43
[표 19] 관방유적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도성과 읍성)	44
[표 20] 관방유적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진성과 산성)	45
[표 21] 불교유적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목조건축)	46
[표 22] 불교유적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사지)	47
[표 23] 불교유적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탑)	48
[표 24] 불교유적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석등)	49
[표 25] 불교유적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기타)	50

[표 26] 향교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51
[표 27] 서원·사우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53
[표 28] 고건축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55
[표 29] 민속마을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56
[표 30] 고서와 고문서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57
[표 31] 민속자원 키워드 검색 결과(상위 10개)	58
[표 32] 민속자원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59
[표 33] 일생의례와 세시풍속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60
[표 34] 민간신앙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63
[표 35] 어업생산풍속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64
[표 36] 농업생산풍속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64
[표 37] 의식주 생활풍속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65
[표 38] 기타 민속자원의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66
[표 39] 전통예술 키워드 검색 결과(상위 10개)	67
[표 40] 전통예술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68
[표 41] 백제음악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69
[표 42] 조선음악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70
[표 43] 고려시대 전통회화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70
[표 44] 조선시대 전통회화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71
[표 45] 전통회화 불화의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72
[표 46] 서예의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73
[표 47] 철기금동·유리공예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74
[표 48] 직물·초·석공예의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75
[표 49] 전통조각의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76
[표 50] 전통무용의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77
[표 51] 백제유적지구 지역별 키워드검색 결과	78
[표 52] 전국 관광축제현황(2015년 기준)	80
[표 5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충남지정 추이	80
[표 54] 충남 지역별 축제(2015년 기준)	81

[표 55] 2010 세계대백제전 수상공연 분석	86
[표 56] 세계대백제전을 통한 백제문화의 이해도 분석	87
[표 57] 충남의 지역축제 현황(2015년)	90
[표 58] 충남의 문화유산 관련 축제 현황(2015년)	91
[표 59] 충남의 문화유산 관련 축제의 계절별 개최 현황(2015년)	92
[표 60] 문화유적 키워드 검색과 축제 연계성	93
[표 61] 민속자원 키워드 검색과 축제 연계성	94
[표 62] 전통예술 키워드 검색과 축제 연계성	95
[표 63] 축제프로그램 다각화 방안	122
[표 64] 문화체육관광부 전통공연예술행사지원(2013년 기준)	125
[표 65] 공공주도형 전환 축제	129
[표 66] 민간주도형 전환 축제	130
[표 67] 지역문화예술기관 주도 축제	131

그림 목 차

[그림 1] 분야별 주요 연구내용	5
[그림 2] 연구내용별 연구방법	6
[그림 3] 연구 접근개념과 연구 흐름도	7
[그림 4] 문화유산관광의 개념도	15
[그림 5] 전통민속축제의 이용활성화 관련요소	22
[그림 6] 전통민속축제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모델	24
[그림 7] 전통민속축제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상호관련요소	25
[그림 9] 역사문화자원 지수[그림 8] 문화유산의 순환구조	29
[그림 10] 문화유적 시기별 키워드 검색 비교(상위 10개)	71
[그림 11] 민속자원 시기별 키워드 검색 비교(상위 10개)	105
[그림 12] 전통예술 시기별 키워드 검색 비교(상위 10개)	134
[그림 13] 공주의 백제역사유적지구	146
[그림 14] 부여와 익산의 백제역사유적지구	149
[그림 15] 백제역사유적지구 시기별 검색빈도	151
[그림 16] 지역관광축제지수	152
[그림 17] 세계대백제전 수상공연	157
[그림 18] 2010 세계대백제전 각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	158
[그림 19] 2010 세계대백제전 주요 프로그램 분석	159
[그림 20] 백제문화단지 백제체험프로그램 운영	161
[그림 21] 세계대백제전 부여 백제역사문화행렬	161
[그림 22] 세계대백제전 수상공연	162
[그림 23] 충남 문화유산 키워드와 축제실태 분석을 통한 활용과제 도출	182
[그림 24] 접근 틀	183
[그림 25] 충남 문화유산의 전통축제 육성 기본방향	184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 및 활용으로 자원화 필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삶의 공간과 같이 다른 여행지역에도 그 동안에 문화재로서 발굴되어 보존되었으며 잠재력을 가진 가치 있는 문화유산은 지역별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문화재 보호정책은 문화재 보존에 대한 당위성에 중점을 둠으로써 문화재 활용을 통한 경제적 효용과 지역자원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효과적으로 창출하는 데는 인식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문화재와 문화유적은 주로 교육적·문화적 자원으로 활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문화자원을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가진 자원으로 재인식함으로써 이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활성화 시키려는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자원의 활용방법과 실천 등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보존과 상충되거나 지나친 상업적 활용으로 문화자원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문화재청, 2007. 이창근, 2013)

(2) 최근 인문학 중심 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 사업 강화

21세기에는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각국의 생존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국의 전통 문화유산을 국제사회에 보급·선양하여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문화관광부,

2004. 이창근, 2013).

특히,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문화가 있는 삶을 위하여 나라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구현을 위하여 문화유산 보존·활용 및 한국문화 진흥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유산은 우리 문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천으로서 다양한 문화적 가치의 창조, 변형, 확산, 융합의 근간이라 할 수 있으며(문화재청, 2007), 이는 현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문학 중심 전통문화의 융복합 관광자원화 사업이기도 하다.

(3) 국가 문화유산 활용사업과 연계한 전통축제 육성 등 사업의 다각화 필요

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한 정책적 논의는 2002년 수립된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02-2011)'에서 시작되었고, 이를 발전시켜 2007년 수립된 '문화재 정책 중장기 비전 문화유산 2011'에서 더욱 구체화 되었다.

2007년 문화재 활용정책의 개념과 추진전략에 대한 지침서로 '문화재활용가이드북'이 발간되어 문화재 활용을 위한 원리를 비롯하여 교육, 관광, 문화기술, 문화산업의 분야별로 문화유산 활용사례가 소개되어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활용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2012년 문화재청에서 고시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2012-2016)'에 그 전략 과제와 실행계획이 담겨져 있다. 특히, 문화재 활용은 다양하고 품격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고유성을 대표하는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한 필요가 있다(권석주, 2009. 이창근, 2013). 이에 따라 충남에서도 국가 문화유산 활용사업과 연계하여 보존 및 관리뿐만 아니라 활용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4) 충남에는 많은 문화재를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 있으나 활용성은 미흡

충남의 지정문화재는 2013년 기준 총 939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228점, 도지정문화재 402점, 문화재자료 309점이 지정되어 보존·관리되고 있다. 2012년 기준 충남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국비 190억원, 지방비 147억원, 기타 4억원 총 34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내에 분포하고 있는 총 135건의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를 보수·정비하였다.

문화재의 보수정비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문화재의 원형 보존 및 지속적 유지·관리를 위한 올바른 지식이다. 문화재를 바로 알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운동으로서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운동 및 '문화재 상시관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사라져 가는 무형 문화유산을 보존계승 및 활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조교의 전승지원금 지원과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전승장비 등) 지원 등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안정적인 전승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형문화재 보존관리와 병행하여 사라져 가는 무형의 전통 문화유산을 온전히 계승·발전시켜 전통문화를 선양하고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지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문화행사 및 지역 향토축제시 무형문화재의 공개(시연)행사를 실시하여 옛 문화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후대에 계승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충청남도, 2013).

이상과 같이 충남에서는 문화재를 지정하여 보존·관리를 하면서 지역 향토축제시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시연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전통축제의 활성화는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이다.

(5) 충남의 문화유산을 전통축제로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의 구체화 필요

충남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는 2014년에 총 95건이며, 이 중 전통축제는 21건으로 전체축제 비중의 22.1%를 차지하여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통축제 21건 중 인물과 관련된 축제가 8건으로 가장 많고, 역사유적 축제도 8건, 민속 및 공연은 5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 들 중에는 공주·부여의 백제문화제와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홍성역사인물축제, 예산 옛이야기축제, 서천한산모시문화제, 서동연꽃축제 등과 같이 문화관광축제 및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개최되고 있다.

반면에 짚풀문화제와 류방택 별 축제, 삼길포 독살체험축제, 칠갑장승문화축제, 윤봉길문화축제 등은 소규모의 지역축제로 개최되고 있어 전통축제로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더불어 또 다른 형태로 추사추모전국회호대회, 박동진판소리 명창·명고대회와 같은 경연형 축제, 기지시줄다리기와 계룡산산신제, 당진 안섬풍어당군 등 민속놀이와 제의 형태의 축제는 성격과 목적에 적합한 이벤트형 축제로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의 문화유산 중에서 전통축제와 연계하여 활용하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의 정체성이 있으면서 보존의 가치와 활용성이 높은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전통축제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에 문화유산에서 전통축제와 연계가 가능한 문화유적, 민속, 전통예술 자원을 자료화하여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 활용 자료로 제시

둘째, 충남 문화유산 명칭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활용성이 높은 축제소재를 제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기존 축제로의 활용실태를 분석하여 활성화의 과제를 도출

셋째, 도출된 과제를 바탕으로 충남 문화유산의 전통축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 육성 방안을 제시하여 정책자료로 활용코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전 지역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시간적 범위로는 2014년을 분석의 기준연도로 하고, 통계자료 분석은 문화유산 및 지역축제와 관련된 최근 10여년 간의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대상은 문화유적과 민속, 전통예술 등 충남도지에서 분류하고 있는 세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내용은 크게 문화유산 관련 이론 고찰과 관련 정책의 검토, 충남의 문화유산의 현황 및 키워드 분석과 과제도출, 충남 문화유산의 전통축제 육성 과제와 전략, 활성화 방안 등이다.

첫째, 문화유산 이론 고찰과 관련 정책의 검토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지역축제와 문화유산과의 관계, 문화유산 관련 정책의 검토, 이론고찰과 정책·사례분석의 시사점 등을 살펴본다.

둘째, 충남 문화유산자원의 키워드와 지역축제 활용실태 분석은 분석의 방법, 충남 문화유산자원의 키워드 분석, 문화유산의 지역축제 활용실태 분석, 소결 및 활용과제의 도출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충남 문화유산의 전통축제 육성방안은 접근틀과 기본방향 제시, 문화유산의 전통축제 육성전략, 문화유산과 연계한 지역축제의 육성방안 등을 제시한다.

이론연구	활용실태 분석	정책제안
이론고찰과 활용정책의 검토	충남 문화유산 키워드와 지역 축제 활용실태 분석	충남 문화유산 전통축제 육성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 지역축제의 문화유산과 관계 - 문화유산 관련 정책의 검토 - 분석의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의 방법 - 충남문화유산자원의 키워드분석 - 문화유산의 지역축제 활용실태 - 소결 및 활용과제의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 틀과 기본방향 - 문화유산의 전통축제 육성전략 - 문화유산과 연계한 지역축제의 육성방안

(그림 1) 분야별 주요 연구내용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① 이론연구 및 문헌고찰, ② 정책 및 추진사업 분석, ③ 충남 문화유산 키워드 분석, ④ 연구심의회 침 자문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1) 이론연구 및 문헌고찰

문화유산 관련 이론 고찰과 정책의 검토는 문헌조사로 문화유산 및 지역축제 관련 논문 및 정책보고서 등과 통계 및 정책자료는 통계자료 및 문화유산 관련 정책보고서, 조사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하였다.

(2) 문화유산과 연계한 축제 개최 실태 분석

충남 문화유산 및 지역축제 정책과 추진사업 분석은 통계와 행정내부자료로 충남의 문화유산 및 지역축제 정책 및 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충남 문화유산 및 지역축제 지원사업 현황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3) 문화유산의 키워드 분석

충남의 문화유산 현황 자료를 컴퓨터와 모바일을 이용하는 키워드의 빈도수를 검색하는 데이터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심의회 및 연구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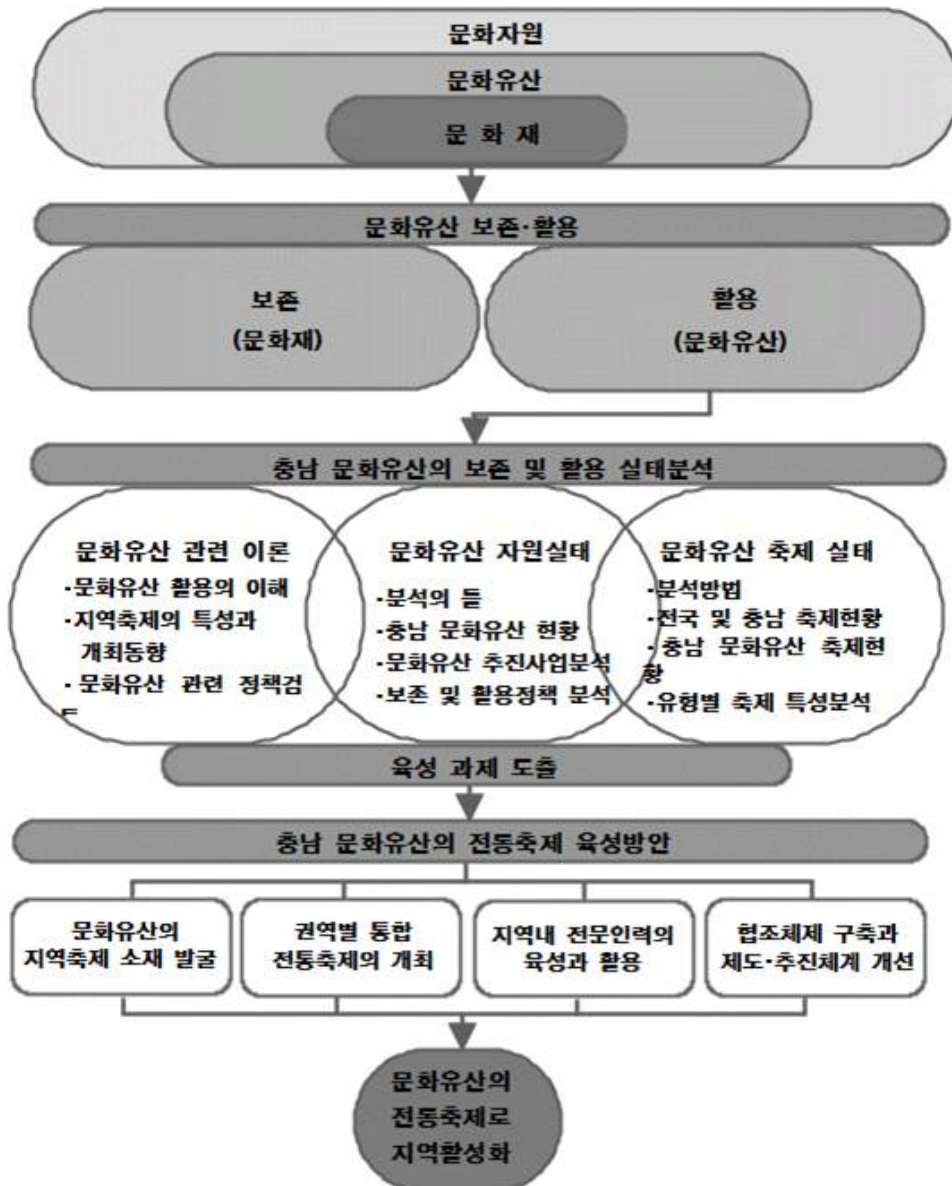
연심회 및 자문을 통해 충남 문화유산의 전통축제 육성을 위한 과제 도출과 충남 문화유산의 전통축제 육성방안의 기본방향을 정리하였다.

연구내용	연구방법
문화유산 관련 이론 고찰과 정책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논문과 정책보고서 등 문헌조사 - 통계자료, 조사연구보고서 등 정책자료 - 착수연심회 연구방향 설정
충남 문화유산 및 지역축제 정책과 유산현황과 키워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자료 및 행정내부자료 분석 - 키워드 분석
충남 문화유산의 전통축제 육성을 위한 과제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자문 - 전통축제 관련 담당자 인터뷰
충남 문화유산의 전통축제 육성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연심회 의견수렴 및 정책대안 발굴

[그림 2] 연구내용별 연구방법

3. 연구 접근개념과 연구 흐름도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접근개념과 연구흐름의 연구수행체계에 대한 개념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3) 연구 접근개념과 연구 흐름도

4. 선행연구와 차별성

문화유산의 활용에 관한 연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화유산 향유 및 실태조사와 문화재 정책 중장기 비전 ‘문화비전 2011 계획’ 등 실태조사와 정책 수립을 위한 계획이 이루어졌다. 학술연구로는 문화유산관광지와 체험마케팅, 궁궐과 종묘 등 문화유산의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산업 활성화 방안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표 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 차별성			
	과제명	연구 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문화유산관광지 방문동기 및 만족도 차이연구	문화유산 관광지 만족도 및 재방문의도 검증	문헌연구 설문분석 검증	문화유산관광 개념, 방문동기 및 만족도, 재방문의도, 선행연구, 만족도와 재방문의도 설문분석 검증
	문화유산관광지 체험마케팅이 방문객 만족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고궁 체험마케팅 만족도 와 영향요인 분석, 행동의도 영향 규명	문헌연구 설문분석 검증	문화유산관광 및 체험관광마케팅, 만족도와 행동의도, 체험마케팅과 만족도 및 행동의도 관계 가설 검증
	문화유산을 활용한 테마파크형박물관에 관한 연구	문화유산 유적지 개발사례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문헌연구 사례분석	문화유산활용과 테마파크박물관 이론, 현황 및 사례, 디자인적용 제시
	궁궐·종묘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활성화방안	문화유산을 활용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 제시	문헌연구 심층인터뷰	문화유산 활용 이론고찰, 활용현황분석, 심층인터뷰 결과분석, 관광활성화 방안 제시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연구	고고학축제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방안 제시	문헌연구 사례분석	문화유산활용과 지역축제의 이해, 지역축제 사례분석, 문화유산 연계 활성화 방안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산업 진흥방향과 실행방안 도출	문헌연구 사례분석	문화유산 활용이론과 국내외 사례분석, 활성화의 추진과제, 실행방안
본 연구		문화유산 활용과 지역축제 관련요소분석, 문화유산 연계한 전통축제 육상 방안을 정책자료로 활용	문헌연구, 키워드분석	문화유산 관련 이론과 정책, 충남 문화유산 지역축제 활용실태분석, 키워드분석, 전통축제 육성방안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문헌연구와 통계 및 설문분석에 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고,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유형화에 의한 활용으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 연구는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전통축제와 관련한 요소를 선정하여 이와 이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분석틀을 설정하고, 이들의 상호 관련 요소에 대하여 키워드와 활용실태분석을 통해 정책과제 도출과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제2장 문화유산 관련 이론고찰과 활용 정책의 검토

1.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1) 문화유산의 개념

문화유산(文化遺産, Cultural Heritage)이라 함은 각국이 보존하고 있는 문화자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귀중한 유물이나 정신적·물질적 문화양식을 말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성, 민족성, 지역성 등에 기반을 둔 독창적이고 유일무이한 문화요소가 함축되어 있으므로 각국에서는 이를 보존·유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김경화, 2014).

문화유산에 대한 개념은 각국의 역사 및 문화적 전통과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므로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시기별로도 차이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유산은 유형문화유산(有形文化遺産)과 무형문화유산(無形文化遺産)으로 구분되고 있다.

문화유산을 설명하는 용어로 한국과 일본에서는 문화재(文化財), 중국에서는 문물(文物), 타이완에서는 문화자산(文化資產), 북한에서는 문화유물(文化遺物)이라고 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이를 문화자원(Cultural resource)이라고 칭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1972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에 의한 정의에서는 '유산(heritage)을 인간에 의해 만들어져 전해 내려오는 풍습, 철학, 가치, 민족, 문학 등의 문화

유산(cultural heritage)과 산, 바다, 동식물, 자연 공원과 같은 아름다운 자연유산(nature heritage), 그리고 자연유산에 인간의 손길이 가해진 복합유산(mixed heritage)으로 분류하고 있다(왕퇴, 2013).

〔표 2〕 세계유산의 분류

유형	분 류
문화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적 : 역사와 예술, 과학적인 관점에서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 비명(碑銘), 동굴생활의 흔적, 고고학적 특징을 지닌 건축물, 조각, 그림이나 이들의 복합물 · 건축물 : 건축술이나 그 동질성, 주변경관으로 역사, 과학, 예술적 관점에서 세계적 가치를 지닌 독립적 건물이나 연속된 건물 · 장소 : 인간 작업의 소산물이나 인간과 자연의 공동 노력의 소산물, 역사적, 심미적, 민족학적, 인류학적 관점에서 세계적 가치를 지닌 고고학적 장소를 포함한 지역
자연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물체들로 이루어진 자연의 기념물로 미적, 과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 · 과학, 보존, 자연미의 시각에서 볼 때 가치를 정확히 드러내 주는 자연지역이나 자연 유적지 · 자연미 관점에서 탁월한 세계적 가치를 지닌 점이나 구체적으로 지어진 자연지역
복합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

자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http://www.unesco.or.kr>.

2) 한국 문화유산의 정의와 영역

한국에서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와 문화유산과의 관계를 보면 문화재가 갖는 문화적 가치는 일정한 규정과 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는 객관적 실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개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가치를 모두 수용한 것은 아니다.

문화유산의 문화적 가치는 시간의 추이에 따라 혹은 개인과 단체의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 될 수 있다. 문화재에서 제정한 제도와 법은 이와 같이 가치를 한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므로 '문화유산'의 범주는 '문화재'보다 훨씬 넓다고 하겠다.

문화유산이란 문화재를 포함하여 향후 문화재로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들을 포함하며, 또한 문화재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개인 각자가 느끼는 가치있는 자료들은 모두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문화유산 중에는 좋은 자산들이 이미 생활 속에 속하여 긴 역사 속에 전승되어 왔으나 문화재의 가치면에서 생활 속에 일반화 되어버려 새삼스럽게 보존전승을 운운할 필요가 없는 유산들도 많다.

[표 3] 민속문화유산의 종류

구 분		내 용
유형	복식장신구	목걸이, 귀걸이, 팔찌,가락지, 곡옥 등 옥장식, 띠와 허리장식, 관모, 빗, 비녀, 떨잠, 뒷꽃이, 쓰개, 노리개, 주머니, 버선, 신, 단추, 보, 흥배, 기타 옷에 나타난 장신문양 등
	무 기	칼과 칼자루, 창, 화살, 말장신구, 갑옷, 갑주
	건 축	사찰, 고궁, 사대문, 벽화, 기와, 온돌, 문·하, 꽃창살, 단청 등
	농 기 구	괭이, 호미, 쟁기, 낫, 삽 등
	이동수단	가마, 수레, 말
	예 술 품	도자기, 민화, 벽화, 고지도
	생 활 품	한지, 한복, 한옥, 가구, 문방사우, 주방기구
	한국의 자연	태안, 달, 구름, 별, 꽃, 나무, 바위, 파도 등
무형	의 레	종묘제례, 통과의례, 궁중의례 및 제례 의례에 사용하는 물품
	춤 / 공연	농악춤, 탈춤, 소리춤, 교방춤, 궁중춤, 굿춤, 불교춤, 유교춤
	노 래	향악, 당악, 아악, 제례악, 연례악, 민간음악
	공예기술	장승공예, 솟대공예, 박공예, 한지탈공예, 화각공예, 나전칠공예, 채화칠기공예, 한지공예, 지승공예, 매듭공예, 죽공예, 자수공예, 도자공예, 목공예, 초경공예, 칠보공예, 유지공예, 염색공예 등
	민간신앙	무속, 도깨비
	무 술	태권도, 합기도, 택견, 해동검도, 수박도, 선무도(불교무술), 기천문(산중무예), 경당, 화랑도, 검무도 등
	놀 이	투호, 강강술래, 고싸움, 구슬치기, 널뛰기, 딱지치기, 제기차기, 차전놀이, 자치기, 줄다리기, 팽이치기, 연날리기, 씨름, 윷놀이, 공기놀이, 닭싸움 등

자료 : 김경화(2014), 기후온난화에 대비한 한국문화유산을 활용한 쿨 비즈니스웨어 개발,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들도 분명히 한국의 문화유산이며 디자인 활용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좋은 모티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생활 속에 깊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일괄하여 '민속문화유산'으로 명명하고 이들을 다시 유·무형으로 구분하여 제시되고 있다.

민속문화유산의 대상은 문화유산과 마찬가지로 고대로부터 인위적으로 형성되어 온 고분, 회화, 종교자료, 조각, 도자, 금속, 건축, 석조, 민속공예 등이 해당되며, 춤, 노래, 놀이 등 한국인의 애환과 함께 존재해 왔던 한국의 자연 등도 해당된다고 하겠다(김경화,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문화유산의 영역은 일정한 규정과 제도에 의해 심의와 절차를 거친 객관적 실체의 문화재를 포함하여 개인의 주관적 가치기준에 의해 자료가치가 인정되는 문화자산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영역으로는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인 전통축제의 육성방안과 연

계할 수 있는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문화재와 세계문화유산, 유·무형의 전통축제 素材資源을 대상으로 한다.

3) 문화유산의 분류

문화재를 영어로는 문화재(cultural properties) 또는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문화적 가치를 지닌 산물이나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하고 있다. 유형문화재는 건조물,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말한다.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기념물은 사지·고분·패총·성지·궁지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경승지로서 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 그리고 동·식물·광물들 중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고 있다.

민속자료는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을 말한다. 또한 지정주체에 따라 국가 지정문화재, 시·도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로 구분한다.

또한, 지정여부에 따라 지정문화재와 일반 동산문화재·매장문화재 등의 비지정문화재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리고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등록문화재가 있다(문화재청, 2011).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분류 기준에 따르면 문화재는 크게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구분되며 등록문화재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다시 국보와 보물인 유형문화재와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인 기념물, 중용무형문화재와 중요민속문화재로 구분된다(이창근, 2013).

[표 4] 유형별 문화유산 분류

구 분	유 형	종류	내 용
국가지정문화재	유 형 문화재	국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보물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기념물	사적	기념물중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사회사업·분묘·비 등으로서 중요한 것
		명승	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천연기념물	기념물 중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질·광물로서 중요한 것
	중요무형문화재		연극, 무용, 음악,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무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것
	중요민속문화재		의식주·생산·생업·교통·운수·통신·교역·사회생활·신앙·민속·예능·오락·유희 등으로서 중요한 것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시도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시도기념물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 학술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예술상, 관광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광물, 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시도민속문화재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문화재자료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지칭함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 다만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음.	

자료 : 문화재청(2012),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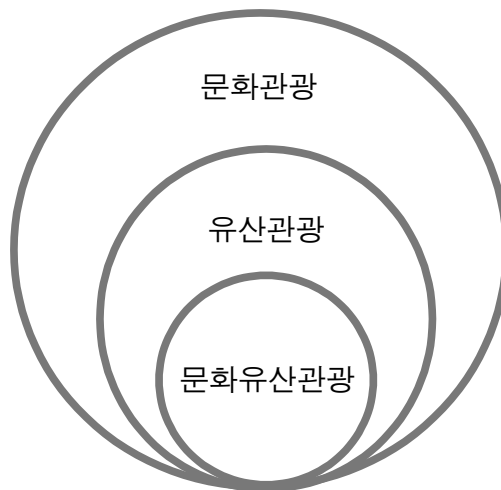
4) 문화유산관광의 개념과 속성

문화관광이란 지역의 자연적 또는 문화적 경관지역의 볼거리 대상, 사람, 이벤트, 그리고 역사적 이야기에 대해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 방문객의 거주지로부터 목적지인 관광지로 방문하는 것을 뜻한다.

문화유산관광(Cultural heritage tourism)은 역사적 유산을 지니고 있는 인류의 문화유산을 답사하는 관광이다.(장경수, 2001; 한미영 2010). 문화관광은 역사문화기행, 영화, 축제, 이벤트, 미술관 관광 등 다양한 문화를 소재로 한 관광을 문화관광이라 한다(왕퇴, 2013).

문화유산관광은 현대인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특별 관심관광(SIT : Special Interest Tourism)의 한 유형으로 각광 받고 있고 점차 증가하고 있다. 유산관광은 유산의 종류에 따라서 구별하고 있으며, 크게 문화관광에 포함되고 문화유산관광은 유산관광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문화유산관광이 탈근대적인 신개념의 관광형태라는 점에서 문화유산관광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과거의 것을 관광자의 요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이를 다시 관광상품화 한 것이라 할 수 있다.(한숙영, 2005; 호지, 2012; 왕퇴, 2013).



자료 : 김지선·이훈(2009), 문화유산관광으로서 고궁관광
평가, 관광·레저연구, 22(5).

〔그림 4〕 문화유산관광의 개념도

문화유산관광은 인간이 만들어낸 건축물과 역사유적 등의 유산으로 교육적 가치를 지니며, 이곳을 방문한 사람은 과거에 대하여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 역사유적을 찾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문화유산관광은 계절이나 공간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기 때문에 관광을 확대하는 잠재력을 갖고 있어 관광의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다. 동시에 관광방문객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유산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다(왕뢰, 2013)고 말하고 있다.

문화유산관광은 문화적 가치를 활용하여 관광상품화 한 것으로서 문화유산 보존에 이바지하고 해당 지역에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가져다주며 방문객들에게는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 및 매력을 경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지선·이훈, 2009).

이러한 문화유산관광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이정아, 2014) 분류되고 있다.

[표 5] 문화유산관광의 유형

유형	특 징	사 례
문화유적 관광	유·무형의 문화적 유적을 관광하면서 민속의 우수성과 민족의 자긍심 회복	왕릉, 고궁, 매장문화재, 민속자료
민속예술 관광	타민족과 다른 민족 예술적 성격 특화	종묘제례악, 하회별신굿, 무당춤, 전통축제
역사교육 관광	특정 분야에 대한 배움의 욕구 충족	유교, 불교문화연구, 풍수지리연구
전통생활 체험관광	타민족과 다른 전통적 생활 재현을 체험	전통민속마을 관광
종교, 성지순례	종교발생지, 순교지, 종교적인 의의가 깊은 곳 순례	종교발생지, 종교박해현장, 순교지

자료 : 전명숙(2005), 문화유적지의 관광자원화 특성에 관한 연구: 경주와 교토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6(1).

문화유산관광은 역사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유적 또는 유물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으로 일반 관광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황병춘, 2008). 문화유산관광지와 일반관광지가 다르게 갖고 있는 매력 중 하나는 시간적으로 과거라는 역사성과 공간적으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장소성, 내용적으로 유산과 관련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한국관광공사,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2008) 자원의 활용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문화유산관광의 속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Garrod & Fyall(2000)은 유산관광자원의

매력요소로 보존(Conservation), 접근성(Accessibility), 교육성(Education), 관련성(Relevance), 오락성(Recreation), 재정(Financial),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 품질(Quality) 등 8가지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다(이정아, 2014). 이에 따라 문화유산의 매력요소를 고려한 자원의 활용이 필요한 것이다.

[표 6] 유산관광자원의 매력 구성요소

구성요소	내 용
보존 (Conservation)	유산관리자의 역할은 후대를 위해 유산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현세대가 전체 국가를 위해 보존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현 세대에 맞게 너무 개량을 하는 행위는 지양하여야함.
접근성 (Accessibility)	유산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중요함. 유산을 경험하고자 하는데, 접근성 저해를 받는다면 유산이 한 부분으로 더 이상 인식할 수 없음. 그러나, 접근성이 너무 좋으면 유산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유산 보호를 위해 가능한 유산을 보호 할 수 있는 제반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함.
교육성 (Education)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제반 교육이 필요함. 방문객들은 소중한 유산을 보유하는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왜 이러한 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지, 보존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교육 형태로 전달받는 것이 필요함
관련성 (Relevance)	유산 매력에 인식하고 유산을 좋아하는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 국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함. 유산 매력성은 지역사회 공동체에게 유산이 보존된 장소와 이 유산을 보존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신감을 고취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오락성 (Recreation)	유산 매력도의 일부분으로서 방문객들에게 오락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왜냐 하면, 방문객이 유산을 방문 했을 때 적절한 오락성을 향유함으로써, 향후 제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생성해 줌
재정 (Financial)	유산을 보호 유지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건전성이 필요함. 재정적인 건전성은 입장료 수입뿐만 아니라 유산 보호 유지를 위한 외부의 재정도움이 필수임.
지역공동체 (Local Community)	유산 매력성은 공동체와 조화가 필요함. 방문객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공동체의 비용만으로 충당해서는 안 됨.
품질 (Quality)	다양한 다른 관광상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유산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고품질의 서비스는 다양한 취락시설, 유연성, 잘 훈련된 스템들, 그리고 고객 수에 맞는 주차시설 등, 입장료를 받는 유산이라면 고객의 기대수준을 능가하는 서비스가 필요함.

자료 : Garrod, B., & Fyall, A.(2000). 이정아(2014), 문화유산관광지 체험마케팅이 방문객 만족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우송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재인용.

2. 지역축제와 문화유산과의 관계

1) 축제의 개념과 기능

축제는 우리의 전통문화제의 일종으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가꾸어야 할 소산이고 그러한 점에서 축제의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축제의 테마들은 주로 역사적 문화적 특성과 가치가 있는 부분과의 관련성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고원규, 1992)이라 말하고 있다.

결국 축제는 전통과 맥을 같이 함으로써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며 선대의 관습, 사고, 기술 등의 계승과 인수이고 현재성 속에 재발견 또는 창조되어 간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갖는 것이다. 또한 환경을 같이하는 속에서 형성, 성장된 생활의 결과이고 그들이 속해있는 자연적 환경과 역사적, 사회적 환경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가운데 신앙과 지혜로 엮어낸 생활풍속을 의미한다고 할 때 축제란 전통성과 문화성에 바탕을 둔 것(조남진, 1997)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이 가변성, 특수성, 고유성, 현재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때, 전통문화로서의 축제는 한 사회나 사회적 집단을 특징짓는 현저한 정신적, 물질적, 감성적, 지적인 것의 총체적인 복합물로서 예술과 문학을 포함한 생활방식, 인간의 기본권리, 가치체계, 전통 및 신앙을 포함하며, 민족이나 특정지역의 주민이 공감하는 유형·무형의 현상 일체라 할 수 있다(Donald Gets, 1991)고 말하고 있다.

반면, 그 동안에 축제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사회전반에 고조되어 있었지만 아직도 정확한 통일된 개념이 성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한 예로 축제가 향토축제, 지방문화제, 종합예술제 등으로 혼동되어 불리어 지고 있어(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4)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축제를 의미론적으로 접근하여 개념정의를 한다면, 협의적 의미로 지역과의 역사적인 상관성속에서 생성되어 전승된 향토의 고유하고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행사화한 것이라 정의하고, 광의적 의미로는 이 행사 외에 문화제, 예술제, 민속예술경연대회 등 문화행사전반적인 것(조남진, 1997)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축제는 역사·사회·문화의 산물이기에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축제가 본래의 제 생명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생활모습을 찾

아 볼 수 있다. 축제의 현대적 기능으로는, 첫째 원초 제의성의 보존, 둘째 향토민의 일체감, 셋째 전통문화의 보존, 넷째 경제적 의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적 의의를 들고 있어(장주근, 1982) 이를 고려한 문화유산의 축제로서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축제의 관광상품화와 전제조건

관광상품이란 “문화적인 동기를 가진 관광객의 욕구 대상이 되고 관광행동을 만족시키는 가치를 지닌 문화유적, 민족예술, 종교성지, 전통적인 생활상과 민속 문화 등 유·무형의 모든 문화적 상품을 관광하는 것”(김봉규, 1997)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광상품에는 축제도 포함되고 있으며, 축제의 관광상품개발은 오늘날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람들은 정신적 풍요로움을 갖기 위해 단순히 보고 즐기고 소유하는 즐거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탐구, 그리고 대상물에 대해 알고 이해하고자 하는 지적욕구의 충족을 갈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민속, 문화, 음악, 예의, 무용, 신앙 등이 복합된 지방의 축제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현대인들에게 신선하고 흥미로운 소재라 볼 수 있다(김정옥, 1997)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축제를 관광상품화하자는 것은 단순히 축제를 관광상품으로 판매하여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뜻이 아니라, 우선은 내국인에게 알리고 보이며, 설명하여 우리의 전통민속과 문화의 참모습과 가치를 재인식하게 하고, 다음은 외국이나 외국인들에게 오랜 역사와 전통문화를 보다 널리 알리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각 지방 축제의 고유한 전통과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길이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다 같이 관심과 협력을 하는 것이다. 축제의 관광상품화 실시는 축제를 실시하는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간 문화적 시각차이를 극복하게 함은 물론, 국민관광과 문화교육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나아가서는 국가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문화선진국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각 지방에 산재하는 모든 민속축제는 각기 나름대로 훌륭하고 고유한 문화적·제의적·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해당지역의 오랜 전통과 관습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민속축제의 관광상품화는 민속축제 자체를 상품화한다는 뜻이 아니며, 과거 조상의 영혼과 숨결이 배어있는 민속축제 자체를 영구히 보존, 계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속축제의 관광상품화란 조상의 훌륭한 민속축제를 마음껏 자랑하고 그 귀중함과 가치를 표현하는 각종 행사에 보다 많은 내·외국인들이 참관하게 하여 행사전·후에 축제 해당지역의 풍물과 관광지, 문화예술의 명소 등을 두루 선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주변여건에 맞는 민속축제 행사를 선정한다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나, 이를 관광상품화차원의 시각에서 검토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사항이 전제조건을 제시 할 수 있다.

- 첫째, 관광상품의 본질적 측면에서 관광객의 기본욕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관광객들의 욕구는 다양하므로 잠재적인 다양한 욕구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충족시켜주는 시장세분화(최혜경, 1994)작업이 필요하다. 즉, 관광활동의 패턴은 각 개인마다 상이한데 그것은 흥미, 기술, 지식, 욕구만족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이광득, 1991). 그래서 여기에 맞는 동적·정적인 다양한 상품이 요구되는데 동적인 민속축제는 즐거움과 흥미감을 줄 수 있으며 정적인 민속축제는 독특한 분위기를 창출하며 여행을 촉진시키고 생기있게 해주며 관광지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고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불어 넣어준다(표성수, 1996)고 말하고 있다.
- 둘째, 규모측면에서는 먼저 행사를 대규모로 할 것인가 아니면 소규모로 할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대규모로 할 경우에는 많은 비용과 인원이 필요하며 소규모로 할 경우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 셋째, 관광기반시설 확충이다. 여기서 민속축제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접근성과 숙박시설이다. 이에 따라 교통시설과 교통편 및 식당시설 등 관광기반이 양호해야 한다.
- 넷째, 다른 지역과의 연계성 및 편의시설 확보이다. 단일 문화행사를 보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은 많지 않다. 많은 관광상품화 대상 행사들이 지방에서 개최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인근 관광지와 연계는 관광객들의 체제일수를 연장시키고 그 지역의 음식점, 휴게소, 유흥오락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하게 하여 그 지역의 소비액을 증대시켜 지역과급 효과 및 기존관광지와 문화행사에 각각 더 높은 참가율을 가져오게 한다(한국관광공사, 1995)는 것이다.

[표 7] 민속축제의 관광상품개발 전제조건

구 분	내 용
① 관광상품의 본질 측면	· 관광객들의 기본욕구에 부응 - 즐거움과 흥분감, 신비감 - 동적·정적인 다양한 상품 마련
② 규모적 측면	· 대규모축제 - 규모나 내용도 방대 - 관람객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에 기여
③ 관광기반시설 확충	· 접근성 용이 - 물리적접근 : 도로 및 교통수단의 편리 - 심리적접근 : 홍보 및 마케팅의 전개 - 숙박시설 : 특급호텔, 중·저가 숙박시설의 확충
④ 다른 지역과 연계성 및 편의시설 확보	· 관광객의 체제기간 연장유도 - 주변지역의 관광지와 음식점, 휴게소, 유흥오락시설 등 각종편의시설을 이용
⑤ 적절한 개최시기	· 양호한 기후조건을 선택 - 기후가 가장 좋은 봄 5월과 가을 10월경에 개최
⑥ 지역파급 및 이윤효과 고려	· 지역파급효과 분석 - 수익성의 효과, 각종 사회단체나 기업체에서는 홍보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상품 개발 - 여행업에서는 관광객을 모집 알선이윤 추구

자료 : 장영주(1996), 지방자치단체 이벤트사업의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다섯째 적절한 개최시기이다. 기후조건이 가장 좋은 5월과 10월경이 좋으나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비수기 돌파구의 한 방법으로 여름과 겨울에 분산시키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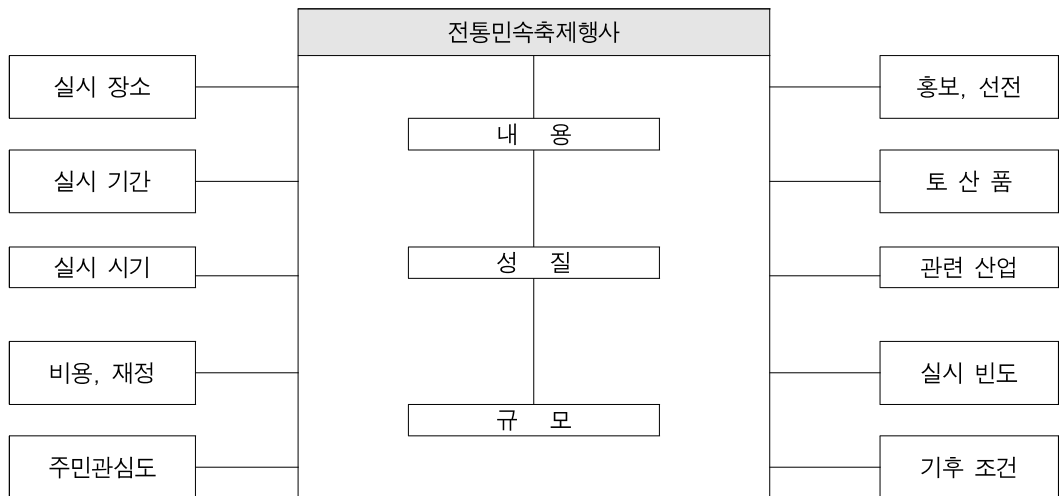
- 마지막으로 이윤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행사를 유치하는 목적은 지역 주민의 공동체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 먼저 지역주민의 공동체육성이란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귀속감을 높이며, 지역활동의 참가를 촉진시키고 지역의 구심점과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여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란 경제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지역의 관광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역홍보를 목적으로 지역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이(장영주, 1996)라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민속축제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을 고려한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축제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활성화 요소를 찾아서 활용과 연계되어야 한다.

3) 전통민속축제의 활성화 요소

문화유산의 전통축제 육성과 관련된 지역의 전통민속축제행사는 지역실정에 맞게 접근해야 하는데, 행사의 내용, 성질, 규모 등도 중요하며, 전통민속축제 이용활성화 관련 요소는 직접, 간접요소들이 작용하게 된다.

이는 전통민속축제의 행사를 관광산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모델설정에 기반이 되는 것으로, 특히 개최일정에 있어서 농번기와의 관계, 기상조건 등은 커다란 변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료 : 김홍운(1986), '한국의 지방민속문화행사를 관광상품화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 논문집.

〔그림 5〕 전통민속축제의 이용활성화 관련 요소

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전통민속축제행사를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상위변수로는 그 지방 지역사회의 풍토적 조건 즉, 자연적 조건과 역사적 조건, 그리고 사회적 조건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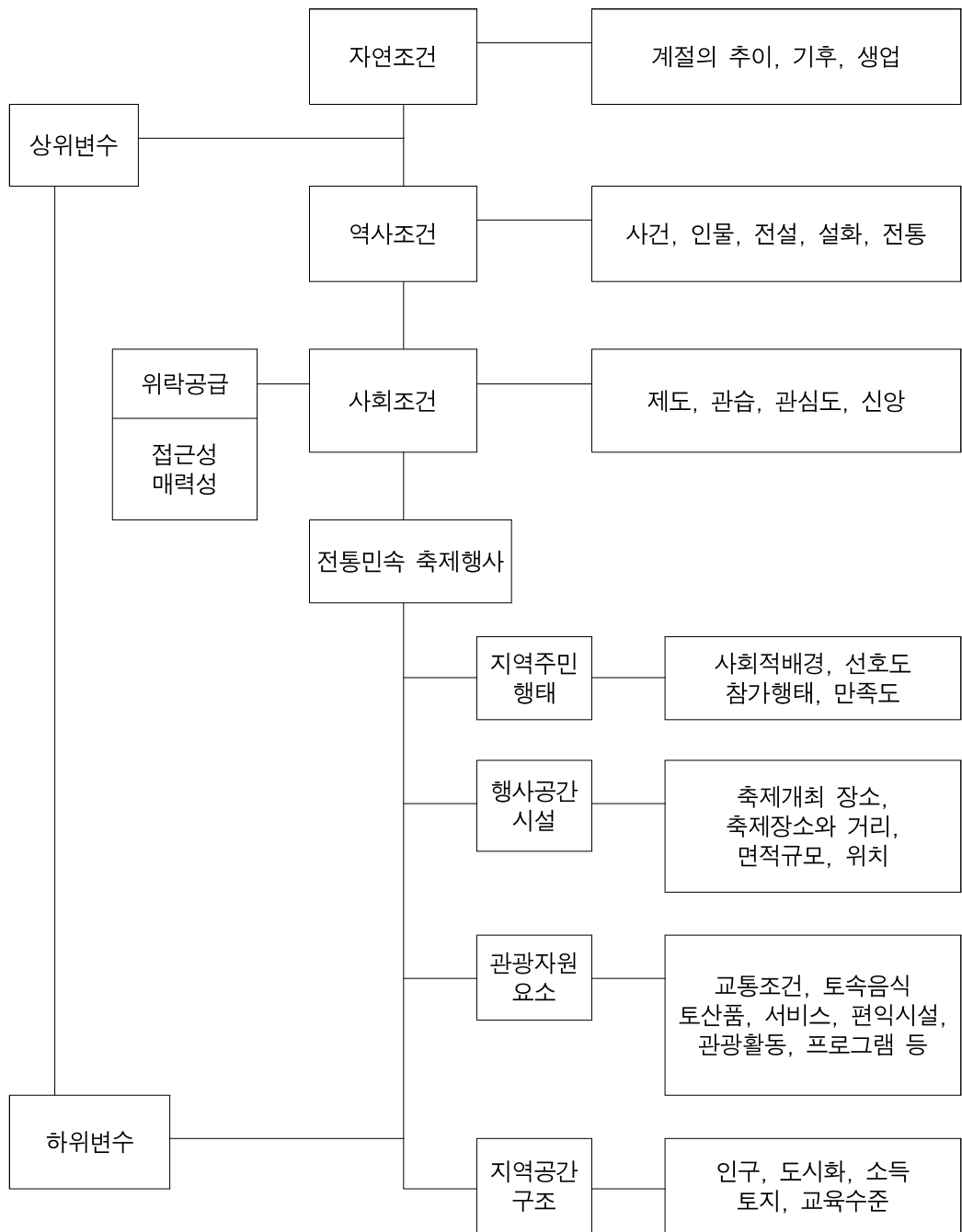
- 첫째, 자연적 조건으로, 그 지방의 음식물, 가옥구조, 복장, 생업, 신앙, 계절의 추이 등으로 이는 기본적인 생활에 영향을 끼쳐서 전통민속축제 행사의 전반에 크게 기여한다.
- 둘째, 역사적 조건으로, 그 지역에 전통적인 축제행사가 있다면 가급적 원형을 살리면서

또한 근대적인 건전한 놀이문화적 요소를 가미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행해지지 않는 지방에는 역사적 사건, 인물, 전설, 풍속 등을 개발해도 좋고 이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 셋째, 사회적 조건으로, 사회성숙에서 민속이 정착하고 민속 속에서 인간성이 형성되고 (임동권, 1984), 전달되어 지역의 사회적 요청에 따라 민속놀이나 전통민속축제행사 등이 변모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지역사회는 문화의 다양성과 사회적 관습, 도덕 그리고 가치관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문화적 측면에서 그 내용의 개인적, 집단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므로(권오훈·이철, 1983)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 문화적 실상을 정확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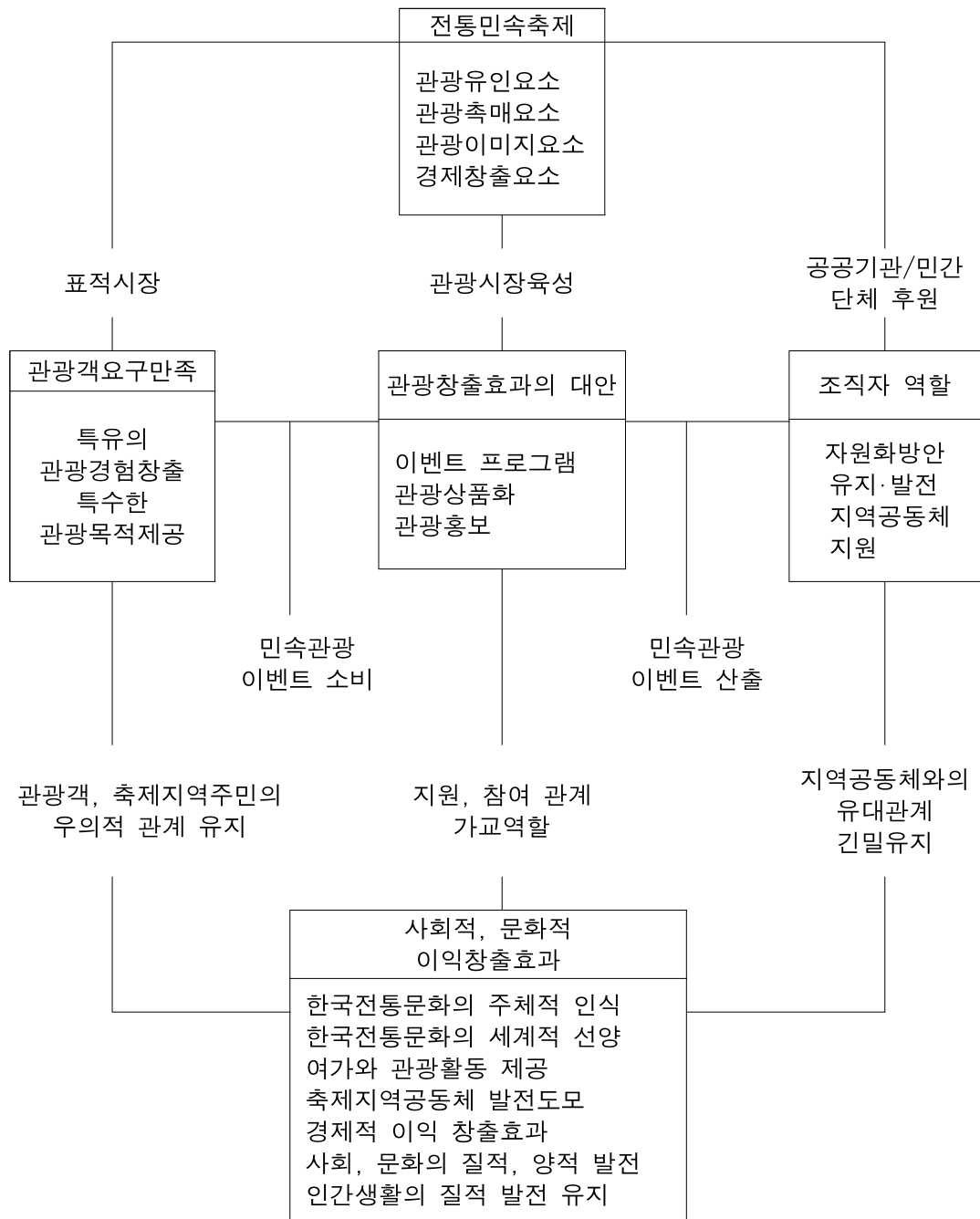
이상의 3가지 조건, 즉 자연적, 역사적, 사회적 조건들을 상위개념으로 두고 지역주민의 사회적 배경이나 만족도, 참가와 관람 행태 등을 요소로 하는 지역주민의 행태와 행사를 실시하는데 따른 시설이나 휴식이나 운동, 교양, 편익을 주는 자원요소와 지역의 공간구조 등을 하위개념을 포함하는데 세부 내용은 4가지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연구는 [그림 6]과 같다.

- 첫째, 지역주민의 행태로는 지역사회의 배경과 주민의 선호도, 참가행태, 축제에 대한 참여 만족도 등이다.
- 둘째, 행사공간과 시설과 관련해서는 축제의 개최가 가능한 공간, 축제장소와의 거리, 면적규모, 위치 등이다.
- 셋째, 관광자원 요소로서는 교통조건과 토속음식, 토속품, 서비스, 관광편의시설, 관광활동과 프로그램 등이다.
- 넷째, 지역공간 구조와 관련해서는 축제의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구와 도시화, 소득수준, 토지, 교육수준 등이다.



자료 : 김홍운(1986), 상계서

〔그림 6〕 전통민속축제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모델



자료 : 김홍운(1986), 상계서

(그림 7) 전통민속축제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상호관련 요소

김홍운(1986)은 전통민속축제를 관광자원으로 이용활성화 하는데 구체적인 요소로는 관광유인요소, 관광촉매요소, 관광이미지요소, 관광경제창출요소 등을 상위변수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하위변수를 관광표적시장, 관광시장 육성방안,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후원 등을 하위변수로 두어 사회적, 문화적 배경의 이익창출효과를 궁극적 목표로 설정([그림 7] 참조)한다고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관광활성화를 위한 전통민속축제의 구체적 요소로는 관광유인요소, 관광촉매요소, 관광이미지요소 등을 갖추었을 때에 수행해야 하며, 거시적 방안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첫째, 관광객 요구 만족도를 제고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특유의 관광경험 창출과 특수한 관광목적 제공이 관광표적시장에 나타나야 한다.
- 둘째, 관광창출효과의 대안으로 이벤트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관광상품화와 관광홍보가 아울러 수행되어야 한다.
- 셋째, 관광자원으로 이용활성화하기 위한 조직자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활성화방안과 전통민속축제 행사의 유지, 발전 및 지역공동체 지원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의 후원이 요구된다.

이러한 전통민속축제 행사의 관광활성화를 통해 지역에서는 사회적, 문화적인 이익창출효과를 얻게 된다. 그리고 이는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주체적 인식과 세계적 선양, 여가 및 관광활동의 제공, 축제지역공동체 발전도모, 경제적 이익창출, 사회문화 발전, 인간생활의 질적 발전 등을 포함하는 거시적인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김홍운, 1986)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문화유산과 연계한 전통축제가 관광상품화를 통하여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광상품개발의 전제조건에서부터 이용활성화를 위한 관련요소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더불어 전통축제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모델과 관련해서는 자연, 역사, 사회조건과 연계된 상위변수와 지역주민행태, 행사공간시설, 관광자원요소, 지역공간구조 등과 연계된 하위변수 등이 구체적 변수로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전통축제가 관광자원으로 자리를 잡고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유인과 촉매요소, 관광이미지 요소, 지역이익창출요소 등과 연계한 상호 관련 요소들의 관계가 적용되어야 한다.

4) 문화유산과 연계한 전통축제 연구대상

이상과 같이 살펴본 이론 고찰에서 정리될 수 있는 문화유산과 연계한 전통축제의 연구대상은 다음과 같다.

- 문화유산은 세계문화유산과 유무형의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중 축제소재로서 양호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 전통축제는 역사인물 축제와 유물·유적축제, 민속공연과 제의와 관련된 축제를 대상으로 한다.
- 본 연구에서는 문화유산과 전통축제를 연계하여 국제규모행사와 소규모지역축제, 민속·공연이벤트로 구분하여 연구대상으로 한다.

[표 8] 문화유산과 전통축제 연구대상

문화유산 대상	전통축제 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문화유산 • 유·무형 지정문화재 • 축제소재 문화유산(비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적축제 • 민속축제 • 전통예술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규모행사 • 국가 및 소규모 지역축제 • 민속·공연이벤트 (규모와 주체, 콘텐츠)

3. 문화유산 관련 정책의 검토

1) 문화유산 활용의 추세

문화유산 활용이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활용(application)의 사전적 의미는 ‘본래 그것이 지닌 능력이나 기능을 잘 살려 사용하는 행위’라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유산은 한 민족 또는 국가에 의해 구축된 문화적인 유산으로서 그 민족의 정체성과 개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원천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그 나라의 문화재가 그 대상 자체뿐만 아니라 대상물의 주변 환경까지 확대되는 추세이다.

즉, 문화유물의 점(點) 단위가 아니라 그 주변 환경까지 포괄하는 면(面)단위로 확장되었으며 개발과 보존의 합리적인 조성을 위한 문화유산 영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문화유산은 다양한 문화상품, 영상자료, 문화콘텐츠 개발 등의 문화산업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크며 현실적으로 문화유산 활용은 종래 국가의 영역에서 벗어나 대중 참여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문화유산의 향유권은 국민스스로 문화유산을 알고 배우고 느끼는 권리를 누린다는 적극적인 의미까지 확대되어야 하므로 국가가 관리하는 데는 예산과 인력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계되는 대중 참여가 힘이 된다.

따라서 문화유산 활용은 ‘문화재 보존의 적극적인 개념’으로 문화재 활용이 보존을 전제한다는 의미로서 보존을 전제로 하되 보존에 머물지 않고 그 가치와 기능 또는 능력을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문화유산 정책은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체계적인 관리’, ‘문화재의 효율적인 활용’ 등 크게 2가지로 요약되며, 이를 위해 문화유산이 대중에게 친숙하고 생명력이 살아 있는 핵심적인 역사·문화·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반면, 문화유산의 원형보존과 체계적인 관리에 무게를 둔 종래의 정책기조로 인해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활용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오늘날 문화유산이 대부분 박물관의 유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며, 그 배경에는 그 동안의 문화유산정책이 모든 문화유산을 보존 제일주의라는 하나의 잣대로 바라보는 획일적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왔기 때문으로 주장하고 있다.

문화유산은 유일무이한 희소성 등으로 보존위주의 정책이 불가피하지만 그 유형의 특성과 보존·관리 상태에 따라 박물관 전시, 자연 노출전시, 축제 등 문화유산의 보편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비전과 목표, 그리고 실용적이며 창조적 차원에서 새로운 문화유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문화유산의 활용은 크게 조사·발굴·연구의 생산단계와 복원·보존·관리 등의 보존관리단계, 그리고 활용·분석이라는 활용단계라는 3가지 순환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결국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이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순환구조 속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함(2011, 정원기)을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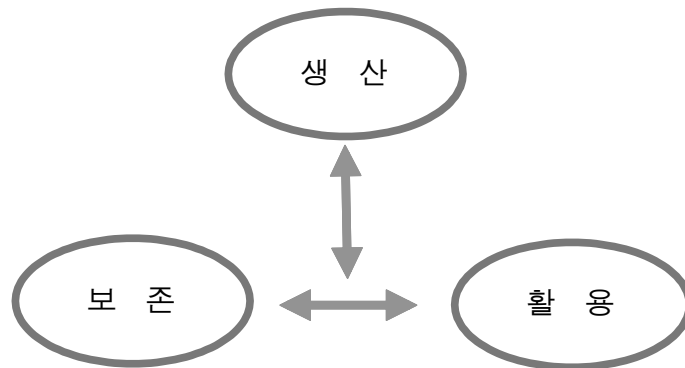
2) 문화재 활용정책 방향

중앙정부에서는 1999년 5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 관리국이 ‘문화재청’으로 개편되었고, 2004년에 ‘차관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정책 수립 등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기능과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2005년에는 ‘문화재활용과’를 설치하여 문화재 보존위주의 정책에서 문화재 활용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문화재 활용을 주관하는 담당과를 국가기관에서 설치한다는 의미는 그 분야의 국가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문화재의 종별 가치와 성격에 따라 현저한 차이는 있다.

이를 고려한 활용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의 활용정책은 크게 조선왕궁의 관광자원화, 문화유적의 관광자원화, 문화관광의 상품화 지원, 문화재안내관 정비, 문화재전시관 건립 등으로 구분(도중필, 2009)되고 있다.

이러한 단계에서 문화재 활용정책의 가장 큰 과제는 정책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단기·중기·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지만 이에 앞서 문화재 활용정책 목표는 국가적 차원, 지역적 차원, 개인적 차원에서 국민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필요(문화재청, 2006)하다고 볼 수 있다.



자료 : 정원기(2011),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그림 8〕 문화유산의 순환구조

문화재 활용정책은 기본적으로 보존과 관리를 거쳐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문화재의 유형 가운데 활용이 오히려 보존과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사

제도 확인되고 있어 문화재의 성격을 고려하여 보존형태와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문화재청 활용정책지침에서 추진한 사업은 문화재 활용가이드북 제작 배포, 문화유산 관광해설 콘테스트 개최, 어린이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콘테스트, 문화유산 디지털콘텐츠 공모전,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전시회 등(정원기, 2011)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표 9] 문화재 활용정책의 목표

구 분	정 책 목 표
국가적 차원	민족문화의 재발견과 가치창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적 차원	지역문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메니티 실현
개인적 차원	문화재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제고

자료 : 문화재청(2006), 문화재 활용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연구.

3) 문화재 정책 중장기 비전 ; 문화유산 2011

문화유산 2011(문화재청, 2007)에서는 정책방향을 성장동력 및 잠재력 확충, 미래지향적 보존체계 확립, 협력적 소통확대, 가치 활용 활성화 등 4가지 제시하고 있다. 이 중 가치 활용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문화유산 관련 인문학적 기반확충, 문화산업 차원의 문화유산 활용전략 개발, 문화유산 활용기준 정립 등으로 향후 문화유산 활용을 위해서는 ‘가치활용 활성화(Cultivation)’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중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4대 핵심과제와 12개 정책과제, 그리고 58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특히, ‘가치활용 활성화(Cultivation)’와 관련해서는 3개 정책과제와 13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정책목표 등 네 번째 핵심과제인 ‘가치활용 활성화(Cultivation)’는 문화유산의 내재적 가치 발굴과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광 및 산업자원화 등 활용사업을 활성화 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3대 정책과제 중 첫 번째는 현대적 가치 창출이다. 이를 위한 세부추진과제로는 문화유산활용기반 구축, 궁궐의 핵심 관광자원화, 지역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문화콘텐츠 및 관광상품 개발, 문화유산 가치활용 저변확대 등을 포함

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국민 문화향유권 신장으로, 세부추진과제는 문화유산 접근성 제고, 문화유적지 관람환경 개선, 문화유산 전시기능 강화, 문화유산 체험기회 확대 등이다.

세 번째 교육 및 홍보강화는 문화유산 교육과정 확대, 문화유산 교육 전문교사 인증제 도입,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유산 홍보 강화 등(문화재청, 2007)으로 지역축제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추진과제는 없이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4. 이론고찰과 정책분석의 시사점

1) 이론고찰의 시사점

(1) 문화유산 활용성을 높여 현대적 가치의 이용성 제고

문화유산은 세계 각국이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정신적·물질적 문화양식으로 역사성, 민족성, 지역성 등에 기반을 두고 있어 지역에 독창성과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의 문화유산 중에는 이미 활용을 통해 생활 속에 스며들거나 긴 역사 속에 전승되어 가치면에서 현대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반면, 문화유산은 보존과 전승을 전제로 하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이를 일상생활 속에 현대적으로 이용가치를 높이는 것은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화유산의 활용 대상은 과거로부터 인위적으로 형성되어 온 고분, 회화, 종교자료, 조각, 도자기, 금속, 건축, 석조, 민속공예 등의 역사유적이 해당되며, 춤, 노래, 민속놀이 등 전통예술 등이 현대적으로 이용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2) 문화유산의 유형별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와 연계

문화유산관광은 우리의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 역사문화기행, 영화, 축제, 이벤트, 박물관 관광 등 다양한 문화를 소재로 하여 현대인들의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관광이다. 이러한 문화유산관광은 유산의 종류에 따라서 규명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을 관광자의 요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관광자원화를 하고 이를 다시 관광상품화 한 것

이다. 이에 따라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는 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것으로 문화유산 보존에 이바지하고 해당 지역에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가져다준다. 그리고 방문객들에게 문화유산의 가치와 매력을 경험을 하게 하여 문화유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방문토록 하는 유인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관광지는 일반관광지와 다르게 시간적으로 과거라는 역사성과 공간적으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장소성에 의해 특별한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어 자원의 활용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문화유산의 관광자원 매력요소를 고려한 활용방향 설정

문화유산관광에서 유산관광자원의 매력요소로는 보존(Conservation), 접근성(Accessibility), 교육성(Education), 관련성(Relevance), 오락성(Recreation), 재정(Financial),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 품질(Quality) 등 8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유산을 전통축제와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산의 보존성은 물론, 접근성과 많은 사람 및 지역공동체 등과의 관련성, 방문객들에게 재미를 주는 오락성, 유산의 보존뿐만 아니라 활용을 위한 재정과 유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공동체와 조화, 마지막으로 다른 관광상품과 경쟁에서 앞서기 위하여 고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다양한 매력요소를 고려한 활용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4) 축제의 관광상품화 전제조건을 고려한 활용 시도

축제의 관광상품화를 위해서는 관광상품의 본질측면, 행사규모, 관광기반시설, 다른 지역과 연계성 및 편의시설 확보, 적절한 개최시기, 지역파급효과 등의 전제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을 전통축제화하기 위해서는 실시장소, 실시기간, 실시시기, 비용 및 재정, 주민관심도, 홍보 및 선정, 토산품, 관련 산업, 실시빈도, 기후 조건 등이 커다란 변수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또한 고려의 대상이다.

문화유산을 전통축제로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상위변수로는 그 지방 지역사회의 풍토적 조건 즉, 자연적 조건과 역사적 조건, 그리고 사회적 조건 등이 있으며, 하위변수로는 지역주민의 행태, 행사 공간 및 시설, 관광자원요소, 지역 공간 구조 등을 고려한 활용이 시도

되어야 한다.

(5) 문화유산의 전통축제 육성을 위한 상호 관련요소 적용

이상의 문화유산의 관광자원의 매력요소와 축제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전제조건 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전통축제 육성을 위한 상호 관련 요소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요소로는 관광유인요소, 관광축매요소, 관광이미지요소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들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방문객의 표적시장과 관광시장의 육성, 공공 및 민간단체 후원, 방문객과 지역주민과의 우의적 관계 유지, 지원과 참여 관계의 가교역할, 지역공동체와의 유대관계의 긴밀한 유지가 상호 관련요소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또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중앙정부 정책검토의 시사점

(1) 최근 문화유산의 활용 추세를 고려한 접근 시도

최근 문화유산은 다양한 문화상품, 영상자료, 문화콘텐츠 개발 등의 문화산업으로 활용되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나아가 문화유산 활용은 ‘문화재 보존의 적극적인 개념’에 머물지 않고 그 가치와 기능 또는 능력을 다방면에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동안 문화유산이 대부분 박물관의 유물로 인식되는 경향이었으나 이제는 그 유형의 특성과 보존·관리 상태에 따라 박물관 전시, 자연 노출전시, 축제 등 문화유산의 보편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비전과 목표, 그리고 실용적이며 창조적 차원에서 새로운 문화유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제는 문화유산의 활용은 크게 조사·발굴·연구의 생산단계와 복원·보존·관리 등의 보존관리단계, 그리고 활용·분석이라는 활용단계라는 3가지 순환구조를 갖고 있어 이러한 추세를 고려한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

(2) 기존 보존 중심에서 활용으로 전환되는 문화재 활용정책과 연계

중앙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문화재화용과를 설치하여 기존 문화재의 보존위주 정책에서 활용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의 활용은 종별 가치와 성격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른 문화재청의 활용정책은 크게 조선왕궁의 관광자원화, 문화유적의 관광자원화,

문화관광의 상품화 지원, 문화재안내판 정비, 문화재전시관 건립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문화재청 활용정책지침으로 문화재 활용 가이드북 제작 배포, 문화유산 관광해설 콘테스트 개최, 어린이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콘테스트,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전시회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문화재 활용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유산의 콘텐츠를 활용한 전통축제의 육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문화유산 2011의 문화재 가치활용 활성화 과제의 일환으로 사업 추진

문화유산 2011(문화재청, 2007)에서는 문화유산 ‘가치활용 활성화(Cultivation)’로 문화유산의 내재적 가치발굴과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광 및 산업자원화 등 활용사업을 활성화 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들 3대 정책과제로 첫 번째는 현대적 가치 창출로서, 문화유산활용기반 구축, 궁궐의 핵심 관광자원화, 지역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문화콘텐츠 및 관광상품 개발, 문화유산 가치 활용 저변 확대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문화유산의 전통축제와 관련된 사업은 지역문화유산 관광자원화와 문화콘텐츠 및 관광상품 개발, 문화유산 가치활용 저변확대 등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할 수 있다.

제3장 충남 문화유산자원의 키워드와 지역축제 활용실태 분석

1. 분석의 방법

1) 분석의 틀

본 분석은 충남의 문화유산에 대한 기초자료는 충청남도지의 문화유적편, 민속편, 전통예술편의 책자에 수록된 자원들을 엑셀자료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들 유산의 각 명칭으로 네이버의 PC와 모바일의 지난 1년간(2014. 11~2015. 10) 키워드 검색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충남의 축제 중에서 문화유산과 문화관광축제로 구분하고, 문화유산축제를 앞에서 데이터로 만들어진 문화유적, 민속, 전통예술 등으로 분류한 축제의 개최실태를 분석하였다. 다음단계로 문화유산 유형별 상위 10위내 키워드 검색자료와 3가지의 문화유산에서 다시 분류된 세부 자원유형별 상위검색 자원과 관련된 문화유산 축제의 개최 실태를 분석하였다.

〔표 10〕 분석의 틀

문화유산 자원 및 키워드 분석		문화유산 자원과 충남 축제 관련성 분석		분석의 종합 및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유적 민속 전통예술 세계문화유산 (충청남도지 D/B 구축) 	문화유산 유형별 키워드 분석 (네이버 키워드 2014. 11.1 -2015. 10.31 1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유산 유형별 키워드검색 -총괄 상위10위 -유형별 상위키워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유산 유형 계절 주관주체 시기성 개최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축제의 개선과제 도출 신규 축제의 발굴·육성 시사점 제시

2) 분석방법

어떠한 자원에 관련된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를 통한 이용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문화유산 자원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및 인지양상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관심도 및 인지도를 바탕으로 문화유산 자원의 활용정도를 정의해 볼 수 있다.

즉, 충남 문화유산 자원에 대한 키워드 검색이 많다는 것은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그 자원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와 인지도가 높다는 의미에서 그 자원에 대한 활용의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대중들의 관심 문화유산 키워드에 대한 관심은 과거 신문기사와 같은 언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최근에는 PC와 모바일의 포털사이트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본 분석에서는 네이버 검색포털을 이용한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방법은 네이버에 키워드 검색에서 PC와 모바일 검색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기간은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대중들이 검색된 키워드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다.

충남 문화유산의 키워드는 문화유적에서 7가지, 민속자원에서 4가지, 전통예술에서 6가지 세분된 유형의 개별 자원에 대한 명칭을 키워드로 하여 분석되었다.

〔표 11〕 충남 문화유산 키워드 분석의 개요

구 분	조사설계 내용
분석목적	• 충남문화유산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와 인지도 양상 분석
분석대상	• 충남의 문화유적, 민속자원, 전통예술 등 개별자원
분석방법	• 네이버를 이용한 PC와 모바일의 키워드 데이터 검색수 분석
키워드 분석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사유적, 분묘유적, 관방유적, 불교유적, 유교유적, 고건축, 고서와 고문서 • 민속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생의례와 세시풍속, 민간신앙, 생산풍속, 의식주생활풍속 • 전통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음악, 전통회화, 서예, 전통공예, 전통조각, 전통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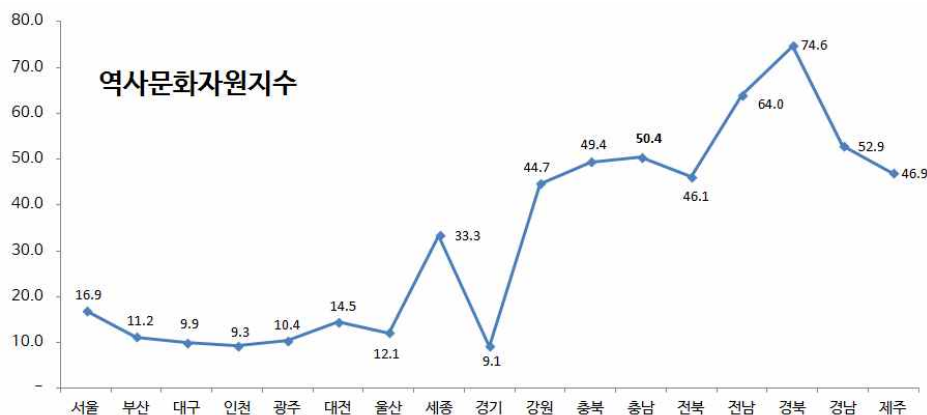
2. 충남 문화유산 자원의 키워드 분석

1) 충남의 지정문화재 현황

(1) 충남의 역사문화자원 현황

역사문화자원은 가치 있는 지역의 콘텐츠를 재생산하고 지역마다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발굴하여 다양한 관광수요에 부응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자원이다. 역사문화자원 지수는 인구 1,000명당 문화재수와 박물관수에 대한 지표를 나타낸다.

충남의 역사문화자원 지수는 50.4점으로 전국 평균인 32.7점을 상회하고 있으며, 도 평균인 48.9점을 상회하고 있어 경북(74.6점)과 전남(64.0점), 경남(52.9점)에 이어 충남(50.4점)이 네 번째의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주 : 역사문화자원 지수는 인구 1,000명당 문화재수와 박물관수에 대한 지표임

〔그림 9〕 역사문화자원 지수

충남의 문화재수는 2015년 3월 기준 국가지정문화재 236건, 시도지정문화재 735건, 등록문화재 46건으로 총 1,017건의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다. 이는 전국 문화재수 12,319건의 8.1% 수준이며, 경북(15.9%), 경남(13.9%), 서울(12.9%)에 이어 지정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표 12〕 전국 및 충남 문화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총계	지정 문화재 합계	국가지정 문화재									시·도지정 문화재					등록 문화재
			소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 기념 물	중요 무형	중요 민속	소계	유형 문화 재	무형 문화 재	기념 물	민속 문화 재	문화 재 자료	
전국	12,319	11,662	3,603	315	1,831	489	109	455	120	284	8,059	3,025	504	1,601	382	2,547	657
충남	996	947	218	27	97	49	3	15	3	24	729	183	46	160	27	313	49
(비중)	8.6	5.3	10.0	2.8	3.3	2.5	8.5	6.1	6.0	9.1	10.0	7.1	12.3	9.0	8.1	7.5	8.1

자료 : 문화재청(2015), 문화재(지정, 등록) 총괄 현황

(2) 시군별 지정문화재 분포 현황

충남에서 시군별 지정문화재의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부여군이 157건, 공주가 155건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백제문화권을 중심으로 문화재가 집중되고 있으며, 계룡이 8건, 태안 27건 등으로 낮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 13〕 충남 시군별 문화재 분포현황(2014년 기준)

(단위 : 건)

구 분	총계	지정 문화재 합계	국가지정 문화재									시·도지정 문화재						등록 문화재
			소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 기념 물	중요 무형	중요 민속	소계	유형 문화 재	무형 문화 재	기념 물	민속 문화 재	문화 재 자료		
합계	1,017	971	236	28	107	49	3	15	8	26	735	184	48	163	27	313	46	
천안	84	62	14	1	10	1		2	-	-	48	8	-	13	-	27	22	
공주	155	151	47	16	21	8	1	-	1	-	104	45	6	20	2	31	4	
보령	53	52	9	1	3	3	-	1	-	1	43	12	2	7	2	20	1	
아산	66	66	15	1	5	3	-	-	-	6	51	8	3	8	7	25	-	
서산	68	66	17	1	11	3	-	-	-	2	49	13	4	9	3	20	2	
논산	105	95	15	-	9	2	-	1	-	3	80	25	3	15	3	34	10	
계룡	8	8	-	-	-	-	-	-	-	-	8	1	1	1	1	4	-	
당진	34	34	9	-	4	1	-	1	2	1	25	3	1	13	1	7	-	
금산	42	41	5	-	1	1	-	2	1	-	36	8	3	5	-	20	1	
부여	157	154	53	4	19	21	1	2	1	5	101	24	6	27	-	44	3	
서천	39	39	9	-	3	2	-	1	2	1	30	1	6	8	-	15	-	
청양	36	36	10	2	8	-	-	-	-	-	26	6	3	4	4	9	-	
홍성	55	54	9	-	4	2	-	-	-	3	45	7	6	10	3	19	1	
예산	88	87	18	1	9	2	-	1	1	4	69	18	2	17	-	32	1	
태안	27	26	6	1	-	-	1	4	-	-	20	5	2	6	1	6	1	

자료 : 문화재청(2015), 문화재(지정, 등록) 총괄 현황

2) 문화유적의 키워드 분석

충청남도지 문화유적(2010)편에서는 선사유적과 분묘유적, 관방유적, 요지유적, 불교유적, 유교유적, 고건축, 고서와 고문서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유적별 기술 내용과 유적의 주요 현황을 중심으로 한 키워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 문화유적의 키워드 분석결과

충남 문화유적에 대한 키워드 검색 결과 가장 많은 검색이 이루어진 문화유적은 무령왕릉으로 지난 1년간 총 197,055건의 검색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으로는 해미읍성이 171,358건, 현충사 167,14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검색이 많이 이루어진 무령왕릉과 부소산성, 공산성, 정림사지 5층석탑 및 정림사지 등은 백제문화유적과 관련된 것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키워드 검색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문화유적 키워드 검색은 PC 보다는 모바일에서 많은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전통적인 인터넷 기반 검색이 PC에서 모바일로 이동함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표 14] 문화유적 키워드 검색 결과(상위 10개)

(단위 : 건)

순위	유적명	전체	PC	모바일	비고
1	무령왕릉(송산리고분군제7호분)	197,055	71,021	126,034	분묘유적
2	해미읍성	171,358	42,523	128,835	관방유적/읍성
3	현충사	167,149	44,969	122,180	유교유적/서원사우
4	외암민속마을	144,299	32,634	111,665	주거건축/마을
5	이충무공난중일기	116,042	46,713	69,329	고서와고문서/국보
6	부소산성	89,759	26,600	63,159	관방유적/도성
7	공산성	80,215	27,354	52,861	관방유적/도성
8	정림사지5층석탑	82,038	30,726	51,312	불교유적/탑
9	성주사지	31,730	8,098	23,632	불교유적/사지
10	정림사지	24,555	10,923	13,632	불교유적/사지

주 : 전체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1년 합계임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시기별 키워드를 살펴보면 유적별로 집중되는 시기가 각기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검색은 4월, 5월과 10월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해미읍성의 경우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기간인 2015년 10월에 검색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주사지의 경우 2015년 5월에 27,354건으로 키워드 검색이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시기는 KBS 1박2일 프로그램의 성주사지편 방영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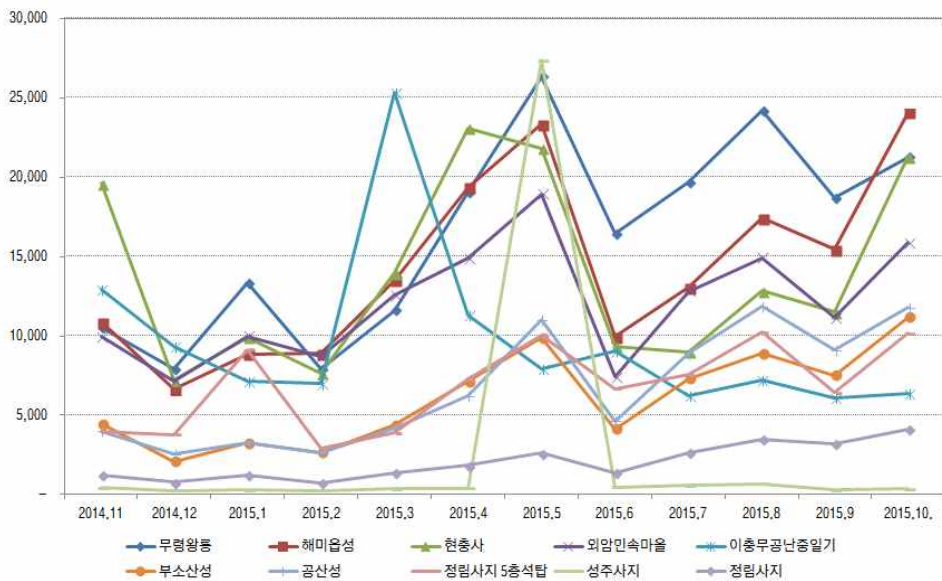
〔표 15〕 문화유적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단위 : 건)

순위	유적명	전체	2014년		201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	무령왕릉	197,055	10,547	7,889	13,316	7,935	11,617	19,075	26,347	16,442	19,712	24,204	18,697	21,274
2	해미읍성	171,358	10,866	6,643	8,854	8,876	13,501	19,348	23,333	9,954	13,044	17,431	15,451	24,057
3	현충사	167,149	19,590	7,195	9,924	7,672	13,955	23,062	21,808	9,343	9,000	12,823	11,499	21,278
4	외암민속마을	144,299	9,952	7,170	9,971	8,723	12,539	14,895	18,927	7,413	12,788	14,914	11,142	15,865
5	이충무공난중일기	116,042	12,949	9,315	7,173	7,027	25,310	11,291	7,923	9,071	6,234	7,249	6,110	6,390
6	공산성	80,215	4,004	2,540	3,279	2,647	4,202	6,241	11,023	4,627	8,907	11,851	9,087	11,807
7	정림사지 5층석탑	82,038	3,947	3,776	9,134	2,935	3,874	7,262	10,054	6,673	7,563	10,226	6,440	10,154
8	부소산성	72,899	4,443	2,096	3,273	2,646	4,388	7,132	9,894	4,141	7,310	8,889	7,514	11,173
9	성주사지	31,730	427	251	295	253	356	392	27,354	468	599	681	295	359
10	정림사지	24,555	1,209	773	1,242	713	1,347	1,834	2,608	1,380	2,660	3,471	3,223	4,095

주 : 전체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1년 합계임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그림 10〕 문화유적 시기별 키워드 검색 비교(상위 10개)

(2) 문화유적별 키워드 분석결과

① 선사유적

충남의 선사유적은 구석기시대에서부터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주요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다.

충남의 선사유적에 대한 키워드는 구석기시대에는 공주 석장리유적, 청동기 시대에는 천안 청당동 유적과 부여 송국리 유적, 초기철기시대에는 공주 수촌리와 보령관창리주거지의 키워드 검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석기시대 유적인 공주 석장리유적은 총 798건의 검색이 이루어졌으며, 석장리구석기축제가 4월에 개최됨에 따라 4월과 5월에 검색이 많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청동기시대 유적인 천안 청당동은 195건의 검색이 이루어졌으며, 부여의 송국리유적은 1,286건이 키워드로 검색되었으며, 석장리유적과 마찬가지로 송국리 청동기 문화체험축제가 개최되는 5월을 중심으로 검색이 이루어졌다. 초기철기시대 유적인 공주 수촌리 유적과 보령 관창리주거지는 각각 44건과 75건이 키워드로 검색되었다.

[표 16] 선사유적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구분		전체	2014년		201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구석기	공주석장리	798	47	29	46	22	44	124	145	67	63	61	56	94
	PC	501	40	23	29	12	29	77	72	48	36	43	38	54
	모바일	297	7	6	17	10	15	47	73	19	27	18	18	40
청동기	천안청당동	195	24	13	3	5	10	32	11	13	16	17	36	15
	PC	117	17	5	2	1	8	24	8	5	7	6	30	4
	모바일	78	7	8	1	4	2	8	3	8	9	11	6	11
	부여송국리	1,286	58	65	81	56	116	125	172	129	103	98	136	147
	PC	801	35	39	43	41	83	83	104	88	71	62	56	96
	모바일	485	23	26	38	15	33	42	68	41	32	36	80	51
초기 철기	공주수촌리	44	8	2	2	2	1	8	9	-	3	2	2	5
	PC	34	8	2	2	0	0	5	9	0	3	1	1	3
	모바일	10	0	0	0	2	1	3	0	0	0	1	1	2
	보령관창리 주거지	75	13	2	3	6	6	11	14	4	1	7	3	5
	PC	57	7	1	2	5	6	9	9	4	0	7	2	5
	모바일	18	6	1	1	1	0	2	5	0	1	0	1	0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② 분묘유적

분묘유적은 흙무덤, 돌무덤, 옹관무덤, 기타 무덤들과 원삼국 백제분묘에서부터 통일신라시대 분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대한제국기 이후의 분묘 등이 있다.

충남지역에 분포한 원삼국 백제 분묘는 송산리고분군 제7호분인 무령왕릉의 키워드 검색수가 197,055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송산리고분군 18,006건, 능산리고분군 14,293건, 정지산유적 883건, 수촌리 고분군이 5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백제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더불어 무령왕릉 등의 검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5월 이후에 검색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무령왕릉의 경우 세계유산 등재가 확정된 7월 이후의 검색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분묘인 견훤묘는 논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키워드검색이 40건으로 백제분묘에 비해 낮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표 17〕 분묘유적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원삼국백제, 고려시대)

구분		전체	2014년		201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원삼국 백제 분묘	능산리고분군	14,293	618	414	1,181	475	785	974	1,285	721	1,721	2,302	1,579	2,238
	PC	6,588	325	165	486	190	416	487	739	392	752	904	716	1,016
	모바일	7,705	293	249	695	285	369	487	546	329	969	1,398	863	1,222
	송산리고분군	18,006	661	507	932	601	904	1,055	2,137	937	2,389	2,875	2,104	2,904
	PC	6,864	273	204	298	171	347	435	866	431	907	934	849	1,149
	모바일	11,142	388	303	634	430	557	620	1,271	506	1,482	1,941	1,255	1,755
	무령왕릉	197,055	10,547	7,889	13,316	7,935	11,617	19,075	26,347	16,442	19,712	24,204	18,697	21,274
	PC	71,021	4,376	3,133	4,329	2,214	4,376	8,015	11,288	6,913	6,058	5,774	7,058	7,487
	모바일	126,034	6,171	4,756	8,987	5,721	7,241	11,060	15,059	9,529	13,654	18,430	11,639	13,787
	정지산유적	883	80	19	53	36	95	81	103	76	79	94	63	104
	PC	493	51	13	38	17	54	40	55	51	41	42	27	64
	모바일	390	29	6	15	19	41	41	48	25	38	52	36	40
	수촌리고분군	510	32	20	20	19	81	31	83	27	63	19	65	50
	PC	337	24	13	12	18	55	23	49	20	38	13	38	34
	모바일	173	8	7	8	1	26	8	34	7	25	6	27	16
고려 시대	견훤묘	40	1	2	2	9	5	6	1	5	3	1	2	3
	PC	32	1	1	2	7	4	6	1	3	2	1	2	2
	모바일	8	-	1	-	2	1	-	-	2	1	-	-	1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조선시대 이후 분묘에 대한 키워드 검색 빈도수를 살펴보면 예산군 덕산면에 위치한 남연군묘가 7,376건으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다. 남연군묘는 풍수지리적 조건을 갖춘 명당과 페르트 도굴사건 등의 이야기를 가진 문화유적으로서 흥미를 자극하는 요소를 갖추고 있어 검색빈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이충무공묘는 전체 1,433건의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성웅이순신축제가 개최되는 4월과 5월을 중심으로 검색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대한제국이후의 분묘의 검색 빈도수를 알아보면 김좌진장군묘에 대한 키워드 빈도수가 1,034건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김옥균 387건, 최익현 1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8] 분묘유적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조선시대, 대한제국)

구분		전체	2014년		201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조선 시대	송선군묘	149	27	9	11	4	16	7	7	10	20	5	22	11
	PC	77	18	8	4	3	7	2	2	4	13	4	8	4
	모바일	72	9	1	7	1	9	5	5	6	7	1	14	7
	영규대사묘	180	14	15	15	8	19	10	11	22	31	13	14	8
	PC	90	11	6	5	2	9	4	6	14	14	7	7	5
	모바일	90	3	9	10	6	10	6	5	8	17	6	7	3
	이광윤묘	93	4	4	4	11	17	3	7	13	4	9	10	7
	PC	34	2	2	2	2	2	3	2	8	1	4	2	4
	모바일	59	2	2	2	9	15	-	5	5	3	5	8	3
	전득우묘	21	-	-	2	2	1	5	3	2	1	2	3	-
	PC	14	-	-	2	-	1	2	2	2	1	1	3	-
	모바일	7	-	-	-	2	-	3	1	-	-	1	-	-
	이충무공묘	1,433	246	81	67	57	110	155	193	75	93	79	137	140
	PC	552	118	24	28	22	50	57	74	38	32	33	34	42
	모바일	881	128	57	39	35	60	98	119	37	61	46	103	98
	정충신묘	85	5	3	8	8	7	6	5	10	6	15	6	6
	PC	34	4	1	5	1	3	2	4	5	3	3	1	2
	모바일	51	1	2	3	7	4	4	1	5	3	12	5	4
	신자경선생묘	75	2	1	1	4	6	4	21	17	6	5	5	3
	PC	31	-	-	1	3	1	-	14	9	-	1	1	1
	모바일	44	2	1	-	1	5	4	7	8	6	4	4	2
	박문수묘	608	34	20	124	85	53	38	48	34	38	29	35	70
	PC	236	20	12	16	40	19	17	21	20	13	16	15	27
	모바일	372	14	8	108	45	34	21	27	14	25	13	20	43
	조익선생묘	90	11	2	1	7	6	4	10	5	15	3	16	10
	PC	42	8	2	-	3	1	4	4	2	3	1	12	2
	모바일	48	3	-	1	4	5	-	6	3	12	2	4	8
	이지함선생묘	128	4	10	6	7	9	14	12	12	5	18	14	17
	PC	69	1	4	3	3	2	10	8	8	2	12	6	10
	모바일	59	3	6	3	4	7	4	4	4	3	6	8	7
남연군묘	7,376	649	416	537	401	673	730	668	525	514	751	608	904	
PC	2,870	282	156	193	144	263	282	257	227	218	263	253	332	
모바일	4,506	367	260	344	257	410	448	411	298	296	488	355	572	
대한 제국기 이후	최익현선생묘	129	20	6	9	3	7	15	10	20	11	10	9	9
	PC	53	12	5	2	-	3	7	4	5	4	4	5	2
	모바일	76	8	1	7	3	4	8	6	15	7	6	4	7
	김옥균선생묘	387	55	32	20	13	33	52	37	23	34	36	23	29
	PC	162	21	9	5	8	7	19	24	14	14	16	11	14
	모바일	225	34	23	15	5	26	33	13	9	20	20	12	15
	김좌진장군묘	1,034	93	51	71	69	60	77	84	93	120	159	72	85
	PC	247	35	13	19	22	9	28	23	24	21	24	12	17
	모바일	787	58	38	52	47	51	49	61	69	99	135	60	68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③ 관방유적

관방유적 중 임금이 있던 도읍지로 백제시대의 도성인 공산성과 부소산성, 부여나성이 있다. 공산성이 80,215건, 부소산성 72,899건, 부여나성이 5,974 건 등으로 나타났다. 음성은 해미읍성이 171,358건으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었으며, 홍주읍성이 7,07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9] 관방유적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도성과 음성)

구분		전체	2014년		201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도성	공산성	80,215	4,004	2,540	3,279	2,647	4,202	6,241	11,023	4,627	8,907	11,851	9,087	11,807
	PC	27,354	1,536	974	1,037	816	1,606	2,611	3,462	1,890	2,895	3,013	3,376	4,138
	모바일	52,861	2,468	1,566	2,242	1,831	2,596	3,630	7,561	2,737	6,012	8,838	5,711	7,669
	부소산성	72,899	4,443	2,096	3,273	2,646	4,388	7,132	9,894	4,141	7,310	8,889	7,514	11,173
	PC	26,600	1,628	830	1,042	773	1,802	3,171	3,387	1,757	2,389	2,526	3,036	4,259
	모바일	46,299	2,815	1,266	2,231	18,73	2,586	3,961	6,507	2,384	4,921	6,363	4,478	6,914
	부여나성	5,974	106	63	87	108	190	180	574	436	1,558	1,117	780	775
	PC	2,794	48	25	43	45	83	108	249	243	674	517	394	365
	모바일	3,180	58	38	44	63	107	72	325	193	884	600	386	410
음성	홍주읍성	7,078	455	448	462	382	622	797	961	509	613	521	649	659
	PC	2,977	206	239	205	143	223	386	437	232	232	186	214	274
	모바일	4,101	249	209	257	239	399	411	524	277	381	335	435	385
	서천읍성	240	32	31	13	11	10	13	15	28	25	23	19	20
	PC	142	19	15	8	2	5	9	10	22	19	11	9	13
	모바일	98	13	16	5	9	5	4	5	6	6	12	10	7
	비인읍성	139	9	11	8	7	14	14	13	17	9	19	8	10
	PC	106	8	6	8	4	8	10	8	15	8	18	5	8
	모바일	33	1	5	-	3	6	4	5	2	1	1	3	2
음성	보령읍성	290	18	7	17	16	18	16	33	26	56	33	21	29
	PC	157	12	5	10	6	10	5	21	12	39	13	7	17
	모바일	133	6	2	7	10	8	11	12	14	17	20	14	12
	남포읍성	1,208	75	68	84	68	85	73	132	69	152	165	114	123
	PC	277	19	14	27	14	29	27	21	17	31	26	23	29
	모바일	931	56	54	57	54	56	46	111	52	121	139	91	94
	서산읍성	696	47	23	26	33	42	70	85	49	52	75	83	111
	PC	188	9	8	10	11	9	23	22	15	14	14	20	33
	모바일	508	38	15	16	22	33	47	63	34	38	61	63	78
	해미읍성	171,358	10,866	6,643	8,854	8,876	13,501	19,348	23,333	9,954	13,044	17,431	15,451	24,057
	PC	42,523	3,391	2,018	2,238	2,193	3,633	5,595	4,969	2,661	3,264	3,295	3,835	5,431
	모바일	128,835	7,475	4,625	6,616	6,683	9,868	13,753	18,364	7,293	9,780	14,136	11,616	18,626
	태안읍성	244	17	15	20	11	18	21	34	19	18	27	22	22
	PC	145	8	12	15	9	8	17	13	15	12	11	12	13
	모바일	99	9	3	5	2	10	4	21	4	6	16	10	9
	면천읍성	1,317	97	93	111	89	85	162	104	120	114	99	116	127
	PC	678	56	50	75	45	40	66	51	61	69	45	62	58
	모바일	639	41	43	36	44	45	96	53	59	45	54	54	69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진성유적 중 안흥성(안흥진성)이 총 4,236건의 빈도수를 나타냈으며, 2015년 8월에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다. 산성유적에는 성흥산성이 총 3,908건으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냈으며, 노성산성이 1828건의 빈도를 나타냈다.

[표 20] 관방유적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진성과 산성)

구분	전체	2014년		201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진성	안흥진성	4,236	224	188	280	211	240	384	544	224	505	745	295	396	
	PC	921	64	62	52	46	63	123	92	70	92	91	78	88	
	모바일	3,315	160	126	228	165	177	261	452	154	413	654	217	308	
산성	은산당산성	36	-	2	7	7	6	3	-	2	5	2	2	-	
	PC	25	-	1	5	6	5	2	-	1	3	2	-	-	
	모바일	11	-	1	2	1	1	1	-	1	2	-	2	-	
	청마산성	417	41	27	19	31	38	44	39	36	49	30	27	36	
	PC	259	28	17	10	24	25	35	22	25	22	10	18	23	
	모바일	158	13	10	9	7	13	9	17	11	27	20	9	13	
	성흥산성	3,908	267	281	209	237	237	335	347	270	284	332	521	588	
	PC	1,479	110	114	66	81	103	152	149	117	104	113	160	210	
	모바일	2,429	157	167	143	156	134	183	198	153	180	219	361	378	
	증산성	238	12	11	10	7	16	26	51	34	14	9	21	27	
	PC	150	10	9	7	5	11	18	27	18	11	5	15	14	
	모바일	88	2	2	3	2	5	8	24	16	3	4	6	13	
	곰티산성	6	-	-	1	-	1	1	-	2	-	1	-	-	
	PC	3	-	-	-	-	-	1	-	2	-	-	-	-	
	모바일	3	-	-	1	-	1	-	-	-	-	1	-	-	
	황화산성	45	3	3	2	6	5	4	4	-	5	4	5	4	
	PC	26	2	3	2	6	-	3	-	-	3	2	1	4	
	모바일	19	1	-	-	-	5	1	4	-	2	2	4	-	
	노성산성	1,828	156	76	103	110	184	160	270	146	89	129	193	212	
	PC	563	51	27	30	25	45	53	83	37	26	31	92	63	
	모바일	1,265	105	49	73	85	139	107	187	109	63	98	101	149	
	연암산성	54	4	3	5	6	8	9	5	2	3	2	3	4	
	PC	30	4	1	3	1	4	7	3	-	-	2	1	4	
	모바일	24	-	2	2	5	4	2	2	3	-	-	2	-	
	남산성(서천)	132	22	16	11	6	12	8	6	7	9	8	12	15	
	PC	87	19	8	9	3	10	7	1	6	5	1	9	9	
	모바일	45	3	8	2	3	2	1	5	1	4	7	3	6	
	건지산성	275	33	16	15	12	39	26	23	21	25	21	22	22	
	PC	172	17	14	10	5	25	16	15	11	14	17	14	14	
	모바일	103	16	2	5	7	14	10	8	10	11	4	8	8	
	태봉산성	12	3	1	1	-	1	1	3	-	-	-	2	-	
	PC	7	1	-	1	-	1	1	2	-	-	-	1	-	
	모바일	5	2	1	-	-	-	-	1	-	-	-	1	-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④ 요지유적

요지유적은 토기요지, 분청사기, 기와, 백제시대, 자기, 백자 등 다양한 요지 유적이 충남 각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나 키워드 검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⑤ 불교유적

불교유적은 목조건축과 사지가 있고, 석조유물로는 탑과 부도, 석등, 석조, 비, 당간 및 당간 지주, 마애불 등이 있다.

목조건축물 중 키워드 검색에서 높은 빈도를 나타낸 유적은 수덕사 대웅전으로 21,900건의 빈도수를 나타냈으며, 마곡사 대광보전이 470건, 갑사 대웅전이 23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덕사 대웅전은 고건축하에서 손꼽히는 건물로 이에 대한 빈도수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1월로 2,229건의 빈도수를 나타냈으나 모바일에서는 8월의 검색빈도수가 가장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마곡사의 대광보전은 마곡사의 중심법당으로서 5월 이후에 비교적 고른 검색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21] 불교유적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목조건축)

구분		전체	2014년		201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목조 건축	수덕사대웅전	21,900	1,613	1,471	2,229	1,212	1,734	1,864	2,077	2,047	1,828	2,222	1,412	2,191
	PC	8,090	735	576	829	370	580	742	775	774	690	717	509	793
	모바일	13,810	878	895	1,400	842	1,154	1,122	1,302	1,273	1,138	1,505	903	1,398
	마곡사 대광보전	470	52	36	24	24	26	35	51	42	31	53	53	43
	PC	239	33	25	9	15	13	18	24	22	15	22	28	15
	모바일	231	19	11	15	9	13	17	27	20	16	31	25	28
	마곡사 국사당	48	-	2	1	2	13	4	9	1	9	3	2	2
	PC	33	-	1	1	1	10	3	7	1	4	2	2	1
	모바일	15	-	1	-	1	3	1	2	-	5	1	-	1
	갑사 대웅전	234	28	26	14	9	11	16	26	18	13	27	17	29
	PC	128	17	11	10	3	8	10	16	12	8	13	9	11
	모바일	106	11	15	4	6	3	6	10	6	5	14	8	18
	홍주사만세루	72	8	3	2	1	4	11	8	11	-	9	8	7
	PC	53	3	3	-	1	4	10	6	10	-	7	4	5
	모바일	19	5	-	2	-	-	1	2	1	-	2	4	2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사지는 사찰이 위치하였던 장소로 백제시대 도읍지인 부여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사지 유적 중 가장 높은 검색 빈도수를 나타내는 유적은 성주사지로 31,730건의 빈도를 보였으며

2015년 5월에 총 27354건이 검색되어 검색이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KBS 1박2일 프로그램의 성주사지 관련 방영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정림사지는 24,555건의 빈도를 보였으며, 세계유산 등재 이후인 2015년 7월 이후에 검색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2015년 10월에 4,095건으로 백제문화제 개최에 따른 검색빈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서산시의 보원사지는 2446건, 왕흥사지 1,425건, 능산리 사지 70건, 금강사지 594건 등의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22] 불교유적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사지)

구분		전체	2014년		201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사지	서혈사지	153	18	11	4	9	11	18	13	22	14	12	14	7
	PC	86	12	10	-	5	3	11	2	13	8	8	9	5
	모바일	67	6	1	4	4	8	7	11	9	6	4	5	2
	정림사지	24,555	1,209	773	1,242	713	1,347	1,834	2,608	1,380	2,660	3,471	3,223	4,095
	PC	10,923	628	375	545	272	699	870	1,189	762	1,199	1,300	1,395	1,689
	모바일	13,632	581	398	697	441	648	964	1,419	618	1,461	2,171	1,828	2,406
	군수리사지	524	43	21	25	18	47	78	38	57	40	35	35	87
	PC	332	32	12	18	9	28	59	29	34	24	18	15	54
	모바일	192	11	9	7	9	19	19	9	23	16	17	20	33
	능산리사지	790	54	52	51	31	83	84	51	68	60	56	83	117
	PC	507	45	34	39	21	52	41	34	45	35	35	62	64
	모바일	283	9	18	12	10	31	43	17	23	25	21	21	53
	왕흥사지	1,425	114	93	98	63	110	135	111	105	127	111	174	184
	PC	775	63	50	53	41	56	82	63	66	50	63	92	96
	모바일	650	51	43	45	22	54	53	48	39	77	48	82	88
	금강사지	594	56	33	33	17	38	77	72	48	38	31	46	105
	PC	404	32	29	26	11	30	48	57	33	24	20	33	61
	모바일	190	24	4	7	6	8	29	15	15	14	11	13	44
	성주사지	31,730	427	251	295	253	356	392	27,354	468	599	681	295	359
	PC	8,098	226	134	156	88	178	202	6,169	200	227	211	140	167
	모바일	23,632	201	117	139	165	178	190	21,185	268	372	470	155	192
	보원사지	2,446	169	140	158	157	245	272	217	212	227	217	220	212
	PC	1,328	120	102	80	73	132	145	110	117	133	98	109	109
	모바일	1,118	49	38	78	84	113	127	107	95	94	119	111	103
	개태사지	293	26	24	43	23	22	20	11	35	25	22	17	25
	PC	149	17	13	18	13	11	8	7	19	12	10	7	14
	모바일	144	9	11	25	10	11	12	4	16	13	12	10	11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불교의 석조유물 중 석탑의 경우 정림사지5층석탑이 82,038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무량사 5층석탑이 2,372건, 비인5층석탑 573건, 장하리 3층석탑 332건 등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정림사지5층석탑은 5월과 10월에 검색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PC보다는 모바일에서 많은 검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량사5층석탑과 장하리3층석탑등은 세계유산이 정림사지 5층석탑과 더불어 부여에서 운영 중인 백제역사문화탐방코스에 포함되어 있다.

〔표 23〕 불교유적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탑)

구분	전체	2014년		201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탑	정림사지5층석탑	82,038	3,947	3,776	9,134	2,935	3,874	7,262	10,054	6,673	7,563	10,226	6,440	10,154
	PC	30,726	1,679	1,521	3,108	933	1,416	2,794	4,771	2,831	2,686	2,952	2,542	3,493
	모바일	51,312	2,268	2,255	6,026	2,002	2,458	4,468	5,283	3,842	4,877	7,274	3,898	6,661
	무량사5층석탑	2,372	77	145	287	137	189	242	187	223	178	360	144	203
	PC	986	40	72	105	42	66	104	74	81	80	189	63	70
	모바일	1,386	37	73	182	95	123	138	113	142	98	171	81	133
	장하리3층석탑	332	20	15	18	17	26	18	49	15	27	65	24	38
	PC	130	13	10	5	6	13	11	23	6	12	11	10	10
	모바일	202	7	5	13	11	13	7	26	9	15	54	14	28
	마곡사5층석탑	283	27	18	21	5	19	33	28	24	19	22	29	38
	PC	151	14	10	7	4	15	21	17	13	9	13	16	12
	모바일	132	13	8	14	1	4	12	11	11	10	9	13	26
	탑정리석탑	70	3	2	5	1	1	5	6	5	4	22	8	8
	PC	34	1	0	2	1	0	4	4	1	1	11	4	5
	모바일	36	2	2	3	0	1	1	2	4	3	11	4	3
	관촉사석탑	90	9	7	3	8	6	6	12	27	2	6	1	3
	PC	61	6	6	1	4	6	4	7	19	2	4	1	1
	모바일	29	3	1	2	4	0	2	5	8	0	2	0	2
	비인5층석탑	573	48	33	32	38	52	50	72	32	46	64	48	58
	PC	136	19	16	2	2	10	14	14	10	7	10	15	17
	모바일	437	29	17	30	36	42	36	58	22	39	54	33	41
	서정리9층석탑	45	4	3	8	4	-	7	4	5	4	4	2	-
	PC	23	2	3	2	3	0	4	1	0	2	4	2	0
	모바일	22	2	0	6	1	0	3	3	5	2	0	0	0
	수덕사7층석탑	91	4	9	2	1	4	3	13	8	11	26	7	3
	PC	49	3	6	1	1	1	1	7	5	6	16	0	2
	모바일	42	1	3	1	0	3	2	6	3	5	10	7	1
	천흥사지5층석탑	108	8	4	7	1	5	10	16	19	8	12	4	14
	PC	59	4	3	2	1	2	4	8	11	2	12	1	9
	모바일	49	4	1	5	0	3	6	8	8	6	0	3	5
	보원사지5층석탑	298	17	20	19	22	20	39	29	18	26	37	20	31
	PC	153	12	14	4	14	10	21	20	9	13	14	7	15
	모바일	145	5	6	15	8	10	18	9	9	13	23	13	16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석등은 경내에 불을 밝히길 위하여 만들어주는 등기로 관촉사 석등에 대한 검색빈도가 438

검으로 가장 높았으며, 무량사 석등이 86건, 성주사지 석등이 6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교석조유물 중 마애불은 우리나라의 마애불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뛰어난 작품으로 꼽히는 서산마애삼존불이 13,123건의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태안마애삼존불이 9055건, 관촉사 석조보살입상이 25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백제의 미소라 불리는 서산마애삼존불은 10월에 2368건으로 가장 높은 검색 빈도를 보였으며, 모바일에서 1400건의 빈도를 보였다.

〔표 24〕 불교유적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석등)

구분		전체	2014년		201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석등	무량사석등	86	6	4	7	5	11	5	9	12	7	7	2	11
	PC	63	5	2	5	5	9	5	2	10	4	4	2	10
	모바일	23	1	2	2	0	2	0	7	2	3	3	0	1
	관촉사석등	438	42	35	24	8	39	30	45	124	17	31	19	24
	PC	253	31	16	9	2	21	23	31	64	10	18	11	17
	모바일	185	11	19	15	6	18	7	14	60	7	13	8	7
	성주사지석등	61	3	3	3	1	12	6	13	6	-	2	2	10
	PC	43	2	3	3	0	12	6	6	6	0	2	1	2
모바일	18	1	0	0	1	0	0	7	0	0	0	1	8	
석조	보원사지석조	69	4	4	-	1	11	13	8	3	2	8	6	9
	PC	57	3	4	-	1	10	9	7	2	2	5	5	9
	모바일	12	1	-	-	-	1	4	1	1	-	3	1	-
	용봉사지석조	6	1	1	-	-	1	-	1	2	-	-	-	-
	PC	4	1	1	-	-	1	-	-	1	-	-	-	-
모바일	2	-	-	-	-	-	-	1	1	-	-	-	-	
비	보원사지법인국사 보승탑비	36	1	2	6	-	7	4	3	1	1	1	1	9
	PC	22	1	2	4	0	4	4	3	0	1	0	0	3
	모바일	14	0	0	2	0	3	0	0	1	0	1	1	6
당간지주	천흥사지 당간지주	210	5	9	16	7	26	26	32	35	5	5	16	28
	PC	123	4	8	11	4	14	14	20	25	3	4	5	11
	모바일	87	1	1	5	3	12	12	12	10	2	1	11	17
마애불	서산마애삼존불	13,123	815	685	1,054	547	886	1,305	1,248	960	805	798	1,652	2,368
	PC	5,949	439	341	504	242	429	686	609	475	382	322	552	968
	모바일	7,174	376	344	550	305	457	619	639	485	423	476	1,100	1,400
	태안마애삼존불	9,055	475	335	545	491	589	755	1,119	628	935	1,420	710	1,053
	PC	1,914	131	82	101	90	144	210	182	191	169	164	191	259
	모바일	7,141	344	253	444	401	445	545	937	437	766	1,256	519	794
	관촉사 석조보살입상	254	21	150	2	3	4	7	8	24	14	5	6	10
	PC	115	16	50	1	2	2	4	3	14	4	4	5	10
	모바일	139	5	100	1	1	2	3	5	10	10	1	1	-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기타 불교유적으로는 천흥사 동종이 360건, 관촉사 배례석 169건, 갑사 동종 156건, 관촉사 석문 12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5〕 불교유적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기타)

구분		전체	2014년		201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기타	천흥사동종	360	40	45	12	15	6	42	65	46	14	32	31	12
	PC	214	26	24	6	4	4	23	47	38	4	13	20	5
	모바일	146	14	21	6	11	2	19	18	8	10	19	11	7
	갑사 동종	156	27	7	4	5	18	11	8	12	10	29	11	14
	PC	88	19	7	1	2	11	8	5	10	4	6	4	11
	모바일	68	8	-	3	3	7	3	3	2	6	23	7	3
	관촉사 배례석	169	19	6	11	4	11	16	15	73	3	2	5	4
	PC	99	8	3	8	2	3	11	8	46	3	2	2	3
	모바일	70	11	3	3	2	8	5	7	27	-	-	3	1
	관촉사 석문	124	9	2	5	6	8	4	13	64	2	5	2	4
	PC	80	8	2	4	4	6	4	8	38	2	2	1	1
	모바일	44	1	-	1	2	2	-	5	26	-	3	1	3
	성주사지 석계단	29	1	-	5	2	11	2	2	4	-	-	1	1
	PC	27	1	-	5	1	10	2	2	4	-	-	1	1
	모바일	2	-	-	-	1	1	-	-	-	-	-	-	-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⑥ 유교유적

● 향교

충청남도에 분포하고 있는 유교유적 자원 중 향교자원의 검색빈도를 살펴보면 결성향교에 대한 검색빈도가 1,887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공주향교 1,435건, 천안향교 1,38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검색빈도가 가장 높았던 결성향교는 생생문화재사업과 향교스테이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어 이에 따른 검색빈도가 높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공주향교는 충청감영에서 운영하던 향교로 역사적 가치가 크며, 천안향교는 석전대제를 봉행하는 등 향교에서의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표 26] 향교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구분		전체	2014년		201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향교	공주향교	1,435	218	59	58	59	81	169	274	97	83	121	91	125
	PC	666	130	26	15	25	33	95	150	60	26	26	36	44
	모바일	769	88	33	43	34	48	74	124	37	57	95	55	81
	금산향교	562	35	35	42	30	55	39	68	38	50	62	51	57
	PC	204	16	14	16	10	13	13	25	17	23	22	17	18
	모바일	358	19	21	26	20	42	26	43	21	27	40	34	39
	진산향교	120	9	6	8	2	3	4	14	8	12	26	8	20
	PC	80	8	3	6	-	3	4	6	4	9	20	5	12
	모바일	40	1	3	2	2	-	-	8	4	3	6	3	8
	노성향교	357	51	16	24	19	35	31	24	36	18	52	31	20
	PC	227	24	15	19	12	27	20	13	23	11	26	29	8
	모바일	130	27	1	5	7	8	11	11	13	7	26	2	12
	연산향교	358	21	17	28	23	25	21	50	45	26	39	43	20
	PC	156	9	12	14	10	16	8	25	23	8	17	6	8
	모바일	202	12	5	14	13	9	13	25	22	18	22	37	12
	은진향교	169	15	5	18	6	14	12	12	8	22	43	6	8
	PC	103	13	5	12	4	10	9	7	6	11	17	5	4
	모바일	66	2	-	6	2	4	3	5	2	11	26	1	4
	당진향교	646	38	10	10	9	29	29	36	295	27	25	45	93
	PC	314	21	6	7	5	10	19	19	93	13	9	33	79
	모바일	332	17	4	3	4	19	10	17	202	14	16	12	14
	면천향교	328	11	6	9	6	19	70	37	27	43	37	25	38
	PC	125	5	4	4	3	7	20	16	11	13	12	12	18
	모바일	203	6	2	5	3	12	50	21	16	30	25	13	20
	보령향교	521	31	20	22	36	44	33	40	21	52	74	56	92
	PC	181	6	8	12	12	22	16	6	12	19	20	16	32
	모바일	340	25	12	10	24	22	17	34	9	33	54	40	60
	오천향교	371	27	16	22	19	18	28	31	25	45	48	42	50
	PC	97	11	7	4	2	-	10	9	6	13	5	20	10
	모바일	274	16	9	18	17	18	18	22	19	32	43	22	40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구분		전체	2014년		201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향교	석성향교	89	6	2	8	4	9	15	2	9	10	10	6	8
	PC	64	4	2	3	4	8	13	1	9	5	6	4	5
	모바일	25	2	-	5	-	1	2	1	-	5	4	2	3
	임천향교	99	6	9	3	6	5	12	10	12	7	8	11	10
	PC	75	6	3	3	4	4	11	7	9	6	4	10	8
	모바일	24	-	6	-	2	1	1	3	3	1	4	1	2
	서산향교	946	98	32	49	48	72	72	115	89	73	93	96	109
	PC	174	37	10	6	4	3	12	14	26	5	8	18	31
	모바일	772	61	22	43	44	69	60	101	63	68	85	78	78
	해미향교	852	102	28	64	36	57	77	117	57	70	96	52	96
	PC	155	20	2	10	5	6	16	18	8	14	8	12	36
	모바일	697	82	26	54	31	51	61	99	49	56	88	40	60
	서천향교	292	74	20	9	16	25	13	25	20	15	14	28	33
	PC	205	65	18	6	11	13	10	16	14	9	7	13	23
	모바일	87	9	2	3	5	12	3	9	6	6	7	15	10
	비인향교	356	18	16	23	24	27	27	52	22	40	42	35	30
	PC	44	3	3	4	3	3	5	2	6	2	6	2	5
	모바일	312	15	13	19	21	24	22	50	16	38	36	33	25
	한산향교	105	4	2	9	7	8	8	9	4	7	14	15	18
	PC	81	4	1	7	6	8	7	8	3	5	7	13	12
	모바일	24	-	1	2	1	-	1	1	1	2	7	2	6
	아산향교	1,182	94	45	56	38	98	113	224	158	114	75	71	96
	PC	660	71	30	34	27	51	63	118	89	45	40	45	47
	모바일	522	23	15	22	11	47	50	106	69	69	35	26	49
	운양향교	1,207	107	50	123	40	98	147	159	94	246	43	55	45
	PC	658	74	32	33	28	62	88	109	67	68	34	36	27
	모바일	549	33	18	90	12	36	59	50	27	178	9	19	18
	대흥향교	224	19	12	9	20	22	16	34	11	15	22	16	28
	PC	138	14	11	8	7	5	14	21	4	9	13	12	20
	모바일	86	5	1	1	13	17	2	13	7	6	9	4	8
	직산향교	549	52	17	13	19	41	64	95	59	27	57	67	38
	PC	305	32	14	9	12	21	28	54	31	17	35	31	21
	모바일	244	20	3	4	7	20	36	41	28	10	22	36	17
	천안향교	1,380	99	53	67	61	149	186	208	116	105	87	106	143
	PC	632	48	19	32	30	60	100	101	58	42	42	45	55
	모바일	748	51	34	35	31	89	86	107	58	63	45	61	88
	청양향교	145	10	14	5	8	3	11	38	18	12	7	12	7
	PC	84	7	5	4	6	3	9	19	4	10	4	8	5
	모바일	61	3	9	1	2	-	2	19	14	2	3	4	2
	태안향교	421	43	26	19	14	23	31	54	30	39	56	29	57
	PC	246	20	21	14	6	14	21	25	18	26	21	24	36
	모바일	175	23	5	5	8	9	10	29	12	13	35	5	21
	결성향교	1,887	93	75	127	96	143	180	225	90	154	240	239	225
	PC	437	19	19	27	18	20	58	31	27	50	57	55	56
	모바일	1,450	74	56	100	78	123	122	194	63	104	183	184	169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 서원·사우

사우는 조선시대 선현을 제사하기 위해 건립된 제향처이며, 강당 등의 강학시설이 더해질 경우 서원으로 불리었다. 충남의 서원 및 사우에는 각 지역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가장 검색빈도가 높았던 자원은 이순신장군의 위패를 모신 현충사로 167,169건의 빈도를 보였다. 시기로는 4월에 23,062건의 검색빈도로 가장 높았으며, 성웅이순신축제와 더불어 현충사에 대한 검색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서천의 문헌서원은 8,020건의 빈도를 보였으며, 부여 삼충사 4,507건, 모덕사 3,374건, 송의사 2,30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7] 서원·사우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구분		전체	2014년		201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서원 사유	충현서원	1,534	166	101	65	64	115	136	182	98	108	145	173	181
	PC	863	93	61	40	38	71	82	80	60	61	93	80	104
	모바일	671	73	40	25	26	44	54	102	38	47	52	93	77
	숙모전	1,572	111	59	41	40	154	79	354	358	107	94	88	87
	PC	507	39	30	10	9	50	31	116	83	39	34	36	30
	모바일	1,065	72	29	31	31	104	48	238	275	68	60	52	57
	화암서원	908	57	59	57	44	79	81	82	63	96	104	70	116
	PC	524	37	16	30	29	49	55	52	37	52	59	41	67
	모바일	384	20	43	27	15	30	26	30	26	44	45	29	49
	수현사	190	30	11	8	8	26	17	17	17	14	21	12	9
	PC	73	16	3	3	1	9	8	7	8	5	7	3	3
	모바일	117	14	8	5	7	17	9	10	9	9	14	9	6
	금곡서원	331	23	26	18	14	28	35	28	32	30	31	34	32
	PC	146	1	13	11	6	7	18	17	20	13	12	15	13
	모바일	185	22	13	7	8	21	17	11	12	17	19	19	19
	현충사	167,169	19,590	7,195	9,924	7,672	13,955	23,062	21,828	9,343	9,000	12,823	11,499	21,278
	PC	44,989	5,501	2,163	2,589	2,057	3,661	6,193	5,094	2,976	2,746	3,107	3,299	5,603
	모바일	122,180	14,089	5,032	7,335	5,615	10,294	16,869	16,734	6,367	6,254	9,716	8,200	15,675
	성암서원	459	59	19	21	18	28	44	52	29	44	46	59	40
	PC	109	32	4	2	3	4	8	8	7	6	4	23	8
	모바일	350	27	15	19	15	24	36	44	22	38	42	36	32
	송곡사	571	16	13	13	16	12	21	27	14	16	34	95	294
	PC	172	12	8	6	5	5	11	8	9	13	22	22	51
	모바일	399	4	5	7	11	7	10	19	5	3	12	73	243
	송덕사	125	9	12	11	12	11	6	16	7	13	18	4	6
	PC	76	5	11	4	6	5	4	14	2	11	5	4	5
	모바일	49	4	1	7	6	6	2	2	5	2	13	-	1
	진충사	317	28	15	24	21	33	30	19	32	29	19	33	34
	PC	172	18	12	17	11	18	15	10	20	8	9	16	18
	모바일	145	10	3	7	10	15	15	9	12	21	10	17	16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구분		전체	2014년		201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사원 사유	봉곡서원	189	12	26	10	11	24	18	20	10	14	17	13	14
	PC	120	8	20	7	7	13	11	14	5	7	9	8	11
	모바일	69	4	6	3	4	11	7	6	5	7	8	5	3
	죽림서원	51	4	14	4	3	2	4	8	-	-	1	3	8
	PC	2,029	166	129	110	115	159	189	220	175	169	186	181	230
	모바일	612	67	54	29	18	38	66	46	66	57	56	53	62
	휴정서원	1,417	99	75	81	97	121	123	174	109	112	130	128	168
	PC	141	12	10	2	11	7	8	11	31	11	13	8	17
	모바일	82	8	8	2	5	6	5	7	16	3	4	5	13
	총렬사	317	25	15	21	14	30	32	26	25	27	46	27	29
	PC	51	7	4	2	-	3	6	6	3	6	6	6	2
	모바일	266	18	11	19	14	27	26	20	22	21	40	21	27
	동곡서원	235	36	11	8	6	17	29	29	29	24	18	17	11
	PC	94	20	5	2	3	3	15	12	16	5	6	4	3
	모바일	141	16	6	6	3	14	14	17	13	19	12	13	8
	창강서원	224	9	7	5	7	8	95	15	14	22	13	17	12
	PC	137	5	2	2	3	1	89	7	4	10	5	6	3
	모바일	87	4	5	3	4	7	6	8	10	12	8	11	9
	칠산서원	224	10	6	14	14	17	21	20	20	21	33	29	19
	PC	52	3	3	9	4	2	3	4	11	2	2	5	4
	모바일	172	7	3	5	10	15	18	16	9	19	31	24	15
	삼총사	4,507	502	276	313	322	367	416	490	263	297	305	387	569
	PC	1,895	196	131	139	127	149	190	189	127	130	104	166	247
	모바일	2,612	306	145	174	195	218	226	301	136	167	201	221	322
	의열사	841	50	38	38	30	75	81	70	63	43	66	31	256
	PC	612	32	22	24	23	54	52	56	45	26	32	15	231
	모바일	229	18	16	14	7	21	29	14	18	17	34	16	25
	건암서원	32	4	3	2	4	3	1	3	3	1	2	5	1
	PC	22	2	3	-	3	3	1	2	2	-	1	4	1
	모바일	10	2	-	2	1	-	-	1	1	1	1	1	0
	문헌서원	8,020	513	370	393	365	492	787	976	402	861	1,120	741	1,000
	PC	3,512	306	199	158	112	192	381	356	195	427	413	338	435
	모바일	4,508	207	171	235	253	300	406	620	207	434	707	403	565
	율리사	161	6	9	9	20	7	15	17	14	24	16	12	12
	PC	87	4	3	7	11	2	8	13	7	16	6	3	7
	모바일	74	2	6	2	9	5	7	4	7	8	10	9	5
	모덕사	3,374	180	101	210	197	329	308	458	246	289	431	287	338
	PC	1,089	67	42	77	45	118	99	130	87	84	128	97	115
	모바일	2,285	113	59	133	152	211	209	328	159	205	303	190	223
	총의사	1,168	46	34	46	50	42	121	112	126	108	175	100	208
	PC	542	22	20	31	21	11	44	53	66	50	86	43	95
	모바일	626	24	14	15	29	31	77	59	60	58	89	57	113
	송의사	2,302	120	120	160	116	141	220	272	155	283	358	160	197
	PC	395	31	23	25	18	31	48	45	31	40	32	30	41
	모바일	1,907	89	97	135	98	110	172	227	124	243	326	130	156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⑦ 고건축

고건축 유적 중 가옥으로는 추사 김정희고택이 15,318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윤증고택 6012건, 맹씨행단 4,189건, 정순왕후생가 2,775건, 건재고택 2,188건 등의 빈도를 보였다. 추사고택에 대한 시기별 검색빈도를 살펴보면 5월이 1,820건으로 높았던 반면 추사회고대회가 열리는 10월은 1480건으로 다른 시기와 비슷한 빈도를 보이고 있다.

〔표 28〕 고건축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구분		전체	2014년		201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가목	민칠삭가옥	378	46	20	21	23	31	30	65	23	32	40	22	25
	PC	222	36	13	12	10	14	14	51	12	18	16	6	20
	모바일	156	10	7	9	13	17	16	14	11	14	24	16	5
	윤증고택	6,012	543	442	337	319	609	565	685	476	315	390	724	607
	PC	2,831	275	214	155	135	342	275	315	279	134	155	283	269
	모바일	3,181	268	228	182	184	267	290	370	197	181	235	441	338
	아삼장군고택	355	-	17	44	19	36	33	37	18	41	28	49	33
	PC	190	-	9	22	11	25	23	13	11	25	17	19	15
	모바일	165	-	8	22	8	11	10	24	7	16	11	30	18
	윤희선생고택	205	15	12	14	17	14	22	17	15	20	20	17	22
	PC	64	10	8	4	3	6	5	3	7	4	3	1	10
	모바일	141	5	4	10	14	8	17	14	8	16	17	16	12
	두계은농재	479	35	28	48	27	38	48	48	23	19	27	98	40
	PC	258	14	14	38	15	20	18	25	13	14	19	49	19
	모바일	221	21	14	10	12	18	30	23	10	5	8	49	21
	윤보선 생가	2,141	231	122	134	141	148	184	273	143	168	206	170	221
	PC	709	91	24	48	59	48	63	85	43	61	57	58	72
	모바일	1,432	140	98	86	82	100	121	188	100	107	149	112	149
	성준경가옥	865	66	49	62	55	69	112	87	61	53	86	79	86
	PC	171	17	4	12	6	10	21	21	23	9	13	21	14
	모바일	694	49	45	50	49	59	91	66	38	44	73	58	72
	맹씨행단	4,189	433	287	235	251	361	353	481	337	337	351	369	394
	PC	1,942	214	153	99	86	201	160	226	181	172	106	180	164
	모바일	2,247	219	134	136	165	160	193	255	156	165	245	189	230
	외암리참판댁	272	24	9	16	10	14	10	43	16	21	65	27	17
	PC	128	18	6	4	6	6	8	14	12	12	18	12	12
	모바일	144	6	3	12	4	8	2	29	4	9	47	15	5
	건재고택	2,188	82	34	37	25	45	68	65	61	1,165	394	106	106
	PC	811	45	18	19	14	29	29	32	38	362	121	54	50
	모바일	1,377	37	16	18	11	16	39	33	23	803	273	52	56
	추사고택	15,318	1,100	819	1,051	925	1,222	1,530	1,820	1,160	1,177	1,593	1,441	1,480
	PC	5,620	431	331	336	315	494	619	572	478	405	559	540	540
	모바일	9,698	669	488	715	610	728	911	1,248	682	772	1,034	901	940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민가인 외암민속마을은 144,299건의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시기별로는 5월에 18,927건으로 가장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외암민속마을은 10월 짚풀문화제와 3월 정월대보름 행사로 달집 태우기, 장승제 등 전통적인 마을 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다.

누정자원에서 가장 검색빈도가 높았던 자원은 부여의 수북정으로 1133건으로 나타났으며, 팔괘정 368건, 임리정 250건, 경이정 22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여의 수북정은 부여의 백제역사유적이 세계유산 지정이후인 7월 이후에 검색빈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29〕 민속마을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구분		전체	2014년		201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가옥	조응식가옥	629	43	38	41	38	46	63	71	56	42	55	75	61
	PC	255	25	14	16	13	13	32	18	31	16	16	32	29
	모바일	374	18	24	25	25	33	31	53	25	26	39	43	32
	전용알가옥	133	6	14	12	20	10	14	13	6	9	12	7	10
	PC	61	3	5	10	8	6	3	5	4	4	5	2	6
	모바일	72	3	9	2	12	4	11	8	2	5	7	5	4
	김우열가옥	415	30	28	28	21	32	17	36	40	49	49	55	30
	PC	98	5	6	9	8	9	7	7	8	8	11	11	9
	모바일	317	25	22	19	13	23	10	29	32	41	38	44	21
	감기현가옥	741	65	32	119	49	51	72	59	106	41	44	48	55
	PC	269	26	13	23	13	24	30	26	29	25	11	29	20
	모바일	472	39	19	96	36	27	42	33	77	16	33	19	35
	정순왕후생가	2,775	177	134	306	163	171	252	365	185	193	272	215	342
	PC	730	46	41	70	39	55	81	86	47	57	64	57	87
	모바일	2,045	131	93	236	124	116	171	279	138	136	208	158	255
만가	외암민속마을	144,299	9,952	7,170	9,971	8,723	12,539	14,895	18,927	7,413	12,788	14,914	11,142	15,865
	PC	32,634	2,780	1,848	2,290	1,968	3,022	3,754	3,741	2,060	3,245	2,615	2,232	3079
	모바일	111,665	7,172	5,322	7,681	6,755	9,517	11,141	15,186	5,353	9,543	12,299	8,910	12786
누정	수북정	1,133	82	36	60	78	81	99	120	74	114	134	126	129
	PC	327	23	13	24	15	25	42	24	27	28	23	41	42
	모바일	806	59	23	36	63	56	57	96	47	86	111	85	87
	임리정	250	20	26	6	17	17	18	29	31	32	15	20	19
	PC	175	15	22	6	5	13	14	16	16	29	10	15	14
	모바일	75	5	4	-	12	4	4	13	15	3	5	5	5
	팔괘정	368	34	35	21	21	16	43	42	32	36	32	24	32
	PC	227	20	19	14	6	7	26	29	17	26	23	15	25
	모바일	141	14	16	7	15	9	17	13	15	10	9	9	7
	경이정	224	10	14	11	10	17	20	25	32	16	33	16	20
	PC	109	7	10	2	5	9	10	10	17	7	18	9	5
	모바일	115	3	4	9	5	8	10	15	15	9	15	7	15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⑧ 고서와 고문서

고서와 고문서 유적은 중 난중일기에 대한 검색빈도가 116,042건으로 높았던 것을 제외하며 다른 자원에 대한 검색 빈도는 국보 제76호인 이충무공난중일기에 대한 검색 빈도가 116,04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에 검색이 25,310으로 집중되었으며 2014년 11월도 높은 검색빈도를 보이고 있다.

[표 30] 고서와 고문서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구분	전체	2014년		201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국보	난중일기	116,042	12,949	9,315	7,173	7,027	25,310	11,291	7,923	9,071	6,234	7,249	6,110	6,390	
	PC	46,713	5,376	4,045	2,891	2,407	8,746	4,096	3,545	3,874	2,994	3,257	2,513	2,969	
	모바일	69,329	7,573	5,270	4,282	4,620	16,564	7,195	4,378	5,197	3,240	3,992	3,597	3,421	
보물	김지금니묘법연화경	113	22	5	2	3	5	4	31	19	5	8	3	6	
	PC	83	14	3	1	2	5	2	22	15	2	8	3	6	
	모바일	30	8	2	1	1	-	2	9	4	3	-	-	-	
	윤봉길의사유품	224	22	19	11	10	11	25	13	18	11	23	23	38	
	PC	125	16	16	7	3	7	12	8	12	8	11	15	10	
	모바일	99	6	3	4	7	4	13	5	6	3	12	8	28	
	성주도씨종중문서	371	26	18	42	50	38	37	28	19	16	28	29	40	
	PC	134	10	6	19	18	12	12	9	9	6	11	9	13	
	모바일	237	16	12	23	32	26	25	19	10	10	17	20	27	
	남양전씨종중문서	36	3	2	5	2	5	7	3	2	-	-	4	3	
	PC	16	2	-	1	2	2	2	1	1	-	-	3	2	
	모바일	20	1	2	4	-	3	5	2	1	-	-	1	1	
	광남군이광약선무공신 교서	15	-	2	3	-	1	1	-	3	1	3	1	-	
	PC	10	-	1	2	-	1	1	-	3	1	1	-	-	
	모바일	5	-	1	1	-	-	-	-	-	-	2	1	-	
	중봉조한관계유품	10	-	-	-	2	1	2	1	-	-	2	1	1	
	PC	3	-	-	-	1	-	-	-	-	-	2	-	-	
	모바일	7	-	-	-	1	1	2	1	-	-	-	1	1	
도지정 문화재	김장생문묘배향교지	44	2	-	-	1	3	-	1	1	6	2	15	13	
	PC	23	2	-	-	1	3	-	-	1	5	-	7	4	
	모바일	21	-	-	-	-	-	-	1	-	1	2	8	9	
	남평조씨병자일기	136	7	13	6	4	2	1	27	19	19	16	11	11	
	PC	80	5	11	3	2	1	-	12	12	10	8	5	11	
	모바일	56	2	2	3	2	1	1	15	7	9	8	6	-	
	감집교지	7	1	-	-	-	-	-	2	1	2	-	1	-	
	PC	7	1	-	-	-	-	-	2	1	2	-	1	-	
	모바일	-	-	-	-	-	-	-	-	-	-	-	-	-	
	홍가사선생교지	29	3	2	1	1	3	1	3	8	2	4	1	-	
	PC	20	-	2	1	1	2	-	3	7	2	2	-	-	
	모바일	9	3	-	-	-	1	1	-	1	-	2	1	-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3) 민속자원의 키워드 분석

충청남도지 민속(2010)편에서는 일생의례와 세시풍속, 민간신앙, 생산풍속, 의식주 생활풍속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유적별 기술 내용과 유적의 키워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 민속자원의 키워드 분석결과

충청남도의 민속자원 중 키워드 검색의 빈도수가 가장 높았던 자원은 의식주생활 중 조선시대 음식문화인 한산소곡주가 전체 106,099건의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생산풍속 중 어업생산풍속인 통발이 94,091건의 빈도수를 보였으며, 머구리가 63,693건, 백중날이 44,164건, 달맞이 43,30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검색 순위가 높은 한산소곡주의 경우 충남을 대표하는 전통주로서 많은 인지도가 있는 상품이며, 통발과 머구리는 어업생산풍속으로 현재까지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어법으로 모바일에서 많은 검색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31] 민속자원 키워드 검색 결과(상위 10개)

(단위 : 건)

순위	자원명	전체	PC	모바일	비고
1	한산소곡주	106,099	33,028	73,071	의식주생활/조선시대음식문화
2	통발	94,091	35,279	58,812	생산풍속/어업생산풍속
3	머구리	63,693	13,478	50,215	생산풍속/어업생산풍속
4	백중날	44,164	4,235	39,929	세시풍속/정월대보름
5	달맞이	43,308	12,803	30,505	세시풍속/추석
6	천수답	36,117	13,593	22,524	생산풍속/농업생산풍속
7	쉬박지	35,623	7,846	27,777	의식주생활/조선시대음식문화
8	지신밟기	24,742	10,071	14,671	세시풍속/정월대보름
9	달집태우기	22,361	7,449	14,912	세시풍속/정월대보름
10	길쌈놀이	15,486	3,478	12,008	세시풍속/추석

주 : 전체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1년 집계임

주2 : 의식주생활의 외암민속마을은 문화유적자원에서 제시됨에 따라 민속부문에서는 제외함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민속자원의 시기별 키워드를 살펴보면, 세시풍속 등과 관련된 자원들이 많아 검색어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색빈도가 가장 높은 한산소곡주의 경우 2월 설날과 9월 추석에 검색이 각각 16,720건, 19,338건으로 집중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0월에는 한산소

곡주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타 시기보다 검색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통발과 머구리의 경우 어업생산품속으로 여름에 집중되고 있으며, 백중날과 달맞이 등은 추석과 관련된 세시풍속으로 8월과 9월에, 지신밟기와 달집태우기 등은 음력 2월인 3월에 집중되는 빈도를 보이고 있다. 천수답은 벼농사에 필요한 물을 빗물에만 의존하는 논으로 모내기철인 6월에 21,105건의 빈도로 집중되어 검색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민속자원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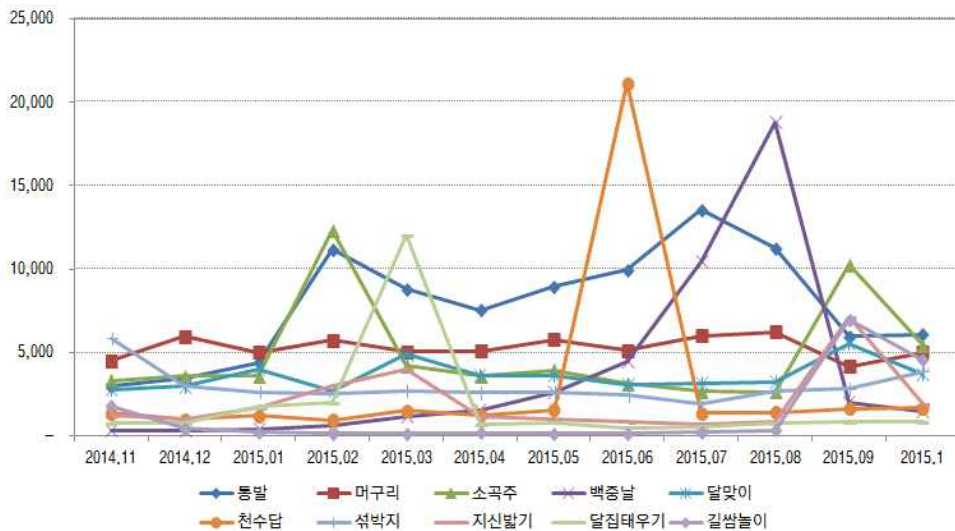
(단위 : 건)

순위	자원명	전체	2014년		201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	한산소곡주	106,099	5,033	5,807	7,431	16,720	8,269	7,746	9,015	6,576	5,688	5,707	19,338	8,769
2	통발	94,091	2,964	3,434	4,389	11,195	8,821	7,547	8,936	9,956	13,533	11,268	5,957	6,091
3	머구리	63,693	4,498	5,972	5,008	5,723	5,048	5,095	5,781	5,122	5,998	6,241	4,188	5,019
4	백중날	44,164	341	332	380	645	1,195	1,566	2,604	4,440	10,425	18,784	1,987	1,465
5	달맞이	43,308	2,800	2,977	4,006	2,672	4,896	3,598	3,649	3,073	3,145	3,253	5,560	3,679
6	천수답	36,117	1,380	1,008	1,232	942	1,532	1,267	1,553	21,105	1,357	1,409	1,645	1,687
7	석박지	35,623	5,808	2,983	2,611	2,529	2,722	2,586	2,608	2,432	1,934	2,730	2,819	3,861
8	지신밟기	24,742	1,237	1,020	1,706	3,027	4,001	1,176	1,016	884	714	867	7,132	1,962
9	달집태우기	22,361	783	772	1,783	2,002	12,004	700	811	495	516	790	838	867
10	길쌈놀이	15,486	1,815	439	231	169	171	202	173	157	231	360	6,973	4,565

주 : 전체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1년 합계임

주2 : 의식주생활의 외암민속마을은 문화유적자원에서 제시됨에 따라 민속부문에서는 제외함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그림 11] 민속자원 시기별 키워드 검색 비교(상위 10개)

(2) 민속자원별 키워드 분석

① 일생의례와 세시풍속

충남의 세시풍속과 관련되어 검색된 키워드는 여름철 휴한기에 휴식의 취하는 날인 백중날에 대한 검색이 44164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신밟기와 달집태우기가 각각 24,742건, 22,361건으로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백중날은 음력 7월 15일에 해당됨에 따라 8월에 검색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신밟기는 정월대보름과 추석에 주로 이루어지는데 시기별 검색 빈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3월과 9월에 많은 검색빈도가 높았으며, 정월대보름날밤 행해지는 달집태우기는 33월에 12,004건이 검색되었다. 바닷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풍어제(뱃고사)는 5월에 검색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일생의례와 세시풍속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구분	전체	2014년							201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귀산날	696	55	38	47	61	123	61	36	36	42	62	42	93		
PC	277	30	20	16	23	43	27	21	14	16	20	12	35		
모바일	419	25	18	31	38	80	34	15	22	26	42	30	58		
안택곳	299	49	29	16	14	33	34	26	19	14	21	13	31		
PC	112	26	8	8	5	19	11	3	4	3	9	9	7		
모바일	187	23	21	8	9	14	23	23	15	11	12	4	24		
지신밟기	24,742	1,237	1,020	1,706	3,027	4,001	1,176	1,016	884	714	867	7,132	1,962		
PC	10,071	731	545	791	1,351	1,561	554	507	448	329	383	2,171	700		
모바일	14,671	506	475	915	1,676	2,440	622	509	436	385	484	4,961	1,262		
홍수막이	1,012	27	115	213	328	202	43	12	18	15	13	12	14		
PC	163	5	15	46	46	33	3	4	3	2	2	1	3		
모바일	849	22	100	167	282	169	40	8	15	13	11	11	11		
기세배	520	70	46	31	45	81	32	48	65	19	24	12	47		
PC	264	26	9	15	17	57	11	22	56	10	10	7	24		
모바일	256	44	37	16	28	24	21	26	9	9	14	5	23		
풍어제(뱃고사)	5,101	461	650	305	367	582	486	759	343	278	243	269	358		
PC	2,099	206	251	121	137	211	227	233	193	116	114	124	166		
모바일	3,002	255	399	184	230	371	259	526	150	162	129	145	192		
목서리해주기	341	18	13	59	41	40	36	29	23	28	22	17	15		
PC	81	3	3	9	13	11	9	9	4	10	5	3	2		
모바일	260	15	10	50	28	29	27	20	19	18	17	14	13		
달집태우기	22,361	783	772	1,783	2,002	12,004	700	811	495	516	790	838	867		
PC	7,449	425	370	733	778	2,846	346	375	256	243	329	392	356		
모바일	14,912	358	402	1,050	1,224	9,158	354	436	239	273	461	446	511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구분	전체	2014년		201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용알뜨기	356	12	96	14	21	45	49	11	19	9	14	25	41
PC	184	10	52	7	12	20	19	6	10	4	9	16	19
모바일	172	2	44	7	9	25	30	5	9	5	5	9	22
복쌈	5,207	605	182	303	276	634	192	361	174	156	133	889	1,302
PC	1,262	106	37	70	96	271	66	87	47	28	37	169	248
모바일	3,945	499	145	233	180	363	126	274	127	128	96	720	1,054
개구리알막기	2,517	58	81	85	314	573	236	225	169	146	381	134	115
PC	491	8	19	28	73	125	52	56	23	16	54	16	21
모바일	2,026	50	62	57	241	448	184	169	146	130	327	118	94
면레	862	133	52	61	45	86	63	84	60	70	63	61	84
PC	260	48	16	12	15	30	18	21	18	23	17	19	23
모바일	602	85	36	49	30	56	45	63	42	47	46	42	61
마습날	3,422	94	77	98	120	852	692	398	61	65	55	190	720
PC	1,171	34	39	57	60	444	164	81	24	38	22	59	149
모바일	2,251	60	38	41	60	408	528	317	37	27	33	131	571
삼잔날(바전놀이)	5,594	597	307	234	207	547	1,148	547	451	343	383	412	418
PC	2,522	375	144	108	92	236	512	206	185	146	115	198	205
모바일	3,072	222	163	126	115	311	636	341	266	197	268	214	213
풀각시인형	256	17	5	10	10	21	49	61	27	18	11	15	12
PC	143	11	2	8	6	13	27	33	16	10	1	10	6
모바일	113	6	3	2	4	8	22	28	11	8	10	5	6
백중날행사	44,164	341	332	380	645	1,195	1,566	2,604	4,440	10,425	18,784	1,987	1,465
PC	4,235	113	79	107	114	169	293	316	657	919	1,076	174	218
모바일	39,929	228	253	273	531	1,026	1,273	2,288	3,783	9,506	17,708	1,813	1,247
백중장	80	4	8	3	5	3	10	6	4	4	23	6	4
PC	38	2	4	1	-	-	8	5	2	1	10	4	1
모바일	42	2	4	2	5	3	2	1	2	3	13	2	3
복달음	4,150	8	16	21	12	29	5	12	45	2,934	1,042	20	6
PC	1,366	4	8	12	7	9	2	4	25	928	353	10	4
모바일	2,784	4	8	9	5	20	3	8	20	2,006	689	10	2
농신제	482	39	134	22	29	44	28	27	35	31	32	29	32
PC	212	16	56	8	7	15	15	16	14	16	17	16	16
모바일	270	23	78	14	22	29	13	11	21	15	15	13	16
칠석날(마습명절)	4,094	99	87	159	111	133	111	165	364	1,134	1,491	106	134
PC	1,232	36	33	42	35	47	45	53	127	355	373	45	41
모바일	2,862	63	54	117	76	86	66	112	237	779	1,118	61	93
어정7월	125	7	5	2	1	2	7	9	17	29	33	10	3
PC	69	5	2	1	1	2	5	6	8	14	19	5	1
모바일	56	2	3	1	-	-	2	3	9	15	14	5	2
달맞이	43,308	2,800	2,977	4,006	2,672	4,896	3,598	3,649	3,073	3,145	3,253	5,560	3,679
PC	12,803	872	853	967	802	1,522	1,008	1,068	951	833	857	1,959	1,111
모바일	30,505	1,928	2,124	3,039	1,870	3,374	2,590	2,581	2,122	2,312	2,396	3,601	2,568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구분	전체	2014년		201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거북놀이	5,529	540	323	235	194	180	269	346	227	139	316	2103	657
PC	2,863	271	128	87	61	60	96	129	143	85	184	1,259	360
모바일	2,666	269	195	148	133	120	173	217	84	54	132	844	297
망석놀이	93	4	1	5	4	5	4	8	6	3	7	34	12
PC	50	4	1	2	1	2	2	6	3	3	6	17	3
모바일	43	-	-	3	3	3	2	2	3	-	1	17	9
오려송편	830	38	55	11	11	23	92	33	56	16	53	316	126
PC	379	27	15	6	8	16	36	20	33	6	43	130	39
모바일	451	11	40	5	3	7	56	13	23	10	10	186	87
공달(윤달)	3,887	676	380	344	317	258	226	247	193	242	290	416	298
PC	1,023	147	88	92	60	71	63	67	46	71	86	101	131
모바일	2,864	529	292	252	257	187	163	180	147	171	204	315	167
가지시줄다리기	7,232	543	202	233	480	1,346	2,311	478	305	289	256	408	381
PC	3,816	274	136	149	277	651	1,160	284	199	148	129	222	187
모바일	3,416	269	66	84	203	695	1,151	194	106	141	127	186	194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충남 당진 기지시에서 행해지는 기지시줄다리기에 대한 검색빈도는 7,232건으로 나타났으며, 정월대보름행사가 개최되는 3월과 기지시줄다리기축제가 개최되는 4월에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② 민간신앙

충남의 민간신앙으로 행해지는 은산별신제 2,747건, 장승제 1,519건, 계룡산 산신제 1,292건, 설위설경 1,068건 등의 순으로 검색빈도가 나타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제 제9호인 은산별신제는 음력정월이나 2월경 길일을 택해서 대제를 지내는데 검색빈도에서도 3월에 600건으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계룡산산신제는 산악신앙축제이자 마을행사로 매년4월에 개최되는데 4월의 검색빈도를 살펴보면 397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설위설경은 충청도에서 주로 하는 앓은곳의 하나로 태안설위설경은 충청남도 무형문화제 제2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7월 이후에 검색빈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34] 민간신앙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구분		전체	2014년		201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민 간 신 앙	은산별신제	2,747	207	340	97	194	600	215	170	168	177	296	163	120
	PC	1,184	118	204	31	74	187	90	112	89	57	92	69	61
	모바일	1,563	89	136	66	120	413	125	58	79	120	204	94	59
	계룡산 산신제	1,292	68	42	102	54	113	397	304	35	40	28	44	65
	PC	533	43	20	42	22	51	175	76	16	24	12	25	27
	모바일	759	25	22	60	32	62	222	228	19	16	16	19	38
	장승제	1,519	125	104	121	112	251	146	130	109	80	76	93	172
	PC	757	67	50	50	60	119	77	70	57	40	32	49	86
	모바일	762	58	54	71	52	132	69	60	52	40	44	44	86
	설위설경	1,068	103	71	47	66	104	77	35	79	105	104	141	136
	PC	520	55	34	21	31	37	28	26	28	58	58	91	53
	모바일	548	48	37	26	35	67	49	9	51	47	46	50	83
	안택굿	299	49	29	16	14	33	34	26	19	14	21	13	31
	PC	112	26	8	8	5	19	11	3	4	3	9	9	7
	모바일	187	23	21	8	9	14	23	23	15	11	12	4	24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③ 생산풍속

생산풍속 중 어업생산풍속에 대한 내용으로는 어법에 대한 검색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통발과 머구리가 각각 94,091건, 63,693건으로 타 어법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어법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기별 검색빈도를 살펴보면 통발은 7월에 13533건, 머구리는 8월에 6241건으로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다. 충남의 어업생산풍속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독살은 총 13,782건의 검색빈도를 나타냈으며, 삼길포독살체험축제가 개최되는 8월에 1,281건에 비해 5월에 2,959건으로 검색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남의 어업생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어법과 어구에 대한 키워드가 반영된 것으로 이를 감안하여 충남이 가지고 있는 어업생산풍속의 검색빈도를 고려해야 하겠다.

[표 35] 어업생산품속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구분		전체	2014년		201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어업 생산 품속	어살	908	64	43	75	43	67	51	89	70	94	102	116	94
	PC	424	23	22	34	23	26	27	47	38	42	41	53	48
	모바일	484	41	21	41	20	41	24	42	32	52	61	63	46
	독살	13,782	816	741	707	642	1,458	826	2,959	944	1,383	1,281	773	1,252
	PC	4,681	341	281	271	229	519	330	670	371	502	394	315	458
	모바일	9,101	475	460	436	413	939	496	2,289	573	881	887	458	794
	안강망	12,661	1,765	1,155	1,433	1,116	816	913	877	967	858	737	989	1,035
	PC	4,421	477	441	408	354	330	345	343	371	285	287	384	396
	모바일	8,240	1,288	714	1,025	762	486	568	534	596	573	450	605	639
	낭장망	2,231	97	214	153	144	187	219	195	196	222	172	241	191
	PC	1,000	39	72	63	61	82	106	90	86	94	111	96	100
	모바일	1,231	58	142	90	83	105	113	105	110	128	61	145	91
	삼중망	420	19	24	26	36	43	34	63	31	53	33	38	20
	PC	172	9	10	12	22	17	14	17	14	22	7	19	9
	모바일	248	10	14	14	14	26	20	46	17	31	26	19	11
	통발	94,091	2,964	3,434	4,389	11,195	8,821	7,547	8,936	9,956	13,533	11,268	5,957	6,091
	PC	35,279	1,256	1,369	1,441	3,325	3,525	3,344	3,366	3,766	5,417	4,012	2,202	2,256
	모바일	58,812	1,708	2,065	2,948	7,870	5,296	4,203	5,570	6,190	8,116	7,256	3,755	3,835
	주낙	11,937	614	808	1,173	579	703	1,113	976	1,235	1,279	1,601	1,031	825
	PC	4,145	254	241	294	203	281	418	371	465	449	454	353	362
	모바일	7,792	360	567	879	376	422	695	605	770	830	1,147	678	463
	가두리	8,658	622	536	758	511	644	723	793	745	806	900	877	743
	PC	3,434	291	238	289	174	263	277	316	299	349	319	307	312
	모바일	5,224	331	298	469	337	381	446	477	446	457	581	570	431
	머구리	63,693	4,498	5,972	5,008	5,723	5,048	5,095	5,781	5,122	5,998	6,241	4,188	5,019
	PC	13,478	1,157	1,261	1,152	1,240	1,214	1,167	1,049	1,146	1,199	1,040	862	991
	모바일	50,215	3,341	4,711	3,856	4,483	3,834	3,928	4,732	3,976	4,799	5,201	3,326	4,028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농업생산품속 중 키워드 검색에서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천수답으로 36,117건을 나타냈으며, 시기별로는 모내기철인 6월에 21,105건이 집중되어 검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농업생산품속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구분		전체	2014년		201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천수답	36,117	1,380	1,008	1,232	942	1,532	1,267	1,553	21,105	1,357	1,409	1,645	1,687
	PC	13,593	612	442	524	370	581	520	609	7,321	533	608	768	705
	모바일	22,524	768	566	708	572	951	747	944	13,784	824	801	877	982
	수랑논	511	36	36	40	39	60	61	55	43	27	33	23	58
	PC	256	23	30	22	19	24	26	22	22	14	17	10	27
	모바일	255	13	6	18	20	36	35	33	21	13	16	13	31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④ 의식주 생활풍속

의식주 생활풍속 중 의생활은 춘포에 대한 검색이 1,980건이 이루어졌으며 7월에 308건의 빈도를 보이고 있다. 식생활 중에는 한산소곡주가 106,099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쉼박지가 35,350건, 면천두견주가 5487건, 복령조화고가 124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산소곡주는 명절을 중심으로 검색 빈도가 높았으며, 쉼박지는 김장과 관련된 음식으로서 11월에 5808건이 검색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천두견주는 대부분 비슷한 검색수를 보였으나 4월에 699건으로 비교적 높게 빈도가 나타났으며 이는 진달래가 채취되는 시기 및 면천진달래민속축제의 개최에 따른 결과로 사료된다.

전통주거건축으로서 외암민속마을과 동자북마을이 검색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자북마을은 한산소곡주와 한산세모시의 고장으로 4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전통체험하기 좋은 마을 10선에 선정됨에 따라 검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표 37] 의식주 생활풍속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구분	전체	2014년		201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의 생 활	춘포	1,980	86	139	121	108	163	192	171	191	308	143	166	192
	PC	691	82	59	41	31	63	54	66	57	72	31	61	74
	모바일	1,289	4	80	80	77	100	138	105	134	236	112	105	118
식 생 활	한산소곡주	106,099	5,033	5,807	7,431	16,720	8,269	7,746	9,015	6,576	5,688	5,707	19,338	8,769
	PC	33,028	1,833	2,124	2,559	4,903	2,482	2,507	2,728	2,158	1,851	1,870	5,532	2,481
	모바일	73,071	3,200	3,683	4,872	11,817	5,787	5,239	6,287	4,418	3,837	3,837	13,806	6,288
	쉼박지	35,350	5,808	2,983	2,611	2,529	2,722	2,586	2,608	2,432	1,661	2,730	2,819	3,861
	PC	7573	1326	667	473	461	592	561	576	568	476	522	590	771
	모바일	27777	4482	2326	2138	2068	2130	2025	2032	1864	1185	2208	2229	3090
	복령조화고	1,246	47	72	327	68	301	123	50	62	40	52	62	42
	PC	402	17	37	70	30	66	41	24	24	20	28	33	12
	모바일	844	30	35	257	38	235	82	26	38	20	24	29	30
	면천두견주	5,487	338	355	329	667	546	699	474	376	319	457	610	317
	PC	2301	146	147	146	237	196	324	209	171	136	173	260	156
	모바일	3186	192	208	183	430	350	375	265	205	183	284	350	161
전 통 주 거 건 축	외암민속마을	144,299	9,952	7,170	9,971	8,723	12,539	14,895	18,927	7,413	12,788	14,914	11,142	15,865
	PC	32,634	2,780	1,848	2,290	1,968	3,022	3,754	3,741	2,060	3,245	2,615	2,232	3079
	모바일	111,665	7,172	5,322	7,681	6,755	9,517	11,141	15,186	5,353	9,543	12,299	8,910	12786
	동자북마을	1,355	100	99	103	98	96	174	122	91	116	154	76	126
	PC	498	40	59	43	36	42	81	25	30	32	43	26	41
	모바일	857	60	40	60	62	54	93	97	61	84	111	50	85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⑤ 기타

민속자원 부문의 대표자원에 나타난 자원에 대한 키워드 분석은 계룡산산신제, 내포영산대제, 한산세모시, 태안 청포대 독살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8] 기타 민속자원의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구분	전체	2014년		201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한산세모시	617	40	30	43	37	50	56	54	73	70	75	51	38
PC	232	13	9	26	18	19	18	22	29	21	28	16	13
모바일	385	27	21	17	19	31	38	32	44	49	47	35	25
내포영산대제	1,105	66	18	24	28	46	33	56	36	109	193	217	279
PC	331	21	8	10	8	18	9	31	14	30	35	72	75
모바일	774	45	10	14	20	28	24	25	22	79	158	145	204
계룡산산신제	1,292	68	42	102	54	113	397	304	35	40	28	44	65
PC	533	43	20	42	22	51	175	76	16	24	12	25	27
모바일	759	25	22	60	32	62	222	228	19	16	16	19	38
연산백중놀이	323	24	25	4	5	20	15	29	22	24	33	95	27
PC	211	17	10	4	4	18	13	19	14	15	24	57	16
모바일	112	7	15	-	1	2	2	10	8	9	9	38	11
황도봉기풍어제	231	8	5	16	73	13	4	6	15	52	20	8	11
PC	75	5	3	7	16	6	1	3	9	13	3	6	3
모바일	156	3	2	9	57	7	3	3	6	39	17	2	8
태안청포대독살	319	8	8	7	4	15	18	57	42	59	68	15	18
PC	146	3	2	3	3	9	13	30	20	27	24	4	8
모바일	173	5	6	4	1	6	5	27	22	32	44	11	10
물페기농요	23	-	1	2	-	2	-	3	4	3	4	3	1
PC	13	-	-	-	-	-	-	1	4	1	4	3	-
모바일	10	-	1	2	-	2	-	2	-	2	-	-	1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4) 전통예술의 키워드 분석

(1) 전체 전통예술의 키워드 분석결과

충청남도의 전통예술의 검색빈도별 키워드를 살펴보면 안건의 몽유도원도가 98,667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냈으며, 칠지도 87,811건, 백제금동대향로 82,110건, 부여정림사지5층 석탑 82,038건 등의 순이다. 상위를 차지한 전통예술 자원들은 유형의 자원들이 많으며, 전통음악부문의 판소리 박동진이 31,773건으로 무형자원으로서 유일하게 상위 10개에 포함되었다.

키워드를 검색하는 매체로는 모든 항목에서 모바일이 높은 빈도를 차지했다.

[표 39] 전통예술 키워드 검색 결과(상위 10개)

(단위 : 건)

순위	자원명	전체	PC	모바일	비고
1	몽유도원도	98,667	40,057	58,610	전통회화/산수화
2	칠지도	87,811	36,102	51,709	서예/전통공예/백제시대
3	백제금동대향로	82,110	39,714	42,396	전통공예/철기와금동제품
4	부여정림사지5층석탑	82,038	30,726	51,312	전통조각/백제시대(석탑)
5	분청사기	65,152	27,737	37,415	전통공예/도자공예
6	김정희_세한도(歲寒圖)	59,303	22,055	37,248	전통회화/산수화
7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51,224	21,783	29,441	전통조각/백제시대(불상조각)
8	「양직공도(梁職貢圖)」	35,432	12,807	22,625	서예/백제시대
9	사택지적비(砂宅智積碑)	32,946	9,610	23,336	서예/백제시대
10	박동진(朴東鎭, 1916~2003)	31,773	11,359	20,414	전통음악/판소리

주 : 전체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1년 합계임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시기별 키워드 검색빈도를 보면 상위에 랭크된 전통예술자원이 유형의 자원임에 따라 시기별 차이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동진에 대한 검색빈도는 7월에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박동진 판소리 명창 · 명고대회가 7월에 개최됨에 따라 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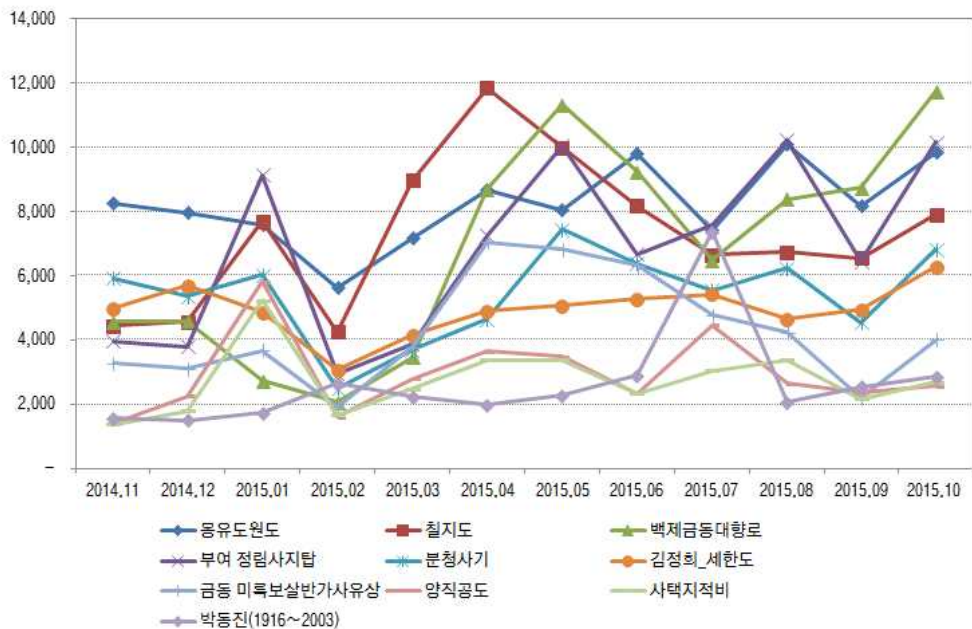
[표 40] 전통예술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단위 : 건)

순위	유적명	전체	2014년		201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	몽유도원도	98,667	8,268	7,947	7,603	5,642	7,185	8,658	8,057	9,801	7,424	10,088	8,151	9,843
2	칠지도	87,811	4,443	4,577	7,689	4,247	8,980	11,860	9,986	8,183	6,649	6,736	6,552	7,909
3	백제금동대향로	82,110	4,572	4,593	2,722	2,086	3,472	8,704	11,329	9,235	6,500	8,397	8,750	11,750
4	부여정림사지탑	82,038	3,947	3,776	9,134	2,935	3,874	7,262	10,054	6,673	7,563	10,226	6,440	10,154
5	분청사기	65,152	5,931	5,360	6,027	2,490	3,686	4,662	7,444	6,387	5,550	6,242	4,553	6,820
6	김정희_세한도	59,303	4,976	5,692	4,851	3,064	4,143	4,902	5,064	5,285	5,421	4,668	4,961	6,276
7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51,224	3,277	3,128	3,681	1,893	3,776	7,054	6,818	6,343	4,789	4,240	2,217	4,008
8	양직공도	35,432	1,427	2,251	5,813	1,596	2,796	3,657	3,473	2,346	4,469	2,654	2,383	2,567
9	사택지적비	32,946	1,381	1,789	5,227	1,678	2,491	3,375	3,386	2,340	3,053	3,374	2,168	2,684
10	박동진	31,773	1,566	1,509	1,754	2,672	2,241	1,983	2,288	2,920	7,372	2,056	2,554	2,858

주 : 전체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1년 합계임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그림 12] 전통예술 시기별 키워드 검색 비교(상위 10개)

(2) 전통예술별 키워드 분석결과

① 전통음악

충남의 전통음악은 백제시대의 음악과 악기, 백제시대의 혼이 전승된 노래, 고려시대의 음악, 조선시대의 음악 등이 있다. 백제시대음악으로는 두드리거나 치는 타악기와 불어서 소리를 내는 관악기의 연주로 이루어지 음악을 뜻하는 고취악이 665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리고 홍성모심기소리인 결성농요가 492건, 부여지역의 농요에 대한 통칭인 산유화가가 530건의 빈도를 보였다. 홍성의 모심기소리인 결성농요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0호로 노래 내용은 웅신제, 모내기, 건쟁이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5월에 73건으로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부여의 산유화가는 충남 무형문화재 제4호로서 모심는 소리·논매는 소리·벼바심소리·나부질소리·노적소리를 엮어서 매년 8월 17일에 유왕산에서 산유화가를 시연하고 있으며 9월에 높은 검색빈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백제음악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구분		전체	2014년		201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백제 시대 음악	홍성모심기소리 (결성농요)	492	13	9	15	54	67	87	73	34	26	40	43	31
	PC	279	9	7	8	15	34	48	43	27	16	30	24	18
	모바일	213	4	2	7	39	33	39	30	7	10	10	19	13
	고취악(鼓吹樂)	665	84	65	14	17	44	62	56	66	44	28	81	104
	PC	329	48	25	7	6	23	31	43	36	13	16	48	33
	모바일	336	36	40	7	11	21	31	13	30	31	12	33	71
	산유화가	530	50	44	16	12	67	46	67	48	19	25	75	61
	PC	284	25	22	8	6	47	23	39	31	10	13	28	32
	모바일	246	25	22	8	6	20	23	28	17	9	12	47	29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조선시대의 음악인 풍류방에서는 대금산조와 해금산조의 명인인 한범수가 2753건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가야금과 병창으로 이름을 떨친 심상건이 332건의 빈도수를 보였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한범수는 201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343건, 359건 등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심상건 또한 같은 시기 각각 45건과 54건의 빈도를 보였다.

판소리에서는 대한민국 판소리명창인 박동진(1916-2003)이 검색빈도가 31,77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박동진명창·명고대회가 개최된 7월에 검색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표 42] 조선음악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구분		전체	2014년		201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풍류 가 방	심상건	332	45	54	22	23	12	30	25	25	19	21	36	20
	PC	200	38	34	13	16	7	14	14	13	14	12	17	8
	모바일	132	7	20	9	7	5	16	11	12	5	9	19	12
	한범수	2,753	343	359	208	186	230	284	257	204	209	144	161	168
	PC	937	104	96	74	58	89	101	101	76	61	43	56	78
	모바일	1,816	239	263	134	128	141	183	156	128	148	101	105	90
판 소 리	염계달	226	19	31	13	10	19	28	20	29	11	11	9	26
	PC	112	10	14	5	4	15	17	10	17	2	5	3	10
	모바일	114	9	17	8	6	4	11	10	12	9	6	6	16
	방만춘	205	21	23	13	10	13	21	20	16	26	14	17	11
	PC	92	10	6	6	5	5	9	8	10	8	8	9	8
	모바일	113	11	17	7	5	8	12	12	6	18	6	8	3
	박동진	31,773	1,566	1,509	1,754	2,672	2,241	1,983	2,288	2,920	7,372	2,056	2,554	2,858
	PC	11,359	631	654	643	859	792	790	761	1,078	2,416	776	931	1,028
	모바일	20,414	935	855	1,111	1,813	1,449	1,193	1,527	1,842	4,956	1,280	1,623	1,830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② 전통회화

전통회화는 청동기시대의 회화, 백제시대의 회화, 고려시대의 회화, 조선시대의 회화 등이 있는데, 이중 조선시대의 회화는 산수화의 작가, 사군자의 작가, 화조화의 작가, 초상화 및 기타, 불화 등으로 구분되어 키워드 검색을 실시하였다.

고려시대의 전통회화 작품으로는 수덕사 내부에 그려져 있는 별화인 운룡도가 1,492건으로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제현의 [기마도강도] 가 973건, 수덕사 대웅전 벽화가 310건, 이색초상 99건 등의 빈도수를 나타냈다.

[표 43] 고려시대 전통회화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구분		전체	2014년		201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고려 사대	이제현<기마도강도>	973	114	86	24	29	39	65	50	142	118	110	91	105
	PC	520	65	28	14	7	21	41	35	88	43	73	52	53
	모바일	453	49	58	10	22	18	24	15	54	75	37	39	52
	이색(1328-1396)초상	99	16	10	9	4	9	9	4	5	5	6	7	15
	PC	73	11	8	7	4	6	5	3	4	2	6	3	14
	모바일	26	5	2	2	-	3	4	1	1	3	-	4	1
	수덕사대웅전 벽화	310	34	17	21	18	36	49	42	18	23	19	12	21
	PC	131	13	8	6	8	21	16	20	6	13	10	5	5
	모바일	179	21	9	15	10	15	33	22	12	10	9	7	16
	수덕사 운룡도	1,492	183	135	88	45	93	144	139	160	78	120	144	163
	PC	826	133	75	47	18	45	66	64	76	43	67	99	93
	모바일	666	50	60	41	27	48	78	75	84	35	53	45	70

조선시대의 전통회화는 산수화, 사군자, 초상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산수화에서는 안건의 몽유도원도가 98,667건으로 검색빈도가 높았으며, 안건의 또 다른 작품인 <사시팔경도>는 1453건으로 나타났다. 서산시에는 서산출생인 안견선생의 예술혼을 계승하기 위하여 안견문화추진위원회가 있으며, 안견창작스튜디오가 위치하고 있다. 또한 안견사랑제 및 2014년에는 안건의 몽유도원도를 소재로 제작된 가무악극인 “안견몽유도원도”는 서산에서 개최되는 등 안견선생과 관련된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다. 추사김정희 선생의 작품인 <세한도>는 59,303건의 검색빈도를 보였으며, <묵란도>는 707건으로 나타났다. 사군자는 이정의 <묵죽도>가 718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으며, 기사계첩 374건, 조속의 <노수서작도>가 36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상화로는 익안대군영정이 238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44) 조선시대 전통회화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구분	전체	2014년					201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산수화	안견 몽유도원도	98,667	8,268	7,947	7,603	5,642	7,185	8,658	8,057	9,801	7,424	10,088	8,151	9,843
	PC	40,057	3,938	3,102	2,713	1,992	2,832	3,563	3,398	4,237	2,960	4,052	3,402	3,868
	모바일	58,610	4,330	4,845	4,890	3,650	4,353	5,095	4,659	5,564	4,464	6,036	4,749	5,975
	안견 사시팔경도	1,453	156	160	39	42	69	180	117	250	62	84	85	209
	PC	824	93	98	19	17	39	89	64	140	44	47	57	117
	모바일	629	63	62	20	25	30	91	53	110	18	37	28	92
	김정희(세한도)	59,303	4,976	5,692	4,851	3,064	4,143	4,902	5,064	5,285	5,421	4,668	4,961	6,276
	PC	22,055	2,144	2,091	1,718	1,054	1,594	1,923	1,791	2,300	1,663	1,644	1,903	2,230
	모바일	37,248	2,832	3,601	3,133	2,010	2,549	2,979	3,273	2,985	3,758	3,024	3,058	4,046
	김정희(묵난도)	707	75	75	48	37	43	56	53	74	56	49	60	81
	PC	453	55	48	25	18	29	40	36	52	35	28	35	52
	모바일	254	20	27	23	19	14	16	17	22	21	21	25	29
사군자	이정(묵죽도)	718	92	86	27	25	33	52	48	113	43	58	66	75
	PC	425	57	45	14	16	25	23	23	75	27	40	43	37
	모바일	293	35	41	13	9	8	29	25	38	16	18	23	38
	조속(노수서작도)	366	56	35	7	9	9	25	35	67	28	20	29	46
	PC	187	35	20	4	6	7	13	25	29	4	12	19	13
	모바일	179	21	15	3	3	2	12	10	38	24	8	10	33
	기사계첩	374	34	31	20	13	31	63	38	27	25	23	30	39
	PC	264	22	27	13	10	26	37	31	20	13	18	25	22
초상화	모바일	110	12	4	7	3	5	26	7	7	12	5	5	17
	김시습초상	166	17	14	17	10	9	21	16	14	10	13	14	11
	PC	103	8	11	5	4	6	14	11	10	9	9	7	9
	모바일	63	9	3	12	6	3	7	5	4	1	4	7	2
	박문수초상	225	8	15	24	17	16	33	39	16	10	10	14	23
	PC	130	6	7	12	12	7	16	24	5	5	6	12	18
	모바일	95	2	8	12	5	9	17	15	11	5	4	2	5
	김정희초상	198	21	6	16	9	19	18	17	32	16	13	13	18
	PC	101	15	4	8	2	12	12	4	18	7	5	8	6
	모바일	97	6	2	8	7	7	6	13	14	9	8	5	12
	익안대군영정	238	7	6	9	12	7	32	27	23	21	21	29	44
	PC	79	1	6	6	1	1	9	6	9	5	5	8	22
	모바일	159	6	-	3	11	6	23	21	14	16	16	21	22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불화는 수덕사의 노사나불괘불탱이 341건으로 가장 많은 검색빈도를 보였으며, 감사 삼신 불괘불탱이 139건, 신원사 노사나불괘불탱이 10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 전통회화 불화의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구분	전체	2014년		201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불 화	감사삼신불괘불탱	139	16	7	6	6	12	6	8	11	15	18	8	26
	PC	89	12	5	3	3	5	5	5	11	12	9	5	14
	모바일	50	4	2	3	3	7	1	3	-	3	9	3	12
	신원사 노사나불괘불탱	101	10	2	2	-	4	10	17	17	3	16	11	9
	PC	54	6	1	1	-	3	6	10	11	2	6	3	5
	모바일	47	4	1	1	-	1	4	7	6	1	10	8	4
	장곡사 미륵불괘불탱	87	14	5	3	6	2	7	11	3	4	12	14	6
	PC	53	9	2	1	2	2	7	7	3	1	5	10	4
	모바일	34	5	3	2	4	-	-	4	-	3	7	4	2
	수덕사 노사나불괘불탱	341	32	42	36	28	34	29	21	5	15	30	29	40
	PC	110	10	16	15	9	13	7	9	2	2	9	6	12
	모바일	231	22	26	21	19	21	22	12	3	13	21	23	28
	용봉사영산회괘불 탱	80	5	2	5	4	5	14	10	4	6	13	6	6
	PC	41	5	-	4	3	1	12	1	2	4	6	2	1
	모바일	39	-	2	1	1	4	2	9	2	2	7	4	5
	오덕사괘불탱	44	4	3	4	3	7	2	2	10	2	4	2	1
	PC	30	3	3	2	3	6	1	-	8	2	2	-	-
	모바일	14	1	-	2	-	1	1	2	2	-	2	2	1
	은석사 아미타극락도	16	-	7	1	1	1	-	1	4	-	1	-	-
	PC	-	-	-	-	-	-	-	-	-	-	-	-	-
	모바일	16	-	7	1	1	1	-	1	4	-	1	-	-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③ 서예

서예는 백제 서예유물, 통일신라 서예유물, 고려시대의 서예 유물과 주요 인물, 조선시대 서예 유물과 주요 인물 등이 있다.

서예에 관련된 전통예술 자원으로는 칠지도가 87,811건으로 검색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양직공도가 35,432건, 사택지적비가 32,946건으로 백제시대 관련 서예유물이 높은 검색빈도를 보였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칠지도는 4월에 11,860건으로 가장 높았으나 거의 비슷한 검색빈도를 보이고 있다. 양직공도는 7월에 4,469건으로 가장 많이 검색되었으며, 사택지적비는 1월에

5,227건으로 많은 검색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지난 1월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제1845호로 지정됨에 따라 검색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칠지도와 관련하여 충남에서는 서산 닻개 백제사신행렬- 칠지도의 비밀공연과 백제문화단지에서는 칠지도의 탄생 공연이 개최되었다.

[표 46] 서예의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구분		전체	2014년		201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서예	칠지도	87,811	4,443	4,577	7,689	4,247	8,980	11,860	9,986	8,183	6,649	6,736	6,552	7,909
	PC	36,102	2,037	1,839	2,731	1,675	3,110	4,634	4,912	4,019	2,546	2,386	2,943	3,270
	모바일	51,709	2,406	2,738	4,958	2,572	5,870	7,226	5,074	4,164	4,103	4,350	3,609	4,639
	양직공도	35,432	1,427	2,251	5,813	1,596	2,796	3,657	3,473	2,346	4,469	2,654	2,383	2,567
	PC	12,807	572	938	1,855	603	940	1,346	1,354	920	1,594	929	835	921
	모바일	22,625	855	1,313	3,958	993	1,856	2,311	2,119	1,426	2,875	1,725	1,548	1,646
	사택지작비	32,946	1,381	1,789	5,227	1,678	2,491	3,375	3,386	2,340	3,053	3,374	2,168	2,684
	PC	9,610	445	541	1,474	443	684	986	1,080	757	980	785	664	771
	모바일	23,336	936	1,248	3,753	1,235	1,807	2,389	2,306	1,583	2,073	2,589	1,504	1,913
	이색신도비	44	5	4	2	-	1	1	2	7	5	9	1	7
	PC	33	5	4	2	-	1	-	1	6	-	7	1	6
	모바일	11	-	-	-	-	-	1	1	1	5	2	-	1
	길재(지주중류비)	277	35	12	18	19	17	22	26	24	24	35	16	29
	PC	130	26	7	7	9	6	7	9	9	10	15	7	18
	모바일	147	9	5	11	10	11	15	17	15	14	20	9	11
	쌍수정사작비	300	25	12	14	14	30	17	39	21	22	49	21	36
	PC	134	13	6	2	8	13	4	21	13	11	16	8	19
	모바일	166	12	6	12	6	17	13	18	8	11	33	13	17
	돈암서원원장비	77	6	19	4	-	8	4	-	3	8	7	14	4
	PC	52	6	12	2	-	6	3	-	2	7	3	7	4
	모바일	25	-	7	2	-	2	1	-	1	1	4	7	-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④ 전통공예

전통공예 중 토기는 청동기시대의 송국리형토기가 696건이 검색되었으며, 이는 송국리청동기문화재협축제가 개최되는 4월에 검색빈도가 높았다.

금속공예로는 청동거울이 18,183건, 한국식동검이 1,225건이 키워드로 검색되었으나 이는 충남에 국한된 전통예술자원이 아닌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검색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철기금동공예의 경우 백제금동대향로가 82,110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산수무늬

벽돌이 9,486건, 무령왕릉 동탁은잔이 63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백제금동대향로의 검색 시기를 살펴보면 10월에 11,750건의 빈도를 보였으며, 백제문화재개최시기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47] 철기금동·유리공예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구분		전체	2014년		201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토기	송국리형토기	696	61	55	50	27	65	95	63	76	41	38	47	78
	PC	340	37	33	16	13	38	45	34	31	17	17	21	38
	모바일	356	24	22	34	14	27	50	29	45	24	21	26	40
금속공예	한국식동검	1,225	95	81	60	55	63	162	166	113	44	129	97	160
	PC	585	60	36	25	11	21	72	87	74	27	51	51	70
	모바일	640	35	45	35	44	42	90	79	39	17	78	46	90
	청동거울	18,183	1,164	1,258	1,503	1,257	2,015	2,193	1,609	1,364	1,091	1,396	1,933	1,400
	PC	7,738	569	462	572	374	770	865	700	631	438	662	1,028	667
	모바일	10,445	595	796	931	883	1,245	1,328	909	733	653	734	905	733
	산수무늬벽돌	9,486	292	410	819	350	677	1,943	1,306	1,311	747	512	473	646
철기금동공예	PC	4,263	149	152	262	135	320	853	705	658	288	210	233	298
	모바일	5,223	143	258	557	215	357	1,090	601	653	459	302	240	348
	무령왕릉 동탁은잔	632	40	29	16	69	41	48	31	76	115	53	42	72
	PC	270	24	11	6	19	25	25	23	39	27	14	22	35
	모바일	362	16	18	10	50	16	23	8	37	88	39	20	37
	백제금동대향로	82110	4,572	4,593	2,722	2,086	3,472	8,704	11,329	9,235	6,500	8,397	8,750	11,750
	PC	39714	2,772	2,546	1,123	867	1,551	3,926	6,567	5,377	3,215	2,916	4,221	4,633
	모바일	42396	1,800	2,047	1,599	1,219	1,921	4,778	4,762	3,858	3,285	5,481	4,529	7,117
	유리공예	유리제동자상	17	-	-	1	1	-	1	-	-	4	7	-
PC		14	-	-	-	1	-	1	-	-	4	6	-	2
모바일		3	-	-	1	-	-	-	-	-	-	1	-	1
유리도가니		131	9	3	2	4	44	14	7	2	12	5	18	11
PC		74	8	1	-	2	21	10	5	1	9	1	10	6
모바일		57	1	2	2	2	23	4	2	1	3	4	8	5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직물공예자원으로는 모시폴로 만든 저포가 3,337건의 빈도를 보였으며, 한산모시와 더불어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고공예는 짚신이 103,085건으로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으며 토기공예 중 수막새와 백제 토기는 각각 26407건, 8713건의 검색빈도를 보였으나 이는 충남의 특색있는 전통예술 자원이기보다는 전국적인 형태의 자원으로서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공예자원으로 칠지도가 88,811건의 검색빈도를 보였으며, 천홍사 동종 360건의 빈도를

보였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천홍사 동종은 국내에 남아있는 고려시대 중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석공예자원으로서 남포벼루는 제작자가 충청남도 무형문화제 제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1855건의 검색빈도를 보였다. 남포벼루는 추사김정희선생의 벼루로도 사용될 정도로 유명하였으며, 시기별 빈도수를 살펴보면 3월에 205건의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표 48] 직물·초·석공예의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구분		전체	2014년		201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직물 공예	저포	3,337	189	238	239	188	249	312	429	417	325	218	262	271
	PC	1,270	91	74	75	81	100	117	144	177	108	92	119	92
	모바일	2,067	98	164	164	107	149	195	285	240	217	126	143	179
초고 공예	짚신	103,085	8,581	8,273	8,790	8,815	8,251	8,464	9,568	8,883	7,943	7,976	9,110	8,431
	PC	24,723	2,269	1,711	1,703	1,656	1,965	2,125	2,314	2,149	1,793	1,882	2,767	2,389
	모바일	78,362	6,312	6,562	7,087	7,159	6,286	6,339	7,254	6,734	6,150	6,094	6,343	6,042
토기 공예	암문토기:수막새	26,407	2,067	1,950	2,208	1,422	1,681	1,841	2,354	1,994	1,882	2,193	3,062	3,753
	PC	9,931	786	693	558	403	639	710	906	915	744	674	1,386	1,517
	모바일	16,476	1,281	1,257	1,650	1,019	1,042	1,131	1,448	1,079	1,138	1,519	1,676	2,236
	백제토기	8,713	389	401	752	815	469	890	1,178	705	608	451	988	1,067
	PC	4,527	252	200	318	177	245	554	735	426	301	198	556	565
	모바일	4,186	137	201	434	638	224	336	443	279	307	253	432	502
	계수호	152	7	27	3	5	19	14	20	9	9	10	13	16
	PC	101	7	19	3	4	8	6	15	4	6	8	13	8
	모바일	51	-	8	-	1	11	8	5	5	3	2	-	8
	금속 공예	칠지도	88,811	4,443	4,577	7,689	4,247	8,980	11,860	9,986	8,183	6,649	6,736	7,552
PC		37,102	2,037	1,839	2,731	1,675	3,110	4,634	4,912	4,019	2,546	2,386	3,943	3,270
모바일		51,709	2,406	2,738	4,958	2,572	5,870	7,226	5,074	4,164	4,103	4,350	3,609	4,639
천홍사 동종		360	40	45	12	15	6	42	65	46	14	32	31	12
PC		214	26	24	6	4	4	23	47	38	4	13	20	5
모바일		146	14	21	6	11	2	19	18	8	10	19	11	7
석 공 예	남포벼루	1,855	116	135	214	216	205	150	173	144	109	129	142	122
	PC	925	67	71	102	76	109	72	96	79	48	66	72	67
	모바일	930	49	64	112	140	96	78	77	65	61	63	70	55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⑤ 전통조각

전통조각은 선사시대에 고인돌과 선돌이 대표적인 전통조각으로서 고인돌은 152,409건, 선돌은 33,134건의 빈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들 자원 중 하위자원인 지역별 고인돌 및 선돌 자원은 키워드로 검색되지 않았다.

불상조각과 관련된 자료는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 51,224건의 빈도수를 보였으며, 금동불이 134건으로 나타났다.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은 4월에 7,054건으로 검색이 집중되었다. 석탑으로는 정림사지오층석탑이 82,038건의 키워드 검색이 이루어졌으며, 석불은 개태사지 석불입상이 217건, 홍성 신경리마애석불이 12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9] 전통조각의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구분		전체	2014년		201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선사시대	고인돌	152,409	13,358	12,448	10,259	8,151	13,244	16,180	14,011	10,826	11,624	12,521	15,372	14,415
	PC	59,182	5,681	5,196	3,865	2,491	5,351	6,609	5,370	4,633	3,998	4,270	6,171	5,547
	모바일	93,227	7,677	7,252	6,394	5,660	7,893	9,571	8,641	6,193	7,626	8,251	9,201	8,868
	선돌	33,134	2,072	1,403	2,034	1,514	1,668	2,129	3,792	2,136	4,307	5,953	2,217	3,919
	PC	7,823	543	332	476	322	524	660	822	651	1,036	909	526	952
	모바일	25,311	1,529	1,071	1,558	1,192	1,134	1,469	2,970	1,485	3,211	5,044	1,691	2,957
불상조각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51,224	3,277	3,128	3,681	1,893	3,776	7,054	6,818	6,343	4,789	4,240	2,217	4,008
	PC	21,783	1,595	1,286	1,306	629	1,152	2,515	3,454	3,228	1,857	1,641	1,219	1,901
	모바일	29,441	1,682	1,842	2,375	1,264	2,624	4,539	3,364	3,115	2,932	2,599	998	2,107
	금동불	134	7	7	16	6	10	5	19	10	9	15	16	14
	PC	92	6	6	4	5	10	3	13	9	7	11	9	9
	모바일	42	1	1	12	1	-	2	6	1	2	4	7	5
석탑	정림사지 오층석탑	82,038	3,947	3,776	9,134	2,935	3,874	7,262	10,054	6,673	7,563	10,226	6,440	10,154
	PC	30,726	1,679	1,521	3,108	933	1,416	2,794	4,771	2,831	2,686	2,952	2,542	3,483
	모바일	51,312	2,268	2,255	6,026	2,002	2,458	4,468	5,283	3,842	4,877	7,274	3,898	6,661
석불	개태사지 석불입상	217	14	12	36	18	21	14	18	26	15	18	16	9
	PC	90	5	3	13	9	6	11	6	16	6	6	2	7
	모바일	127	9	9	23	9	15	3	12	10	9	12	14	2
	홍성신경리마애 석불	121	8	4	7	6	9	32	12	10	7	6	9	11
	PC	70	8	4	6	6	2	20	9	2	3	6	3	1
	모바일	51	-	-	1	-	7	12	3	8	4	-	6	10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⑥ 전통무용

충남의 전통무용은 백제시대의 미마지와 기악무가 각각 6,019건, 864건이 검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마지에 대한 시기별 검색은 2014년 11월에 749건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기악무에 대한 검색은 2014년 12월에 194건의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기악무는 6세기 초에 성행한 백제의 가면극(탈춤)으로 미마지가 중국 오나라에서 배워 일본에 전하였으며 공주민속박물관에서 전도향토연극제의 하나로 백제기악탈놀이를 시연하는 등 전승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50] 전통무용의 시기별 키워드 검색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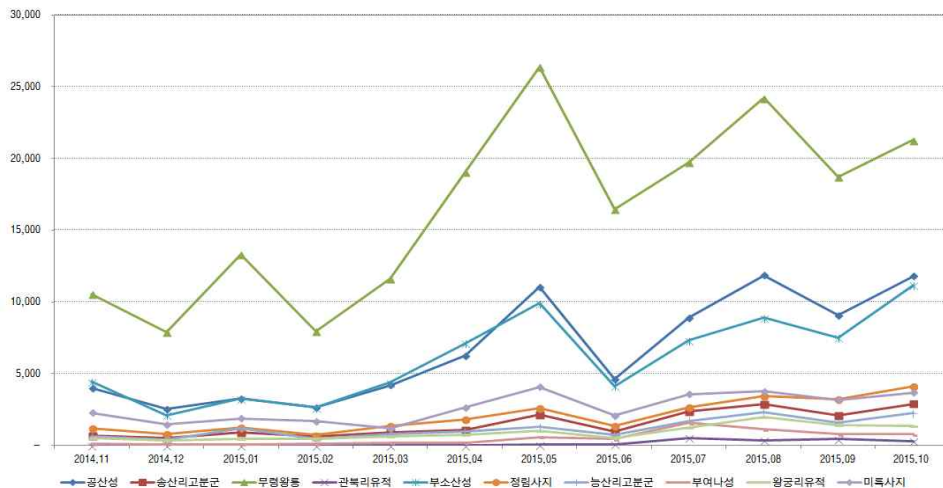
구분		전체	2014년		201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통 무용	미마지	6,019	749	592	336	368	434	480	496	487	456	607	456	558
	PC	2,039	316	180	131	119	153	148	152	198	155	178	160	149
	모바일	3,980	433	412	205	249	281	332	344	289	301	429	296	409
	기악무	864	69	194	15	7	33	52	34	148	121	21	66	104
	PC	368	32	45	9	3	16	23	27	86	27	17	49	34
	모바일	496	37	149	6	4	17	29	7	62	94	4	17	70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5)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자원 키워드 분석

(1) 백제유적지구 유산별 키워드 분석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자원을 살펴보면 공주의 송산리고분군 215,061건으로 가장 많은 검색빈도를 보이고 있다. 공산성 80,215건,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이 74,633건, 익산의 미륵사지가 31,53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백제역사유적지구 유산별 검색빈도

[표 51] 백제유적지구 지역별 키워드검색 결과

구분		전체	2014년		2015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충주	공산성	80,215	4,004	2,540	3,279	2,647	4,202	6,241	11,023	4,627	8,907	11,851	9,087	11,807
	PC	27,354	1,536	974	1,037	816	1,606	2,611	3,462	1,890	2,895	3,013	3,376	4,138
	모바일	52,861	2,468	1,566	2,242	1,831	2,596	3,630	7,561	2,737	6,012	8,838	5,711	7,669
	송산리고분군	215,061	11,208	8,396	14,248	8,536	12,521	20,130	28,484	17,379	22,101	27,079	20,801	24,178
	PC	77,885	4,649	3,337	4,627	2,385	4,723	8,450	12,154	7,344	6,965	6,708	7,907	8,636
	모바일	137,176	6,559	5,059	9,621	6,151	7,798	11,680	16,330	10,035	15,136	20,371	12,894	15,542
	송산리고분군	18,006	661	507	932	601	904	1,055	2,137	937	2,389	2,875	2,104	2,904
	PC	6,864	273	204	298	171	347	435	865	431	907	934	849	1,149
	모바일	11,142	388	303	634	430	557	620	1,271	506	1,482	1,941	1,255	1,755
	(무령왕릉)	197,055	10,547	7,889	13,316	7,935	11,617	19,075	26,347	16,442	19,712	24,204	18,697	21,274
	PC	71,021	4,376	3,133	4,329	2,214	4,376	8,015	11,288	6,913	6,058	5,774	7,058	7,487
	모바일	126,034	6,171	4,756	8,987	5,721	7,241	11,060	15,059	9,529	13,654	18,430	11,639	13,787
부여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74,633	4,443	2,096	3,273	2,646	4,388	7,132	9,929	4,215	7,835	9,239	7,963	11,474
	PC	27,599	1,628	830	1,042	773	1,802	3,171	3,409	1,824	2,643	2,724	3,310	4,443
	모바일	47,034	2,815	1,266	2,231	1,873	2,586	3,961	6,520	2,391	5,192	6,515	4,653	7,031
	관북리유적	1,734	-	-	-	-	-	-	35	74	525	330	449	301
	PC	939	-	-	-	-	-	-	22	67	254	198	274	184
	모바일	735	-	-	-	-	-	-	13	7	271	132	175	117
	부소산성	72,899	4,443	2,096	3,273	2,646	4,388	7,132	9,894	4,141	7,310	8,889	7,514	11,173
	PC	26,600	1,628	830	1,042	773	1,802	3,171	3,387	1,757	2,389	2,536	3,036	4,259
	모바일	46,299	2,815	1,266	2,231	1,873	2,586	3,961	6,507	2,384	4,921	6,353	4,478	6,914
	정림사지	24,555	1,209	773	1,242	713	1,347	1,834	2,608	1,380	2,660	3,471	3,223	4,095
	PC	10,923	628	375	545	272	699	870	1,189	762	1,199	1,300	1,395	1,689
	모바일	13,632	581	398	697	441	648	964	1,419	618	1,461	2,171	1,828	2,406
익산	능산리고분군	14,293	618	414	1,181	475	785	974	1,285	721	1,721	2,302	1,579	2,238
	PC	6,588	325	165	486	190	416	487	739	392	752	904	716	1,016
	모바일	7,705	293	249	695	285	369	487	546	329	969	1,398	863	1,222
	부여나성	5,974	106	63	87	108	190	180	574	436	1,558	1,117	780	775
	PC	2,794	48	25	43	45	83	108	249	243	674	517	394	365
	모바일	3,180	58	38	44	63	107	72	325	193	884	600	386	410
	왕궁리유적	10,638	508	344	469	444	602	739	1,035	519	1,233	1,978	1,429	1,338
	PC	3,482	192	106	124	101	190	199	245	177	464	686	516	482
	모바일	7,156	316	238	345	343	412	540	790	342	769	1,292	913	856
	미륵사지	31,531	2,271	1,470	1,891	1,700	1,181	2,661	4,071	2,090	3,569	3,761	3,185	3,681
	PC	12,652	930	628	674	629	66	1,194	1,767	1,015	1,511	1,465	1,304	1,469
	모바일	18,879	1,341	842	1,217	1,071	1,115	1,467	2,304	1,075	2,058	2,296	1,881	2,212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검색(<http://searchad.naver.com>)

(2) 백제유적지구 시기별 키워드 분석

시기별 검색빈도를 살펴보면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이 이루어진 2015년 5월에 검색 빈도가 높아졌으며, 세계유산등재가 확정된 7월을 기점으로 다시 검색빈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주와 부여의 백제역사유적은 10월 백제문화제 개최와 더불어 검색 빈도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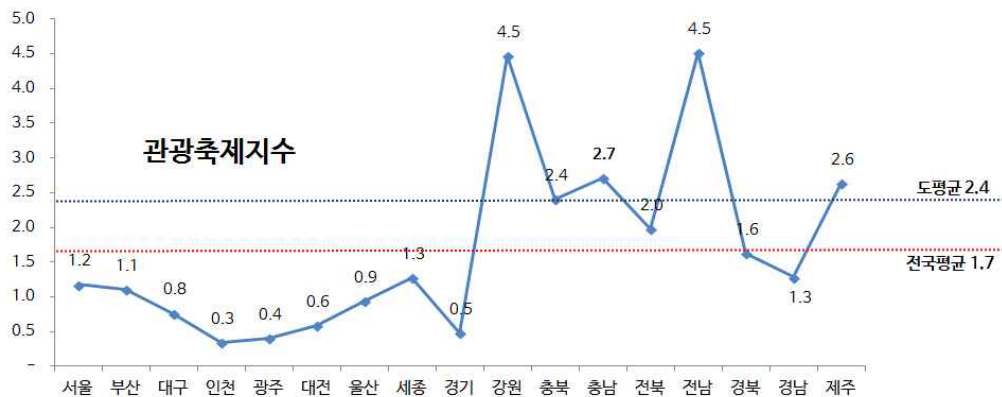
3. 문화유산의 지역축제 활용실태 분석

1) 지역축제 개최현황

(1) 전국 관광축제지수 현황

축제는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주제를 배경으로 관광객 유치를 가능하게 하는 지표로서 축제 프로그램 등 콘텐츠 개발, 축제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에 영향을 미치는 관광발전지역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관광축제지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뿐만이 아닌 지자체에서 지정한 축제 외에도 지자체가 주관하는 축제도 포함하여 지표화한 것이다. 관광축제 지수는 강원도와 전남이 각각 4.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남은 2.7점으로 도평균인 2.4점과 전국평균인 1.7 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 : 관광축제 지수는 인구 1,000명당 지역 관광축제 수에 대한 지표임

〔그림 14〕 지역관광축제지수

(2) 전국 관광축제 개최 현황

문화체육관광부가 집계하고 있는 2015년 기준 전국의 관광축제는 664개가 개최되었으며, 가장 많은 축제가 개최되는 지역은 서울로 전체 축제수의 17.9%이며, 도단위 지자체에서는 전남이 86건으로 가장 많은 축제가 개최되었다.¹⁾

[표 52] 전국 관광축제현황(2015년 기준)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수	664	119	39	19	10	6	9	11	2	60	69	38	56	37	86	44	43	16
비중	(100.0)	(17.9)	(5.9)	(2.9)	(1.5)	(0.9)	(1.4)	(1.7)	(0.3)	(9.0)	(10.4)	(5.7)	(8.4)	(5.6)	(13.0)	(6.6)	(6.5)	(2.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지역축제 총괄표, 2015

(3) 충남 문화관광축제와 지역축제 개최 현황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문화관광축제를 지정하여 재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충남에서는 강경젓갈축제(최우수축제), 한산모시문화제, 서동연꽃축제(우수축제), 금강여울축제,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홍성 역사인물축제(유망축제)가 선정되었다.

[표 5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충남지정 추이

구분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2011년		금산인삼축제 천안홍타령축제	강경젓갈축제	한산모시문화제
2012년		금산인삼축제 천안홍타령축제	강경젓갈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한산모시문화제
2013년		강경젓갈축제 천안홍타령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한산모시문화제 해미읍성역사문화축제
2014년		강경젓갈축제	한산모시문화제	부여서동연꽃축제 해미읍성역사문화축제
2015년		강경젓갈축제	한산모시문화제 부여서동연꽃축제(↑)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금강여울축제(신규) 홍성역사인물축제(신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5)

충남은 2015년 기준 총 56개의 축제를 계획하였으며, 이는 전체 축제의 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단위에서는 전남, 강원, 경기도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축제가 개최되었다. 충남의 축제는 보령머드축제와 금산인삼축제 등을 비롯하여 문화관광형 축제에서부터 은산별신제에 이르

- 1) 일정기간(3일 이상) 지역주민, 지역단체, 지방정부가 개최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관광예술축제(문화관광축제, 특산물축제, 문화예술제, 일반축제 등), 문화체육관광부지정 문화관광축제도 포함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시상식 등), 단순 주민위안 행사(경로잔치 등), 순수 예술행사(음악회, 전시회 등), 기타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는 제외

는 제례형 축제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천이 9개로 가장 많았으며, 천안, 공주 보령이 각각 6개씩으로 나타났으나, 아산이 1개, 예산은 통계에 집계 되지 않는 등의 통계적 문제점도 나타내고 있다.

[표 54] 충남 지역별 축제(2015년 기준)

구분	개수	축제명
합계	56(95)	
천안	6 (5)	천안판페스티벌, 북면위례벚꽃축제, 광덕호두축제, 입장거봉포도축제, 천안성환배축제, 천안홍타령춤축제
공주	6 (12)	백제문화제, 국고개역사문화축제, 계룡산산신제, 마곡사신록축제, 고마나루축제, 공주알밤축제
보령	6 (6)	보령머드축제, 무창포신비의바닷길축제, 무창포주꾸미도다리축제, 대천항수산물축제, 무창포 대하전어축제, 청라은행마을축제
아산	1 (5)	외암민속마을짚풀문화제
서산	5 (7)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서산국화축제, 삼길포우렁축제, 삼길포독살체험축제, 지곡권역갯마을빨낙지먹물축제
논산	4 (6)	대둔산논산수락계곡얼음축제, 논산딸기축제, 강경발효젓갈축제, 연산대추축제
계룡	1 (1)	계룡군문화축제
당진	2 (15)	기지사줄다리기민속축제, 심훈상록문화제
금산	2 (3)	금산인삼축제, 금강여울축제
부여	3 (5)	부여서동연꽃축제, 백제문화제, 은산별신제소제
서천	9 (7)	서천김축제, 동백꽃주꾸미축제, 자연산광어도미축제, 장항항수산물곶감축제, 한산모시문화제, 춘장대해수욕장여름문화예술축제, 흥원항자연산전어꽃게축제, 달빛문화갈대축제, 마량포해넘이해돋이축제
청양	3 (3)	청양고추구기자축제, 칠갑산얼음분수축제, 세계조롱박축제
홍성	4 (4)	홍성역사인물축제, 광천토굴새우젓광천김대축제, 남당항대하축제, 남당항새조개축제
예산	- (5)	
태안	4 (11)	원두막페스티벌, 몽산포모래조각페스티벌, 모항항수산물(해삼)축제, 솔향기길복불복축제

주 : 괄호안은 충남관광기본자료내 축제개최 수 임

자료 : 1.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지역축제 총괄표, 2015

2. 충청남도, 2015 충남관광기본자료, 2015.

2) 2010 세계대백제전 메가이벤트 개최 현황분석

(1) 2010세계대백제전 행사개요와 개최방향

① 행사개요

○ 개최배경

- 1400년간 역사 속에 묻혔던 대백제국의 개척정신과 찬란한 문화의 가치를 되살리고, 백제문화제를 세계화 하고자 추진

⇒ 올바른 ‘백제史 재정립’을 통해 왜곡된 역사의식 바로잡는 기회

○ 기 간 : 2010. 9. 18 ~ 10. 17(30일간) ※개막식 9. 17(金)

○ 장 소 : 충남 공주, 부여(16개 시·군 참여)

○ 주 최 :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 주 관 : 2010세계대백제전조직위원회

○ 주 제 : 1400년전 대백제의 부활

○ 회장규모 : 754천m²

- 공주 행사장 : 308천m²(예술마당 72, 수상공연장 47, 공산성및금강둔치 189)

- 부여 행사장 : 446천m²(문화단지 330, 수상공연장 48, 구드래 68)

○ 내 용 : 공연·전시·이벤트, 체험프로그램, 국제학술회의

○ 관람객수 : 369만명(日 평균 12, 日 최대 22)

- 내국인 349만명, - 외국인 20만명

○ 해외참가 : 54개국(역사도시전시, 해외예술단, 학술회의)

○ 총사업비 : 240억원(국비 30, 지방비 170, 기타 40)

② 행사방향과 목표

- 700년 대백제 문화강국의 가치와 진면목을 재발견하는 축제
- 해양교류왕국 대백제의 기상을 오늘에 잇는 창의적인 축제
- 대백제국의 후예로서 충청남도의 위상을 세계에 선양하는 축제
- 소비성 축제에서 생산성 있는 주민 참여형 축제로 전환
- 백제 콘텐츠를 세계적 보편성을 갖는 콘텐츠로 개발 활용



백제문화의 세계화명품화를 위한 “글로벌 백제”의 새로운 출발점

③ 백제문화제 연혁

- 1955년 : 부여지역 유지들 중심으로 백제 말 3충신(成忠, 興首, 階伯) 제향과 낙화암에서 백마강에 몸을 던진 백제 여인들의 넋을 위로하는 수륙재 거행



- 1957년 : 삼충사(三忠祠) 건립, 1965년 충청남도 주최로 이양
- 1966년 : 제12회부터 부여·공주 동시 개최
- 1979년 : 제25회 행사부터 부여·공주 격년 개최
- 1980년대 이후 : 행사규모 확대,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축제로 발전
- 2007 ~ 2008년 : 부여·공주 통합개최로 세계적인 역사문화축제로의 도약기반 마련
- 2010년 : 2010 세계대백제전 개최

(2) 2010세계대백제전 문화유산 연계 행사 분석

① 세계대백제전의 백제문화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

세계대백제전을 찾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기억프로, 흥미프로, 교육프로, 주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백제문화를 주제로 하는 공연의 고급화 전략을 시도한 수상공연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분석되었으며, 문화역사 교육적 효과가 높은 프로그램 역시 만족도가 높게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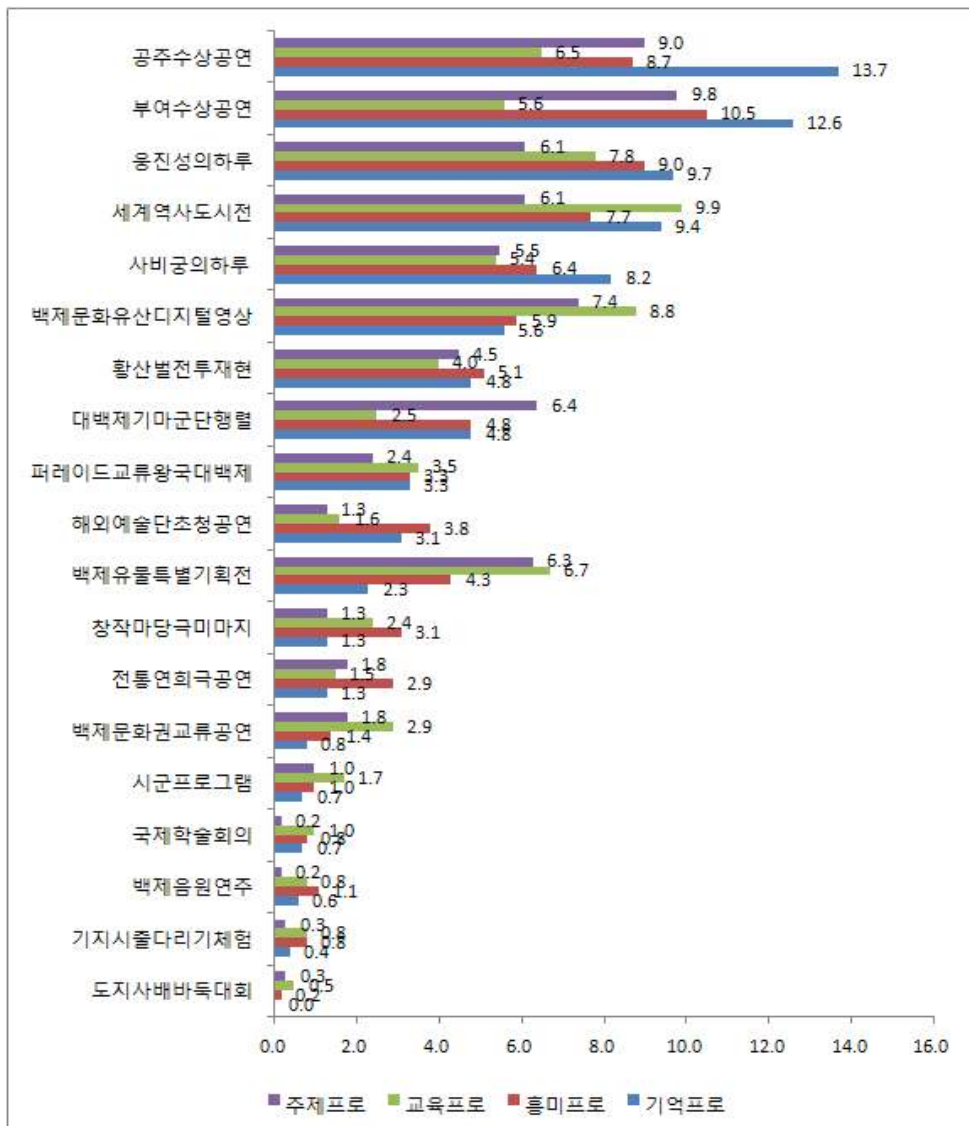
각 프로그램에 대한 백제문화 관련 만족도의 분석에서 공주의 사마이야기와 부여의 사비미르 수상공연 프로그램은 수변을 활용한 콘텐츠를 구성함으로써 공연의 고급화 전략을 시도한 사례로 평가되었다. 특히 주간에 한계를 야간 고급공연으로 극복하여 야간 관광상품의 개발을 보여 준 사례라 할 수 있다.



2010 세계대백제전 수상공연
사마이야기(공주)

2010 세계대백제전 수상공연
사비미르(부여)

〔그림 15〕 세계대백제전 수상공연



주 : 7점만점 척도

(그림 16) 2010 세계대백제전 각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

특히, 백제문화와 관련된 수상공연에서 금강변을 중심으로 공주 사마이야기와 부여의 사비미르 두 개의 수상공연이 매력 포인트로 부각되었다. 나아가 중국 계림에 장예모 감독이 연출한 인상유삼저가 있는데 국내에서도 강과 백제역사를 소재로 스펙터클한 공연을 강변, 수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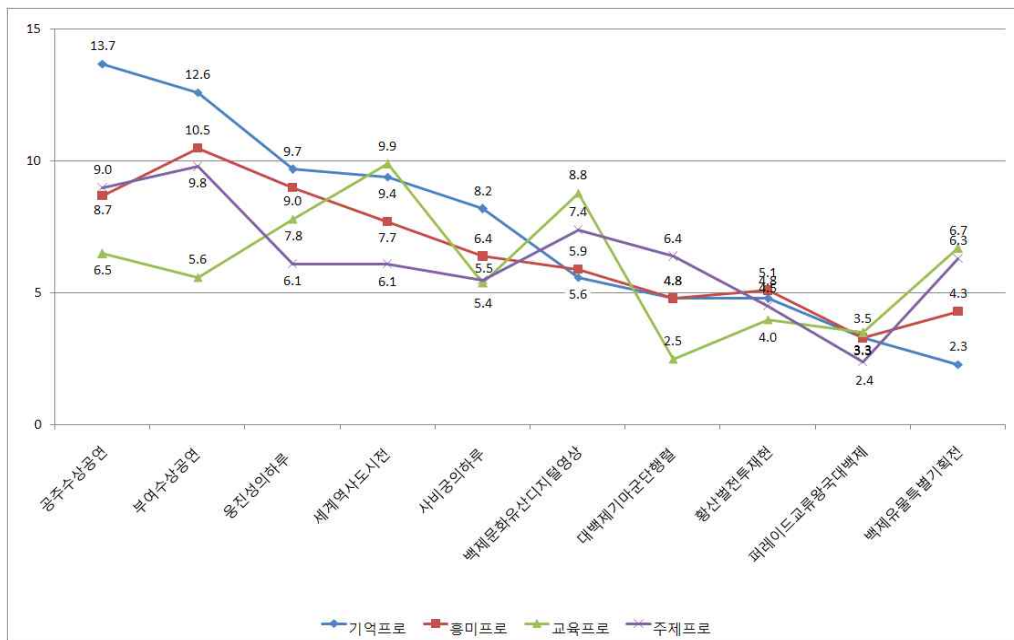
배경으로 실시한 것 또한 이례적인 사례로 남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55〕 2010 세계대백제전 수상공연 분석

(단위 : 7점척도)

공연명	객석점유율	만족도 (7점척도)	거주지(%)
공주 사마이야기	88%	6.66	공주 52.7, 대전 24.1, 충청 9.4
부여 사비미르	95%	6.50	부여 67.5, 충청 11.9, 대전 9.9

백제문화를 주제로 한 공주 사마이야기는 총 객석점유율 88%를 달성하였으며 수상공연 프로그램의 만족도에서 7점 만점 중 6.66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부여 사비미르는 객석점유율 95%를 달성하였으며, 7점 만점 중 6.50의 만족도로 분석되어 수상공연에 대한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 7점만점 척도

〔그림 17〕 2010 세계대백제전 주요 프로그램 분석

세계대백제전을 찾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기억나는 프로그램에 대한 항목을 분석한 결과 백제유산을 주제로 하는 공주수상공연(사마이야기)이 13.7%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부여 수상공연(사비미르)은 흥미로운 프로그램에서 10.5%, 주제반영 프로그램에서 9.8%로 각각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② 세계대백제전을 통한 백제문화의 이해도

2010 세계대백제전을 찾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백제 문화의 이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평균 4.73으로 분석되었다. 세계대백제전은 백제유산을 주제로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백제의 문화에 대해 알린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연프로그램 및 전시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백제문화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 느끼고 체험을 통하여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린이 및 학생층 방문객들에게는 교과서에서 보던 백제역사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56〕 세계대백제전을 통한 백제문화의 이해도 분석

(전체 평균 : 4.73점)

7점척도 조사내용	빈도 (명)	비율 (%)
전 혀 아 니 다. (1)	16	1.6
아 니 다. (2)	36	3.6
약 간 아 니 다. (3)	106	10.7
보 통 이 다. (4)	283	28.6
약 간 그 령 다. (5)	233	23.6
그 령 다. (6)	230	23.3
매 우 그 령 다. (7)	85	8.6
합 계	989	100

특히, 고마나루예술마당의 경우 웅진성의 하루를 통해 백제의 정원을 연출하였으며, 세계역사도시전을 통해 세계역사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해설과 체험을 할 수 있는 테마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제문화유산 디지털 상영은 백제문화유산을 디지털로 복원하여 백제문화 전성기인 무령왕~성왕~위덕왕 시대가 조망되는 역사 다큐멘터리를 상영하였으

며, 공주박물관과 무령왕릉을 무료로 개방하는 동시에 프로그램들을 함께 운영하여 방문객들에게 공주지역의 백제문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여의 경우 백제문화단지를 통해 사비궁의 하루 프로그램으로 백제시대 왕궁의 일상을 엿보며 사비 백제시대 문화역사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백제문화단지 내에서 펼쳐진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백제왕의 역사 문화 또한 느낄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010 세계대백제전 부여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 백제체험장

(그림 18) 백제문화단지 백제체험프로그램 운영

또한 구드래와 왕홍사지에서는 백제 역사체험과 大백제기마군단행렬, 백제대왕행차재현, 계백장군 열무식 등 공연프로그램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국립부여박물관에서는 백제유물 특별전을 병행 실시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9) 세계대백제전 부여 백제역사문화행렬

특히 공주에서 실시된 사마이야기와 부여에서 실시된 사비미르 공연프로그램의 경우 대형 수상공연으로 사마이야기는 사마가 백제를 중흥시키고 해상강국과 영토확장을 이룩한 이야기를 펼쳤으며, 사비미르는 백제의 찬란한 문화의 힘과 백제인의 애절한 염원으로 새로운 사비 백제의 부활을 알리는 공연을 통해 백제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림 20〕 세계대백제전 수상공연

3) 충남의 문화유산 관련 축제 개최 실태

(1) 분석의 개요

충남의 문화유산 관련 축제의 개최 실태는 충청남도과 15개 각 시·군에서 2015년에 이루어진 축제에 대하여 충남관광 2015기본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문화·관광 축제 현황 95건과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2015년 충남의 주요 축제현황 107건 등 2가지의 충청남도 내부자료를 종합하여 총 139건을 분석하였다.

축제의 개최 실태분석은 문화유산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축제의 유형을 문화유적, 민속, 전통예술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다시 시·군별 개최 현황과 계절별로의 개최 현황도 분석하였다. 또한, 축제에 문화유산과 관련된 명칭 및 콘텐츠와 연계된 프로그램 등 축제의 내용의 포함여부도 분석하여 전통예술과 현대예술로 분류하여 전통예술 및 전통예술에 현대예술의 병행 축제도 문화유산 관련 축제에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충남의 문화유산과 연계를 위하여 앞에서 분석된 충남의 문화유적, 민속, 전통예술과의 관련축제를 분석하였다.

(2) 충남 문화유적 관련 축제 개최현황 분석

① 충남의 지역축제 현황

충남에서 2015년에 개최된 지역 축제는 총 139건으로서 크게 문화유산과 관련된 축제와 문화관광과 관련된 축제로 구분할 수 있다. 문화유산축제는 총 139건중 50건, 문화관광축제는 89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축제 중에서는 50건 중에서 민속축제 29건, 문화유적축제 17건, 전통예술축제 4건 등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문화유산 관련 축제가 1건도 없는 지역은 보령시, 논산시와 계룡시 등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지역은 당진시 9건과 서천군 8건 등으로 나타났다.

[표 57] 충남의 지역축제 현황(2015년)

시군별	총계	문화유산축제				문화관광축제			
		계	문화유적	민속	전통예술	계	관광특산	관광이벤트	현대예술
합 계	139	50	17	29	4	89	62	22	5
천안시	6	1	-	-	1	5	3	1	1
공주시	12	6	2	2	2	6	2	1	3
보령시	13	-	-	-	-	13	10	3	-
아산시	8	6	1	4	1	2	-	1	1
서산시	7	3	3	-	-	4	4	-	-
논산시	6	-	-	-	-	6	6	-	-
계룡시	1	-	-	-	-	1	-	1	-
당진시	15	9	2	7	-	6	5	1	-
금산군	8	2	-	2	-	6	3	3	-
부여군	6	4	3	1	-	2	2	-	-
서천군	17	8	1	7	-	9	8	1	-
청양군	8	2	1	1	-	6	2	4	-
홍성군	4	1	1	-	-	3	3	-	-
예산군	8	5	3	2	-	3	3	-	-
태안군	20	3	-	3	-	17	11	6	-

주 : 충남지역축제 현황은 관광 2015기본자료의 문화·관광 축제 현황 95건과 충청남도 홈페이지의 2015년 충남의 주요 축제현황 107건 등 2가지를 종합하여 총 139건을 분석

② 충남의 문화유산 관련 유형별 축제 현황

충남에서 개최되는 문화유산 관련 축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문화유적과 관련해서는 백제 문화제와 성웅이순신축제,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상록문화제, 서동연꽃축제, 한산모시문화제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와 전국적으로 지명도를 가진 축제로 개최되고 있다. 또한 민속분야에서는 기지시줄다리기, 예산엿이야기 축제 등이 문화관광축제 규모의 전국적 지명도를 가지고 개최되고 있다. 반면, 이외의 축제들은 지역의 문화유산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역단위로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어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표 58〕 충남의 문화유산 관련 축제 현황(2015년)

구분	계	문화유적	민속	전통예술
합 계	50	17	29	4
천안시	1	-	-	천안판페스티벌(민요경창)(1)
공주시	6	웅진성수문병근무교대식, 백제문화제(2)	계룡산산신제, 마곡사신록축제(2)	박동진판소리명창명고대회, 고마나루전국향토연극제(2)
아산시	6	성웅이순신축제(1)	설화달맞이축제, 정월대보름민속축제, 내이랑달맞이축제, 짚풀문화제(4)	온양온천문화예술제(1)
서산시	3	류방택별축제, 삼길포우럭독살체험축제,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3)	-	-
당진시	9	남이흥장군문화제, 상록문화제(2)	안섬풍어당굿, 면천진달래민속축제, 기지시줄다리기, 해외달의 만남축제(견우직녀), 왜목·한진·송악해돋이축제 (7)	-
금산군	2	-	파초유채꽃축제, 금강여울축제(2)	-
부여군	4	송국리청동기문화체험축제, 서동연꽃축제, 백제문화제(3)	성흥산해맞이축제 (1)	-
서천군	8	한산모시문화제 (1)	천방산·남산·건지산·마량포 해돋이축제, 월명산산성밧기축제, 서천군평생학습축제(백일장), 달빛문화갈대축제 (7)	-
청양군	2	칠갑산장승문화축제 (1)	까치너뱀참축제 (1)	-
홍성군	1	홍성역사인물축제 (1)	-	-
예산군	5	윤봉길문화축제, 예산삼베길쌈축제, 추사추모전국회화대회 (3)	예산엿이야기축제, 예산달집축제 (2)	-
태안군	3	-	태안반도 해맞이·해넘이 행사, 원두막페스티벌 (3)	-

③ 충남의 문화유산 관련 축제의 계절별 개최 현황

충남에서 개최되는 문화유산 관련 축제를 계절별로 살펴보면, 민속축제와 행사는 연중 개최되나 특히, 1월과 2월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문화유적과 관련한 축제들은 대부분이 9월과 10월 가을철에 집중되고 있으며, 전통예술행사로 가을철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59〕 충남의 문화유산 관련 축제의 계절별 개최 현황(2015년)

구분	계	문화유적	민속	전통예술
합 계	50	17	29	4
1월	10	-	왜목·한진·송악해돋이축제, 천방산·남산·건지산·마량포해돋이축제, 성흥산해맞이축제, 태안반도 해맞이·해넘이행사 (10)	-
2월	5	-	설화달맞이축제, 정월대보름민속축제, 내이랑달맞이축제, 안섬풍어당굿, 예산달집축제 (5)	-
3월	1		월명산산성밧기축제 (1)	
4월	5	성웅이순신축제, 윤봉길문화축제 (2)	면천진달래민속축제, 기지시줄다리기, 파초유채꽃축제 (3)	-
5월	4	류방택별축제, 송국리청동기문화체험축제 (2)	계룡산산신제 (1)	천안판페스티벌(민요경창) (1)
6월	3	한산모시문화제, 예산삼베길쌈축제 (2)	마곡사신록축제 (1)	-
7월	4	삼길포우럭독살체험축제, 서동연꽃축제 (2)	금강여울축제 (1)	박동진판소리명창명고대회 (1)
8월	1	-	해와달의 만남축제(견우직녀) (1)	-
9월	6	백제문화제(공주), 백제문화제(부여), 상록문화제, 홍성역사인물축제 (4)	예산옛이야기축제, 원두막페스티벌 (2)	-
10월	9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남이흥장군문화제, 칠갑산장승문화축제, 추사추모전국회호대회 (4)	짚풀문화제, 서천군평생학습축제,까치네밤참축제 (3)	고마나루전국향토연극제, 온양온천문화예술제(2)
11월	1	-	달빛문화갈대축제 (1)	-
12월	-	-	-	-
년중	1(5-10)	웅진성수문병근무교대식 (1)		

(3) 충남 문화유산 현황 및 키워드 검색과 관련 축제 개최 연계성

① 문화유적 키워드 검색과 축제 연계성

문화유적 키워드 검색과 충남 문화유산 관련 축제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문화유적 중 성주사지, 남연군묘, 수덕사대웅전, 문헌서원, 결성향교, 윤증고택 등은 관련 축제가 없다.

[표 60] 문화유적 키워드 검색과 축제 연계성

문화유적 키워드 검색결과				충남 문화유산 관련 축제		
순 위	유적유형	유 적 명	건수 (건)	축 제 명	해당시군	개최시기
1	분묘유적	무령왕릉	197,055	백제문화제	공주시	9-10월
2	관방유적	해미읍성	171,358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서산시	10월
3	유교유적	현충사	167,149	성웅이순신축제	아산시	4월
4	민속마을	외암민속마을	144,299	짚풀문화제	아산시	10월
5	고서와 고문서	이충무공 난중일기	116,042	성웅이순신축제	아산시	4월
6	관방유적	부소산성	89,759	백제문화제	부여군	9-10월
7	관방유적	공산성	80,215	백제문화제	공주시	9-10월
8	불교유적	정림사지 5층석탑	82,038	백제문화제	부여군	9-10월
9	불교유적	성주사지	31,730	-	보령시	-
10	불교유적	정림사지	24,555	백제문화제	부여군	9-10월
-	선사유적	부여송국리	1,286	송국리청동기문화체험축제	부여군	5월
-	분묘유적	송산리고분군	18,006	백제문화제	공주시	9-10월
		능산리고분군	14,293	백제문화제	부여군	9-10월
		남연군묘	7,376	-	예산군	-
-	관방유적	홍주읍성	7,078	홍성역사인물축제	홍성군	9월
-	불교유적	수덕사대웅전	21,900	-	예산군	-
		서산마애삼존불	13,123	-	서산시	-
-	유교유적	문헌서원	8,020	-	서천군	-
		삼충사	4,507	백제문화제(삼충제)	부여군	9-10월
		결성향교	1,887	-	홍성군	-
-	고건축과 민속마을	추사고택	15,318	추사추모전국회호대회	예산군	10월
		윤증고택	6,012	-	논산시	-

그리고 문화유산 관련 주요 축제로는 백제문화제,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성웅이순신 축제, 짚풀문화제, 송국리청동기문화체험축제, 홍성역사인물축제, 추사추모전국회호대회 등이 개최되고 있다.

② 민속자원 키워드 검색과 축제 연계성

민속유적 키워드 검색과 충남 문화유산 관련 축제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민속자원 중 통발, 머구리, 백중날, 천수답, 석박지, 지신밟기, 길쌈놀이 등은 관련되어 개별적으로 개최되는 축제의 형태는 없다. 반면, 민속자원 관련 주요 축제로는 2015년부터 시작된 한산소곡주축제, 내이랑달맞이축제, 기지시줄다리기, 안섬풍어당굿, 은산별신제, 계룡산산신제, 삼길포우럭독살축제 등이 개최되고 있다.

[표 61] 민속자원 키워드 검색과 축제 연계성

민속자원 키워드 검색결과				충남 문화유산 관련 축제		
순위	민속유형	민 속 명	건수 (건)	축 제 명	해당시군	개최시기
1	의식주 생활풍속	한산소곡주	106,099	한산소곡주축제(2015)	서천군	10월
2	생산풍속	통발	94,091	-	-	-
3	생산풍속	머구리	63,693	-	-	-
4	세시풍속	백중날행사	44,164	-	-	-
5	세시풍속	달맞이	43,308	내이랑달맞이축제	아산시	2월
6	생산풍속	천수답	36,117	-	-	-
7	의식주 생활풍속	석박지	35,623	-	서천군	-
8	세시풍속	지신밟기	24,742	-	-	-
9	세시풍속	달집태우기	22,361	내이랑달맞이축제	아산시	2월
10	세시풍속	길쌈놀이	15,486	-		
-	세시풍속	기지시줄다리기	7,232	기지시줄다리기	당진시	4월
		풍어제(벵고사)	5,101	안섬풍어당굿	당진시	2월
-	민간신앙	은산별신제	2,747	은산별신제	부여군	3월
		계룡산산신제	1,292	계룡산산신제	공주시	5월
-	생산풍속	독살	13,782	삼길포우럭독살체험축제	서산시	10월
-	의식주 생활풍속	면천두견주	5,487	-	당진시	-

③ 전통예술 키워드 검색과 축제 연계성

전통예술 키워드 검색과 충남 문화유산 관련 축제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전통예술 중 칠지도와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사택지적비, 해금 한범수, 암문토기와 수막새, 청동거울, 산수무늬벽돌 등은 관련 축제가 없다. 그리고 전통예술분야의 문화유산 관련 주요 축제로는 안견예술제, 백제문화제, 계룡산분청사기축제, 추사추모전국회호대회, 박동진판소리명창명고대회 등이 개최되고 있다.

〔표 62〕 전통예술 키워드 검색과 축제 연계성

전통예술 키워드 검색결과				충남 문화유산 관련 축제		
순위	전통예술 유형	전통예술명	건수 (건)	축 제 명	해당시군	개최시기
1	전통회화	몽유도원도	98,667	안견예술제	서산시	11월
2	전통공예 서예	칠지도	87,811	-	-	-
3	전통공예	백제금동대향로	82,110	백제문화제	부여군	4월
4	전통조각	부여정림사지탑	82,038	백제문화제	부여군	9-10월
5	전통공예	분청사기	65,152	계룡산 분청사기축제	공주시	10월
6	전통회화	김정희/세한도	59,303	추사추모전국회호대회	예산군	10월
7	전통조각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51,224	-	-	-
8	서예	양직공도	36,432	백제문화제	공주시 부여군	9-10월
9	서예	사택지적비	32,946	-	부여군	-
10	전통음악	박동진 명창	31,773	박동진판소리명창명고 대회	공주시	10월
-	전통음악	해금 한범수	2,753	-	-	-
-	전통공예	암문토기/수막새	26,407	-	-	-
		청동거울	18,183	-	-	-
		산수무늬벽돌	9,486	-	-	-
-	전통무용	미마지	6,019	백제문화제	공주시	9-10월

4. 소결 및 활용과제의 도출

1) 충남 문화유산 키워드 분석의 시사점

(1) 문화유적의 현황 특성과 키워드 분석

① 문화유적 상위 10위 자원의 축제와 콘텐츠의 다양한 활용과 계절적 분산 필요

충남의 문화유적에 대한 전체 자원에 대한 유적명칭의 키워드 검색 결과 상위 10위는 1위 무령왕릉/송산리고분군, 2위 해미읍성이 171,358건, 3위 현충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외암리민속마을(4위), 이충무공난중일기(5위), 부소산성(6위), 공산성(7위), 정림사지5층석탑(8위), 성주사지(9위), 정림사지(10위) 등으로 검색되었다. 이들 검색이 많이 이루어진 특징은 무령왕릉과 부소산성, 공산성, 정림사지 5층석탑 및 정림사지 등과 같이 백제문화유적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키워드 검색이 많아졌고, 기존에도 백제문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백제문화유적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축제와 개별 자원에 대한 콘텐츠의 활용이 필요하다.

문화유적에 대한 시기별 키워드를 검색에서는 일정시기에 집중되고 있는데, 주로 대부분의 검색이 4월, 5월과 10월에 집중되고 있어 계절별로도 연중 또는 분산시켜 축제를 다각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② 선사유적

충남의 선사유적은 구석기시대에서부터 원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주요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들 유적에 대한 키워드는 구석기시대에는 공주석장리유적, 청동기 시대에는 부여 송국리유적 등의 키워드로 검색이 많았다. 선사유적 중 석장리유적과 송국리유적지는 역사문화체험축제가 5월에 개최되고 있어 이시기에 검색 빈도가 높았는데 이들 축제 역시 기존 축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③ 분묘유적

충남의 분묘유적 중에는 백제시대의 송산리고분군과 무령왕릉, 능산리고분군, 정지산유적,

수춘리 고분군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선시대 이후 분묘에서는 남연군묘, 이충무공묘, 김좌진장군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적 중 백제시대 유적은 백제문화제와 관련하여 축제자원으로서 축제프로그램과 공연 등의 콘텐츠로 활용이 가능하다. 현재 이충무공의 묘는 현충사에 있고 성웅이순신축제가 개최되고, 김좌진장군묘는 역사인물축제가 개최되어 있는데, 이들은 해당 축제와 연계된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④ 관방유적

관방유적 중 임금이 있던 도읍지로 백제시대의 도성인 공산성과 부소산성, 부여나성이 있으며, 읍성은 해미읍성과 홍주읍성이 높은 검색 순으로 나타났다. 진성유적 중 안흥성(안흥진성)이 가장 많은 검색수를 나타내고, 산성유적에는 성흥산성과 노성산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관방유적 중 도성인 공산성과 부소산성, 부여나성 등은 백제문화제와 관련되며, 해미읍성은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홍주읍성은 홍성 역사인물 축제가 개최되고 있어 이들 역시 연계프로그램과 관련 콘텐츠 행사의 활용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반면, 안흥성과 성흥산성, 노성산성 등은 관련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인접한 지역축제나 체험마을의 마을축제와 연계한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⑤ 불교유적

불교유적은 목조건축물 중 키워드 검색에서 높은 빈도를 나타낸 유적은 수덕사 대웅전과 마곡사 대광보전, 갑사 대웅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지는 사찰이 위치하였던 장소로 가장 높은 검색 빈도수를 나타내는 유적은 성주사지, 정림사지, 보원사지는, 왕흥사지 등의 순으로 나타내고 있다.

불교의 석조유물 중 석탑의 경우 정림사지 5층석탑, 무량사 5층석탑, 비인 5층석탑, 장하리 3층석탑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량사 5층석탑과 장하리 3층석탑등은 세계유산이 정림사지 5층석탑과 더불어 부여에서 운영 중인 백제역사문화탐방코스에 포함되어 있다.

불교석조유물 중 마애불은 우리나라의 마애불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뛰어난 작품으로 꼽히는 서산마애삼존불, 태안마애삼존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불교유적은 템플스테이와 더불어 산사음악회 등의 지역축제와 이벤트와 연계한 활용이 필요한 자원이다.

⑥ 유교유적

충청남도에 분포하고 있는 향교자원의 검색빈도를 살펴보면 결성향교, 공주향교, 천안향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성향교는 생생문화재사업과 향교스테이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이고, 천안향교는 석전대제를 봉행하는 등 향교에서의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사우는 가장 검색빈도가 높았던 자원은 이순신장군의 위패를 모신 현충사, 부여 삼충사, 모택사, 숭의사 등의 순이고, 서원은 서천의 문헌서원이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충남은 충청유교문화권의 중심지역으로서 이들 유교유적을 활용한 유교 관련 축제와 이벤트 행사, 다양한 콘텐츠의 활용이 필요한 자원이라 하겠다.

⑦ 고건축

고건축 유적 중 가옥으로는 추사 김정희고택, 윤증고택, 맹씨행단, 정순왕후생가, 건재고택 등의 빈도를 보였다. 민가인 외암민속마을이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누정자원에서 가장 검색빈도가 높았던 자원은 부여의 수북정, 팔파정, 임리정, 경이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여의 수북정은 부여의 백제역사유적이 세계유산 지정이후인 7월 이후에 검색빈도가 높았다.

이들 고건축 중 가옥과 민속마을 누정 등은 지역의 인물과 마을역사 등과 관련된 자원으로서 지역축제와 연계된 행사프로그램 및 이벤트로서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⑧ 고서와 고문서

고서와 고문서 유적은 중 난중일기에 대한 검색빈도가 높았는데, 성웅 이순신축제는 난중일기에 포함되어 있는 임진왜란에 대한 다양한 기록을 바탕으로 한 축제의 행사프로그램과 스토리텔링의 콘텐츠 활용을 통해 기존 축제의 활성화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민속자원 현황 특성과 키워드 분석

① 민속자원 상위 10위 자원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대표축제와 체험행사프로그램 육성

충청남도의 민속자원 중 키워드 검색의 빈도수가 가장 높았던 자원은 의식주생활 중 한산소곡주, 생산품속 중 어업생산품속인 통발과 머구리, 백중날, 달맞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속자원의 시기별 키워드를 살펴보면, 세시풍속 등과 관련된 자원들이 많아 검색어가 특정시기에

집중되고 있는데 한산소곡주의 경우 2월 설날과 9월 추석, 10월에 집중되고, 통발과 머구리의 경우 어업생산품속으로 여름에 집중되고 있으며. 백중날과 달맞이 등은 추석과 관련된 세시풍속으로 8월과 9월에, 지신밟기와 달집태우기 등은 음력 2월인 3월에 집중되는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 민속자원은 한산소곡주와 같이 개별 자원의 가치가 높은 것은 별도의 축제로 개최하고, 다른 민속자원들은 타 지역축제와 연계한 행사프로그램으로의 활용이 필요하다.

② 일생의례와 세시풍속

충남의 세시풍속과 관련되어 검색된 키워드는 백중날과 지신밟기와 달집태우기 등과 바닷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풍어제(벉고사)가 검색빈도가 높았다. 특히, 충남 당진 기지시에서 행해지는 기지시줄다리기와 정월대보름행사가 빈도가 높았다. 특히, 기지시줄다리기는 매년 4월에 개최되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 민속축제 자원으로서 활용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③ 민간신앙

충남의 민간신앙으로 행해지는 은산별신제, 장승제, 계룡산산신제, 설위설경 등의 순으로 검색빈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요무형문화제제9호인 은산별신제는 음력정월이나 2월경에 계룡산산신제는 산악신앙축제이자 마을행사로 매년4월에 검색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설위설경은 충청도에서 주로 하는 앓은굿의 하나로 태안설위설경은 충청남도 무형문화제 제2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7월 이후에 검색빈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민간신앙은 별도의 개별축제 보다는 지역의 민속행사로서 지역공동체 축제와 연계한 부대행사프로그램으로의 활용이 필요하다.

④ 생산풍속

생산풍속 중 어업생산풍속에서는 전국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통발과 머구리, 충남의 어법생산풍속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독살이 검색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남의 어업생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어법과 어구에 대한 키워드가 반영된 것으로 이를 감안하여 충남이 가지고 있는 어업생산풍속의 검색빈도를 고려해야 하겠다.

특히, 독살자원은 충남의 서해안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해산물축제와 어촌체험

마을의 행사프로그램으로 널리 활용되어야 하겠다.

⑤ 의식주 생활풍속

의식주 생활풍속 중 의생활은 식생활 중에는 한산소곡주가 가장 높았으며, 쉼박지, 면천두견주, 복령조화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산소곡주는 명절을 중심으로 검색 빈도가 높았으며, 쉼박지는 김장과 관련된 음식으로서 11월, 면천두견주는 대부분 비슷한 검색수를 보였다.

전통주거건축으로서의 외암민속마을과 동자북마을이 검색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자북마을은 한산소곡주와 한산세모시의 고장이다.

이들 의식주 생활풍속의 한산소곡주와 외암리민속마을과 동자북마을 등은 기존의 한산모시 축제와 짚풀문화제 등과 연계하여 활성화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3) 전통예술 현황 특성과 키워드 분석

① 전통예술 상위 10위 자원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기존 축제의 활성화 필요

충청남도의 전통예술의 검색빈도별 키워드를 살펴보면 안건의 몽유도원도가 가장 높고, 칠지도, 백제금동대향로, 부여정림사지 5층석탑 등의 순이다. 상위를 차지한 전통예술 자원들은 유형의 자원들이 많으며, 전통음악부문의 판소리 박동진이 무형자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상위 10개에 포함되었다.

시기별 키워드 검색빈도를 보면 상위에 랭크된 전통예술자원이 유형의 자원임에 따라 시기별 차이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동진판소리 명창·명고대회가 7월에 개최됨에 따라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통예술에서는 안건의 몽유도원도와 칠지도와 백제금동대향로 등의 백제시대의 전통예술자원 등 백제문화제와 관련된 부대행사 또는 별도의 개별축제로서의 발굴 및 육성도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박동진판소리 명창·명고대회와 같은 전통음악과 서예, 전통회화 및 전통공예에 대한 축제와 부대행사프로그램의 활용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전통음악

충남의 전통음악은 백제시대음악으로는 두드리거나 치는 타악기와 불어서 소리를 내는 관

악기의 연주로 이루어지 음악을 뜻하는 고취악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리고 홍성모심기소리인 결성농요와 부여지역의 농요에 대한 통칭인 산유화가 순이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음악인 풍류방에서는 대금산조와 해금산조의 명인인 한범수가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가야금과 병창으로 이름을 떨친 심상건이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그리고 판소리에서는 대한민국 판소리명창인 박동진(1916-2003)이 검색빈도가 전통음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음악에서 박동진명창·명고대회와 같은 개별 전통예술행사 이외에도 다른 숨겨진 전통음악도 지역축제의 부대행사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하겠다.

③ 전통회화

전통회화는 고려시대의 작품으로는 수덕사 내부에 그려져 있는 별화인 운룡도와 이제현의 [기마도강도], 수덕사 대웅전 벽화 등의 빈도수를 나타냈다. 조선시대의 산수화에서는 안견의 몽유도원도가 검색빈도가 높았으며, 안견의 또 다른 작품인 <사시팔경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추사김정희 선생의 작품인 세한도와 묵란도, 사군자는 이정희의 묵죽도, 기사계첩, 조속의 <노수서작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안견의 몽유도원도와 추사김정희의 세한도 등은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를 활성화시키면서 지역의 다른 전통회화에 연계한 전통회화 문화행사가 현대작가들과 연계한 행사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④ 서예

서예는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 서예 유물과 주요 인물이 있는데, 서예에 관련된 전통예술 자원으로는 칠지도(글씨)가 가장 높았으며, 양직공도가, 사택지적비가 등으로 백제시대 관련 서예유물이 높은 검색빈도를 보였다. 칠지도와 관련하여 충남에서는 서산 닻개백제사신행렬-칠지도의 비밀공연과 백제문화단지에서는 칠지도의 탄생 공연이 개최되고 있다.

특히, 서예에서는 칠지도와 양직공도, 사택지적비 등 백제시대와 관련되면서 대중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문화유산 자원으로서 이와 관련된 축제나 부대행사의 활용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⑤ 전통공예

전통공예 중 토기는 청동기시대의 송국리형토기, 금속공예로는 청동거울과 한국식동검이 검색빈도가 높았다. 철기금동공예의 경우 백제금동대향로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산수 무늬벽돌이, 무령왕릉 동탁은잔 등의 순으로 역시 백제문화자원들이었다.

직물공예자원으로는 모시폴로 만든 저포가 한산모시와 더불어 높고, 초고공예는 짚신이 토기공예 중 수막새와 백제토기의 검색빈도를 보였는데 이는 충남의 특색 있는 전통예술 자원과 함께 짚신의 경우는 전국적인 형태의 자원으로서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공예자원으로 칠지도와 석공예자원으로서 추사김정희선생의 벼루로도 사용될 정도로 유명하였던 남포벼루가 높은 검색빈도를 보였다.

따라서 전통공예 자원인 백제문화자원과 한산모시, 송국리유적, 추사 김정희와 연계성이 있는 남포벼루 등과 관련된 기존 축제의 활성화 방안 모색과 축제내의 기념품으로서 관광상품화에 대한 활용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⑥ 전통조각

전통조각은 선사시대에 고인돌과 선돌이 전국적인 분포자원으로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불상조각과 관련된 자원은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석탑으로는 정림사지오층석탑과 석불은 개태사지석불입상, 홍성 신경리마애석불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통조각 역시 다른 축제와 연계된 부대행사프로그램으로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⑦ 전통무용

충남의 전통무용은 백제시대의 미마지와 기악무가 각각 높은 검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악무는 6세기 초에 성행한 백제의 가면극(탈춤)으로 미마지가 중국 오나라에서 배워 일본에 전하였으며 공주민속박물관에서 전토향토연극제의 하나로 백제기악탈놀이를 시연하는 등 전승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미마지는 백제문화제와 연계한 주제나 부대행사프로그램으로의 활성화와 지역의 전통무용을 활용한 공연이나 부대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백제유적지구 현황특성과 키워드 분석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자원을 살펴보면 공주의 송산리고분군, 공산성,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익산의 미륵사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기별 검색빈도를 살펴보면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이 이루어진 2015년 5월에 검색 빈도가 높아졌으며 세계유산등재가 확정된 7월, 또한 공주와 부여의 백제역사유적은 10월 백제문화제 개최와 더불어 검색 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기존의 백제문화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세계유산으로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메가이벤트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2) 문화유산 관련 지역축제 활용 실태분석의 시사점

(1) 충남 축제의 현황과 특성

충남의 관광축제지수는 강원도와 전남의 4.5점에 이어 충남은 2.7점으로 3위를 차지하면서 도 평균인 2.4점과 전국평균인 1.7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의 관광축제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축제가 개최되는 서울과 전남, 강원, 경기도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고 지원을 해주는 문화관광축제는 2015년에 충남이 총 6건이 선정되어 한산모시문화제, 부여서동연꽃축제,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홍성역사인물축제 등 4건이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축제가 다수 개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축제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선택과 집중에 의하여 세계적 축제로 육성할 수 있는 단계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세계대백제전 메가이벤트의 특성

① 행사의 방향과 목표

2010년에 개최된 세계대백제전은 1400년간 역사 속에 묻혔던 대백제국의 개척정신과 찬란한 문화의 가치를 되살리고, 백제문화제를 세계적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추진하였다. 축제의 주제는 ‘1400년전 대백제의 부활’로서 백제와 관련된 공연·전시·이벤트, 체험프로그램, 국제학술회의 등의 부대행사프로그램은 운영하였다.

세계대백제전은 700년 대백제 문화강국의 가치와 진면목을 재발견하는 축제, 해양교류왕국

대백제의 기상을 오늘에 잇는 창의적인 축제, 대백제국의 후예로서 충청남도의 위상을 세계에 선양하는 축제, 소비성 축제에서 생산성 있는 주민 참여형 축제로 전환, 백제 콘텐츠를 세계적 보편성을 갖는 콘텐츠로 개발 활용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백제문화의 세계화·명품화를 위한 “글로벌 백제”의 새로운 출발점을 두기 위한 목표를 가진 메가이벤트로 개최되었다. 이 축제는 관람객수 내국인 349만명, 외국인 20만명 등 총 369만명이 방문을 하였고, 해외 참가국은 역사도시전시와 해외예술단, 학술회의 등 54개국에서 참여한 국제행사로 개최되었다.

② 백제문화프로그램

세계대백제전을 찾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백제문화를 주제로 하는 공연의 고급화 전략을 시도한 수상공연인 공주의 사마이야기 및 부여의 사비미르 수상공연, 웅진성의 하루, 세계역사도시전, 사비성의 하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흥미있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부여수상공연과 웅진성의 하루, 공주수상공연, 세계역사도시전의 만족도가 높았고, 주제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부여수상공연, 공주수상공연, 웅진성의 하루가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반면,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세계역사도시전과 백제문화유산디지털영상, 백제유물특별기획전 등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상의 기억, 흥미, 주제, 교육과 관련된 부대행사의 만족도에서 나타나고 있는바와 같이 백제문화를 콘텐츠로 한 현대적 야간공연과 역사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게 분석되어 이와 관련된 부대행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다.

③ 백제문화의 이해도

세계대백제전을 찾은 방문객들의 ‘백제 문화의 이해’에 대한 만족도는 공연프로그램 및 전시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보고 느끼고 체험형의 부대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마나루예술마당의 경우 웅진성의 하루와 세계역사도시전을 통해 세계역사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해설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백제문화유산 디지털 상영은 백제문화유산을 디지털로 복원하여 백제문화 전성기의 역사 다큐멘터리를 상영하였다.

부여의 경우 백제문화단지를 통해 사비궁의 하루 프로그램으로 백제시대 왕궁의 문화역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백제문화단지 내에서 펼쳐진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백제왕의 역사 문화 또한 느낄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또한 구드래와 왕흥사지에서는 백제 역사체험과 大백제기마군단행렬, 백제대왕행차재현, 계백장군 열무식 등 백제역사를 테마로 하는 부대 행사와 공연프로그램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백제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백제를 대상으로 한 문화유적이나 민속, 전통예술 자원을 소재로 하는 공연이나 전시, 체험형의 부대프로그램은 백제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3) 문화유산 관련 축제 개최 실태분석

① 충남 문화유산 관련 축제 특성

충남에서 2015년에 개최된 지역 축제는 총 139건에서 이중 문화유산축제는 50건으로 36.0%를 차지하였고, 문화유산축제 중에서는 50건 중에서 민속축제 29건 58.0%, 문화유적축제 17건 34.0%, 전통예술축제 4건 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문화유산 관련 축제가 1건도 없는 지역은 보령시, 논산시와 계룡시 등으로 나타나 전통축제의 육성이 필요하며, 가장 많은 지역은 당진시 9건과 서천군 8건 등으로 이들을 통합하거나 업그레이드하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② 문화유적, 민속, 전통예술 축제유형별 특성

충남 문화유산 관련 유형별 축제에서는 문화유적과 관련하여 백제문화제와 성웅이순신축제,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상록문화제, 서동연꽃축제, 한산모시문화제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와 전국적으로 지명도를 가진 축제가 많았다. 그리고, 민속분야에서는 기지시줄다리기, 예산옛이야기 축제 등이 전국적 지명도를 가지고 개최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축제 중에서 국제 수준의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축제를 선별하여 육성토록 해야 한다.

③ 계절별 개최 특성

충남에서 개최되는 문화유산 관련 축제를 계절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민속축제와 행사는 연

중 개최되나 1월과 2월. 문화유적과 관련한 축제들은 9월과 10월 가을철에 집중되고 있으며, 전통예술행사는 가을철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축제들은 계절적 편중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의 타 축제와 연계하여 사계절에 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키워드 분석과 축제와 연계성

① 문화유적의 축제 연계 시사점

문화유적 연계 주요 축제는 백제문화제,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성웅이순신축제, 짚풀문화제, 송국리청동기문화체험축제, 홍성역사인물축제, 추사추모전국회호대회 등이 개최되고 있다. 이들 축제의 특성은 백제문화제와 같이 여러 개의 문화유적들이 종합되어 하나의 축제 형태로 개최되기도 하고,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 축제와 같이 하나의 개별 문화유적을 대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들 축제들은 대주제와 부대행사, 세부프로그램 등에 다각적으로 콘텐츠를 활용하면서 국제적 축제로서 잠재력이 있는 축제는 메가이벤트로 발전시켜야 한다.

문화유적 중 관련 축제가 없는 자원은 성주사지, 남연군묘, 수덕사대웅전, 문헌서원, 결성향교, 윤증고택 등으로 이들 자원의 역사적 관련성과 주변 지역의 타 축제와 연계한 신규 축제나 이벤트의 발굴·육성이 요구된다.

② 민속자원의 축제 연계 시사점

민속자원의 축제와 연계성에서는 민속자원 중 통발, 머구리, 백중날, 천수답, 쉬박지, 지신밟기, 길쌈놀이 등은 관련되어 개별적으로 개최되는 축제의 형태는 없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타 축제나 문화행사, 이벤트 등에 부대행사로 활용하거나 해당 지역의 예술제나 공동체 행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육성한다.

민속자원 관련 축제로는 한산소곡주축제, 내이랑달맞이축제, 기지시줄다리기, 안섬풍어당굿, 은산별신제, 계룡산산신제, 삼길포우렁독살축제 등이 개최되고 있다. 이들 축제 중 기지시줄다리기와 한산소곡주축제는 충남의 전통적 특성을 반영하는 축제로서 활성화가 필요하며, 은산별신제와 계룡산산신제 등도 지역의 정체성과 민속자원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전통예술의 축제 연계 시사점

전통예술 관련 축제는 안건예술제, 백제문화제, 계룡산분청사기축제, 추사추모전국회호대

회, 박동진판소리명창명고대회 등이 개최되고 있다. 이들 축제는 앞의 문화유적이거나, 민속자원과도 연계되어 축제로 개최되고 있으므로 각각의 전통예술을 소재로 한 부대행사를 활성화시키도록 한다.

반면, 전통예술 중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사택지적비, 해금 한범수, 암문토기와 수막새, 청동거울, 산수무늬벽돌 등은 관련 축제가 없으므로, 이들과 연계된 축제나 문화행사, 전통행사프로그램의 발굴·육성도 필요하다.

3) 활용과제의 도출

(1) 충남 대표 문화유산축제의 세계화와 소재별 축제자원 활용성 다각화

충남의 문화유산 중 문화유적, 민속, 전통예술 등에서 백제문화제와 서동연꽃축제,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기지시줄다리기, 한산모시문화제 등은 2010세계대백제전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어 국제 및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개최되었다. 이들 축제는 충남의 대표하는 축제로서 기존의 축제를 업그레이드하여 메가이벤트로 개최해야 한다.

또한, 다른 문화유산 자원들도 유·무형의 문화재와 관련된 통합형 축제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한 유교 및 중국 관련 축제도 발굴하여 개최토록 한다. 이러한 충남의 대표축제와 기존축제의 업그레이드, 신규 발굴축제 등은 충남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적, 민속, 전통예술 등의 개별자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콘텐츠를 활용하여 주제와 부대행사, 체험프로그램, 축제의 기념품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활용성을 다각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축제는 현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재)충남문화재단이 이들의 주제와 부대행사, 각종 공연과 전시 등에 대한 기획과 운영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충남의 문화유산의 활용성을 제고해야 한다.

(2) 유사축제의 통합과 지역내 타 축제의 부대행사프로그램과 연계 강화

충남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들은 문화유산축제와 문화관광축제로 대별되며, 이들 축제의 주제와 부대행사들은 충남 소재의 문화유적, 민속, 전통예술 등의 자원과 연계하여 유사축제로 개최되거나 문화관광축제의 부대행사나 프로그램으로 개최되기도 한다.

이들 중에는 특히, 민속과 관련된 해넘이·해돋이 축제, 달맞이, 달집태우기, 지신밟기 등의 축제는 우리의 세시풍속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사하게 인접지역에서 개최되기도 한다. 또한, 전통예술에 민요경창과 공연, 농악, 사물놀이 등도 역시 인접지역에서 유사하게 개최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역내의 타 축제 부대행사로 과거에는 다수 이루어졌으나 최근에 와서는 현대적 프로그램에 밀려 소외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지역 정체성을 대표하는 부대행사로 활성화 해야 한다.

(3) 공공주도형 축제 주관방식 및 협조체계의 개선

충남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의 주관방식은 충청남도 및 각 시·군 및 면사무소 등의 공공기관과 문화재단·해당법인, 시·군 문화원, 지역 금융기관, 해당 유적의 단체뿐만 아니라, 각 축제의 추진위원회가 가장 많으며, 마을이장협의회, 마을운영위원회 및 마을자치위원회, 주민대책위원회, 지역발전협의회, 개발위원회, 상인회 및 번영회, 마을청년회, 영농조합법인과 사회적기업, 농업인단체 및 어촌계 등 매우 다양하고도 많은 축제의 주관·주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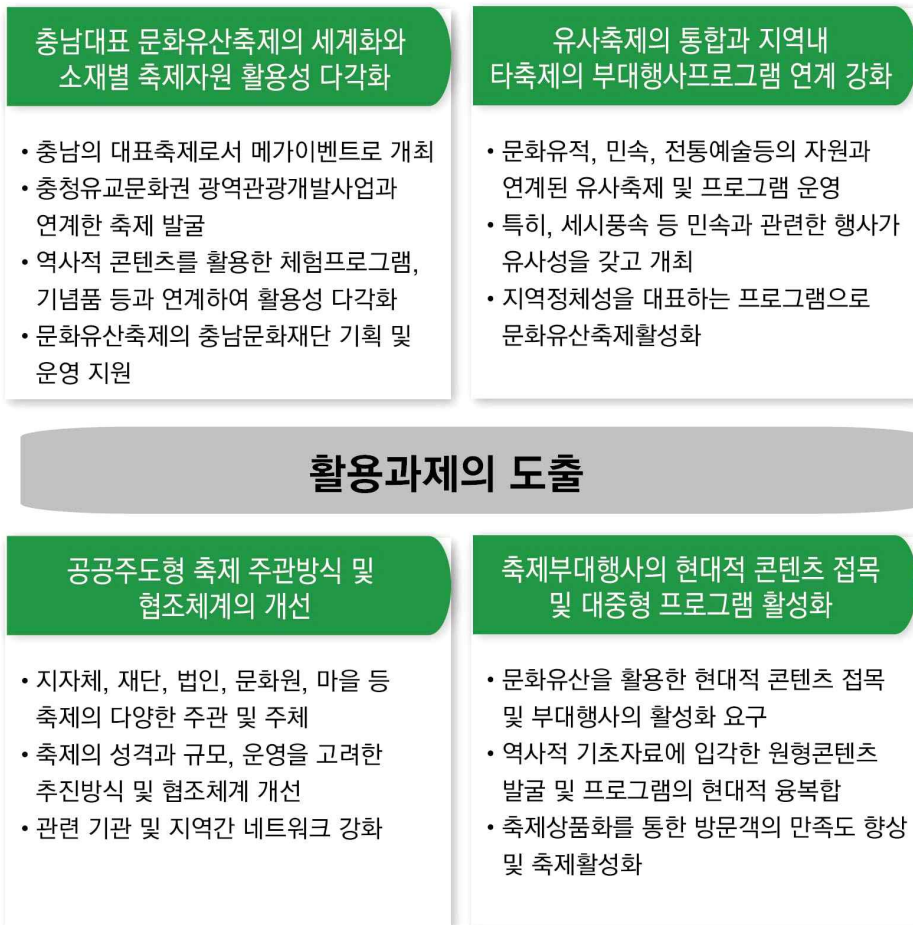
이러한 축제의 주관방식은 축제를 운영하는 재원의 조달과 인력운영, 프로그램의 진행 등뿐만 아니라 방문객의 만족도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기존에 지속되어온 축제의 주관방식을 지켜가면서 축제의 성격과 규모, 운영을 효율성을 고려하여 축제의 주관방식과 협조체계를 개선토록 해야 한다. 특히, 문화유산의 유사한 자원간의 연계와 지역의 타 축제에서의 부대행사프로그램으로 연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기간 및 지역간의 네트워크와 협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4) 축제의 부대행사의 현대적 콘텐츠 접목과 대중형 프로그램의 활성화

충남의 문화유산축제는 지역의 축제 중에서 3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축제는 기존에 지역의 문화예술제 형태의 공동체와 전통예술행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2000년대에 오면서 현대적인 형태의 축제로 탈바꿈되면서 문화유산을 활용한 현대적 콘텐츠의 접목과 대중형 부대행사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충남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적, 민속, 전통예술 등의 자원도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 기초자료에 입각한 원형 콘텐츠를 바탕으로 축제의 명칭과 주제, 부대행사와 체험프로그램, 각종 공연과 전시 등에 이르기까지 현대적인 융복합을 통한 축제의 상품화로 일반 대중

들까지 방문하여 만족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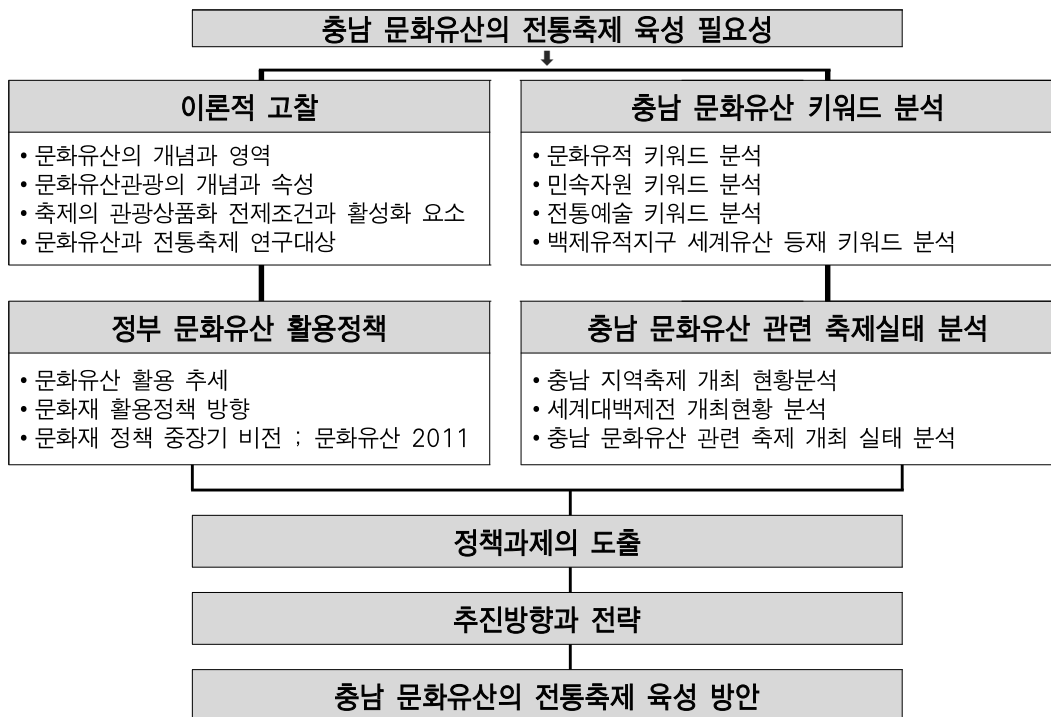
〔그림 21〕 충남 문화유산 키워드와 축제실태 분석을 통한 활용과제 도출

제4장 충남 문화유산의 전통축제 육성방안

1. 접근 틀과 기본방향

1) 접근 틀

본 연구에서 충남 문화유산의 전통축제 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접근 틀은 다음의 [그림 2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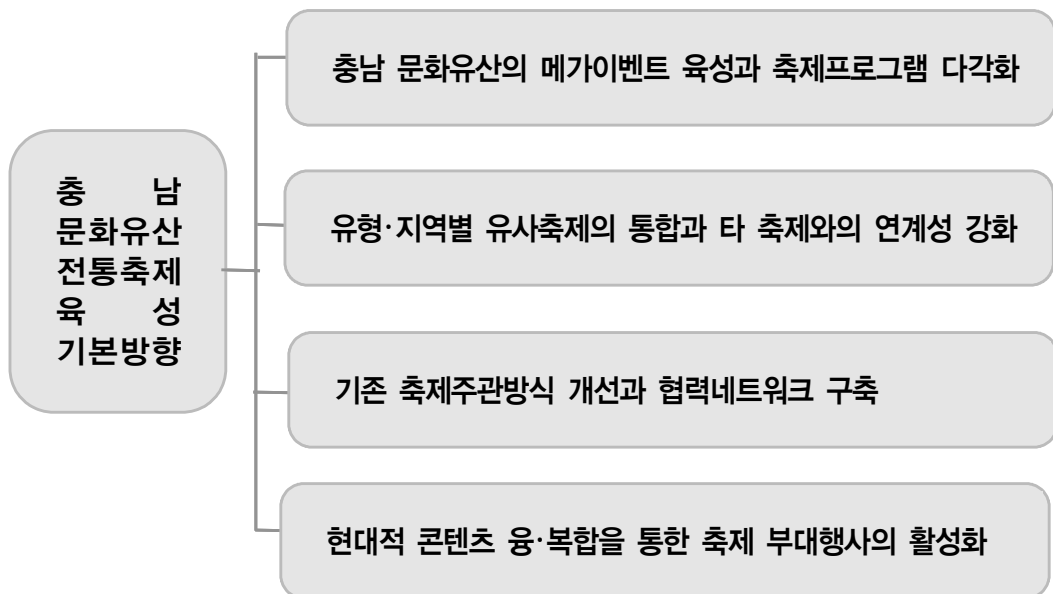


[그림 22] 접근 틀

2) 기본방향

문화유산과 지역축제의 이론고찰, 정부의 문화유산 활용정책, 충남 문화유산 현황과 키워드 분석, 충남 문화유산 관련 축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이들 통해 정리된 충남 문화유산의 전통축제 육성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 (1) 충남 문화유산의 메가이벤트 육성과 축제프로그램 다각화
- (2) 유형·지역별 유사축제의 통합과 타 축제와의 연계성 강화
- (3) 기존 축제주관방식 개선과 협력 네트워크체계 구축
- (4) 현대적 콘텐츠 융·복합을 통한 축제 부대행사의 활성화



[그림 23] 충남 문화유산의 전통축제 육성 기본방향

2. 문화유산의 전통축제 육성전략

1) 충남 문화유산의 메가이벤트 육성과 축제프로그램 다각화

(1) 백제문화 ‘세계유산대백제전’의 정기 개최

충남의 문화유산 키워드 검색에서 백제문화와 관련된 자원은 문화유적에서 무령왕릉과 송산리고분군, 부소산성, 공산성, 정림사지 5층석탑, 정림사지, 삼층사 등 7건, 전통예술에서 칠지도와 백제금동대향로, 부여정림사지탑, 양직공도, 사택지적비, 미마지 6건 등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공주·부여·익산의 백제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국내외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세계대백제전을 개최하여 기존 백제문화제를 세계 속에 알리는 국제행사로 발돋움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세계유산의 등재자원으로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대백제전’을 2020년경에 개최하도록 한다.

(2) 충청 유교문화 ‘한·중 유교문화축전’ 개최

충청유교문화는 국내 유교문화의 기호학파의 중심지로서 율곡 이이, 사계 김장생, 우암 송시열고 이어지는 충청유교의 특징 속에 성리학 체계에서도 예학과 실학 같은 다양한 조류를 이끌어 낸 지역이다. 충청유교문화는 적극적인 현실 참여를 통한 내적 혁신을 창출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 남아있는 역사인물과 향교, 서원·사우 등의 유교문화자원이 풍부하다.

특히, 충청유교문화권은 인접한 중국 및 일본 등 타 국가의 문명과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황해권에 속하고 있다. 특히, 충청 환황해권 문화의 특징은 유교문화뿐만 아니라 불교와 천주교 문명의 전파 경로라는 점에서 지역의 유교와 관련된 인물뿐만 아니라 문화유적·민속·전통예술 등을 활용해 전통문화에 바탕을 둔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한·중 유교문화축전’을 개최하여 중국과의 문화교류와 중국관광객 유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3) 문화유적, 민속, 전통예술 연계 축제프로그램 다각화

충남의 문화유적, 민속, 전통예술 자원중에는 개별 축제로서 개최되거나 부대행사프로그램

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명도가 있는 문화유산과 전통예술들은 기존에 지역의 대표축제로 개최되거나 예술제 및 경연행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민속자원은 다른 유산에 비하여 축제나 부대행사로서 활용성을 높이도록 한다.

더불어 백제와 관련된 문화유산과 전통예술, 성웅 이순신과 추사 김정희 등의 인물과 관련된 유산에 대한 개별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활용가치에 맞도록 연계 축제와 부대행사프로그램도 다각화하여 기존 축제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신규 소축제도 발굴하여 개최토록 한다.

2) 유형·지역별 유사축제의 통합과 타 행사와의 연계성 강화

(1) 내포 세계인류무형문화대전(세계아름드리 문화대전) 개최

충남에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문화유산(2010년)인 중요무형문화재 대목장을 비롯한 소목장, 단청장, 불화장, 목소장, 침선장, 각자장, 지승공예, 땡땡이장 보유자 등이 다수 있다. 그리고, 충남 전통예술 관련 시설로는 한국전통문화학교(부여), 한국고건축박물관(예산)과 도내 전통공예공방이 170개소가 운영중에 있다. 이에 충남에서 목공예와 건축, 전통공예, 전통화법, 전통음식, 문화재 수리 등 국제무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축제를 발굴·육성해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행사지원과 연계한 통합 문화예술축제로 육성

충남에는 전통예술자원으로 전통회화, 전통공예, 서예, 전통조각, 전통무용, 전통음악 등이 있다. 이들은 각 자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규모 공연예술 행사 지원을 해주는 전통예술의 공연활성화 사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지원사업으로는 관광기금으로 지원하는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사업’과 ‘공연예술 행사 지원’ 사업,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사업 등 총 3개 사업을 통해 전국규모의 전통 공연예술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충남의 전통예술에서 앞의 3가지 사업유형에 맞추어 전통공연예술행사 지원 사업을 연차별로 선별하여 사업공모를 통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3) 전국체전 등 전국단위 행사와 연계한 지역축제와 부대행사의 강화

전국에는 전국체육대회와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한민국미술대전, 대한민국연극제 등 전국단위의 행사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또한, 이에 맞추어 충청남도에서도 충남 도민체육대회와 충남 민속대제전, 충남미술대전, 충남연극제 등도 매년 이루어진다. 이러한 전국단위의 행사는 전국 각 시·도에서 방문객이 많고, 지역내에서도 방문객을 수용하기 위하여 기반시설과 각종 지역행사를 준비하게 된다.

그러므로, 충남에서 전국체전 등 전국단위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지역의 문화유적, 민속, 전통예술 등과 연계한 지역축제와 부대행사를 그 행사와 지역의 여건에 맞도록 개최하여 방문객들에게 우리 고장의 정체성을 홍보하고,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기존 축제주관방식 개선과 협력 네트워크체계 구축

(1) 메가이벤트와 전국규모의 축제는 공공주도형으로 개최

메가이벤트는 방문객수, 규모, 개최 비용 및 영향 정도의 측면에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이벤트로 국·내외적으로 지명도와 중요성을 지닌 대규모행사(event)라고 할 수 있다. 메가이벤트와 전국규모의 축제는 방문객수가 많고, 행사 규모가 크게 개최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일반적인 축제 보다는 많이 소요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대규모적인 메가이벤트나 지역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비용이 수반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국내의 국제행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관리지침에 의하여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하여 축제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처럼 국제행사의 메가이벤트나 전국단위의 지역축제는 국비 또는 지방비 등의 공공재원이 투자되고, 다양한 국가와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방문하거나 관람, 참여할 수 있게 되며, 개최지역 지역주민 및 각종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행태로 진행됨으로써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공공주도형으로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추진하게 된다.

그러므로 충남에서도 문화유산과 관련된 메가이벤트로서 국제적 축제나 충남과 시·군을 대표하는 축제는 공공에서 주도하도록 한다.

(2) 지역단위 문화유적·민속·전통예술 관련 축제는 단체와 주민주도형으로 개최
충남의 문화유산과 관련된 축제 중에서 충남과 시·군을 대표하는 축제는 대부분이 공공주
도형으로 개최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의 축제들은 축제육성위원회와 마을단체, 민속 및 전
통예술단체 등이 주도하여 개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축제들은 외형적으로는 주민주도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에서의 재정
적 지원과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도 다수가 있다. 그러므
로 지역단위로 이루어지는 문화유적·민속·전통예술 축제나 이벤트는 점차적으로 주민주도형
의 축제로 개최되도록 진화되어야 한다.

(3) 충남문화재단과 지역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주도와 지원형 축제 양성

충청남도는 지역문화예술진흥과 도민의 다양한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2013년 말 충남문화
재단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2014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다. 특히, 충남문화재단은 지역 문
화예술 대표브랜드 육성 등 3대 목표를 두고 충남의 문화유산과 관련된 사업을 물론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아산문화재단은 성웅이순신축제, 짚풀문화제 등을 주관
하고 있으며, 부여문화원은 부여서동연꽃축제, 금산문화원은 물폐기농요보존회와 농바우끄시
기보존회와 함께 금강여울축제를 주관하여 있다.

이와 같이 지역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지역주민들과 전통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을 대표
할 수 있는 문화유산축제들은 이제 충남문화재단과 시군문화재단 및 문화원들이 주도하면서
지원하는 축제로 개최되어야 한다.

(4) 자율·자립형 축제주관과 운영을 위한 인력양성과 노하우의 축적

충남의 문화유적·민속·전통예술과 관련된 지역축제들이 지역단체와 주민주도형의 축제로
진화되고, 충남문화재단과 각 시군의 문화재단 및 문화원, 문화예술단체 주도와 지원형 축제
로 전환되어 자율·자립형 축제의 주관과 관리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지역주민과 단체, 지역문화재단 등이 축제를 주관하거나 지원, 관리 및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축제를 기획에서부터 관리와 운영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험에 의한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문화유산축제 아카데미를 통해 축제관계자는 물
론 자원봉사, 축제해설사 등에 대한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4) 현대적 콘텐츠 융·복합을 통한 축제 부대행사의 활성화

(1) 문화유산 원형에 현대 콘텐츠 융복합을 통한 대중참여형 축제도 병행 개최

충남의 문화유산의 문화유적·민속·전통예술 관련 축제는 그 동안에 메가이벤트에서부터 지역의 소규모 전통축제나 이벤트, 전통예술경연대회 등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다양하게 개최되어 왔으나 이들을 현대적인 방문수요에 맞는 콘텐츠의 융·복합을 통한 대중화가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은 세계대백제전과 백제문화제,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를 비롯한 문화유적 관련 축제나 기지시줄다리기와 예산옛이야기 축제 등 민속축제, 온양온천문화예술제 등 전통예술축제 등의 기존 축제들도 주제뿐만아니라 부대행사인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에 있어서 현대적 콘텐츠를 융복합하여 대중 방문객들의 눈높이와 수요에 맞는 축제로 병행되어야 한다.

(2) 문화유적·민속·전통예술 소재의 정체성 있는 소규모 부대행사의 활성화

문화유산의 문화유적·민속·전통예술 축제의 생명은 정체성과 재미이다. 지역축제의 정체성은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진정성을 전달하면서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준다. 반면, 지역의 정체성만을 강조하는 축제로 행사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진행을 하다보면 재미와 흥미를 잃어버려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축제의 참여의욕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적·민속·전통예술의 각 유산이 가지고 있는 원형콘텐츠에 정체성이 있는 킬러콘텐츠의 대표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활용하면서, 관련 소재들과 연계한 소규모의 부대행사를 활성화 시킨다.

(3) 교육 및 체험형의 행사프로그램과 문화유산 축제해설사 운영

문화유산의 문화유적·민속·전통예술과 관련된 축제와 이벤트, 경영대회 등은 공연과 전시 등의 부대행사가 많이 이루어진다. 이들 부대행사는 교육 및 체험형의 행사프로그램이 많을수록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 특히, 축제장의 부대행사에서 교육과 체험형의 전시나 유적지 방문프로그램은 축제의 해설사가 함께 할 때 축제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게 하는 양념적 요소이다. 따라서 충남의 문화유적·민속·전통예술과 관련된 축제에서는 기존의 문화관광해설사 또는 지역에서 축제아카데미 등을 통해 양성되는 축제해설사 등을 통해 문화유산축제의 방문율을 높여야 하겠다.

3. 문화유산과 연계한 지역축제의 육성방안

1) 충남 문화유산의 메가이벤트 육성과 축제프로그램의 다각화

(1) 백제문화 ‘세계유산대백제전’의 정기 개최

① 행사개요

백제문화는 충남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자원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역문화와 관광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주제로 기존에 2010세계대백제전을 개최하였다. 백제문화제는 국내의 3대 문화제로서 신라 경주문화제와 진주 개천예술제와 함께 시작되어 2015년 61회째를 맞이하고 있어 역사가 깊고 충남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역사와 정통성을 가진 충남의 대표문화축제로서 지속 개최해야한다.

나아가 2010세계대백제전을 개최 이후 2015년에 백제유적지구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이를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메가이벤트가 개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2010세계유산 대백제전의 개최 개요는 다음과 같다.

□ 2020 세계유산 대백제전(2020 Great Baekje World Festival) 개최개요

- 행사명 : 2020 세계유산 대백제전(2020 Great Baekje World Festival)
- 기간 : 2020년 9~ 10월경
- 장소 : 공주시·부여군 일원
- 주최 : 대백제전추진위원회
- 주관 : 충청남도
- 주제 : 세계유산 대백제의 부활
- 행사내용 : 공연·전시·이벤트, 국제학술회의, 체험프로그램 등
- 유치목표
 - 관람객 : 250만명(내국인 230, 외국인 20) 유치
 - 해외유치 : 세계역사도시연맹 회원도시 등 20개 도시 이상
- 예산액 : 250억원(국비 30, 지방비 170, 기타 50)

② 추진방향

유네스코 세계 유산(UNESCO World Heritage Site)은 유네스코에서 인류의 소중한 문화 및 자연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위한 것으로 백제유적지구가 등재됨에 따라 이를 세계화하고, 이미지를 제고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한다. 2010세계대백제전 개최로 백제문화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므로 이를 10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속성을 유지한다. 지금까지 61회째를 맞이하는 백제문화제를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메가이벤트로 개최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산업으로 연계 육성하며, 세계유산과 연계한 역사문화콘텐츠 산업과 지역의 관광상품화를 통한 세계역사문화축전으로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③ 행사프로그램

- 세계유산 유네스코 등재도시 교류전 및 공연
 - 세계유산 등재도시 교류관
 - 세계유산 등재도시 초청 전통공연
- 세계고대국가 교류전
 - 세계 4대문명관, 한중일고대교류관, 동남아교류관
- 세계 한민족 통일마당 및 한국 고대삼국관
 - 세계 한민족 만남 어울림 통일마당
 - 고구려관, 신라관, 백제관
- 세계유산 국제학술회의 및 국제행사 개최
 - 세계유산 국제학술회의 및 포럼, 세계역사도시 회의 유치
 - 백제교류국 교류행사, 일본왓소축제 등 국제행사
- 고대 동양문화 교류포럼 및 사신퍼레이드
 - 동아시아 백제문화교류 포럼 개최
 - 백제교류국가 사신퍼레이드 개최
- 금강 수상 야간공연 및 선박행렬
 - 백제테마 금강 야간수상공연

- 금강 사진선박 행렬 행사
- 금동대향로 퍼레이드 및 전통공연
 - 금동대향로 지상퍼레이드
 - 금동대향로 및 미마지 공연

④ 사업추진방안

2020 세계유산 대백제전은 공공주도형으로 백제문화추진위원회(공주/부여) 또는 백제유적 지구유네스코등재추진위원회(익산포함)가 주최가 되어 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2020년 66회 백제문화제의 연계 개최 및 세계유산에 대한 보존관리를 위한 연계 사업과 병행한 국제적 행사로 추진하고 국제적 메가이벤트로서 세계유산 유네스코 등재도시와 세계역사도시 연맹국 등을 초청하여 교류전시회 및 전통공연 개최한다. 또한, 국내외의 한민족이 참여하는 통일마당과 고구려, 신라, 백제 및 한성백제문화제가 참여하는 전시회 및 문화예술공연 실시한다.

⑤ 재원조달방안

2020 세계유산 대백제전의 재원조달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 공공재원으로 추진하며 기타 수입으로 회장사업, 입장료, 임대사업, 광고사업, 협찬사업 등에 대한 비용을 통한 재원조달 등 일부 자체수입과 민간참여 추진한다.

(2) 충청 유교문화 ‘한·중 유교문화축전’ 개최

① 행사개요

충청유교문화는 국내의 유교문화의 영남학과와 대별되는 기호학과와 중심지로서 수많은 역사인물과 향교, 서원·사우 등의 유교문화자원이 풍부하게 남아있고, 인접한 중국 및 일본 등 타 국가와 유교문화뿐만 아니라 불교와 천주교 문명의 전파 경로라는 점에서 동아시아 공동문명의 코드를 가진 역사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환황해권 시대 중국과의 역사문화적 교류에 대하여 유교문화와 관련된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한·중 유교문화축전’을 개최하여 중국과의 문화교류와 중국관광객 유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국제적 역사문화행사가 개최되어야 한다.

□ 2025 한·중 유교문화축전 개최개요

- 행 사 명 : 2025 한·중 유교문화축전
- 기 간 : 2025년 4~ 5월경
- 장 소 : 내포문화권 일원
- 주 최 : 한·중유교문화축전추진위원회
- 주 관 : 충청남도
- 주 제 : 유교문화로 꽃피운 동방의 문명
- 행사내용 : 국제포럼, 공연·전시·이벤트, 국제학술회의, 체험프로그램 등
- 유치목표
 - 관 람 객 : 200만명(내국인 180, 외국인 20) 유치
 - 해외유치 : 중국내 충남과 각 시·군 자매도시 등 20개 도시 이상
- 예 산 액 : 200억원(국비 20, 지방비 150, 기타 30)

② 추진방향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다양한 관광자원개발사업과 관광상품개발, 홍보 및 마케팅이 연계하여 이를 세계화 하고, 이미지를 제고하는 국제적 문화행사 개최한다. 한·중 유교문화와 연계한 역사문화콘텐츠 산업과 지역의 관광상품화를 통한 환황해권 지역의 문화축전으로서 중국 등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관광산업을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한다.

③ 행사프로그램

- 환황해 유교문명도시 교류전 및 공연
 - 한·중 유교도시 교류관
 - 한·중 유교도시 초청 전통공연
- 문명 개방성 화해마당 및 국제포럼
 - 유교, 불교, 천주교와의 만남의 장
 - 문명과의 교류 국제포럼
- 유교문화 국제학술회의 및 국제행사 개최

- 유교문화 국제학술회의 및 포럼
- 한·중 유교도시 교류 국제행사
- 유교문화 교류포럼 및 사진퍼레이드
 - 동아시아 유교문화교류 포럼 개최
 - 유교문화국가 역사퍼레이드 개최
- 한·중·일 국제서에 교류전
 - 추사 김정희 서예전
 - 한중일 국제서예전
- 유교문화 전통공연
 - 국내유교문화 도시 전통공연
 - 충청 유교민속 전통공연

④ 사업추진방안

2025 한·중 유교문화축전은 공공주도형으로 충청권 한·중유교문화축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행사로 개최하며 국제적 역사문화행사로 중국의 주요 유교문화 도시 및 환황해권 유교문화 관련 시·도 등을 초청하여 교류전시회 및 전통공연을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⑤ 재원조달방안

2025 한·중 유교문화축전의 재원조달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4개 충청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 공공재원으로 추진하며 기타 수입으로 휘장사업, 입장료, 임대사업, 광고사업, 협찬사업 등에 대한 비용을 통한 재원조달 등 일부 자체수입과 민간참여를 촉진한다.

(3) 문화유적, 민속, 전통예술 연계 축제프로그램 다각화

충남의 문화유적, 민속, 전통예술 자원 중에는 개별 축제로서 개최되거나 부대행사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들 3가지의 자원을 소재로 하여 기존축제를 업그레이드 하고, 신규축제를 발굴·육성하여 축제프로그램을 다각화해야 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다.

[표 63] 축제프로그램 다각화 방안

구 분		축 제 명	다각화 방안
기존 축제	문화유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제문화제 •한산모시문화제 •홍성역사인물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왕과 전투,백제금동대향로 , 미마지 등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활용 •한산소곡주축제와 통합, 저산팔음길쌈놀이 활성화 등 •역사인물과 관련된 현대적 콘텐츠의 공연 활성화
	민 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지시줄다리기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포 세계인류무형문화대전과 연계 킬러콘텐츠로 활용 •유교문화와 산성, 천주교 관련 프로그램 강화
	전통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견예술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 미술대전과 유교문화연계 행사로 업그레이드 •관광객 체험형프로그램 강화
신규 축제	문화유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교·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교문화관련 축제와 교육체험행사 발굴 및 육성
	민 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살,외암리민속마을 •보부상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품속 체험형 이벤트의 활성화 •민속 및 전통놀이 등의 각종 축제와 문화행사 참여 활성화
	전통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칠지도와 양직공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칠지도 관련 축제 발굴·육성 •양직공도 관련 패션쇼 등 현재적 콘텐츠 공연 발굴 및 개최

2) 유형·지역별 유사축제의 통합과 타 행사와의 연계성 강화

(1) 내포 세계인류무형문화대전(세계아름드리 문화대전) 개최

① 행사개요

충남의 내포문화권은 백제, 유교문화권과 함께 3대문화권으로 해안의 특이한 문화자원과 함께 세계무형문화 유산인 중요무형문화재 대목장을 비롯한 다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보존·전승하는 국제행사를 개최를 통해 지역의 문화자원을 홍보한다. 더불어, 내포에는 2013년 충남 도청이 이전을 계기로 하여 신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의 건설과 건축물 건립 등에 역사와 전통문화를 접목하기 위한 세계인류무형문화대전이 개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내포 세계인류무형문화대전(2023Naepo World Intangible Heritage Festival)의 개최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내포세계인류무형문화대전(Naepo World Intangible Heritage Festival) 개최 개요**

- 행 사 명 : 내포세계인류무형문화대전(Naepo World Intangible Heritage Festival)
- 기 간 : 2023년 9~ 10월경
- 장 소 : 홍성군·예산군 일원
- 주 최 : 내포인류무형문화대전위원회
- 주 관 : 충청남도·홍성군·예산군
- 주 제 : 아름다리 내포, 아름다운 삶
- 행사내용 : 미래도시공모전, 문화예술공연, 문화체험 및 탐방, 국제학술대회 등
- 관람객수 : 300만명(국내 290, 해외 10)
- 해외참가 : 15개국이상
- 총사업비 : 100억원

② 추진방향

내포문화권의 인류무형문화 유산(UNESCO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의 대목장을 중심으로 한 소목장, 단청장, 불화장, 목소장, 침선장, 각자장, 지승공예, 땃대이장 등 건축과 가구, 공예에 대한 인류무형문화유산 전시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개최한다.

또한 내포는 신도시로서 지역의 예산의 고건축박물관 및 충남도내 170개 전통공예공방이 참여하는 아름다리 신도시 조성 공모전 등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미래도시 건축공모전’ 개최 하며 내포신도시의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는 충남의 및 문화예술 공연, 문화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명품신도시 이미지 제고 및 환황해권 배후 중심도시로서 장소마케팅의 메가이벤트로 개최한다.

③ 행사프로그램

- 인류무형유산 등재도시 교류전 및 공연
 - 인류무형유산 등재도시 교류관 및 전통공연

- 국내 무형유산 도시 전시관 및 전통공연
- 미래도시 건축 및 공예 공모전
 - 전통과 미래건축 도시전
 - 미래 생활공예 공모전
- 인류무형유산 국제학술대회 및 행사 개최
 - 인류무형유산 국제학술대회
 - 인류무형유산 전문가 교류행사
- 무형유산 예술공연 및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 충남 전통예술 및 무형문화공연
 - 내포문화체험 및 관광답사프로그램

④ 사업추진방안

2023 내포 인류무형문화대전은 공공주도형으로 내포인류무형문화대전위원회가 주체가 되고, LH 및 건설과 건축 관련 민간부문에서도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관·민참여형으로 개최한다.

특히, 2023년은 충청도청의 내포(홍성·예산)로 이전 만 10년이 지난해로서 그 동안 도청이전 신도시로서 내포시의 발전상을 메가이벤트로 홍보토록 충청남도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며, 세계유산 중에서 건축 및 공예와 관련된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 세계무형문화 지정 국가의 도시 등을 초청하여 교류전시회 및 전통공연을 개최한다.

⑤ 재원조달방안

2023내포 인류무형문화대전의 재원조달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 공공재원과 주택공사 및 민간사업체의 참여로 추진하고 또한, 기타 수입으로 휘장사업, 임대사업, 광고사업, 협찬사업 등에 대한 비용을 통한 재원조달 등 일부 자체수입으로 추진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행사지원사업과 연계한 통합 문화예술축제로 개최

충남에는 전통예술자원으로 전통회화, 전통공예, 서예, 전통조각, 전통무용, 전통음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는 관광기금으로 지원하는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사업’에 기지시줄다리기와 안견예술제 등의 공모를 추진한다.

문예기금으로 지원하는 ‘공연예술 행사 지원’ 사업은 민속에서 은산별신제, 계룡산산신제, 안섬풍어당굿 등이 공모토록 한다. 또한, 문예기금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사업은 박동진관소리명창명고대회 등과 같이 해금 한범수 공연 등의 공모사업을 지원한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전통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의 현황 예시는 다음과 같이 사업별로는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사업에 전통예술분야가 2개, 공연예술행사지원전통예술분야 3개, 지자체 공연예술활성화 전통예술분야 1개 사업 등으로 총 6개의 사업에 지원되었다.

〔표 64〕 문화체육관광부 전통공연예술행사지원(2013년 기준)

구분	재원	지원단체	지원사업명	지원액(백만원)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관광기금	전통예술진흥재단	작은공동체 전통예술잔치	300
		동화사	팔공산 산중중터 승시	300
공연예술행사지원	문예기금	(사)한국국악협회	제32회 대한민국국악제	50
		임실 필봉농악보존회	제18회 팔봉마을 굿축제	30
		중방농악보존회	제4회 전국풍물굿축제 전국풍물타악경연대회	20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	문예기금	전라남도	판페라-이순신	3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문화예술정책백서, 2014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전통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의 공모를 위한 사업목적과 지원방향, 선정계획, 향후 추진계획 등 ‘2015년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사업 공모’의 공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년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사업 공모

2015년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공모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4년 12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사업 목적

- 지역의 특성화된 공연예술 행사·축제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육성과 관광활성화, 국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 도모

2. 지원 방향

- (지원 대상) '15년도에 개최되는 공연예술행사·축제(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예술)로서 최소 3년

(‘12~’14년) 이상 개최된 전국 규모 행사·축제

※ 문화체육관광부 재원(일반회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이 예정된 행사는 중복 신청 불가. 한국문화예술위

원회의 ‘공연예술행사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하나, 중복 지원은 불가

- (지원 금액) 각 사업별 5억 원 이내(구체적인 금액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 조건) 국고와 지방비 매칭 비율은 지자체 사정에 맞게 추진하되, 지방비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
- (지원 항목) 행사운영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 ※ 공연예술행사·축제 사고예방 및 안전점검을 위한 예산 편성 의무화

3. 선정 계획

○ 선정 방향

- 2014년 공연예술행사·축제 개최실적, 2015년 행사 개최계획 및 향후 지역문화예술발전과 관광활성화, 국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기여 등을 종합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 40%
 - 사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명확하고 차별화된 중기 비전 및 전략 마련 정도
 - 세부 사업운영 계획의 구체성 및 사업목적 부합 정도
 - 사업 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 및 수준의 적절성 및 합리성

[계속]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30%
 - 사업규모와 지원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업에 대한 재정운영계획의 현실성
 - 조직과 운영인력 확보 등 사업계획의 이행 가능성
 - 해당 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개선 정도 : 30%
 - 해당 분야 발전 및 사회적 관심확산에 기여도
 - 자체 평가 등을 통해 환류 및 개선 노력 및 실적
 - 이해 관계자(관객, 참여자 등) 만족 수준
 - ※ 공연예술행사·축제의 범주를 벗어난 소규모 개인 공연,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축제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 행사 주제와 무관한 프로그램, 대중연예인의 과도한 참여, 형식위주의 행사·축제 등은 감점
 - 선정 절차
 - 주최(주관)단체에서 해당 지자체로 신청서 제출 → 광역시·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추천서 및 단체 지원신청서
 - 제출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연예술행사·축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심사
4. 향후 추진 계획
- 시·도 신청
 - 제출기한 : ‘14.12.31(수)까지
 - 제출방법 : 시·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추천(무순위 추천)
 - 제출서류 : 2015년도 공연예술행사·축제 추천서(지자체용) 1부 및 2015년도 공연예술행사·축제 지원신청서(단체용) 1부
 - 심사 및 선정 : ‘15.1월 초
 - 시도에서 추천한 공연예술행사·축제를 대상으로 우리부 선정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선정
 - 결과 통보 : ‘15.1월 중순

(3) 전국체전 등 전국단위 행사와 연계한 지역축제와 부대행사의 강화

충남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와 한국민속예술축제 등은 전국단위의 행사가 매년 개최되어 이들 행사에 전국 각 시·도에서 방문객이 많으므로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민속, 전통예술 등과 연계한 지역축제와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우리 고장의 정체성을 홍보하고,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6년에 아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와 같이 전국체전을 찾은 선수단 및 스포츠 관광객들의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 등과 연계 할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국체육대회 기간 동안 경기 관람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관람객 이외에도 지역의 관광객을 모객하여 전국체육대회의 특별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례는 2011년 개최된 전국체전에서 고양국제특산물페스티벌, 고양글로벌문화 대축제 등으로 문화와 스포츠가 결합된 전국체전을 개최하였다. 또한 행주문화제, 고양호수예술축제, 고양국제야외조각축제, 대한민국막걸리축제, 선인장페스티벌, 농축산물한마당 등의 지역 축제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아산에서 개최되는 문화유산 관련 축제는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외암마을짚풀문화제, 온양온천문화예술제 등이 개최되고 있으며, 10월에 축제가 집중 개최되고 있다. 그러므로 전국체육대회의 경우 10월 중 일주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시기적 특성과 아산시에서 개최되는 축제 개최시기와의 연계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아산시 축제들과의 개최시기를 연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산지역내에서 문화유적·민속·전통예술 등의 관련 축제를 개최하고 축제 패키지 투어로 외암마을짚풀문화제, 온양온천문화예술제 개최지에 전국체육기간 중 선수단 및 가족들이 축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경기장과 축제장을 연결하는 패키지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더불어 축제장내 기존 프로그램과 더불어 아트마켓 등을 통해 기념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향토음식관, 농축산물판매장 같은 부스 운영을 통해 직거래를 통한 방문객의 쇼핑관광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행사장간은 셔틀버스 및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하여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아산시특화 문화예술행사로 광대놀이극 ‘술산광덕이야기’와 전통현대무용 및 연주, 전통악기 연주, 아산시 전통공연 등 프로그램으로 지역축제와 부대행사를 강화시킨다.

3) 기존 축제주관방식 개선과 협력 네트워크체계 구축

(1) 메가이벤트와 전국규모의 축제는 공공주도형(조직위원회)으로 개최

충남에서 문화유산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축제의 주관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충남에서 문화유적·민속·전통예술과 관련하여 개최되고 있는 기존 축제나 앞으로 신규로 발굴하여 개최될 축제중에서 메가이벤트와 전국 규모의 축제는 공공주도형이거나 지역단체 및 민간과 공동으로 주관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충남에서도 문화유산과 관련된 메가이벤트와 전국 규모의 축제에서 공공주도형 또는 별도 조직위원회와 민간과의 공동으로 개최해야 할 축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5] 공공주도형 전환 축제

구 분		축 제 명	공공주도(별도조직)형 개최 방안
기존 축제	문화유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제문화제 •한산모시문화제 •성웅이순신축제 •홍성역사인물축제 •추사추모전국회호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정부 지원 •충청남도 및 각 시·군·행·재정적 지원 •별도 재단 또는 조직위원회 구성 운영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등
	민 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지시줄다리기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짚풀문화제 •예산옛이야기축제 	
	전통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견예술제 •온양온천문화예술제 	
신규 축제	문화유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 유교문화 ‘한·중 유교문화축전’ 개최 	
	민 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포 세계인류무형문화대전(세계아름드리 문화대전) 	
	전통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칠지도와 양직공도 	

(2) 지역단위 문화유적·민속·전통예술 관련 축제는 단체와 주민주도형으로 개최

충남의 문화유산과 관련된 축제 중에서 축제육성위원회와 마을단체, 민속 및 전통예술단체 등이 대부분 주도하여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외형적으로는 주민주도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에서의 재정적 지원과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문화유적·민속·전통예술 축제나 이벤트는 점차적으로 주민주도형의 축제로 개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충남에서도 문화유산과 관련된 축제에서 점차적으로 공공지원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되어야 할 축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6] 민간주도형 전환 축제

구 분		축 제 명	민간주도(단체)형 개최 방안
기존 축제	문화유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길포우럭독살체험축제 •예산삼베길쌈축제 •칠갑산장승문화축제 •남이홍장군문화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과 각 시·군 행정적 지원 •별도 각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등 •민간 및 상인회, 번영회, 마을회 등 주관 및 운영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 연계 공연 실시
	민 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룡산산신제 •정월대보름민속축제 •해동이 해맞이축제 •금강여울축제 	
	전통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동진판소리명창명고대회 •천안판페스티벌 	
신규 축제	문화유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교문화 이벤트 행사 	
	민 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시풍속, 생산풍속 등 민속놀이 	
	전통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음악회, 서예전시회 등 	

(3) 충남문화재단과 지역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주도와 지원형 축제 양성

충청남도는 지역문화예술진흥과 도민의 다양한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충남문화재단 등 4개의 문화재단과 각 시군 문화원 등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아산문화재단과 부여문화원, 금산문화원 등은 지역의 문화유산축제를 주관하면서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충남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유산축제들은 이제 충남문화재단과 시군문화재단 및 문화원들이 주도하면서 지원하는 축제로 개최되어야 하는데 이들 축제의 대상을 다음과 같다.

[표 67] 지역문화예술기관 주도 축제

구 분		축 제 명	문화재단, 문화원 등 개최 방안
기존축제	문화유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웅이순신축제(아산문화재단) • 서동연꽃축제(부여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 충남문화재단 지원 및 운영 • 각 시·군 문화재단 지원 및 운영 • 각 시군 문화원 지원 및 운영 • 각 시군 예총지회
	민 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 짚풀문화제(아산문화재단) • 금강여울축제(금산문화원) • 성홍산해맞이축제(부여문화원) 	
	전통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양온천문화예술제(예총아산지회) • 천안판페스티벌(천안예총) 	
신규축제	문화유적		
	민 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부상축제 	
	전통예술		

(4) 자율·자립형 축제주관과 운영을 위한 인력양성과 노하우의 축적

충남의 문화유적·민속·전통예술과 관련된 지역축제들이 충남문화재단과 각 시군의 문화재단 및 문화원, 문화예술단체 주도의 자율·자립형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축제를 기획에서부터 관리와 운영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험에 의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기존의 보령시와 금산군의 사례와 같이 문화유산축제 아카데미를 통해 축제관계자는 물론 자원봉사, 축제해설사 등에 대한 인력양성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



보령시 축제아카데미 교육



금산군 축제대학 교육

[그림 24] 축제교육 사례

또한 타 지역인 의정부시에서는 공연예술축제아카데미를 실시하여 축제의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안 마련, 국제화 전략, 해외공연 초청 프로세스 등 실무적인 교육을 실시한 사례가 있어 이를 벤치마킹하여 충남에서도 적용이 필요하다.

4) 현대적 콘텐츠 융·복합을 통한 축제 부대행사의 활성화

(1) 문화유산 원형에 현대 콘텐츠 융복합을 통한 대중참여형 축제도 병행 개최
충남의 문화유산의 문화유적·민속·전통예술 관련 축제를 개최하면서 방문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대사회의 트렌드와 현대인들의 방문수요에 맞는 콘텐츠의 융·복합을 통한 대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지정되어 이와 관련된 세계대백제전과 백제문화제 뿐만 아니라 교황방문과 더불어 더욱 지명도가 높아진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를 비롯한 문화유적 관련 축제가 그 대상이기도 하다. 더구나 기지시줄다리기와 예산옛이야기 축제 등 민속축제, 온양온천문화예술제 등 전통예술축제 등의 기존 축제들도 주제뿐만 아니라 부대행사인 공연과 전시, 체험프로그램 등에 있어서 현대적 콘텐츠를 융복합하여 부대행사와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25〕 해인사 팔만대장경 축제 사례

(2) 문화유적·민속·전통예술 소재의 정체성 있는 소규모 부대행사의 활성화

문화유산의 문화유적·민속·전통예술 축제의 정체성을 살리고 행사프로그램에 재미와 흥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각 유산이 가지고 있는 원형콘텐츠에 정체성이 있는 킬러콘텐츠의 대표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활용하면서, 관련 소재들과 연계한 소규모의 부대행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충남의 문화유적·민속·전통예술의 소재에서 상징성과 정체성을 통해 문화콘텐츠의 원형과 스토리텔링을 축제속의 부대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발굴·육성해야 한다.



(그림 26) 생생문화재 사업 문화콘텐츠 활용사례(북한산성과 원주 회춘단오축제)

(3) 교육 및 체험형의 행사프로그램과 문화유산 축제해설사 운영

문화유산의 문화유적·민속·전통예술과 관련된 축제는 교육 및 체험형의 행사프로그램이 많을 수록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 따라서 충남의 문화유산 관련 축제장의 부대행사에서는 교육과 체험형의 전시나 유적지 방문프로그램은 기존의 문화관광해설사 또는 지역에서 축제아카데미 등을 통해 양성되는 축제해설사 등과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도슨트와 해설사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문화유산의 특성상 현지의 어르신이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재연배우의 형태와 년버벌퍼포먼스 형태의 축제가이드 형태의 안내프로그램도 실시하여 재미있는 축제로 발전시키도록 한다.



(그림 27) 백제문화제 한중일 문화교류전 도슨트 해설 사례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종합정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통문화유산은 우리가 거주하는 삶의 공간뿐만 아니라 관광의 목적지로서 발굴되어 보존 되었으나 현재까지의 문화재보호정책은 경제적 효용과 지역자원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효과 적으로 창출하는 데는 인식이 부족하였으며, 문화자원의 활용방법과 실천 등의 경험부족 등은 보존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상충되고 있어 이러한 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의 자원으로서 재인식함으로써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활성화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함께 문화융 성을 국정기조로 하여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문화 유산 보존·활용 및 한국문화 진흥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정책적 논의는 2002년 수립된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 계획(2002-2011)'에서 시작되었고, 이를 발전시켜 2007년 수립된 '문화재 정책 중장기 비전 문 화유산 2011'에서 더욱 구체화되었으며, 충청남도에서도 문화유산 활용사업과 연계한 보존 및 관리와 활용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문화유산을 전통축제로서 활성화 할수 있는 시책의 구체화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이 있으면서 보존의 가치와 활용성이 높은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전통축제

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에 문화유산에서 전통축제와 연계가 가능한 문화유적, 민속, 전통예술 자원을 자료하여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 자료로 활용토록 제시하며 둘째, 충남 문화유산 명칭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활용성이 높은 축제소재를 제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기존 축제로의 활용실태를 분석하여 활성화의 과제를 도출하고 셋째, 도출된 과제를 바탕으로 충남 문화유산의 전통축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 육성 방안을 제시하여 정책자료로 활용코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이론연구 및 문헌고찰, 정책 및 추진사업 분석, 연구회 운영 및 자문 등의 방법 등으로 이루어졌다.

선행연구는 대부분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체험마케팅, 궁궐과 종묘 등 문화유산의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산업 활성화 방안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문화유산을 유형화한 활용으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전통축제와 관련한 요소를 선정하여 이와 이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분석틀을 설정하고, 이들의 상호 관련 요소에 대하여 키워드와 활용실태분석을 통해 정책과제 도출과 정책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2) 문화유산 관련 이론고찰과 활용정책의 검토

① 문화유산의 개념 정의

문화유산(文化遺産, Cultural Heritage)이라 함은 각국이 보존하고 있는 문화자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귀중한 유물이나 정신적·물질적 문화양식을 말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성, 민족성, 지역성 등에 기반을 둔 독창적이고 유일무이한 문화요소가 함축되어 있으므로 각국에서는 이를 보존·유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김경화, 2014).

문화유산에 대한 개념은 각국의 역사 및 문화적 전통과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므로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시기별로도 차이가 다를 수 있음. 일반적으로 문화유산은 유형문화유산(有形文化遺産)과 무형문화유산(無形文化遺産)으로 구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와 문화유산의 관계를 보면 문화재가 갖는 가치는 일정한

규정과 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는 객관적 실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개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가치를 모두 수용한 것은 아니다. 문화유산의 문화적 가치는 시간의 추이에 따라 혹은 개인과 단체의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 될 수 있으며, 제도와 법은 이와 같은 가치를 한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므로 '문화유산'의 범주는 '문화재'보다 훨씬 넓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문화유산의 영역은 일정한 규정과 제도에 의해 심의와 절차를 거친 객관적 실체의 문화재를 포함하여 개인의 주관적 가치기준에 의해 자료 가치가 인정되는 문화자산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문화관광이란 지역의 자연적 또는 문화적 경관지역의 볼거리 대상, 사람, 이벤트, 그리고 역사적 이야기에 대해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 방문객의 거주지로부터 목적지인 관광지로 방문하는 것을 뜻한다. 문화유산관광(Cultural heritage tourism)은 역사적 유산을 지니고 있는 인류의 문화유산을 답사하는 관광이다.(장경수, 2001; 한미영 2010). 문화관광은 역사문화기행, 영화, 축제, 이벤트, 미술관 관광 등 다양한 문화를 소재로 한 관광을 문화관광이라 한다(왕퇴, 2013). 문화유산관광은 문화적 가치를 활용하여 관광상품화 한 것으로서 문화유산 보존에 이바지하고 해당 지역에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가져다주며 방문객들에게는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 및 매력을 경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지선·이훈, 2009).

문화유산관광은 역사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유적 또는 유물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으로 일반 관광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황병춘, 2008). 문화유산관광지와 일반관광지가 다르게 갖고 있는 매력 중 하나는 시간적으로 과거라는 역사성과 공간적으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장소성, 내용적으로 유산과 관련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한국관광공사,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2008) 자원의 활용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② 지역축제와 문화유산의 관계

축제는 우리의 전통문화제의 일종으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가꾸어야 할 소산이고 그러한 점에서 축제의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축제의 테마는 주로 역사적 문화적 특성과 가치가 있는 부분과의 관련성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고원규, 1992)이라 말하고 있다. 결국 축제는 전통과 맥을 같이 함으로써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며 선대의 관습, 사고, 기술 등의 계승과 인수이고 현재성 속에 재발견 또는 창조되어 간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갖는 것이다. 또한 환경을 같이하는 속에서 형성, 성장된 생활의 결과이고 그들이 속해있는 자연적

환경과 역사적, 사회적 환경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가운데 신앙과 지혜로 엮어낸 생활풍속을 의미한다고 할 때 축제란 전통성과 문화성에 바탕을 둔 것(조남진, 1997)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축제를 관광상품화하자는 것은 단순히 축제를 관광상품으로 판매하여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뜻이 아니라, 우선은 내국인에게 알리고 보이며, 설명하여 우리의 전통민속과 문화의 참모습과 가치를 재인식하게 하고, 다음은 외국이나 외국인들에게 오랜 역사와 전통문화를 보다 널리 알리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각 지방 축제의 고유한 전통과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길이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다 같이 관심과 협력을 하는 것이다. 축제의 관광상품화 실시는 축제를 실시하는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간 문화적 시각차이를 극복하게 함은 물론, 국민관광과 문화교육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나아가서는 국가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문화선진국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전통축제가 관광자원으로 자리를 잡고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유인과 촉매요소, 관광이미지 요소, 지역이익창출요소 등과 연계한 상호 관련 요소들의 관계가 적용되어야 한다.

③ 문화유산 관련 정책의 검토

문화유산 활용이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활용(application)의 사전적 의미는 ‘본래 그것이 지닌 능력이나 기능을 잘 살려 사용하는 행위’라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문화유산 정책은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체계적인 관리’, ‘문화재의 효율적인 활용’등 크게 2가지로 요약되며, 이를 위해 문화유산이 대중에게 친숙하고 생명력이 살아 있는 핵심적인 역사·문화·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반면, 문화유산의 원형보존과 체계적인 관리에 무게를 둔 종래의 정책기조로 인해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활용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오늘날 문화유산이 대부분 박물관의 유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며, 그 배경에는 그 동안의 문화유산정책이 모든 문화유산을 보존 제일주의라는 하나의 잣대로 바라보는 획일적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왔기 때문으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유산 활용은 ‘문화재 보존의 적극적인 개념’으로 문화재 활용이 보존을 전제한다는 의미로서 보존을 전제로 하되 보존에 머물지 않고 그 가치와 기능 또는 능력을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3) 충남 문화유산자원의 현황 및 키워드와 지역축제 활용실태 분석

① 충남 문화유산 키워드 분석

충남문화유산에 대한 축제 소재는 문화유적, 전통예술, 민속 등 3개 부문으로 분류해서 현황 및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충남의 문화유적에 대한 전체 자원에 대한 유적명칭의 키워드 검색 결과 상위 10위는 1위 무령왕릉/송산리고분군, 2위 해미읍성이 171,358건, 3위 현충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외암리민속마을(4위), 이충무공난중일기(5위), 부소산성(6위), 공산성(7위), 정림사지5층석탑(8위), 성주사지(9위), 정림사지(10위) 등으로 검색되었다. 문화유적에 대한 시기별 키워드를 검색에서는 일정시기에 집중되고 있는데, 주로 대부분의 검색이 4월, 5월과 10월에 집중되고 있어 콘텐츠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계절별로도 연중 또는 분산시켜 축제를 다각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충청남도의 민속자원 중 키워드 검색의 빈도수가 가장 높았던 자원은 의식주생활 중 한산소곡주, 생산풍속 중 어업생산풍속인 통발과 머구리, 백중날, 달맞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위자원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대표축제 및 체험행사 프로그램을 육성해야 한다.

충청남도의 전통예술의 검색빈도별 키워드를 살펴보면 안건의 몽유도원도가 가장 높고, 칠지도, 백제금동대향로, 부여 정림사지 5층석탑 등의 순이다. 상위를 차지한 전통예술 자원들은 유형의 자원들이 많으며, 전통음악부문의 판소리 박동진이 무형자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상위 10개에 포함되었다. 전통예술자원 중 백제와 관련된 자원은 백제문화제와 관련된 부대행사 또는 별도의 개별축제로서의 발굴 및 육성하며, 나아가 박동진판소리 명창·명고대회와 같은 전통음악과 서예, 전통회화 및 전통공예에 대한 축제와 부대행사프로그램의 활용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자원을 살펴보면 공주의 송산리고분군, 공산성,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익산의 미륵사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자원은 기존의 백제문화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세계유산으로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메가이벤트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② 문화유산 관련 지역축제 활용 실태분석

충남의 관광축제지수는 강원도와 전남의 4.5점에 이어 충남은 2.7점으로 3위를 차지하면서

도평균인 2.4점과 전국평균인 1.7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의 관광축제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축제가 개최되는 서울과 전남, 강원, 경기도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에서 개최되는 문화유산과 관련한 축제에서는 백제문화제와 성웅이순신축제,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상록문화제 등이 전국적 지명도를 갖고 있으며, 이들 축제를 국제수준의 축제로 선별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충남의 축제 중 총 6건의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됨에 따라 이들 축제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선택과 집중에 의하여 세계적 축제로 육성할 수 있는 단계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충남에서 개최된 대규모 메가이벤트로 개최된 세계대백제전은 백제문화를 콘텐츠로 한 현대적 야간공연과 역사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게 분석되었고 백제를 대상으로 한 문화유적이나 민속, 전통예술 자원을 소재로 한 공연이나 전시, 체험형의 부대프로그램은 백제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③ 전통축제 개선 및 육성 방안

충남의 문화유산 중 문화유적, 민속, 전통예술 등에서 백제문화제와 서동연꽃축제,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기지시줄다리기, 한산모시문화제 등은 2010세계대백제전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어 국제 및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개최되었다. 이러한 축제들은 충남의 대표축제와 기존축제의 업그레이드, 신규 발굴축제 등은 충남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적, 민속, 전통예술 등의 개별자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콘텐츠를 활용하여 주제와 부대행사, 체험프로그램, 축제의 기념품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활용성을 다각화해야 할 것이다.

충남에서 개최되는 축제들은 문화유적, 민속, 전통예술 등의 자원과 연계하여 유사축제로 개최되거나 문화관광축제의 부대행사나 프로그램으로 개최되기도 한다. 이들 유사축제의 통합과 지역내 축제의 연계를 통해 지역정체성을 부여하여 부대행사로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축제 개최시 다양한 부문의 추진주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공공 주도형 축제로 진행되고 있으나 주관 방식 및 협조체계의 개선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정책제언

(1) 기본방향

충남의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전통축제를 육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 충남 문화유산의 메가이벤트 육성과 축제프로그램을 다각화하고, 유형·지역별 유사축제의 통합과 타 축제와의 연계성을 강화와 기존 축제주관방식 개선과 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며, 현대적 콘텐츠 융복합을 통한 축제 부대행사의 활성화 등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2) 문화유산의 전통축제 육성 전략

① 충남 문화유산의 메가이벤트 육성과 축제프로그램 다각화

충남의 문화유산과 관련한 키워드검색에서 백제문화와 관련된 자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유적지구를 중심으로 무령왕릉과 송산리고분, 부소산성, 공산성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0년 개최된 세계대백제전을 이후 백제문화제는 우리 문화를 알리는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 하였으며, 이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백제문화‘세계유산 대백제전’의 정기개최가 필요하다.

충청유교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유적·민속·전통예술 등 전통문화에 바탕을 둔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한·중 유교문화축전’을 개최하여 중국과의 문화교류와 중국관광객 유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백제와 관련된 문화유산과 전통예술, 성웅 이순신과 추사 김정희 등의 인물과 관련된 유산에 대한 개별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활용가치에 맞도록 연계 축제와 부대행사프로그램도 다각화하여 기존 축제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신규 소축제도 발굴하여 개최토록 한다.

② 유형 및 지역별 유사축제의 통합과 타 행사와의 연계성 강화

충남에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문화유산(2010년)인 중요무형문화재 대목장을 비롯한 소목장, 단청장, 불화장, 목소장, 침선장, 각자장, 지승공예, 땃대장이장 보유자 등이 다수 있다. 이에 내포 세계인류무형문화대전(세계아름드리 문화대전) 개최를 통해 충남의 목공예와 건축, 전통공예 등 국제 무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축제를 발굴 육성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

부의 공연예술에 대한 지원사업이 운영 중에 있음에 따라 충남의 전통예술자원을 연차별로 선별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충남에서 전국체전 등 전국단위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지역의 문화유적, 민속, 전통예술 등과 연계한 지역축제와 부대행사를 그 행사와 지역의 여건에 맞도록 개최하여 방문객들에게 우리 고장의 정체성을 홍보하고,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 기존 축제 주관방식 개선과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메가이벤트 개최는 대규모의 방문객이 방문하여, 행사규모가 크게 개최되는데 반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의 대규모 국제행사는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관리지침에 의하여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충남에서도 문화유산과 관련된 메가이벤트로서 국제적 축제나 충남과 시·군을 대표하는 축제는 공공에서 주도하도록 한다.

충남의 문화유산과 관련된 축제 중에서 충남과 시·군을 대표하는 축제는 대부분이 공공주도형으로 개최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의 축제들은 축제육성위원회와 마을단체, 민속 및 전통예술단체 등이 주도하여 개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주도형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단위 문화유적·민속·전통예술 관련 축제는 단체와 주민주도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축제들은 지역주민들과 전통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유산축제들은 이제 충남문화재단과 시군문화재단 및 문화원들이 주도하면서 지원하는 축제로 개최되어야 한다. 축제는 지역주민과 단체, 지역문화재단 등이 축제를 주관하거나 지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는 축제를 기획에서부터 관리와 운영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험에 의한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문화유산축제 아카데미를 통해 축제관계자는 물론 자원봉사, 축제해설사 등에 대한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④ 현대적 콘텐츠 융복합을 통한 축제 부대행사의 활성화

충남의 문화유산의 문화유적·민속·전통예술 관련 축제는 그 동안에 메가이벤트부터 지역의 소규모 전통축제나 이벤트, 전통예술경연대회 등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다양하게 개최되어 왔으나 이들을 현대적인 방문수요에 맞는 콘텐츠의 융·복합을 통한 대중화는 미흡하였다. 지역 축제의 대중화를 위하여 주제뿐만 아니라 부대행사인 공연과 전시, 체험프로그램 등에 있어서

현대적 콘텐츠를 융복합하여 대중 방문객들의 눈높이와 수요에 맞는 축제로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규모의 축제뿐만 아니라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유적·민속·전통예술의 각 유산이 가지고 있는 원형콘텐츠에 정체성이 있는 킬러콘텐츠의 대표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활용하면서, 관련 소재들과 연계한 소규모의 부대행사를 활성화 시킨다.

문화유산에 대한 축제라는 특성상 교육 및 체험형의 프로그램 비중이 높음에 따라 축제의 교육적 가치를 높이고 흥미를 이끌 수 있는 기존의 문화관광해설사 또는 지역에서 축제아카데미 등을 통해 양성되는 축제해설사 등을 통해 문화유산축제의 방문율을 높여야 하겠다.

2. 향후 연구과제

충청남도 충남 문화유산과 연계한 전통축제 육성방안을 수행함에 있어서 충남 축제에 대한 키워드 분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또한 충남의 문화유산과 관련한 축제를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표본에 대한 심층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다양한 계층의 축제 수요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향후 깊이 있는 추가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고원규(1992), “전통축제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연구”, 관광, 레저연구 제4호, 한국관광레저학회.
- 김경화(2014), “기후온난화에 대비한 한국문화유산을 활용한 쿨 비즈니스웨어 개발”,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봉규(1997), 한국관광학원론, 학서당.
- 김정옥(1997), 관광자원관리론, 대왕사.
- 김홍운(1986), “한국의 지방민속문화행사를 관광상품화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논문집.
- 문화재청(2006), 문화재 활용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연구.
- 문화재청(2007), 「문화재 정책 중장기 비전 ; 문화유산 2011」
- 박소라(2013), “문화유산을 활용한 테마파크형박물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2010), 2010세계대백제전 평가 및 개최효과 분석
- 왕뢰(2013), “문화유산관광지 관광방문동기 및 만족도 차이연구”, 수원대학교 호텔관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득(1991), 현대여가론, 백산출판사.
- 이정아(2014), “문화유산관광지 체험마케팅이 방문객 만족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우송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근(2013), “궁궐·종묘 문화유산의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동권(1984), 한국민속문화론, 집문당.
- 임재해(1993), 한국 민속과 전통의 세계, 지식산업사.
- 장주근(1982), “향토축제의 현대적 의의”, 향토축제의 새로운 검증,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정원기(2011),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남진(1997), "민속축제의 관광상품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혜경(1994),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여행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표성수(1996), 관광사업투자론, 백산출판사.

KAIST문화기술대학원(2009),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문화재청

Donald Gets(1991), *FESTIVALS, SPECIAL EVENTS AND TOURISM*, Van Nodstrand Reinhold, N.Y.

□ 부록1. 사전자문의견

구분	착수연심회 의견	반영 및 조치계획
유기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관련 이론 및 정책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의 이론적 검토가 필요 - 문화유산의 활용이라는 화두가 대두되는 역사적, 정책적, 사회적 요구와 관심에 대한 접근 ○ 충남문화유산의 지역축제 활용실태 분석 및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의 활용이라는 것은 문화유산의 적극적 보존의 한 방안이라는 인식하에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국내외 사례분석이 필요 - 이를 통하여 문화유산 활용의 가치와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보존과 활용에서 문화유산의 진정성 문제를 어떻게 접근 하여야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 ○ 충남 문화유산의 전통축제 육성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관광환경분석이 필요 -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축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제시에 주요 포인트를 제시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활용에 대한 이론검토 강화 반영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론적 연구 보완 - 관련제도와 정책 보완 ○ 국내사례 검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내용에 추가 - 다른 지역 사례 성패분석 ○ 전통축제 육성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활용여건 연구 추가 - 관광·축제 환경분석 연구추가
정선기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무형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여 축제와 연계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시도는 시의성이 큰 연구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지만, 지역별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효과적인 축제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방식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함 - 따라서, 문화유산과 축제의 의미를 재해석하여, 단순히 전통의 보존관리가 아닌 열린 시각에서서 문화자원 개념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주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축제의 내용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축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인하여, 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축제를 구성해야함 ○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와 관련법은 문화유산의 관라보존이라는 관점에서 관련법과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충남도 전체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절적인 접근법이 아니라 충남 지역을 하나의 큰 틀로 묶고 통합적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음 -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테마형 관광과 자가용을 이용한 동선이 가능하도록 문화자원 축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과 연계한 축제의 가능과 의미를 이론연구에 보완예정 ○ 문화유산의 전통축제 육성방안에 주민참여형 축제의 추진방식을 제안할 것임 ○ 문화유산 관련 법과 제도, 정책과 세부검토 추진(연구목차에 반영) ○ 문화유산을 점이 아닌 유행화와 네트워크로 면적인 개념의 전통 축제 육성방안을 제안할 예정임

□ 최종연심회 자문의견

구분	최종연심회 의견	반영 및 조치계획
정내수 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현황 및 키워드 분석 내용의 양이 많아 전통 축제 육성방안과 균형 면에서 아쉬움이 있음 ○ 축제 주관방식의 주민주도 개선 방안 및 참여를 유도하는 축제 유형 발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 현황부문 부록 처리 ○ 축제 유형별 주관방식 부문 추가
정선기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주도형 축제로 활성화 할수 있는 정책적 제언 추가 ○ 향후 연구추진방향 설정시 고려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드웨어자원과 소프트웨어자원의 연계한 축제 활성화 - 주민주도로 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자원조사에 대한 연구제안 필요(마을만들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유형별 주관방식 부문 주민주도형 축제 유형 제시 ○ 축제아카데미 등을 통한 주민 참여 방안 제시
연구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워드 분석의 의미와 활용방법에 대한 구체적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워드 분석의 빈도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 ○ 주민 참여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제시 ○ 중앙정부의 정책 및 성공사례에 대한 분석 필요 ○ 소비자 패턴에 대한 연구를 통한 마케팅 부문 활용 ○ 정책제안 및 향후 과제의 추진 및 방향성에 대한 구체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워드 분석에 앞서 의미와 활용방법 제시 ○ 축제유형별 주관방식 부문 주민주도형 축제 유형 제시
송두범 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현황과 키워드에서 제시된 내용은 부록 처리 필요 ○ 문화유산과 전통축제 육성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육성방안 제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 현황부문 부록 처리 ○ 유산별 축제 활용방안 제시

□ 부록2. 충남 문화유산자원의 키워드 분석 자원현황

1. 충남 문화유적 현황

(1) 문화유적의 개요

충청남도지 문화유적(2010)편에서는 선사유적과 분묘유적, 관방유적, 요지유적, 불교유적, 유교유적, 고건축, 고서와 고문서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대표적 유적으로는 공주 석장리 유적과 부여 송국리 유적, 서산 부장리분구묘, 공주 수촌리유적, 서천봉선리유적, 공주 송산리 왕릉군, 부여구드래나루, 부여 정암리가마터, 논산 노성산성, 금산 백령산성, 예산 임존성, 계룡시 신도내 주초석, 서천읍성, 공주 감사대웅전, 연기 비암사 극락보전, 당진 영랑사 대웅전, 논산 쌍계산 대웅전, 공주 공산성내 쌍수정, 서천 이하복 가옥, 계룡시 은농재, 이순신장군 유품 등이 있다. 유적별 기술 내용과 유적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선사유적

충남의 선사유적은 구석기시대에서부터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주요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다.

● 구석기시대

유적명	지역	소재지	내 용
공주석장리유적	공주	공주시 석장리동	·사적 제334호

● 신석기시대

유적명	지역	소재지	내 용
당진 대난지도 패총	당진		
당진교로리패총	당진		
당진 초락도 패총	당진		
서산대죽리패총	서산		
서산웅도	서산		
아산성내리주거지	아산		·원시농경을 행하였던 산상의 취락
아산명암리	아산		공주 석장리유적박물관 내부
아산매곡리	아산		
천안백석동	천안		
천안봉룡동	천안		
아산풍기동 주거지	아산		

서산 휴양리	서산		
서산 기지리 주거지	서산		
공주 장원리	공주		
홍성 상정리 주거지	홍성		
태안 고남리 패총	태안		
보령 관산리	보령		
보령 송도패총	보령		
보령 관창리 주거지	보령		
공주석장리유적	공주		
보령 원산도 패총	보령		
보령 호도	보령		
부여 나복리	부여		
서천 장암패총	서천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산 41번지	·해산물 채집의 기지
서천 삼산리	서천		

● 청동기시대

유적명	지역	소재지	내 용
천안 윤전리 유적	천안		·청동기 전기 최대 규모취락
천안 용원리 유적	천안		
천안 청당동 유적	천안		
천안 두남리 유적	천안		
천안 신방동 유적	천안		
천안 업성동유적	천안		
천안 백석동 유적	천안		
천안 백석동 고재미골유적	천안		
천안 백석동 새가라골유적	천안		
천안두정동유적	천안		
천안 불당동유적	천안		
천안 쌍용동 유적	천안		
천안 봉룡동 유적	천안		
천안 용곡동 눈돌유적	천안		
천안 용곡동 두터골유적	천안		
천안 용정리유적	천안		
아산명암리유적(11지점)	아산		
아산명암리유적(9지점)	아산		
아산명암리유적(3,5,6지점)	아산		
아산 탕정 밖지므레유적	아산		




천안 백석동 유적 전시 유물

아산 탕정 밖지므레유적

아산갈산리유적	아산	
아산백암리유적	아산	
아산 용화동유적 (추가조사지점)	아산	
아산용화동유적(3지점)	아산	
아산용화동유적(1지점)	아산	
아산 풍기동 유적	아산	
아산 풍기동 밤줄길유적	아산	
아산 풍기동 운동장부지내유적	아산	
아산 신벌리유적	아산	
아산 신남리유적	아산	
아산 와우리 유적	아산	
아산 신달리유적	아산	
아산 대흥리유적	아산	
아산 군덕리유적	아산	
당진 원당리유적	당진	
아산 읍내리유적	아산	
당진 자개리유적(2)	당진	
당진 자개리유적(1)	당진	
예산 삼교두리유적	예산	
예산 신가리유적	예산	
홍성 송학리 유적	홍성	
홍성 학계리유적	홍성	
홍성 남장리유적	홍성	
서산 갈산리유적	서산	
서산 부장리유적	서산	
서산 기지리유적	서산	<p>부여 송국리 청동기 유적</p> <p>·청동기시대 최대 분묘군</p> <p>·청동기 시대 논</p> <p>·청동기 후기 사회의 최대규모 의례 공간</p>
서산 신송리유적	서산	
태안 고남리유적	태안	
홍성 장척리유적	홍성	
보령 주교리유적	보령	
보령 관산리유적	보령	
보령 평라리 유적	보령	
부여 가중리 유적	부여	
부여 노화리 유적	부여	
부여 송국리유적	부여	
청양 학암리유적	청양	<p>충남지역 최초 청동기시대 토기 가마</p>
공주 제천리유적	공주	
공주 귀산리유적	공주	
계룡 입암리유적	계룡	
금산 수당리유적	금산	
서천 옥북리 유적	서천	

- 초기철기

유적명	지역	소재지	내 용
당진 도성리	당진		
당진 소소리	당진		
예산 동서리	예산		
아산 남성리	아산		
아산 탕정 일대	아산		·마한지역 최대 분묘군
예산 덕산	예산		
홍성 신경이	홍성		
예산 목리	예산		
공주 수촌리	공주		
공주 봉안리	공주		
보령 교성리	보령		·점토대토기인의 고지성 취락
보령 관창리 주거지	보령		
논산 원북리	논산		
금산 수당리	금산		
부여 연하리	부여		
부여 함송리	부여		
서천 도삼리	서천		
서천 봉선리	서천		
청양분향리	청양		
보령 진죽리	보령		
아산갈매리유적	아산		
아산 음봉면 송촌리 환호취락, 부여 논치 리 유적	아산		·생산과 교역의 장
			·전운이 감도는 마한사회의 모습, 고지성 환호 취락

공주 수촌리 유적(고분군)

② 분묘유적

분묘유적은 흙무덤, 돌무덤, 옹관무덤, 기타 무덤들과 원삼국 백제분묘에서부터 통일신라시대 분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대한제국기 이후의 분묘 등이 있다.

- 원삼국 백제 분묘

유적명	지역	소재지	지정	내 용
능산리고분군	부여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사적 제14호	
교촌리고분군	공주	공주시교동		
교촌리고분군	공주	공주시교동		
우금리고분군	공주	공주시 옥룡동		
송산리고분군	공주	공주시 금성동	사적 제13호	

능산리 동고분군	부여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신흥리고분	논산	논산시 양촌면 신흥리
금학동고분	공주	공주시 금학동
시목동 고분	공주	공주시 신관동
신기동고분	공주	공주시 신기동
소학리고분	공주	공주시 계룡면 소학리
명지부락고분	서산	서산시 대산읍 명지리
표정리고분	논산	논산시 연산면 표정리
무령왕릉(송산리고분군 제7호분)	공주	공주시 송산리
남산리고분	공주	공주시 탄천면 남산리
표사리고분군	부여	부여군 초촌면 표사리
중정리고분군	부여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둔덕리유적	서천	서천군 서천읍 둔덕리
육곡리고분	논산	논산시 가야곡면 육곡리
득윤리고분	논산	논산시 광석면 득윤리
중장리고분	공주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상금리고분군	부여	부여군 부여읍 상금리
쌍북리고분군	부여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송국리고분군	부여	부여군 초촌면 송국리
신리고분	부여	부여군 규암면 시리
창암리고분군	보령	보령시 주산면 창암리
신송리고분	서천	서천군 신송리
장현리고분	보령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두곡리고분군	부여	부여군 임천면 두곡리
표정리고분군	논산	논산시 연산면 표정리
정암리고분	부여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표정리고분군	논산	논산시 연산면 표정리
태양리고분	부여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보령리 고분군	보령	보령시 주표면 보령리
표정리(하표정)	논산	논산시 연산면 표정리
육곡리고분군	논산	논산시 가야곡면 육곡리
남산리고분군	공주	공주시 탄천면 남산리
송학리고분군	공주	공주시 탄천면 송학리
칠지리 고분군	서천	서천군 비인면 칠지리
성호리 고분군	홍성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
금학동 고분군	공주	공주시 금학동
보통굴 고분군	공주	공주시 소학동
오곡리 고분군	공주	공주시 이인면 오곡리
지선리 고분군	부여	부여군 외산면 지선리
화성리 고분군	천안	천안시 성남면 화성리
저석리 고분군	부여	부여군 부여읍 저석리
신기동 고분군	공주	공주시 신기동
모촌리 고분군	논산	논산시 양촌면 모촌리
하봉리 유적군	공주	공주시 장기면 하봉리
모천리 고분군	논산	논산시 양촌면 모천리



부여 능산리 고분군



공주 송산리 고분군



논산 표정리 고분군 출토토기



봉선리 고분	서천	서천군 시초면 봉선리	서천 봉선리 유적고분	
명천동 고분군	보령	보령시 명천동		
하봉리 유적군	공주	공주시 장기면 하봉리		
청당동 유적	천안	천안시 청당동		
성흥산성 고분군	부여	부여군 임천면 구교리		
오석리 유적	서천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관창리 고분군	보령	보령시 관창리		
웅진동 고분군	공주	공주시 웅진동 산 610		
당정리 유적	서천	서천군 당정리		
정지산 유적	공주	공주시 금성동		
취리산 토광묘	공주	공주시 신관동	공주 정지산 유적	
능산리 공설운동장 예 정부지내 유적	부여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분강, 저석리고분군	공주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 부여군 부여읍 저석리		
옹원리유적(공주대)	천안	천안시 성남면 옹원리		
옹원리유적(서울대)	천안	천안시 성남면 옹원리		
여미리고분	서산	서산시 운산면 여미리		
남산리	공주	공주시 탄천면 남산리		
산의리유적	공주	공주시 이인면 산의리		
내촌리	공주	공주시 정안면 내촌리		
두정동유적	천안	천안시 두정동		
합정리유적	부여	부여군 은산면 합정리	청양 장승리 고분군	
안영리고분군	공주	공주시 이인면 안영리		
금학동 고분군	공주	공주시 금학동		
염창리유적	부여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산의리유적	공주	공주시 이인면 산의리		
구룡이고분군	보령	보령시 구룡리		
화산리고분군	서천	서천군 중천면 화산리		
운전리유적	천안	천안 성남면 운전리		
도삼리유적	서천	서천군 마도면 도삼리		
가증리유적	부여	부여군 은산면 가증리		
장승리고분군	청양	청양군 청양읍 장승리		
수촌리고분군	공주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봉선리고분군	서천	서천군 봉선리		
추동리고분군	서천	서천군 추동리		
송원리 고분군	공주	공주시 장기면 송원리		

● 통일신라시대분묘

유적명	지역	소재지	지정	내 용
보통굴유적	공주	공주시 옥룡동		
귀산리유적	공주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봉암리유적	공주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송곡리유적	공주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		
웅진동유적	공주	공주시 웅진동 산 610		
우금치유적	공주	공주시 금학동		
가점굴유적	부여	부여군 성석면 정각리		
중정리유적	부여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쌍용동유적	천안	천안시 상용동		
장선리유적	천안	천안시 수신면 장선리		
불당동 유적	천안	천안시 불당동		
용원리유적	천안	천안시 수신면 용원리		
청수동유적	천안	천안시 청수동		
두남리유적	천안	천안시 풍세면 두남리		
용곡동유적	천안	천안시 용곡동		
업성동유적	천안	천안시 업성동		
실옥동유적	아산	아산시 실옥동		
아골유적	아산	아산시 장재리		
안강굴유적	아산	아산시 장재리		
명암리유적	아산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와우리유적	아산	아산시 인주면 와우리		
장승리유적	청양	청양군 청양읍 장승리		
황새울유적	당진	당진군 상웅리		
자개리유적	당진	당진군 자개리		

● 고려시대분묘

유적명	지역	소재지	지정	내 용
전(傳) 견훤(甄萱) 묘	논산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충청남도기념물 제26호	충청남도 기념물 제26호
강민첨장군묘	예산	예산군 대술면 이치리	충청남도문화재 자료 제319호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제319호

● 조선시대분묘

유적명	지역	소재지	지정	내 용
도응선생(都膺先生) 묘	예산	예산군 응봉면 지식리	충청남도기념물 제90호	고려후기 도응과 손자 순손의 묘
이색선생(李穡先生) 묘 일원	서천	서천군 기산면 영모리 산1-1	충청남도기념물 제89호	
송선군(崇善君) 묘	공주	공주시 이인면 오룡리	충청남도기념물 제6호	·인조의 다섯째 아들
영규대사(靈圭大師) 묘	공주	공주시 계룡면 유평리 산 5번지	충청남도기념물 제15호	
이광윤(李光輪) 묘	홍성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산 77번지	충청남도기념물 제17호	·임진왜란 충신
전득우(田得雨) 묘	부여	부여군 석성면 봉정리	충청남도기념물 제25호	

이충무공(李忠武公) 묘	아산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산 2-1번지	사적 제112호	·이순신 묘
임득의장군(林得義將軍) 묘	홍성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 95-1번지	충청남도문화재 자료 제340호	
정충신(鄭忠信) 묘	서산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	충청남도문화재 자료 제210호	
김장생산생(金長生先生) 묘	논산	논산시 연산면 고정리 산 7-4번지	충청남도기념물 제 47호	
남이흥장군(南以興將軍) 묘	당진	당진시 대호지면 도이리 산 120-4	충청남도기념물 제52호	·조선중기 무신 남이흥 (1576-1627)
신자경산생(申自敬先生) 묘	천안	천안시 동남구 북면 오곡리 산 58번지	충청남도기념물 제69호	·조선세조 공신 신자경 (1402-1470)
홍대용산생(洪大容先生) 묘	천안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 462-22	충청남도기념물 제101호	·조선후기 실학자 홍대용 (1731-1783)
홍양호(洪良浩) 묘	천안	천안시 용곡동 산 29-3번지	충청남도문화재 자료 제13호	
성삼문(成三問) 묘	논산	논산시 가야곡면 양촌리 산58번지	충청남도문화재 자료 제81호	·성삼문(1418-1456)
황일호(黃一皓) 묘	부여	부여군 부여읍 가증리 산 12번지	충청남도문화재 자료 제111호	
김거익(金居翼) 묘	부여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76번지	충청남도문화재 자료 제112호	
조신(趙愼) 묘	부여	부여읍 장암면 점상리	충청남도문화재 자료 제119호	·고려말 충신
김정희(金正喜) 묘	예산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충청남도문화재 자료 제188호	·김정희(1786-1856)
월성위 김한신(月城尉金漢薰) 묘	예산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충청남도문화재 자료 제189호	
박문수(朴文秀) 묘	천안	천안시 북면 은지리	충청남도문화재 제261호	
조익선생(趙翼先生) 묘	예산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	충청남도문화재 자료 제284호	
김 집 선생(金集先生) 묘	논산	논산시 벌곡면 양산리 35-3번지	충청남도문화재 자료 제296호	·김집(1574-1656)
이지함선생(李之函先生) 묘	보령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충청남도문화재 자료 제320호	
남연군(南延君) 묘	예산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 산 5-28	충청남도기념물 제80호	·홍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 이구(?~1822)

● 대한제국기 이후의 분묘

유적명	지역	소재지	지정	내 용
최익현선생(崔益鉉先生) 묘	예산	예산군 광시면 관음리	충청남도기념물 제29호	
김옥균선생(金玉均先生) 묘	아산	아산시 영인면 아산시 143번지	충청남도기념물 제13호	
김복한(金福漢) 묘	홍성	홍성군 서부면 이호리	충청남도문화재	

김좌진장군(金佐鎭將軍)묘	보령	보령시 산 50	청소면 재정리	자료 제169호 충청남도기념물 제73호
---------------	----	----------	---------	--------------------------

③ 관방유적

관방유적은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보호시설로서 도성과 읍성, 진성, 산성 등의 주요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다.

• 도성


유적명	지역	소재지	지정	내 용
공산성	공주	공주시 산성동	사적 제12호	·백제시대 도읍지인 공주를 방어하기 위해 축성된 산성
부소산성	부여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사적 제5호	·사비성(泗沘城)이라고도 하며, 538년(성왕 16) 웅진(熊津)에서 이곳으로 천도한 때를 전후하여 축조된 것으로 추정됨
나성	부여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사적 제58호	·백제의수도인사비(泗沘)의 외곽을 둘러싸고있는 성

• 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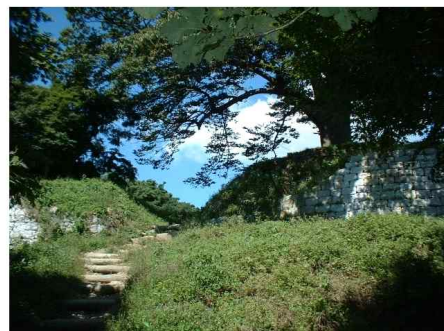
유적명	지역	소재지	지정	내 용
금산읍성	금산	금산군 금산읍		
홍주읍성	홍성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사적 제231호	·동문인 조양문(朝陽門)과 성 안의 홍주아문(洪州衙門), 그리고 주변의 산성(山城)을 포함함
결성읍성	홍성	홍성군 결성면	충청남도 기념물 제165호	
덕산읍성	예산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토성부분만 남아있음
대흥읍성	예산	예산군대흥면상중리, 동서리,		·흥면사무소 옆에 동헌(東軒)이 남아 있고, 그 앞에 솟을삼문이 남아 있다. 솟을삼문 위에는 '임존문(任存門)'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음
서천읍성	서천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문화재자료 제132호	
비인읍성	서천	서천군 비인면 성내리	문화재자료 제133호	
한산읍성	서천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문화재자료 제134호	·높이2.5m,길이1,700m로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조
보령읍성	보령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		·보령성지(保寧城址)라고도 부른다. 지금의 보령중학교 안에 있는 해산루(海山樓)로부터 좌우로 이어진 성벽

남포읍성	보령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	충남기념물 제10호	
서산읍성	서산	서산시 읍내동		
해미읍성	서산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사적 제116호	·왜구가 해안지방에 침입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바, 이를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축조
태안읍성	태안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당진읍성	당진			
면천읍성	당진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충남기념물 제91호	
홍산읍성	부여			

● 산성

유적명	지역	소재지	지정	내 용
계룡산성	공주	계룡면 · 반포면		공주 무성산성
양화산성	공주	계룡면 경천리		
이인산성	공주	이인면 용성리		
중장리산성	공주	계룡면 중장리		
광정리산성	공주	정안면 광정리		
단지리산성	공주	우성면 단지리, 동대리		
만수리산성	공주	이인면 만수리		
무성산성	공주	우성면 한천리, 사곡면 대중리		
봉곡리산성	공주	반포면 봉곡리, 마암리 매봉		
송정리산성	공주	의당면 유계리, 장기면 송정리		
신평산성	공주	신평면 산정리		공주 수촌리 토성
오인리산성	공주	의당면 오인리, 반촌리		
옥성리산성	공주	우성면 옥성리		
율정리산성	공주	의당면 율정리		
평기리산성	공주	장기면 평기리, 대교리		
한산성	공주	공주시 웅진동		
옥녀봉산성	공주	공주시 옥룡동		
은룡리산성1	공주	장기면 은룡리, 성재산		
은룡리산성2	공주	장기면 은룡리, 장군산		
수촌리토성	공주	의당면 수촌리		
용성리산성	공주	이인면 용성리		
월성산성	공주	공주시 소학동		
상 성	공주	계룡면 상성리		
석성산성	부여	석성면 현내리	사적 89호	
구룡산성	부여	구룡면 구룡리		부여 석성산성비

금성산성	부여	부여읍 동남리			
논치산성	부여	구룡면 논치리			
누르개재성	부여	양화면 송정리			
미녀봉산성	부여	은산면 가중리, 규암면 나복리			
반산성	부여	규암면 반산리			
봉황산성	부여	구룡면 죽절리			
부산성	부여	규암면 진변리			
북고리 증산성	부여	장암면 북고리, 장하리	사적 156호		
북촌리산성	부여	홍산면 북촌리			
사자봉산성	부여	규암면 신대리			
시랭이산성	부여	장 암 면 하 왕 리 , 세 도 면 사산리			
외리산성	부여	규암면 외리			
울성산성	부여	규암면 신리			
은산 당산성	부여	은산면 은산리	충청남도 기념물 제153호	충남기념물 제153호	
이목치산성	부여	장암면 원문리			
주장산성	부여	부여읍 장동리			
토성산성	부여	세도면 화수리			
학동산성	부여	임천면 구교리			
점상리산성	부여	장암면 점상리			
청마산성	부여	부여읍 능산리, 용정리, 가중리, 공곡리, 초촌 면 신암리	사적 제34호		
성흥산성	부여	임천면 군사리	사적4호	가림성	
증산성	부여	규암면 신성리			
청산성	부여	부여읍 쌍복리	사적59호		
토정산성	부여	홍산면 북촌리			
계원봉보루	금산	금성면 마수리			
계진리산성	금산	금산을 계진리			
곡남리산성	금산	진산면 곡남리, 다복리			
구례리산성	금산	복수면 구례리			
금성산성	금산	금성면 마수리			
대암리산성	금산	금성면 대암리			
마수리산성	금산	금성면 마수리			
마전리산성	금산	추부면 마전리			
만악산성	금산	진산면 만악리			
수당리산성	금산	제원면 수당리			
용문산성	금산	군북면 천을리			
저곡리산성	금산	제원면 저곡리			
지삼치산성	금산	부리면 양곡리			
진산성	금산	진산면 읍내리			
천내리산성	금산	제원면 천내리			
철마산보루	금산	추부면 장대리			



부여 성흥산성

평촌리산성	금산	부리면 평촌리		
백령산성	금산	남이면 역평리, 건천리		
황산성	논산	연산면 표정리	충남기념물 제56호	·충남기념물제56호
달이산성	논산	벌곡면 수락리		
매화산성	논산	연무읍 양지리		
반야산성	논산	은진면 관촉리, 논산시 지산동		
불암산성	논산	성동면 개척리		
산직리산성	논산	양촌면 산직리		
모촌리산성	논산	양촌면 모촌리		
옥녀봉산성	논산	강경읍 북옥동		
외성리산성	논산	부적면 외성리	충청남도문화재자료 제277호	·충남문화재자료 제277호
곰티산성	논산	벌곡면 검천리, 양촌면 산직리		
채운산성	논산	강경읍 채운리		
청동리산성	논산	연산면 청동리, 양촌면 명암리		
황령산성	논산	양촌면 신암리, 벌곡면 한삼천리		
황화산성	논산	논산시 등화동		
성태봉산	논산	성연무읍 고내리, 황화정리		
신흥리산성	논산	양촌면 신흥리		
월성리산성	논산	성동면 월성리		
노성산성	논산	노성면 송당리	사적 393호	
가성산성	당진	당진읍 우두리		
국사봉산성	당진	정미면 봉생리		
성동리산성	당진	합덕읍 성동리		
성하리산성	당진	면천면 성상리	충남기념물 제162호	·충남기념물 제162호
소소리산성	당진	합덕읍 소소리		
송악산성	당진	송악면 중흥리		
수암산성	당진	덕산면 둔리, 삼교읍 산리		
웅포성	당진	석문면 통정리		
운정리산성	당진	신평면 운정리		
자모산성	당진	정미면 산성리		
작문재산성	당진	송산면 유곡리		
장고항성	당진	석문면 장고항리		
창택산성	당진	송산면 도문리		
태성산성	당진	당진읍 행정리		
성산리산성	당진	석문면 성산리		
성산성	당진	정미면 산성리		
몽산성	당진	면천면 성상리		
고남산성	보령	주포면 봉당리		
달산리산성	보령	남포면 달산리, 옥서리		



논산 노성산성

대봉산성	보령	남포면 제석리, 소송리	
대천리산성	보령	웅천읍 대천리	
삼곡리산성	보령	주산면 삼곡리	
성동리산성	보령	웅천읍 성동리	
수부리산성	보령	웅천읍 수부리	
아현산성	보령	주포면 연지리	
오서산성	보령	청소면 성현리	
진당산성	보령	주포면 보령리, 청라면 장산리	
창암리산성	보령	주산면 창암리	
향천리산성	보령	청라면 향천리	
황율리산성	보령	주산면 황율리	
당산산성	서산	해미면 반양리	
봉화산성	서산	서산 고북면 신송리, 홍성 갈산면 대사리	
동암산성	서산	운산면 갈산리	
명림산성	서산	서산시 예천동	
미륵산성	서산	대산 금탑리	
북주산성	서산	서산시 읍내동	
성왕산성	서산	음암면 상흥리	
연암산성	서산	해미면 대곡리	
웅소성	서산	해미면 웅소성리	
율목리산성	서산	음암면 율목리	
호리성	서산	팔봉면 호리	
부성산성	서산	지곡면 산성리	
전리산성	서산	운산면 안호리	
진장리산성	서산	팔봉면 진장리 2구	
화수리산성	서산	인지면 화수리	
봉남리산성	서천	마서면 봉남리	
서태산성	서천	마서면 옥북리	
선도리산성	서천	비인면 선도리	
성내리산성	서천	비인면 성내리	
저산리산성	서천	판교면 저산리	
태월리산성	서천	서천읍 태월리	
풍정리산성	서천	시초면 풍정리	
한성리토성	서천	마서면 한성리	
덕명동산성	서천	비인면 성내리	
만덕리산성	서천	판교면 만덕리	
벽오리산성	서천	마산면 벽오리	
성북리산성	서천	비인면 성북리	
송내리산성	서천	마서면 송내리, 장항읍 성주동	
장포리산성	서천	비인면 장포리1구	
중태산성	서천	마서면 덕암리	
지원리산성	서천	문산면 지원리	
둔덕리산성	서천	서천읍 둔덕리	




논산 외성리 산성





서천 남산성



서천 건지산성

월명산성	서천	비인면 성내리		
장구리산성	서천	종천면 장구리		
남산성	서천	서천읍 남산리	충남기념물 제96호	·충남기념물 제96호
건지산성	서천	한산면 지현리	사적 60호	
군덕리산성	아산	선장면 군덕2리		
금성리산성	아산	인주면 금성리		
기산동산성	아산	아산시 기산동		
꼭골산성	아산	탕정면 웅두리, 음봉면 송촌리		
무명산성	아산	음봉면 신수리, 염치읍 동정리		
물양산성	아산	음봉면 송촌리, 염치읍 동천리, 탕정면 웅두리		
배방산성	아산	배방면 신흥리	충남기념물 제67호	·충남기념물 제67호
백암리산성	아산	염치읍 백암리		
북수리산성	아산	배방면 북수리		
성내리산성	아산	영인면 성내리, 음봉면 신정리, 둔포면 신정리		아산 배방산성
성안말산성	아산	아산시 읍내동		
세교리산성	아산	배방면 세교리		
연암동산성	아산	음봉면 동암리, 소동리		
연암서산성	아산	음봉면 동암리, 소동리		
영인산성	아산	영인면 상성리, 염치읍 산양리		
용와산성	아산	아산 음봉면 월랑리		
읍내동산성	아산	아산시 읍내동		
호산리산성	아산	탕정면 호산리		
매곡리산성	아산	탕정면 매곡리		
학성산성	아산	신창면 읍내리	충청남도문화재 자료 제244호	·충남문화재자료 제244호
공진창성	아산	인주면 공세리		
건지화리산성	예산	응봉면 지화리		
대천리산성	예산	예산군 고덕면		
사동리산성	예산	덕산면 사동리		
산성리산성	예산	예산읍 산성리	아산 신창 학성산성	
상중리산성	예산	대흥면 상중리		
시동리산성	예산	봉산면 시동리		
신속리산성	예산	대흥면 신속리		
장전리토성	예산	광시면 장전리		
천태산성	예산	봉산면 시동리		
봉수산성	예산	대흥면 상중리, 광시면 동산리		
상성리산성	예산	삼교읍 상성리		

수암산성	예산	삽교읍 신리		
광덕산성	천안	동면 광덕리		
대정리산성	천안	성남면 대정리		
동성산성	천안	동천면 도원리		
두남리산성	천안	풍세면 두남리		
망경산성	천안	수신면 백자리		
봉접산성	천안	천안시 백석동		
서림산성	천안	동면 수남리		
성거산성	천안	성거읍 천흥리	충청남도문화재 자료 제263호	·충남 문화재자료 제263호
성산산성	천안	직산읍 군서리		
월봉산성	천안	천안시 불당동		
일봉산성	천안	천안시 용곡동		
작성산성	천안	병천면 매성리		
청당동산성	천안	천안시 청당동		
청룡산성	천안	광덕면 매당리		
하장산성	천안	동면 장송리		
화계리산성	천안	동면 화계리		
흑성산성	천안	목천면 남화리	충청남도문화재 자료 제364호	·충남문화재자료 제364호
세성산성	천안	성남면 화성리		
사산성	천안	직산면 군동리	충남기념물 제104호	·충남기념물 제104호
위례산성	천안	북면 운룡리		천안 흑성산성
목천토성	천안	목천면 남화리		
구룡동산성	천안	천안시 구룡동		
삼룡동산성	천안	천안시 삼룡동		
용와산성	천안	직산면 마정리		
백석동토성	천안	천안시 백석동		
적곡리산성	청양	장평면 적곡리		
테외산성	청양	청양읍 교월리, 벽천리		
계봉산성	청양	정산면 백곡리		
문성리산성	청양	정산면 광생리, 덕성리		
백곡리산성	청양	정산면 백곡리		
태봉토성	청양	목면 신흥리		
방한리산성	청양	비봉면 방한리		
새재산성	청양	비봉면 사점리		
제비재토성	청양	청양읍 적루리, 벽천리		
천마봉산성	청양	청양읍 군량리		

갯골토성	청양	청양읍 정좌리		
좌동산성	청양	화성면 정좌리		
우산성	청양	청양읍 읍내리	충남기념물 제81호	·충남기념물 제81호
백화산성	태안	태안읍 동문리	충청남도문화재자료 제212호	·충남문화재자료 제212호
금굴산성	태안	태안읍 석선리3구		
구수산성	태안	근흥면 두야리		
대왕산성	태안	근흥면 두야리		
달산리산성	태안	남면 달산리		
상왕산성	태안	운산면 원평리		
수용리산성	태안	근흥면 수용리		
양잠리산성	태안	남면 양잠리		
지령산성	태안	근흥면 정죽리		
포지리토성	태안	이원면 당산리		
한의산성	태안	원북면 양산리		
구룡리산성	홍성	홍성읍 구룡리		
내법리산성	홍성	홍성읍 내법리		
만경산성	홍성	홍동면 신기리		
매성봉산성	홍성	광천읍 매현리, 신곡리		
백월산성	홍성	홍성읍 월산리, 백월산		
태봉산성1	홍성	광천읍 담산리, 장곡면 오성리		
송암리산성	홍성	금마면 송암리, 장성리		
용봉산성	홍성	홍북면 신경리		
천태리산성	홍성	홍성 장곡면 천태리, 예산 광시면 노전리		
태봉산성2	홍성	장곡면 천태리		
학성산성	홍성	장곡면 산성리		
대사리산성	홍성	갈산면 대사리		
효학리산성	홍성	홍동면 효학리		
석성산성	홍성	장곡면 산성리		
석당산성	홍성	결성면 읍내리		



청양 우산성



태안 백화산성

④ 요지유적

요지유적은 토기 및 자기를 굽는 시설물로서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의 백제요지와 조선시대 분청사기 요지가 중심을 이루며 토기요지, 분청하기요지, 기와요지, 백제요지, 백자요지, 자기요지 등이 있다.

● 지역별 요지현황

유적명	지역	소재지	내 용
-----	----	-----	-----

용원리 요지	천안		·토기요지
매성리 요지	천안		·토기요지
양곡리요지	천안	천안시 북면 양곡리	·분청사기요지
남장리와요지	홍성	홍성을 남장리	·기와요지
무장리 요지	서산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기와요지 ·탄요1기, 토기요지 3기, 분청사기요지 2기, 백자요지 1기
관현리 요지	청양	청양군 장평면 관현리	·기와요지
왕진리요지	청양	청양군 청남면 왕진리	·백제시대요지
웅수리요지	보령	보령시 미산면 웅수리	·자기요지
평라리 요지	보령	보령시 미산면 평라리	·분청사기요지
늑전리 요지	보령	보령시 미산면 늑전리 산2-3	·백자요지 ·조선말기 지방가마
귀산리 요지	공주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토기요지
학봉리 요지	공주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자기요지 ·윗사기소
정암리요지	부여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기와요지
정동리 요지	부여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기와요지
갓점골요지	부여		·백자요지
옥남리요지	서천		·토기요지
금덕리요지	서천	서천군 판교면 금덕리	·기와요지

⑤ 불교유적

불교유적은 목조건축과 사지가 있고, 석조유물로는 탑과 부도, 석등, 석조, 비, 당간 및 당간 지주, 마애불 등이 있다.

● 목조건축

유적명	지역	소재지	지정	내 용
예산 수덕사 대웅전	예산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국보 제49호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 본사 수덕사 내
마곡사 주요 전각	공주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대웅보전	공주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보물 제801호	·마곡사 경내
대광보전	공주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보물 제802호	
영산전	공주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보물 제800호	
천왕문	공주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충청남도문화재 자료 제62호	·윤보선 전 대통령의 부친 윤 치소가 광무 7년(1903)~융 희 1년(1907) 어간에 건립
국사당	공주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충청남도문화재 자료 제63호	·충남문화재자료 제63호
명부전	공주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충청남도문화재 자료 제64호	·시왕전·지장전·명왕전으로 불림
응진전	공주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충청남도문화재 자료 제65호	·충남문화재자료 제65호

해탈문	공주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충청남도문화재 자료 제66호	·마곡사 정문
갑사주요전각	공주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대웅전	공주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시도유형문화재 105호	·갑사경내
강당	공주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시도유형문화재 제95호	·시도유형문화재 제95호
봉곡사 대웅전 및 고방	아산	아산시 송악면 유곡리	충청남도문화재 자료 제323호	·충남문화재자료 제323호
흥주사 만세루	태안	태안군태안읍상옥리	충청남도유형 문화재 제133호	·축대를 쌓아 그 위에 누각을 조성한 것으로 일종의 중문 으로 사용하고 있음

● 사지(寺地)

유적명	지역	소재지	지정	내 용
대통사지	공주	공주시 반죽동		
전 수원사지	공주	공주시 옥룡동	시도기념물 제36호	·시도기념물 제36호
서혈사지	공주	공주시 웅진동	시도기념물 제37호	·시도기념물 제37호
전 주미사지	공주	공주시 이인면 주미동	시도기념물 제38호	·시도기념물 제38호
구룡사지	공주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시도기념물 제39호	·통일신라시대 당간지주
정림사지	부여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사적 제301호	·5층석탑(국보 제9호), 석불 좌상(보물 제108호) 위치
군수리사지	부여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사적 제44호	
능산리사지	부여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사적 제434호	·위덕왕의 아버지인 성왕의 기원사찰
왕흥사지	부여	부여군 규암면 신리	사적 제427호	
금강사지	부여	부여군 은산면 금공리	사적 제435호	
용정리사지	부여	부여군 부여읍 용정리	시도기념물 제48호	·시도기념물 제48호
성주사지	보령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사적 제307호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국보 제8호), 중문지, 석등, 5층석 탑(보물 제19호), 금당지와 그 뒤로 동 3층석탑, 중앙 3 층석탑(보물 제20호), 서3층 석탑
보원사지(강당사지)	서산	서산시 운산면 옹현리	사적 제316호	·보원사지석조(보물 제102호)· 당간지주(보물 제103호)·5층 석탑(보물 제104호)·법안국

				사보승탑(보물 제105호) 등
개태사지	논산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시도기념물 제44호	시도기념물 제44호

• 탑

유적명	지역	소재지	지정	내 용
정림사지 5층석탑	부여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국보 제9호	
무량사 5층석탑	부여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보물 제185호	
장하리 3층석탑	부여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	보물 제184호	정림사지 5층석탑을 모방한 백제계 석탑
계룡산 청량사지 5층석탑	공주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보물 제1284호	
계룡산 청량사지 7층석탑	공주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보물 제1285호	
마곡사 5층석탑	공주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보물 제799호	
신원사 5층석탑	공주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충청남도유형문화재 제31호	충남 유형문화재 제31호
동원리석탑	공주	공주시 신평면 동원	충청남도유형문화재 제49호	충남유형문화재 제49호
갑사 공우탑	공주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공우탑 전설
탑정리석탑	논산	논산시 부적면 탑정리	충남유형문화재 제60호	탑정저수지 복단
개태사지 5층석탑	논산	논산시연산면	충남문화재자료 제274호	충남문화재자료 제274호
관촉사석탑	논산	논산시		
비인5층석탑	서천	서천군 비인면 성북리	보물 제224호	정림사지 5층석탑을 모방한 백제계 석탑
지현리석탑	서천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충남문화재자료 제128호	충남문화재자료 제128호
수암리 3층석탑	서천	서천군 문산면 수암리	충남문화재자료 제129호	충남문화재자료 제129호
봉남리 3층석탑	서천	서천군 마서면 봉남리	충남문화재자료 제130호	봉남리 사지
지석리 3층석탑	서천	서천군 종촌면 지석리	충남문화재자료 제131호	충남문화재자료 제131호
서정리 9층석탑	청양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보물 제18호	
성주사지 5층석탑	보령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보물 제19호	
성주사지 동 3층석탑	보령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지방유형문화재 제26호	지방유형문화재 제26호
성주사지 서 3층석탑	보령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보물 제47호	
성주사지 중앙 3층석탑	보령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보물 제20호	
향천사 9층 석탑	예산	예산군 예산읍 향천리	충남문화재자료 제174호	충남문화재자료 제174호
장북리 3층석탑	예산	예산군 대술면 장북리	충남문화재자료 제176호	충남문화재자료 제176호

수덕사 3층석탑	예산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시도유형문화재 제103호	· 시도유형문화재 제103호
수덕사 7층석탑	예산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문화재자료 제181호	· 문화재자료 제181호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보협인석탑	천안	천안시 동남구 북면 대평리 탑골사지	국보 제209호	· 탑골사지
천흥사지 5층석탑	천안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보물 제354호	· 천흥사지
천안 만일사 5층석탑	천안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문화재자료 제254호	· 문화재자료 제254호
천안 광덕사 3층석탑	천안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리	충남유형문화재 제120호	· 광덕사
세심사 다층석탑	아산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231호	· 영인산
아산리 5층석탑	아산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239호	· 아산리 사지
보원사지 5층석탑	서산	서산시 운산면 웅현리	보물 제104호	· 보원사지
개심사 5층석탑	서산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		· 개심사
동문동 5층석탑 (대사동 석탑)	서산	서산시 동문동	시도유형문화재 제195호	· 시도유형문화재 제195호
태안 홍주사 3층석탑	태안	태안군 태안읍 상옥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28호	· 홍주사
남문리 5층석탑	태안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201호	· 충남문화재자료 제201호
안국사지석탑	당진	당진시 정미면 수당리	보물 제101호	· 안국사지

● 부도

유적명	지역	소재지	지정	내 용
갑사 팔각원당형부도	공주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보물 제257호	
보원사지 법인국사 보승탑	서산	서산시 운산면 웅현리	보물 제105호	· 보원사지
광덕사 부도	천안	천안시 광덕면 광덕리	시도유형문화재 제85호	· 시도유형문화재 제85호
무량사 김시습부도	부여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충남유형 문화재 제25호	· 충남유형문화재 제25호
향천사 부도	예산	예산군 예산읍 향천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179호	· 충남문화재자료 제179호

● 석등과 석조

유적명	지역	소재지	지정	내 용
무량사 석등	부여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보물 제233호	· 무량사
관촉사 석등	논산	논산시 관촉동	보물 제232호	· 관촉사
성주사지 석등	보령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충남유형	· 충남 유형문화재 제33호

			문화재 제33호	
중동 석조	공주	공주시 웅진동 (국립박물관 소장)	보물 제148호	
반죽동 석조	공주	공주시 웅진동 (국립박물관 소장)	보물 제149호	
개태사지 석조	논산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275호	·충남문화재자료 제275호
보원사지 석조	서산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보물 제102호	
용봉사지 석조	홍성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162호	·충남문화재자료 제162호

● 비(碑)

유적명	지역	소재지	지정	내 용
성주사지 낭혜화상 백월보광탑비	보령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국보 제8호	
영수암 귀부와 이수	보령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시도유형 문화재 제32호	·영수암
봉선 홍경사 비	천안	천안시 성환읍 대흥리	국보 제7호	
보원사지 법인국사 보승탑비	서산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보물 제106호	
보광사 대보광선사비	부여	국립부여박물관 야외전시장	보물 제107호	·보광사 중창비
귀부와 이수	부여	국립부여박물관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성 주사지에서 출토
갑사사적비	공주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충남유형 문화재 제52호	·충남유형문화재 제52호

● 당간 및 당간지주

유적명	지역	소재지	지정	내 용
갑사 철당간 및 당간지주	공주	공주시계룡면	보물 제256호	
반죽동 당간지주	공주	공주시 반죽동	보물 제150호	
상신리 당간지주	공주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충남유형 문화재 제94호	·충남유형문화재 제94호
간양리 당간지주	예산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180호	·충남문화재자료 제180호
무량사 당간지주	부여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시도유형 문화재 제57호	·시도유형문화재 제57호
천흥사지 당간지주	천안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보물 제99호	
읍내동 당간지주	아산	아산시 읍내동	보물 제537호	·읍내동 사지
동문동 당간지주	홍성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보물 제538호	·광경사지
보원사지 당간지주	서산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보물 제103호	·보원사지

동문동 당간지주	서산	서산시 동문동	시도유형문화재 제196호	·시도유형문화재 제196호
----------	----	---------	---------------	----------------

● 마애불

유적명	지역	소재지	지정	내 용
마애삼존불	서산	서산시 운산면 웅현리	국보 제84호	·백제의 미소
마애삼존불	태안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국보 제307호	·태을암
사면석불	예산	예산군 농산면 화전리	보물 제794호	
신경리 마애불	홍성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보물 제355호	·용봉산 정상 부근
상천리 마애불	부여	부여군 홍산면 상천리	충남유형문화재 제140호	·태봉산중턱 위치
신평리 마애불	논산	논산시 부적면 신평리	충남유형문화재 제54호	·고정산 정상기슭에 조각
관촉사 석조보살입상	논산	논산시 관촉동	보물 제218호	·고려광종21~목종 9년까지 37년에 걸쳐 조상한 대형 석조보살입상

● 기타

유적명	지역	소재지	지정	내 용
천흥사 동종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국보 제280호	
갑사 동종	공주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보물 제478호	
개태사 철화	논산	논산시연산면	충남민속자료 제1호	·충남민속자료 제1호
관촉사 배례석	논산	논산시 관촉동	충남유형문화재 제53호	·충남유형문화재 제53호
관촉사 석문	논산	논산시 관촉동		
성주사지 석계단	보령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충남 문화재자료 제140호	·충남 문화재자료 제140호
배례석	미상			

⑥ 유교유적

충남의 유교유적으로는 향교의 의례와 자료, 건축 등과 서원·사우의 제향인물과 자료, 공간 구조와 건축, 충·효·열 정려 등이 분포하고 있다.

● 향교

유적명	지역	소재지	지정	내 용
공주향교	공주	공주시 공주읍 교동	충남유형문화재 제75호	·대성전, 명륜당, 동무, 서무, 동재, 제기고, 존경각, 내삼문, 외삼문, 교직사
금산향교	금산	금산군 금산읍 상리	충남기념물 제121호	·대성전, 동무, 서무, 명륜당, 종재서재, 내외삼문, 동재각, 서재각, 수직사, 창고

진산향교	금산	금산군 진산면 교촌리	도지정기념물 제122호	·대성전, 명륜당, 전교실, 내삼문, 외삼문
노성향교	논산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	도지정기념물 제118호	·대성전, 명륜당, 동재, 서재, 내삼문, 외삼문
연산향교	논산	논산시 연산면 관동리	도지정기념물 제119호	·대성전, 명륜당, 동재, 서재, 내삼문, 외삼문, 수직사
은진향교	논산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	도지정기념물 제120호	·대성전, 명륜당, 동재, 서재, 내삼문, 외삼문
당진향교	당진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도지정기념물 제140호	·대성전, 명륜당, 동재, 서재, 내삼문, 제기고
면천향교	당진	당진군 면천면 성하리	도지정기념물 제141호	·대성전, 동무, 서무, 명륜당, 동재, 서재, 외삼문, 내삼문
남포향교	보령	보령시 남포면 옥서리	도지정기념물 제111호	·대성전, 명륜당, 서재, 내삼문, 외삼문, 교직사
보령향교	보령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	도지정기념물 제112호	·대성전, 현관석, 명륜당, 동재, 서재, 외삼문, 수재문, 내삼문
오천향교	보령	보령시 오천면 교성리	도지정문화재자료 제137호	·대성전, 동무, 현관청, 외삼문
부여향교	부여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도지정기념물 제125호	·대성전, 명륜당, 동재, 수신재, 외삼문, 수직사, 전사청
석성향교	부여	부여군 석성면 석성리	도지정기념물 제126호	·대성전, 명륜당, 동재, 수복실, 내삼문, 외삼문
임천향교	부여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도지정기념물 제127호	·대성전, 명륜당, 동무, 서무, 서재, 내삼문, 외삼문
홍산향교	부여	부여군 홍산면 교원리	도지정기념물 제128호	·대성전, 명륜당, 내삼문, 외삼문, 수복실
서산향교	서산	서산시 동문동	도지정기념물 제116호	·대성전, 명륜당, 동무, 서무, 동재, 서재, 내삼문
해미향교	서산	서산시 해미읍 오학리	도지정기념물 제117호	·대성전, 명륜당, 동재, 서재, 내삼문
서천향교	서천	서천군 서천읍 군산리	도지정기념물 제126호	·대성전, 명륜당, 동무, 서무, 동재, 서재, 내삼문, 외삼문
비인향교	서천	서천군 비인면 성내리	도지정기념물 제129호	·대성전, 명륜당, 내삼문, 외삼문
한산향교	서천	서천군한산면지현리	도지정기념물 제131호	·대성전, 명륜당, 동재, 서재, 교직사, 내삼문, 외삼문, 수복실
신창향교	아산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도지정기념물 제113호	·대성전, 명륜당, 동재, 서재, 내삼문
아산향교	아산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도지정기념물 제114호	·대성전, 명륜당, 동재, 서재, 외삼문, 내삼문
온양향교	아산	아산시 읍내동	도지정기념물 제115호	·대성전, 명륜당, 동재, 서재, 외삼문, 내삼문
대흥향교	예산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도지정기념물 제136호	·대성전, 명륜당, 동무, 서무, 동재, 전교실, 내삼문, 외삼문, 수직사
덕산향교	예산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도지정기념물 제137호	·대성전, 명륜당, 동재, 서재, 내삼문
예산향교	예산	예산군 예산읍 향천리	도지정기념물	·대성전, 명륜당, 동재, 서재, 내삼문

			제138호	
목천향교	천안	천안시목천면교촌리	도지정기념물 제108호	·대성전, 명륜당, 동무, 서무, 동재, 내삼문
직산향교	천안	천안시 직산면 군서리	도지정기념물 제109호	·대성전, 명륜당, 동재, 내삼문, 외삼문, 수직사
천안향교	천안	천안시 유량동	도지정기념물 제110호	·대성전, 명륜당, 동무, 서무, 동재, 서재, 내삼문, 외삼문
정산향교	청양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도지정기념물 제132호	·대성전, 명륜당, 동재, 서재, 청아루, 내삼문, 수직사
청양향교	청양	청양군청양읍교월리	도지정기념물 제133호	·대성전, 명륜당, 동재, 서재, 내삼문, 외삼문, 수직사
태안향교	태안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도지정기념물 제139호	·대성전, 명륜당, 동재, 서재, 내삼문, 외삼문
결성향교	홍성	홍성군 결성면 읍내리	도지정기념물 제134호	·대성전, 명륜당, 동재, 제기고, 내삼문
홍주향교	홍성	홍성군 홍주읍 대교리	도지정기념물 제135호	·도지정기념물 제135호

● 서원·사우

유적명	지역	소재지	지정	내 용
도동서원(지)	천안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양현사	천안	천안시 풍세면 삼태리		
육현사	천안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충현서원	공주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60호	 <p>공주 충현서원</p>
숙모전	공주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67호	
덕천군 사우	공주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 (장군면 태산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61호	
갑사 표충원	공주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52호	
윤전사우	공주	공주시 계룡면 유평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 283호	
충절사	공주	공주시 금홍동 사송정 마을	충남문화재 자료 제20호	
화암서원	보령	보령시 청라면 장산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143호	 <p>아산 현충사</p>
광성부원군사우	보령	보령시 청소면 재정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142호	
수현사	보령	보령시 미산면 용수리		
금곡서원(址)	아산	아산시 배방면 중리		
도산서원(址)	아산	아산시 도고면 도산리		
인산서원(址)	아산	아산시 염치면 서원리		
정퇴서원(址)	아산	아산시 배방면 중리		

현충사	아산	아산시 엄치면 백암리	사적 제155호	
성암서원	서산	서산시 읍내동	충남문화재 자료 제205호	
송곡사(송곡서원)	서산	서산시 인지면 애정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207호	
부성사	서산	서산시 지곡면 산성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199호	
송덕사	서산	서산시 부석면 강당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352호	 <p>서산 진충사</p>
진충사(정충신사당)	서산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206호	
구산서원	논산	논산시 연산면 오산리		
금곡서원	논산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78호	
노강서원	논산	논산시 광석면 오강리	충남유형문화재 제30호	
둔암서원	논산	논산시 연산면 임리	사적 383	
봉곡서원	논산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시 향토유적 제15호	
죽림서원	논산	논산시강경읍황산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75호	 <p>논산 휴정서원</p>
충곡서원(址)	논산	논산시 부적면 충곡리	충남기념물 제12호	
행림서원	논산	논산시 가야곡면 육곡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76호	
효암서원	논산	논산시 가야곡면 산노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87호	
휴정서원	논산	논산시 부적면 신평리	시 향토유적 제16호	
궐리사	논산	논산시노성면교촌리	충남기념물 제20호	
반계서원(址)	금산	금산군 금성면 하류리		
산천재서원(址)	금산	금산군 남일면 은대리		
성곡서원(址)	금산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용강서원	금산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19호	 <p>금산 종용사</p>
구암사	금산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301호	
덕산사	금산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281호	
유곡사	금산	금산군 금성면 하류리		
표충사	금산	금산군 복수면 곡남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20호	
종용사	금산	금산군 금성면 의총리	충남문화재 칠백의총:사적 제105호	
청풍사	금산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16호	

충렬사	금산	금산군 금성면 상가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17호	
간곡서원	부여	부여군 임천면 교원리		
동곡서원	부여	부여군 세도면 동사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92호	
퇴수서원	부여	부여군 임천면 만사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91호	 <p>부여 삼충사</p>
봉호서원	부여	부여군 석성면		
부산서원	부여	부여군 규암면 진번리		
창강서원	부여	부여군 부여읍 저석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107호	
칠산서원	부여	부여군 임천면 칠산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102호	
삼충사	부여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115호	
의열사	부여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114호	
창열사	부여	부여군 구룡면 금사리	충남기념물 제22호	
청일사	부여	부여군 홍산면 교원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93호	 <p>서천 문헌서원</p>
건암서원(址)	서천	서천군 문산면 자원리		
문헌서원	서천	서천군 기산면 영모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125호	
검산사	서천	서천군 비인면 구북리		
율리사	서천	서천군 비인면 율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303호	
청절사	서천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		
용계서원(址)	청양	청양군 남양면 대봉리		
모덕사	청양	청양군 목면 송암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152호	
표절사	청양	청양군 운곡면 모곡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154호	
노은서원(址)	홍성	홍성군 홍북면 노은리		 <p>당진 충장사</p>
해학서원(址)	홍성	홍성군 대교리 교동		
덕잠서원(址)	예산	예산군 예산읍 덕잠골		
회암서원(址)	예산	예산군 봉산면 봉림리		
소도독사(址)	예산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우천사우	예산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충의사	예산	예산군 덕산면 시랑리		
송의사	태안	태안군 남면 양잠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300호	
동악서원(址)	당진	당진시 송산면 명산리		
충장사	당진	당진시 대호지면 도이리	충남문화재 자료 제215호	

⑦ 고건축

고건축 유적은 주거건축으로 반가와 민가 등이 있고, 민속마을(외암리민속마을)과 누정, 기타(계룡산 중악단 등이 분포하고 있다.

• 주거건축

유적명	지역	소재지	지정	내 용
민칠식가옥	부여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중요민속자료 제192호	중요민속자료 제192호
윤증선생고택	논산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	중요민속자료 제190호	·윤증(1629-1714)
이삼장군고택	논산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		·이삼(1677-1735)
윤항선생고택	논산	논산시 노성면 장구리	충남민속자료 제8호	·파평윤씨 윤항의 종가
두계 은농재 (豆溪隱農齋)	논산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충남유형문화재 제134호	·김장생선생 고택
윤보선 전대통령 (尹潽善前大統領) 생가	아산	아산시둔포면신항리	중요민속자료 제196호	·윤보선 전 대통령의 부친 윤치소가 광무 7년(1903)~융희 1년(1907) 여간에 건립
성준경 (成俊慶) 가옥	아산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		
맹씨행단 (孟氏杏壇)	아산	아산시 배방면 중리	사적 제109호	·이 집은 원래 최영 장군의 집이었으나 손자사위인 맹사성에게 넘겨주었다함
외암리 참판댁 (外岩里參判宅)	아산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건재(健齋) 고택	아산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영암댁
김정희 선생 (金正喜先生) 고택	예산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충남유형문화재 제43호	·충남유형문화재 제43호
이남규 선생 (李南圭先生) 고택	예산	예산군 대술면 상항리		·이남규 선생의 10대조 한림공 이구(李久)가 건립
이광임 선생 (李廣任先生) 고택	예산	예산군 대술면 방산리	충남유형문화재 제83호	·충남유형문화재 제83호
조응식 (趙應植) 가옥	홍성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중요민속자료 제198호	·중요민속자료 제198호
엄찬(嚴燦) 고택	홍성	홍성군 홍북면 노은리	중요민속자료 제231호	·성삼문외손 엄찬의 고택
전용일 (田溶一) 가옥	홍성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충남민속자료 제11호	·안동김씨집안의 가옥이었으나 후손대에서 전씨의 소유
김우열 (金宇烈) 가옥	홍성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충남민속자료 제10호	·충남 민속자료 제10호
김기현 (金基顯) 가옥	서산	서산시 음암면 유계2리	중요민속자료 제199호	·정순왕후 생가의 작은댁
정순왕후(貞純王后) 생가	서산	서산시 음암면 유계2리	충남기념물 제68호	·영조대왕비인 정순왕후가 영조 21년(1745) 태어난 집

				·정순왕후의 5대조이며 승지, 충청감사, 황해도 관찰사 등을 지낸 김홍욱(金弘郁)이 효종임금의 하사로 효종 1년경(1650) 지은 것
이하복(李夏馥)가옥	서천	서천군 기산면 신산리	중요민속자료 제197호	·이색의 18세손이며 중추원의관을 지낸 이병식이 조선말에 안채 3칸을 건립하면서 시작
정계채(鄭啓采)가옥	부여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중요민속자료 제193호	·중요민속자료 제193호
상옥 최씨댁(上玉崔氏宅)	태안	태안군 태안읍 상옥리	충남민속자료 제17호	·문간채는 1940년대 새로 건립
정동호(鄭東鎬)가옥	예산	예산군고덕면오추리	중요민속자료 제191호	·중요민속자료 제191호

● 마을

유적명	지역	소재지	지정	내 용
외암민속마을	아산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중요민속자료 제236호	·예안 이씨 입향조, 외암기

● 누정

유적명	지역	소재지	지정	내 용
수북정(水北亭)	부여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충남문화재자료 제100호	·조선 선조와 광해군에 걸쳐 영변, 회양, 한산, 양주 군수를 지낸 수북(水北) 김흥국(金興國)이 세운 정자, 현재의건물은1908년 중수하고 1969년에 보수한 것, '자온대(自溫臺)-우암송시열이 씀
임리정(臨履亭)	논산	논산시 강경읍 황산동	충남유형문화재 제67호	·사계 김장생이 건립, 황산정(黃山亭)
팔괘정(八掛亭)	논산	논산시 강경읍 황산동	충남유형문화재 제76호	·우암 송시열이 건립
경이정(憬夷亭)	태안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충남유형문화재 제123호	·중국으로 가는 사신이나 중국에서 오는 사신들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 중 하나임

● 기타

유적명	지역	소재지	지정	내 용
계룡산 중악단(계룡단)	공주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효종 2년(1651)에 제단이 폐지되었다가 고종 16년(1879) 명성황후의 명에 의해 다시 재건

⑧ 고서와 고문서

고서와 고문서 유적은 국가지정문화재와 충청남도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된 고서와 고문서 등과 향교·서원의 소장자료, 문중 등 소장자료 등이 있다.

• 국보

유적명	지정	내 용
이충무공난중일기 (부)서간첩·임진장초(李忠武公亂中日記(附)書簡帖·壬辰狀草)	국보 제76호	·친필일기 7책과 서간첩 1책 및 임진장초(壬辰狀草) 1책 등 모두 9책

• 보물

유적명	지정	내 용
감지은니묘법연화경(紺紙銀泥妙法蓮華經) 권 제 1	보물 제269호	·『감지은니묘법연화경』은 중국의 위대한 번역가인 구마라집(鳩摩羅什)이 한문으로 번역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저본으로 조선 세종 4년(1422)에 비구 덕명(德明)이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위해 발원하여 충청도 천안의 광덕사(廣德寺)에서 쪽물로 물들인 감지(紺紙)에 은니(銀泥)로 쓴 경전임
감지금니 묘법연화경(紺紙金泥妙法蓮華經) 권 제6	보물 제270호	·법화경(우리나라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한다. 화엄경과함께 우리나라 불교사상의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우리나라에 유통된 불교경전 가운데 가장 많이 간행된 경전임
김정희 종가유물(禮山金正喜宗家遺物)	보물 제547호	
순우장하승비임본(淳于長夏承碑臨本)	보물 제547-2호	·김정희유묵(金正喜遺墨)
을묘칠정(乙卯七正)·금칠십재(金七十齋)	보물 제547-2-3호	·김정희유묵(金正喜遺墨) - 표지(表紙)
척독초본(尺牘抄本)	보물 제547-2-4호	·김정희유묵(金正喜遺墨)
십삼년정미(十三年丁未)	보물 제547-2-5호	·김정희유묵(金正喜遺墨) - 표제(表題)
사공도시평첩(司空圖詩評帖)	보물 제547-2-6호	·김정희유묵(金正喜遺墨)
상지십년용집협합(上之十年龍集協洽)	보물 제547-2-7호	·김정희유묵(金正喜遺墨) - 표제(表題)
충술근수교 훈목의현진장(忠述謹受敎訓墨軒珍藏)	보물 제547-2-8호	·김정희유묵(金正喜遺墨) - 표제(表題)
소재첩(蘇齋帖)	보물 제547-2-9호	·김정희유묵(金正喜遺墨)
상지이십삼년계미(上之二十三年癸未)	보물 제547-2-10호	·김정희유묵(金正喜遺墨)
서금반첩(書今槃帖)	보물 제547-3호	·김정희유묵(金正喜遺墨)

	에서대련(隸書對聯)	보물 제547-4호	·김정희유묵(金正喜遺墨)
윤봉길의사 유품 (尹奉吉義士遺品)		보물 제568호	
	윤봉길의사유품 일기 (尹奉吉義士遺品日記)	보물 제568-8호	
	월진회창립취지서 (月進會創立趣旨書)	보물 제568-9호	
	농민독본(農民讀本)	보물 제568-10호	
	편지(便紙) 6건	보물 제568-12호	
	월진회통장 (月進會通帳)	보물 제568-13호	
	편지(便紙)	보물 제568-15호	
	옥타(玉唾, 시집)	보물 제568-23-1호	
	한시집(漢詩集)	보물 제568-23-2호	
	순운대편(雲大篇)	보물 제568-23-3호	
	염락(濂洛)	보물 제568-23-4호	
	임추(壬椎)	보물 제568-23-5호	
	홀기(笏記)	보물 제568-23-6호	
	명추(鳴椎)	보물 제568-23-7호	
	명심보감(明心寶鑑)	보물 제568-23-8호	
	위친계취지서 (爲親契趣旨書)	보물 제568-24호	
성주도씨 종중문서 (星州都氏宗中文書)		보물 제724호	·성주도씨 종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일괄문서로 조선 태조 이성계가 도응(都膺)에게 내린 왕지(王旨) 4매와 녹패(祿牌) 1매임
	왕지(王旨)	보물 제724-1호	·태조 2년 도응을 조봉대부 전의소감(朝奉大夫典醫小監)으로 임명하는 왕지(王旨)
	왕지(王旨)	보물 제724-2호	·태조 3년(1394) 선절장군 흥위위 좌령장군(宣節將軍興威衛左領將軍)으로 임명하는 왕지
	왕지(王旨)	보물 제724-3호	·선절장군 용무위사 좌령장군(宣節將軍龍武衛司左領將軍)으로 임명하는 왕지
	왕지(王旨)	보물 제724-4호	·보공장군(保功將軍)에 임명하는 왕지
	녹패	보물 제724-5호	·10월에 선절장군 흥위의 좌령장군 도응에게 감술년의 제9과 녹봉(祿俸)으로 경창미(京倉米) 170석을 지급 한다는 녹패
남양전씨 종중문서 (南陽田氏宗中文書)		보물 제727-1-27호	·왕지(王旨), 교지(教旨), 준호구(準戶口), 유서(遺書) 등 총 27매
광남군이광악선무공신교서 (廣南君李光岳宣武功臣敎書)			·선조 37년(1604) 임진왜란때 진주성(晉州城) 방어에 공을 세워 선무공신(宣武功臣)에 책록된 이광악(李光岳, 1557~1608)에게 내린 교서(敎書)
중봉조헌관계유품 (重峰趙憲關係遺品)		보물 제1007-1-5호	·보물 제1007-1-5호
	조천일기(朝天日記)		·중봉조헌관계유품(重峰趙憲關係遺品) 제1007-1호 『조천일기(朝天日記)』
묘법연화경		보물 제1147-2호	·성종 원년(1470) 4월 세조비인 정희왕후 윤씨

(妙法蓮華經)권 제1~2		(貞熹王后尹氏)가 둘째 아들 예종이 승하한뒤, 세조와 의경왕(懿敬王: 德宗), 그리고 예종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발원하여간행한 묘법연화경 전7권 가운데 권 제2
면역사패교지 (廣德寺所藏免役賜牌教旨)	보물 제1246호	·광덕사소장 ·세조가 충청도 천안에 있는 광덕사와 개천사에발급한 교지
조선시대 사경 (廣德寺所藏朝鮮時代寫經)	보물 제1247호	·광덕사소장 ·3종 7첩(조선 태종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1396~1486)의 부인이었던 예성부부인(藥城府夫人) 정씨와 아들이 함께 시주하여 필사한 사경임)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권 제9~10	보물 제1543호	·『자비도량참법』은 중국 양나라 무제(武帝, 재위 502~549)가 황후 치씨(氏)를 위해 편찬
이순신선무공신교서 (李舜臣宣武功臣敎書)	보물 제1564호	·1604년 10월 임진왜란 때 전라좌도수군절도사로 한산대첩 등을 승리로 이끌고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충무공 이순신(李舜臣, 1545~1598)의 무공을 포장()하여 선무공신으로 책록한 것임

● 중요민속자료

유적명	지정	내 용
남이흥장군일가유품 (南以興將軍一家遺品)		·1627년 정묘호란 때 평안도 안주에서 순절한 총장공남이흥 (南以興, 1576~1627)과 관련한 유품, 1970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 되었으나 2004년 전문가 추가지정조사 실시결과 고문서 13점, 영정 1점, 생활자료 10점, 복식 6점 등 30점의 유물을 추가지정하고 명칭을'남이흥일가 유품'으로 변경
보부상유품 (祿負商遺品)	중요민속자료 제30호	·보부상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고문서

● 충남도지정문화재

유적명	지정	내 용
남이흥장군일가유품 (南以興將軍一家遺品)	중요민속자료 21호	·1627년 정묘호란 때 평안도 안주에서 순절한 총장공남이흥 (南以興, 1576~1627)과 관련한 유품, 1970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 되었으나 2004년 전문가 추가지정조사 실시결과 고문서 13점, 영정 1점, 생활자료 10점, 복식 6점 등 30점의 유물을 추가지정하고 명칭을'남이흥일가 유품'으로 변경
보부상유품 (祿負商遺品)	중요민속자료 제30호	·보부상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고문서
유형장군 유물·교지 (柳珩將軍遺物·敎旨)	충남유형문화재 제8호	·유형(柳珩, 1566~1615) 장군

김정희선생 유물 (金正喜先生遺物)	충남유형문화재 제44호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필적으로 필적으로 『인일제시권(人日製試券)』 · 『혼서지(婚書紙)』 · 『농상지심』 등 3점
김장생문묘배향교지 (金長生文廟配享教旨)	충남유형문화재 제127호	·숙종 43년(1717) 5월 18일에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을 문묘(文廟)에 배향(配享)하라고 국왕내린 교서(敎書)
남평조씨 병자일기 (南平曹氏丙子日記)	충남유형문화재 제153호	·일기는 남이웅의 부인인 정경부인 남평 조씨가 병자년(인조 14년, 1636) 12월부터 경진년(인조 18년, 1640) 8월까지 약 4년간의 일상을 기록한 일기
김집교지(金集教旨)	충남문화재자료 제295호	·현종 2년(1661)에 김집(金集, 1574~1656)을 효종의 묘정에 배향하도록 명령한 문서
홍가신선생교지 (洪可臣先生教旨)	충남문화재자료 제310호	·홍가신(洪可臣, 1541~1615)이 임금에게 받은 5장의 교지(敎旨)
창녕성씨 종중문서 (昌寧成氏宗中文書)	충남문화재자료 제311호	·아산의 창녕성씨가에 소장한 3점의 고문서
윤시영선생 홍양일기 (尹始永先生洪陽日記)	충남문화재자료 제322호	·홍양일기(洪陽日記)는 윤시영(尹始永, 1855~?)이 홍주 군수로 재임하였던 1906년 5월에서 6월까지 약 40일간의 사환일기, 홍주의병과 관련된 사항 기록
신임일기(辛壬日記)	충남문화재자료 제351호	·신임일기는 윤광안(尹光顔, 1757~1815)이 신임사화(辛壬士禍)에 대한 자료를 모아 편저
유효걸장군 영정·교지 (柳孝傑將軍影幀·敎旨)	충남문화재자료 제362호	·유효걸(柳孝傑, 1596~1627) 장군의 영정 1점과 고문서 3점
순천박씨 공신록 (公州順天朴氏功臣錄) 권2책	충남문화재자료 제375호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순천박씨가에서 소장한 『십공신회맹록(명랑록)』과 『정사원종공신록권(대려록)』 2책임

2. 민속자원 현황

(1) 민속자원의 개요

충청남도지 민속(2010)편에서는 일생의례와 세시풍속, 민간신앙, 생산풍속, 의식주 생활풍속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대표적 유적으로는 은산별신제, 용정리 상여소리, 기지시 줄다리기, 안섬당제, 저산팔읍 길쌈놀이, 신성리 정월달집태우기, 한산 세모시짜기, 내포 영산대제 49제, 탄천장승제, 감사 괴목대신제, 봉현리 상여소리, 계룡산 산신제, 선학리 지게놀이, 해용왕대제, 독산리 독살, 돈암서원 제향, 연산 백중놀이, 윤증고택 장독, 춘포짜기, 설위와 설경, 황도 봉기풍어어제, 태안 청포대 독살, 물폐기 농요 등이 있다. 유적별 기술 내용과 유적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일생의례와 세시풍속

일생의례, 곧 출산의례·혼례·상례·제례 등은 다른 지역의 민속 관행들과 대동소이하지만, 몇 가지의 사항들은 충남 일생의례의 특성이 있다. 세시풍속은 지역마다 다양한 전통의 삶을 담고 있으며, 절기, 생업(농업, 어업, 기타), 의례와 행사, 점풍·제약·주술·금기, 축제와 놀이, 의식주 등의 분야가 있다.

• 정월대보름

구분	명칭	지역	내 용
정월 대보 름	십이지일 (十二支日)		일레로 쥐날(子日)에는 쥐불을 놓으며, 소날 (丑日)은 점잖게 일하는 날이라 하여 하루 쉼 토끼날(卯日)에는 여자들이 돌아다니면 넘어진다고 하며, 첫 용날(辰日)이 꺾으면 한해 동안 일을 할 때마다 비가 온다고 함
	기지사줄다리기	당진군 기지사리	암·수줄을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각각 대항하여 다리기도 하고, 남자와 여자가 편을 나누어 당기기도 함
절기	귀신날	태안군 태안읍	·시기 : 정월 14일 ·귀신닭날·귀신단지날·귀신달기날 등으로 부르고 외출하면 귀신이 붙는다고 하여 바깥출입을 삼갔다고 함
생업 (농업 , 어업, 기타)	머슴들이기	당진시 송악면 고대리 안섬	·시기 : 보름 전날인 14일 ·고공(雇工) 인력인 머슴을 새로 맞아 일 년간 계약하는 것
	소 고뺑이 드리기	천안, 홍성, 금산	·보름날이 되면 동네 일꾼들이 이곳저곳 소가 있는 집에 모여 그해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 중 특히 고뺑이(고뺑)·쟁기줄·씨레줄 등 소를 부릴 때 사용할 동아줄을 만든다
	주대 드린다	천안, 예산	
	또아리 틀기	홍성군 은하면 장곡리	
	쟁기줄 만들기	공주시 도천리	
	소줄꼬기	금산 다북리	
	쇠줄드리기	당진고대리	
	뽕줄드리기	천안시 군동리	
	벧가리세우기		·벧가리를 상징하는 대가 쓰러지지 않도록 동아줄 세 가닥을 위부터 바닥까지 늘려서 고정시킨다. 대 꼭대기에는 짚으로 만든 오쟁이를 걸고 그 안에 오곡을 담음.
	벧섬쌓기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보령시 천북면 신죽리,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태안군 태안읍 산후리 ·열나흘날 밤에 집에서 부인들이 오곡밥을 식구들이 먹기 전에 김에 싸서 모판에 쌓아두는데, 이것을

			‘벗섬’이라고 한다. 가을에 쌓아두는 벼섬을 상징하는 것이다. 벼섬을 많이 쌓아둘수록 오는 가을에 벼섬을 많이 거둘 수 있다는 풍년 기원의 의미가 있음 · 벼섬고랭이싸먹기
의례 와 행사	안택굿 (집안위하기)		안택이란 말 대신 ‘집안 위하기’라고 하면서 무당을 부르지 않고 집 주인이 직접 안택고사를 지냄
	지신밟기		· 각 가정에서는 집안에 들어온 잡신을 쫓고 무사태평을 기원하기 위해 고사반(告祀盤)을 차리고 풍장패를 기다림
	홍수막이	서산시 인지면 야당리	· 지신제와 홍수매기를 겸해서 대동으로 함
	도구지지미	천안시 수신면 해정리 엄정말	· 열하루부터 열사흘까지 동네 남자들이 주동이 되어 각 가정을 돌면서 터를 다지는 행사
	절구공이를 마당에 콩콩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 열나흘날 밤에 부녀들이 집안 액을 쫓기 위해 절구공이를 마당에 ‘콩콩’ 찢음
	기세배		· 기합례 (旗合禮)
	풍어제	보령시, 태안군, 당진시	· 보령시 삼시도, 호도, 태안군 소원면 신덕리, 당진군 송악면 안섬 · 뱃고사
	굴 부르기	보령시 삼시도, 서산시 굴도	· 보름날 밤 만조 때 부녀자들만 포구에 모여 제사를 차려놓고 비손을 하던 것
	독살고사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	
점풍· 제액· 주술· 금기	콩불이	천안,공주, 청양, 부여, 금산 등 내륙지방	· 정월 열나흘날 저녁에 치는점 콩 열두 개에다 각각 열두 달을 표시하여 수수깡 속에다 넣고 묶어 우물 속에 빠뜨린 다음 이튿날인 보름날 새벽에 그것을 꺼내 보아 콩이 물에 붙어 있는 정도에따라 해당하는달에 홍수 피해가 있을지 가뭄 피해가 있을지를 점쳐 보는 방식
	보리뿌리점	충남 전역	· 공주·논산·서산·천안·금산·당진·부여·서천 등 충남 전 지역에 고루 나타남 · 엄나무매달기, 복조리사서 매달기, 간수병 매달기, 복엿먹기, 세가지 봄나물 국 끓여먹기
	디디기 방아찜기	서산시 음암면, 해미면, 태안군 근흥면	· 보름날 새벽에 “노래기도 생기지 말고, 구더기도 오지 말고, 뱀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절구공이로 집안 곳곳을 찜고다님
	노래기침주기		· 미리 꺾어놓은 솔가지를 지붕 위에 올려놓아 노래기라는 벌레를 쫓는 예방술
	허새비		
	목사리해주기	아산, 예산, 당진 및 금산	· 보름밤에 왼새끼를 꼬아 복숭아가지와 함께 소의 목에 걸어주는 것
	목서리해주기	서천군 기산면 산정리	
	개 목걸이 해주기		
	노두독놓기	서천군기산면,논산시상	· 개울 건널 때 밟고 갈 수 있게 징검다리 로 놓은

		월면, 금산군복수면	돌의 의미로 쓰임
축제 와 놀이	갈쟁이 놀이	태안군 태안읍	갈쟁이는 여자들이 두 패로 나뉘는 다음 금을 그어 경계를 짓고 서로 밀거나 당겨 상대방을 금밖으로 밀쳐내서 승부를 짓는 놀이
	춘향아씨 놀리기		정초에, 또는 보름 경이 되어 한가해지면 주로 10대의 처녀들이나 새색시들이 모여서 그 중 한 사람을 술래로 뽑아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있도록 한 다음 옆에서 “춘향아, 춘향아 나이는 16세, 일은사월 초파일, 우리와 함께 놀아보자”라는 내용을 주문처럼 반복하여 외우면 신이 실렸다고 하면서 모은 손을 벌리고 일어나 춤을 추기도 하는 신내림 놀이
	꼬대각시 놀이	예산·당진·태안·홍성·부여	꼬대각시는 조실부모하여 어렵게 살다가 고자를 남편으로 맞이한 한 많은 색시라고 한다. 꼬대각시의 슬픈 인생을 노래하는 도중 도토리나무 가지를 두 손에 쥐고 있던 술래에게 신내림 현이 일어나면 문을 열고 밖으로 밀어 정신을 차리게 함
	달집태우기	청양군, 부여군, 금산군 일부지역	마을 청장년들이 중심이 되어 소나무나 참나무를 벌목하고 여러 잡목을 꺾어다가 마을입구나 논 가운데에 원추형으로 달집을 만들고, 달이 떠오르는 시점에 불을 놓음
	용알뜨기		가장 먼저 물을 뜨면 그 해에 농사 장원이 됨
의식주	김쌈먹기		정월보름날 흰쌀밥의 찰술을 반드시 김에 싸서 먹으면 이를 김쌈먹기라 함
	복쌈		복을 먹는다 하여 복쌈이라 함

● 봄(음력 1월, 3월)

구분	명칭	지역	내 용
절기	개구리알먹기	공주, 청양, 부여	
	면례(緦禮)		·한식날 공주지역 등 여러 곳에서 이 날은 어떠한 일을 해도 탈이 나지 않는다고 믿음
생업 (농업 어업, 기타)	머슴날		·시기 : 2월 초하루
의례 와 행사	벚가리내리기		·시기 : 2월 초하루 ·초하룻날 아침식사를 마친 후 마을 사람들이 풍장을 치면서 세워둔 벚가리 앞에 모여 술 한 잔을 올리며 시작됨. 벚가리를 쓰러뜨린 다음에는 그 자리에서 한 바탕 풍장을 친 후 각 가정을 돌면서 풍장을 쳐줌
	잣간에 모심기	예산 삽교읍 하포리	
	머슴설날	서산	·시기 : 2월 초하루

			·머슴명절
	콩볶아먹기	당진	·시기 : 2월 초하루 ·옹대기내리기, 주대드리기
	콩볶기	홍성	·콩 또는 오곡을 볶는데 이때 짚을 잘게 잘라 넣고 콩을 볶으면서 “콩 부르테, 짚 부르테”라고 외친다. 콩 밭에 두더지 피해가 없도록 미리 방지하는 술수임
	벗고사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처음으로 소금을 구울 때 지내는 제사
축제 와 놀이	삼진날 화전놀이		·시기 : 3월 삼진날 ·부녀자들이 삼월에 산에 진달래가 많이피는데 싱싱한 진달래를 따서 찹쌀을 넣어 동게 부친 부침개 위에 얹는 부녀자들의 야외놀이
	풀각시 만들기		·시기 : 3월 삼진날 ·여자아이들이 각시풀이라면 그것을 뜯어서 인형을 만들어 노는 것
	이월밥 해먹는날		·시기 : 3월 삼진날 ·이월할머니를 위한 이월밥을 해먹는 날

● 여름(음력4월, 5월, 6월, 7월)

구분	명칭	지역	내 용
생업 (농업, 어업, 기타)	씨레부심		·모내기를 마친 후에 씨레를 깨끗하게 닦아서 보관한 후 갖는 행사로 씨레씻이'라고도 함
	밀국수천신		·시기 : 유두일 ·햇밀로 국수를 만들어 장광의 터주와 마루의 성주 앞에 한 그릇씩 퍼서 올리는 것임
	유두 물꼬고사		·시기 : 유두일 ·특별한 형식 없이 떡을 들고 논으로 가서 물꼬 밭과 논둑 밑에 한 덩이씩 놓아두는 것
	호박 때리기	금산, 연기, 예산, 홍성	·시기 : 복날, 유두일 ·유두날 해가 뜨면 곧바로 삼대나 막대기를 들고 호박밭에 나가서 호박을 툭툭때리면서 “많이많이 열려라, 마디마디 열려라.”
	논둑제	서해안지역	·칠석이 되면 김매기 등농사일이 대강 끝나는데, 이렇게 해두면 칠성님이 올라가시면서 보고 부지런함을 칭찬하여 그 해에 나락이 많이 열리게 해줌
	백중날 행사		·시기 : 7월
	칠석두레먹이		
	백중장		·생일, 또는 휴가를 즐기려는 일꾼과 머슴들이 돈을 푸는 장 ·회계닭날-서산
	복달음, 월복	충남전지역	
의례 와	단오차례		·시기 : 5월 ·사대부종가에서 지냄, 대보름차례와 같음

행사	유두차례		·시기 : 6월 ·유두천신, 밀을 수확할 때라 밀국수를 준비하는데, 콩국물을 넣은 밀국수를 만들고 주과포를 준비
	농신제		·자기 논에 두더지가 사라지고 논두렁은 무너지지 말고 바람이 불어도 벼가 쓰러지지 말라는 기원
	참외제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보령시 웅천읍 노천리	
	원두제		·참외 등 여름작물이 잘 자라게 해달라고 비는 원두제
점풍·제액·주술·금기	단오		·시기 : 5월 ·상추에 내린 이슬을 받아 거기에 분가루를 개어 얼굴에 바르면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함
	썩은 달(6월)		·시기 : 6월 ·6월은 액달, 또는‘썩은 달’이라 하여 농사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특히 숨을 만지거나, 이불 빨래를 하면 좋지 않음
	칠석날 (머슴명절)		·시기 : 7월 ·해가뜨기 전에 논에 나가지 않음
축제와 놀이	등바루놀이	서해안 장고도, 안면도, 간월도, 고대도, 원산도	·시기 : 음력4월 ·섬마을과 해변에서 처녀들 사이에 전승되는 놀이로 두 패로 나뉘어 어느 한 편이“굴아! 조개야!”하고 외치면 다른 편에서 이를 받아“굴아, 조개야!”하고 반박하여 소리를 지른 다음 모래를 한 주먹씩 집어서 바다를 향해 던짐
	등불써기놀이		·시기 : 음력 섬달그믐 ·일종의 풍어놀이, 도서 지역의 청소년들
	모시두레	부여, 서천	·시기 : 7,8월경 ·부여·서천 등지에서 7, 8월경에 각 마을의 여자들이 한 무리를 이루어 매일밤 모시를 짜면서 노는 세시풍속
의식주	약쑥캐기, 익모초줍내기		·시기 : 5월단오 ·충남전역에서 행해짐
	보생이떡	천안, 서산, 해미 등지	·시기 : 5월단오 ·이 떡을 먹으면 여름에 땀띠가 나지 않고 더위를 이길수 있다
	밀국수와 기름떡		·시기 : 유두일 ·유두일에 먹는 음식

• 겨울(음력 10월, 11월, 12월)

구분	명칭	지역	내 용
절기	손돌이추위		·시기 : 10월 스무날, 소설 ·10월 스무날은 다른 날보다 유난히 춥다하여 손돌추위, 손돌맹이추위, 손돌이 추위등으로 불림

의례 와 행사	갈떡고사		가을 떡고사, 토제 지낸다.” 라고 하는 곳도 있고, “가을 배끼 한다.” 라고 하는 곳도 있음
	첫무리 찌기	청양군 정산면	
	정반차례	아산, 보령	·시기 : 설달 그믐 ·설달그믐 자정 무렵에 지내는 제사
점풍· 제액· 주술· 금기	고드름 보기	예산, 홍성, 공주	·시기 : 음력 11월 이후 ·겨울로 들어서는 11월 이후로 고드름점 ·눈점 등 여러 방식으로 내년 농사의 흉풍을 점침
의식주	지붕이영여기		·지붕이영을 엮음
	칠물이떡	공주시 반포면	
	가을배끼	서산	
	예풍날	예산군 덕산면, 청양군 정산면	·설달그믐에 시루떡을 찌먹는 풍속은 예산군 덕산면의 사례에 나오고 청양군정산면에서는 왕골 자리를 새로 깎다고 함

• 윤달

명칭	지역	내 용
윤달		·군달, 공달, 군색드는 달, 윤색드는 달, 궁색드는 달
줄다리기		·윤달이 드는 해에 줄다리기를 실시
기지사줄다리기	당진시 송악면 기지사리	·중요무형문화재 제75호
병천리줄다리기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1940년대 후반에 중단되었는데 아우내 문화원에서 1996년에 복원하였고, 그 후로 단오제 행사의 일환 이 되어 지금껏 이어지고 있음

② 민간신앙

충남의 민간신앙에는 마을신앙과 가정신앙, 무속 등이 있다.

• 마을신앙

구분	명칭	지역	내 용
마을 신앙	동제(洞祭)		·음력 정초(正初)와 시월(十月)에 행해짐 ·음력 정초의 동제는 신년제(新年祭)의 의미가 강함
	은산별신제	부여군 은산면	·무속식 이동형 제의의 잔영(殘影), 은산별신제의 행렬이 길방(吉方)의 산에 이르러 일종의 신목(神木)인 진대를 베어오는 과정은 서낭대를 모셔오는 절차와 거의 유사하다. 다만 은산별신제의 경우 참나무에 신이 내리는 강신(降神)의 과정이나 그에 따른 상징성은 매우 희박하거나 아예 없는 듯이 보이기도 함

비 일상적 마을 신앙	농바우꼬시기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기우제의 한 방법
	디딜방아 뱅이		·돌림병막이 ·천연두나 홍역 같은 돌림병이 돌면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강구된다. 그 대책 가운데 하나가 다른 마을의 디딜방아를 한 밤중에 몰래 훔쳐 와서 제사를 올리는 일
성소와 신앙대 상물	논산 대명리 산신제	논산시 대명리	·산신당
	부여 은산면 장승제	부여군 은산면	
	장승치기	공주 탄천면 소라실	·해마다 마을의 안과태평을 위해 서 정월 보름날 제사를 모시고 있음
	공주 탄천면 장승과 숫대		·짐대(숫대의 총청도 말)

• 가정신앙

구분	명칭	지역	내 용
가정 신앙	항월리 터주	논산 항월리	·터주·지신(地神)·당산(堂山) ·안방이나 마루
	어제리 터주	금산 어제리	
	장벌리 성주	부여 장벌리	·성주·조상·삼신
	중리 성주	아산 중리	
	상왕리 조왕	공주 상왕리	·조왕
	백석포리 삼신주머 니	아산 백석포리	·삼신(産神)
	논산 대명리 칠성	논산 대명리	·칠성(七星) ·자손의 수명장수와 복록(福祿)을 관장하는 신령
		금산과 대전 일부	·이월할머니 ·음력 이월에 초하루에 내려왔다가 보름날 또는 스무날에 올라간다는 이월할머니를 모심, 영동할머니, 풍신할머니
	왕신(王神)		·왕신(王神)은 올바른 죽음을 겪지 못하여 조상이 되지 못한 귀신으로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각종의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왕신을 위하는 것
집안의 화평을 위한 정기적 의례	명절 및 보름차례 (성주차례)	서천, 보령, 부여, 청양, 공주, 논산, 금산	·안방에 조상과 성주를 위한 상을 마련해두고, 당산에도 치위에 제물을 진설하고 당산제를 지냄
	정월떡		·정월떡, 정월시루, 농사시루 등
	그 외		·이월할머니 위하기, 모밥 내갈 때 성주 위하기, 유두고사, 참외제·오이제, 칠성제, 햇곡천신(薦新), 가을떡, 안택(安宅), 동지 팔죽제, 뱃고사
정초의 제액	거리제		

(除厄) 을 위한 의례	서낭제		
	요왕제(龍王祭)		
급환 (急患) 을 치료 하기 위한 의례	고랭이배상	태안	·해물리기와 잔밥 먹이기 ·아이가 홍역을 앓게 되면 손님마마를 대접하는 의례를 베풀음
	짚신받이, 짚신아바지	서천	·환자가 발생하면 짚신에쌀 · 고추 · 된장 등을 담아서 싸리문 밖에 내다 놓음
	태세치기	태안	·동토잡기와 주당잡기 ·한 가정의 동토를 마을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나서서 잡아줌
	옹궁수배 배송	태안	·바다에서 배가 난 파한 후에 떠밀려온 물건 등을 주워서 집에 오면 갑자기 식구가 아플 수 있으며 법사가 수배상을 차려놓고 축사경을 읽어서 수배를 내쫓음
재살 (災煞) 을 풀고 막는 의례	삼재풀이		
	주당맥이		·살풀이
	살풀이	금산 신동리	
마을신 앙과 관련한 가정의 례	지신밟기		·상쇠는“잡귀잡신은 몰아내고, 명(命)과 복(福)은 들이자!” 라든지, 또는 “잡귀잡신은 몰아래로, 천행만복(天幸萬福)은 이집으로!” 라는 등의 축원을 해줌
	마집시루		·가정에서 산신을 맞이하는 떡시루
	당맞이 고사		·당맞이 고사 ·당산신(堂山神)의 가호(加護)를 집안의 어로(漁撈) 성공에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행해짐

● 무속

구분	명칭	지역	내 용
무구	설위설경	태안군	·충남지역 앓은곳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무구는 경청(經廳)을 장식 하는 종이무구
앓은곳	안택굿		·가내 안정과 화평을 비는 굿, 법사는 경문을 구송(口誦)하고 여러 제의를 행함으로써 사중팔신(舍中八神)과 조상께 가족들의 소망을 기도(祈禱)하고, 청원(請願)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혹여 서운하거나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정상화시켜서 집안을 안정시킴
	부정풀이		·법사와 기주 식구들이 저녁식사를 마치면 법사는 북과 양판을 들고 조왕으로 가서 부정을 푸는 것으로 안택을 시작

	조왕경		·부엌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음식을 조리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독경은 항상 부엌에 있는 조왕 앞에서 시작됨.
	당산경		·법사가 부엌에서 조왕경을 마치면 장광 혹은 장독대로 제물 일체를 그대로 옮겨서 터주와 칠성을 위함
	성주경		·조상경·삼신경
	성 주 대 가 림 과 성주받기		
	내전		·내전은 안택을 하는 동안 따라왔던 여러 신령 및 잡신들을 집 바깥으로 배웅하는 것이다
	병경	태안군 소원면	·귀신이 탈을 일으켜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환자가 발생하면 법사들이 독경을 하여 귀신을 내쫓음
얹은 굿 법사	김요천 법사 (1912~2008)	부여군 은산면 장벌리	
	장세일 법사 (1932~)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	

③ 생산풍속

생산풍속은 농업과 어업으로 구분하며, 일부 수공업생산에서 농업부문의 농기구생산을 포함하였다. 농업과 어업의 공동적인 것은 어법·농법과 어로도구와 농기구 등뿐만 아니라 농작물에서 일반 농작물과 특용작물생산 등이 있다.

● 어업생산풍습

구분	명칭	지역	내 용
어법	어살		·삼과 대로 만들어 발을 쳐서 잡던 살, 처음에는 대나무 등을 가지고 막았으나 나중에는 그물을 쓰게 됨
	독살	태안반도, 비인만 일대	·돌을 쌓아서 만든 살
	주목망	녹도	·새끼로 만든 주목망(注木網)으로 긴 말장을 세우고 그 사이에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방식
	주박(柱粕)	주목망의 충남지역 언어	·청어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조기를 잡기 위하여 물밭이 많이 가는 곳에 주목망을 매었음
	중선배 안강망		·중선배라고 하여 안강망을 사용해서 칠산바다에서 참조기·갈치를 잡았음중선배 안강망
	건강망		·건강망(建岡網)은 조간대의 조류 이동을 이용하여 그물을 말뚝에 정착해 놓은 상태에서 고기를 잡는

해역의 어법과 어로 도구 사례	낭장망		전형적인 서해안 조간대어법 ·주목망과 똑같은데 단지 말목만 없음
	저인망		·배가 이동하면서 글자 그대로 밑으로 훑어서 고기를 살살이 잡아나가는 방식이다.
	삼중망		·육지의 강에서 펼쳐놓고 고기가 그물에 걸려들게 하는 축고 같은 그물
	뜯그물(유자망)		·그물을 물길 따라서 흘린후 물이 6시간마다 바뀌는데 4시간 정도 지나서 건음뜯그물(유자망)
	덤장		·동그랗게 가두리식으로 만들어 아래를 넓고 크게 하여 추를 달고 고기가 들어오면 덤장 자체를 번쩍 들어서 모조리 잡아들이는 어법
	통발		·통발로는낙지·게·우럭·놀래미·꽃게 등을 잡음
	주낙		·긴 장줄에 1m 간격으로 낚시를 매다는데 300m에 300개의 낚시 바늘을 매단
	가두리		
	머구리	태안 안흥항	
	맷돌포	당진시 신평면 부수리	·아산만의 어법의 특징을 알려주는 귀한 사례(목그물 혹은 갈그물 사용)
	성구미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어업이 왕성한 포구이며, 주요 어법은 ① 독살, ② 살, ③ 낭장망(돼지그물), ④ 목그물과 갈, ⑤ 사들과 부게, ⑥ 주낙, ⑦ 장어작살
	안섬	당진시 송악면	·① 살, ② 중선망 등
	안섬내도리 퐁어긋	당진시 송악면 고대리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3호 ·마을의 안녕과 퐁어를 기원하는 퐁어긋의 한 형태
	꽃동산 마을	당진시 석문면 오지리	·① 살, ② 돌살, ③ 그물, ④ 조개잡이 등
	의항리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다수의 돌살 형성이 형성되었으나 1970년대 후반 소멸됨, 전반적으로 어종의소멸과 더불어 어업이 축소
	신진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	·① 돌살, ② 대발, ③ 후리그물, ④ 삼중망, ⑤ 낭장망, ⑥ 주낙, ⑦ 통발, ⑧ 가두리, ⑨ 해녀 물질 등이다
	안흥항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고려시대나 조 선시대에 중국 사신이 입출항한 서해의 영빈소로 사신이 내왕할 시 무사히 항해하도록 빌었다는 후망봉이 있음
	안면도	태안군 안면읍	·안면도의 주요 어법은 ① 연안통발, ② 주목망, ③ 낭장망, ④ 조망, ⑤ 주낙, ⑥ 가두리 등
	황도	태안군 안면읍 황도	·국사봉이 있는 창기리에서 천수만으로 뻗어 내린 섬으로 80년대 중반에 연륙되었으며 주요 어법은 ① 안강망, ② 살, ③ 고동주낙 등이다.
	간월도	서산시 부석면	·① 안강망, ② 살, ③ 삼중망, ④ 가오리주낙 등
	원산도 선진마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① 미역채취, ② 작살, ③ 머구리, ④ 어살, ⑤ 개

	을		막이 그물, ⑥ 주목망, ⑦ 덩장, ⑧ 낭장, ⑨ 연안안강망, ⑩ 삼중망, ⑪ 유자망, ⑫ 저인망, ⑬ 토망, ⑭ 주낙, ⑮ 통발 등
	원산도 을	보령시오천면원산도	·① 살, ② 주목망, ③ 낭장망, ④ 이강망, ⑤ 통발 등
	녹도	보령시 오천면 녹도	·① 살, ② 주목망, ③ 연안안강망, ④ 주낙, ⑤ 잠수일
	외연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	·① 덩장, ② 주목망, ③ 통발, ④ 주낙, ⑤ 채낚기, ⑥ 후리, ⑦ 삼각망, ⑧ 머구리 등이다
	모래터	서천군 송림리 모래터 (모래리)	·① 독살, ② 개막이, ③ 조개채취, ④ 새우잡이, ⑤ 시라시잡이 등

● 농업생산품습

구분	명칭	지역	내 용
물에 따른 논의 구분	천수답		·물이 없는 논으로 고답 · 건답 · 하늘바래기 · 하늘밭이 · 봉천지기 · 한답이라고도 부름
	수답		·물이 잘 나오는 논으로 고래실논, 샘논이라고도 함
	수령논		·지표가 낮고 물이 많은 논으로 둑병배미, 구렁배미, 진논, 깊은 논이라고도 함
	엇답		·물이 나오는 정도가 중간수준인 논
모양 새에 따른 논의 구분	멍에논		·소의 멍에 같이 생긴 논. 멍에처럼 휘어짐
	삿갓논		·삿갓아이 생긴 논으로 갓모배미라고도 함
	두멍논		·둥근뎡이, 둥근 형태의 논
	장대논		·장대같이 기다란 논으로 장대배미·긴논·진논·진배미·실거리라 부름
	메물논		·메밀국수가락처럼 세모진 논
	장구배미		·장구처럼 양쪽이 퍼지고 가운데가 오목한 논
	반달배미		·반달처럼 초승달 형상을 지닌 논
	보십배미		·삼각형으로 생긴 논
	뱀꼬랑지논		·뱀같이 길게 생긴 논뱀꼬랑지 논
기타 구분	갈치논		·갈치처럼 긴 논
	개간답		·강변 모래밭의 논을 막아서 심는 하답
	간석답		·간척지의 논으로 염기가 올라오므로 하답으로 침
	넓은배미		·넓은 들판의 논
농기구 이용 관행과 농기구 풍습	들논		·넓은 배미에서 약간 높은 논
	짚호미 만들기	논산시 채운리	·나무로 만들면 물에 미끄러지는 탓으로 논매기 호미는 반드시 짚으로 만든 것
	대장장이	공주시 계룡면 구왕리 용산마을	·공주시 계룡면 구왕리 용산마을

	야철지	계룡시 두마면 왕대리	·김국광 묘소에서 동북방향 100미터 지점에 약 15 평 정도되는 야철지가 있음
--	-----	-------------	---

④ 의식주 생활풍속

의식주 생활풍속과 음식에는 민속조사에 나타난 의생활 풍속과 조선시대의 음식문화와 민속상의 음식문화 등 충남 식생활 풍속의 특징, 전통주거 건축과 마을의 공간과 주생활, 민가의 주생활 등이 있다.

• 의생활 풍속

구분	명칭	지역	내 용
의생활	저포칠처(紵布七處)	서산, 홍산, 비인, 임천, 정산 남포	
	저산팔구(苧山八區)	서산, 홍산, 비인, 임천, 정산, 남포, 부여	
	춘포(春布)		

• 식생활 풍속(조선시대 음식문화)

구분	지역	명칭	내 용
장시	내포 권역	장시 와 판매 물목	보령 읍내장, 대천장, 응암장, 수영장 ·쌀, 소금, 생선, 생전복
			결성 성내장, 성외장, 광천장, 대리장, 덕우리 장 ·쌀, 조기, 청아, 민어, 굴, 소금, 찹
			해미 남문내장, 서문내장, 서교장, 모미장 ·쌀, 대하, 오징어, 소합, 탕자
			태안 읍내장 ·쌀, 김, 낙지, 소합, 굴, 소금
			서산 성내장, 성외장, 평촌장, 취포장, 방길리장 ·쌀 젓갈, 오징어, 낙지, 뱀탕이, 농어, 청어, 대하, 굴, 숯, 독미어, 김, 처태하, 자하해, 소금, 감, 방, 연초
			면천 읍내장, 필근천장 ·쌀, 붕어, 소금, 약썩
			당진 읍내장, 삼거리장 ·쌀, 생선, 소금, 약썩
			아산 읍내장, 두장, 둔포장, 곡교장 ·쌀, 황석어, 준치, 송어, 중화어, 감동해, 소금, 무, 약썩, 꿀
			홍주 읍내장, 대교장, 백야장, 두산장, 수전장, 감장 ·쌀, 대두, 보리, 수수, 좁쌀, 생전복, 준치, 황석어, 소, 송아지, 포석, 연초
			덕산 읍내장, 봉종장, 삽교장, 대천장 ·쌀, 생선, 소금, 토기, 연초, 마초, 완석

			예산	읍내장, 신례원장, 입석리장	·쌀, 대두, 소, 송아지, 면화, 연초
			신창	읍내장, 선장장	·쌀, 황석어, 홍시, 약썩
			천안	읍내장, 풍서장	·쌀, 호두, 연근
			목천	병천장	·쌀, 대두, 소금, 목기, 토기
			온양	읍내장	·쌀, 송어, 조기, 독미어
	서천 권역	장시	비인	읍내장, 종천장, 판교장	·쌀, 소금, 조기, 민어, 독미어, 꿀뚜기, 소합, 김, 저포
			남포	대천장, 간치장	·쌀, 청어, 은구어, 굴, 독미어, 조기, 상어, 김, 소금, 소, 송아지, 저포, 연석
			청양	장대리장, 두암리장	·쌀, 대두, 연초
			임천	읍내장	·쌀, 광어, 민어, 청어, 조기, 저포, 연초
			한산	읍내장, 신장, 장등장	·쌀, 교침채, 준치, 민어, 뱀어, 웅어, 소곡주, 저포
		음식	서천	한산 석박지	·석박지는 1700년대 말부터 1800년대 말까지 약 100년 동안 궁중에서부터 일반 서민 모두가 가장 애식하는 김장김치의 위치를 차지, 『규합총서』에 한산 석박지를 소개
			서천	한산소곡주(小麴酒)	·소곡주는 조선전기에 이미 전국 반가에서 제조하던 가양주로 등장한다.
	강경 포 권역	장시	노성	읍내장	·쌀, 대두, 생계, 홍시
			은진	읍내장, 저교장, 논산장, 강경장	·쌀, 대두, 민어, 조기, 청어, 송어, 준치, 독미어, 북어, 해채류, 소, 송아지, 연초, 면포, 마포, 유기, 토기, 철물
			부여	읍내장, 은산장	·쌀, 뱀어, 웅어, 은구어, 소, 송아지, 연초, 면포, 저포
			회덕	읍내장, 신탄장, 양천장, 지명장	·쌀, 홍시, 무(蘿)·면화
			진잠	개수원장	·쌀·닥나무(楮)·연초
			공주	공주장시	·조선의 3대 시장으로 꼽힘
			공주	공주 약령시	·1970년경에 생긴 공주약령시는 음력 3월과 11월에 한 달 동안 열림, 감영으로 모이는 약재 중에서 좋은것은 진공하고 나머지는 일반에 판매되는 구조에 의함
		음식	논산	민물게장	·노성의 논에서 잡은 민물게에 맛있는 간장으로 담은 노성게장은 노성을 대표하는 명물
			논산	명태장아찌	·논산 강경주변 ·북어로 장아찌를 만들어 먹었다
			부여	먹조개국	·부여 백마강

			부여	묘삼나박김치	·먹조개가 많이 잡힘 ·부여 백마강 ·묘삼, 오이, 실고추로 담금
각공(各貢)과 음식문화				섞박지	·1815년 ·채소를 재료로 해서 만든 김치류
				말장	·메주
				산사말장 (山寺末醬)	·당나라 때
				백설고(白雪)	
				복령조화고 (茯苓造化)	·백복령·연자·서여·검인 각 4냥을 가루로 만들고 엿쌀 2되를 가루로 만든 후에 설탕 1근과 함께 이들을 전부 섞은 다음, 시루에 넣고 죽도(竹刀) 로 끊어서 편자(片子)를 만들어 베보자기로 시루 를 덮고 찜. 익으면 꺼내어 말려 가지고 임의로 먹는다는 것임
민속상의 음식문화	일상 음식	당진	면천 두견주		·당진시 면천면 두견주

● 주생활 풍속

구분	명칭	지역	내 용
주택	장옥형주택	논산시 강경읍 홍교리	·일본의 장옥(長屋)과 유사한 2~3호 연립 형태 로 한 면을 점포공간으로 배치한 상점주택
전통 마을	외암마을	아산시 외암리	·조선시대 ·예안 이씨 집성촌, 맹씨행단(孟氏杏壇)이 위치
	어죽		·중태미(버들치의 방언), 미꾸라지, 피라미, 구 구락지(동사리의 방언), 빠가사리(동자개의 방 언), 메기, 붕어 등을 넣고 고추장을 풀어서 쌀 을 넣고 끓이면 어죽이 됨
	윗신수마을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조선시대 ·계룡산 주변 주요 사찰 중의 하나인 구룡사가 있던 자리에 임진왜란 후 마을이 조성
	윗뜸, 아랫뜸		·공동우물을지나는횡축을기준으로남쪽을아랫뜸, 북쪽을윗뜸이라 함
	고살		·고살이라고 부르는 막다른 짧은 골목을 진입 동 선으로 공유
	동자북마을	서천군 한산면 동산리	·약 200년 전 경주 최씨들이 들어와 조성되기 시작했으며, 1880년대의 주택부터 최근의 주 택까지 다양한 시기의 주택들이 분포하는데, 이 것들을 통해 전통주거가 자생적으로 근대화해 온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음
	큰뜸, 작은뜸, 구 석뜸		

3. 전통예술 현황

(1) 전통예술의 개요

충청남도지 전통예술(2010)편에서는 전통음식, 전통회화, 서예, 전통공예, 전통조각, 전통무용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대표적 유적으로는 공주 송산리 고분군 출토 기대, 부여 금성산 출토 벼루, 사이부 장경호, 부여 군수리 유적 출토 호자, 공주 수촌리 유적 출토 금동관, 서산 부장리 분구묘 출토 금동관모,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구, 백제 금동 대향로 5악상, 부여 능산리 고분 사신도, 기마도강도(이제현), 금궐도(조속), 묵죽도(이정), 세한도(김정희), 묵란도(김정희), 김정희 화법서세, 몽유도원도(안견), 윤중초상, 분청사기, 갑사 삼신불괘불탱, 신원사 노사나불괘불탱, 수덕사 운룡도, 서산 박첩지놀이, 판소리 공연(박동진), 승무 예능보유자 심화영, 서천 부채장, 보령 남포벼루 제작 등이 있다. 유적별 기술 내용과 유적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전통음악

충남의 전통음악은 백제시대의 음악과 악기, 백제시대의 혼이 전승된 노래, 고려시대의 음악, 조선시대의 음악 등이 있다.

● 백제시대의 음악

구분	명칭	시기	소재지	내 용
백제 8현금	양이두(羊耳頭)	백제	국립공주박물관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반 경 부여왕조 ·백제 8현금은 오늘날 풍류가야금의 원형일 것으로 추정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부여능산리출토	·백제음악문화와관련된여러가지단서를제공 (5악사상(현악기비파,관악기세로부는적,다관악기배소,현악기箏),타악기북)
	홍성 모심기소리,	백제		
	태안의 노젓는 소리	백제		
	고기 푸는 소리	백제		
	고취악(鼓吹樂)	통일신라		·백제가 신라에 병합된 뒤 문무왕 4년(664) 성천(星川)과 구일(丘一) 등 28명을 웅진(熊津)부성(지금의 공주)에 있는 당나라 군영에 보내어 악을 배우게 하였다는 『고려사』 악지의 기록
백제	부여 산유화가	백제		·용머리를 생각하면 구룡포에 버렸으니 슬

유민(遺民) 의 노래				<p>프고나 어화벗님 구국충성 못 다했네'라는 구절과'입포에 남당산은 어찌 그리 유정턴고 매년 팔월 십육일은 온 아낙네 다 모인다'등에서 패망 후의 내용</p> <p>·긴모심기소리(긴산유화가), 잣은 모심기 소리(잣은 산유화가), 김매는 소리로 긴 김매기소리(덩어리소리), 잣은 김매기소리(어화덩이), 벼을 바수는 바심소리 (타작소리), 벼부치기소리(나비질 소리), 벼살기소리</p>
----------------	--	--	--	--

• 고려시대의 음악

구분	명칭	시기	소재지	내 용
고려시대	팔관회		부여군 은산면	·팔관회(은산별신굿 중에서)

• 조선시대의 음악

구분	명칭 및 이름	시기	소재지	내 용
줄풍류 현악 영산회상	풍류방	조선 시대		·음악모임을 갖고 발표회를 마련하는 모임으로 줄풍류의 악기편성은 일반적으로 거문고, 가야금의 현악기가 기음(基音)을 맡고, 세피리·대금·장구에, 고음(高音)을 잘 내어맞게 하는 단소(短簫)와 양금(洋琴)을 곁들이게 됨
	서산풍류			·심정순의 생질(甥姪)이며 후에 가야금 산조의 명인이기도 한 심상건 풍류방에서 가야금 풍류를 배웠던 일부자료 남아있음
	공주풍류			·공주풍류는 문화재연구소 『향재 줄풍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910년 무렵까지 공주에서 박명환 등 풍류회가 있었으나, 그 뒤에 전승이 끊어졌다고 함
	예산풍류			·일제강점기 때 풍류 한 틀이 있어 오도영·김명진 등이 6·25전쟁 무렵까지 풍류회를 가졌다는 기록이 있음
풍류음악을 기록한 유일한 가야금보	줄장만록(拙庄曼錄)- 줄옹가야금보 (拙翁伽倻琴譜)	조선 시대	대전 시립 연정국악연구 원 소장	<p>·조선시대(정조 20년(1796))</p> <p>·가야금의 옛 악보로 「줄장만록」의 '가야금 수법록(手法錄)'의 내용을 보면 "구름 같은 세상에 그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나보기가 어렵고, 그런 소리도 다시 듣기가 어려움. 그 곡조를 악보로 옮겨, 뒷사람이 보게 하고자 한다. 그래서 통길(pluck, tinkle) 때에손가락 놀리는 법과 줄을 고르는 법 [조현(調絃)], 완금과 고저의 수법을 낱낱</p>

				이 기록함
내포제 시조	부여내포제			·충청남도 지방 무형문화재 (제17호 내포제 예능보유자) 소동규 ·내포제 시조의 음악적 특징은 장식하는 시김새, 강약 조절, 모음의 처리가 2장의 첫 부분인 '소치는' (경제에서는 소오 치이는) 과 종장 첫 부분인 '재넘어' (경제에서는 자 이 넘어) 등 글자 붙임이나 모음을 발음할 때 분리하지 않고, 높은음을 낼 때 가성을 사하질 않아 가곡창법에 가까운 점, 경제 (京制)의 고음 황(黃)을 임(林)으로 내려서 부르며 요성(搖聲)이나 전성(轉聲), 퇴성(退聲) 에서지방색의 가락표현의 차이점
거문고 사조	백낙준(白樂俊)	1876 ~ 1930	논산 출생	·20세 되던 해에 전해져 온 가야금산조를 기초로하여 거문고 산조를 창시, 진양조 15장단, 중모리 67장단, 중중모리 8장단, 엇모리 36장단, 자진모리 119장단의 구성
	심상건(沈相健)	1889 ~ 1965	서산 출생	·가야금 병창과 산조의 명인
	한범수(韓範洙)	1911 ~ 1984	부여군 내산면 울암리	
중고제 (中高制) 충청도 판소리	염계달(廉季達)	순조· 헌종· 철종	예산 덕산	·순조·헌종·철종 3대에 걸쳐 활약 ·헌종(憲宗)의 부름으로 어전(御前)에서 여러 번 소리를하였고, 소리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웃기고 울리는 가경(佳境)에 이름
	방만춘(方萬春)	순조	서산 해미	·당대의 독보적 존재였다고 기록은 전함
	고수관(高壽寬)	순조· 헌종· 철종	서산 해미	·춘향가를 주로 불렀고 염계달의 창법을 많이 모방
	김성옥(金成玉)	헌종· 철종	논산 강경	·진양조를 창시
	최낭청(崔郎廳)	헌종· 철종	청안	·철종의 어전(御前)에서 판소리를 하였다는 기록
	임창학(林蒼鶴)	헌종· 철종	서천 한산	·춘향가에 능하였고, 춘향가 중 '어사출토 더 늙이 유명
	김정근(金定根)	철종· 고종	논산 강경	·「상궁집」의 노래집을 발행했으나 지금은 전해지지 않음
	최상준(崔相俊)	철종· 고종	서천 한산	·흥보가
	황호통(黃浩通)	고종	공주	·춘향가와 심청가를 특히 잘 불려 춘향가의 어사또가 암행하여 민정을 탐문하면서 남원으로 향하는 대목들이 기록함
	박상도(朴尙道)	고종	공주	·적벽가로 한 세대를 날리던 명창임
	강재만(姜載萬)	고종	금산	·고종 때에 활약한 명창임
	김석창(金碩昌)	고종, 순종	충청도	·고종, 순종 때에 활약

	이동백(李東伯)	1866 ~ 1950	서천군 비인면 도만리	·20세기 판소리 근대 5명창 중 한사람, 중 고제 판소리의 마지막계승자임
	김창룡	20세기	서천군 장항면 성주3리	·20세기 판소리 근대 5명창 중 한사람, 김 창룡의 '중고제' 소리 김씨 가문의 대표로 일 컬어지는 계보임
	심정순		서울출생 (서산 풍류)	·율방(律房)을 운영함
	박동진(朴東鎭)	1916 ~ 2003	공주	·대한민국의 판소리 명창임

② 전통회화

전통회화는 청동기시대의 회화, 백제시대의 회화, 고려시대의 회화, 조선시대의 회화 등이 있는데, 이중 조선시대의 회화는 산수화의 작가, 사군자의 작가, 화조화의 작가, 초상화 및 기타, 불화 등이 있다.

• 백제시대의 회화

구분	명칭	시기	소재지	내 용
백제 시대	부여 부소산 절터 발견 벽화편, 새	백제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벽화 고분으로는 공주 송산리와 부여 능산리에 남아 있는데 고구려 고분 벽화 와 주제 및 표현양식에서 유사
	공주 송산리 6호분	백제	공주시 금성동	·사적 제 13호 ·사신도
	부여 능산리 동하총	백제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산 15	·사적 제 14호 ·가장 확실하게 고구려 벽화와 깊은 관련 을 보여주는 고분으로, 화강석과 편마 암을 곱게 다듬어 장방형으로 축조한 굴 식돌방무덤이다.

• 고려시대의 회화

구분	명칭 및 이름	시기	소재지	내 용
고려 시대	안향 상(반신상)	고려 충숙왕 (1318)	충청남도 역사 박물관	·안향(1243~1306)은 우리나라 최초 의 주자학자로, 289년 충렬왕(재위 1274~1308)을 따라 원나라에서 주 자전서』를 필사하여 돌아와 유학진흥에 큰 공적을 남김
	익재 이제현 (1287-1367) 영정	고려말	국립중앙박물관	·우안팔분면으로심의를 입고 공수자세를 취 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전신교의좌상임
	이제현	고려말	국립중앙박물관	·산수를 배경으로 얼어붙은 강을 건너 사

	〈기마도강도(騎馬渡江圖)〉			남을 떠나는 기마인물들을 묘사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가늘고 여린 필선이다.
	이색(1328-1396) 초상	고려말	예산군 삼교읍 누산영당	·보물 제1215-3호
	예산 수덕사 대웅전 벽화	고려말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수덕사	
	운룡도			·여느 그림과는 다르게 금(金)을 사용하였는데 옹의 비늘에 금박을 붙여 마치 구름 속을 날아가는 것처럼 표현하여 입체감을 살리고 있다.
	야생화도			·성전에 받쳐진 수반에 탐스럽게 가득 담겨져 있는 꽃 위로 네 마리의 나비가 날아다니는 장면을 구름전채법을 사용해 그린 벽화이다.
	수생화도			

• 조선시대의 회화

구분	명칭 및 이름	시기	소재지	내 용
산수화의 작가	안견	조선초기	서산시 지곡면	·세종때 왕성하게 활동
	몽유도원도 사시팔경도			·현존하는 조선시대 최고(最古)의 산수화
	조직(1592~1645)	조선중기	서천군	·산수를 잘 그렸으며 벼슬은 좌랑
	산촌의 밤			
	조숙(1595~1668)	조선중기	서천군	
	금계도			·인조의 명령에 의해 국가의 시조설화를 그린 것으로 청록산수화
	김정희(1786~1856)	조선말기	예산	
	세한도(歲寒圖)	1844년		·남종문인화의 높은 경지를 잘 반영
	묵난도(부작난도)			·난초잎들이 마치 구부러지고 꺾어진 듯 직선과 꺾어짐을 서슴없이 구사한 작품
	백희배	1837~?	부여 임천	·산수를 잘 그림
사군자의 작가	현극	18세기	공주시 금성동	·중묘재와 산수를 잘 그림
	박팽년(1417~1456)	조선초기	대전시 동구 가양동 더퍼리	
	설죽도		국립중앙박물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사육신 중 한 사람으로 대나무 그림
	김시습(1435~1493)		부여군 외산면 무량사	
	매화도 8폭			·조선 중기 매화도에서 자주 쓰이는 구성인데 각 폭에 다양한 구도로 매화를 그리는 전통은 고려시대부터 내려져 오는 것임
	유진동(1497~1561)	조선중기	서산	·대나무 그림, 이정에 비해 거칠며 다소 경직된 상태

	이산해(1539~1609)	조선중기	예산군 대술면 방산리	
	매화8폭			·물골법으로 꽃잎을 그리거나 진한 먹으로 꽃받침을 표현한 점, 비백으로 부러진 가지를 그린 후 태점을 찍는 등 조선중기 매화도의 전형적인 모습임
	국화도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을 향하여 엇비껴 늘어져 있는가지에 몇 개의 꽃송이와 잎을 표현했는데 필치가 여리며, 꽃송이는 쌍구로 모두 밑으로 처져 있어 샅갓 모양을 연상시킴
	이정(1541~1626)	조선중기	공주	·산수·인물을 잘 그렸으나 조선 제일의 묵죽명가로 유명함
	묵죽도(1622)			·왼편 하단 바위에서 솟아난 대나무가 포물선을 그으며 위로 뻗고, 원경과 근경의 대나무를 먹의 농담으로 처리해 화면의 깊이를 더함
	조익(1579~1655)	조선중기	예산 신창면	
	청죽도			·왼편에 청죽, 오른쪽에 고죽(枯竹)을 배치한 채색 그림
	매화도			
	유혁연(1616~1680)		서산	·글씨와 묵죽을 잘 그렸는데 묵죽에 뛰어났던 유진동이 고조부
	유덕장(1694~1774)		서산	·조선시대 3대 묵죽화가, 유혁연의 종손
	설죽도			·대나무잎 등이 날카롭고 예리한 것이 특징
	묵죽도			·화면 한 귀퉁이에서 두 줄기의 대통이 뻗어 나오고 마디마디에 예리한 붓끝으로 댓잎을 날카롭게 뻗쳐 마치 선비의 절개를 상징
화조 화의 작가	조속(1595~1668)	조선중기	서천군	·수묵화조화와 묵매 등에서 특히 격조 높은 개성을 발휘하여 조선 중기 이후 이 분야의 대표적 화가
	노수서작도			·나뭇가지 위에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는 까치를 주제로 예리한 시선으로 사생에 기초했고 화면 구성의 묘를 합친 수작임
	고매서작도			·매화 가지에 까치를 얹힌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려지는 소재임
	조지운(1637~1691)	조선중기	서천군	
	매상속조도			·왼편 하단에서 반원을 그리며 팽팽하게 이어진 매화가지와 그 위에 앉아 깊은 잠에 빠진 새 한 마리, 그리고 가는 가지가 끊어질 듯 이어지는 대나무를 그린 그림
초상 화 및 기타 (인물)	성삼문(1418~1456)	조선초기	홍성군 홍주면	·사육신 중 한사람, 포도를 잘 그림
	조희일(1575~1638)	조선중기	부여 임천	·산수와 인물을 잘 그림
	조종운(1607~?)		서천군	·조속의 조카, 서화를 잘 함
	김진규(1658~1716)		논산 연산	·『동국문헌화가편』에서는 산수를 잘 그

				렸다 하고, 『진단인물』에서는 산수와 인물을 잘 그렸다 함
	김보택(1664~?)		논산 연산	·『동국문헌화가편』에 그림을 잘 그려 이름이 났다고 전해지며, 『진단인물』에서는 산수와 인물을 잘 그렸다고 기록
	백은배(1820~1900)		부여 임천	·화원화가
	기려강안도			·나그네가 인기척에 놀라서 날아오르는 물 새들을 보는 순간의 광경을 그린 것
초상 화 및 기타 (작품)	기사계첩(耬社契帖)	조선중기	아산시 배방면 세교리	·보물 제 639호 ·숙종 45년(1719)에 있었던 계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 장면과 초상 등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화첩
	김시습(1435~1493) 초상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보물 제 1497호 ·김시습의 생전모습을 그린 것, 이징(1581~1674)의 작품으로 전하기도 하는 이 작품은 패랭이형 모자를 쓰고 밀화영의 끈을 달고 있는 아복차림의 반신상
	윤증(1629~1714) 초상	숙종 37년(1711)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영구 기탁	·보물 제 1495호 ·이 상은 반신상보다 하부를 울려 잡은 안면 위주의 상으로, 방건에 도포 차림의 좌안칠분면임
	박문수(1691~1756) 초상	영조	천안시 북면 은지리	·보물 제 1189호 ·증가에 전해오는 영정은 대·소 2본이 있는데 그 중 대본은 공신상 초상화의 전형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음
	채제공(1720~1799) 영정	조선후기	부여읍 관북리	·보물 제 1477호 ·도화서 화원 이명기가 그린 것으로 부여의 도강영당에도 한 폭이 위치
	조씨 삼형제상(예산 증가)		예산군	·조민(1740~1813)·조두(1753~1810)·조강(1755~1811) 특이한 화면구성을 보인 초상화로 오사모에 홍포단령을 입은 반신상으로 중앙에 만형, 좌우에 두 형제를 배치
	김정희(1786~1856) 영정	철종8년(1857)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보물 제 547호 ·〈김정희 영정〉은 19세기 중엽을 대표할 만한 명품으로 꼽힘
	익안대군(?~1404) 영정		논산시 화악리	·문화재자료 제 329호 ·화공 장만득 작품
	계성군 영정		부여군 홍산면 조현리(영모당)	·문화재자료 제 370호 ·화원 채용신 작품
	정분(?~1454) 영정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김문기(1399~1456) 영정		부여군 임천면 탑산리	·화원 채용 시 작품
	홍가신(1541~1615) 영정			·화사 이명기 작품

	임득의(1558~1612) 영정		충남역사박물관	
	남이웅(1575~1648) 영정 (2점), 영정초본 (2점)			·공주 의령 남씨 종중
	정충신(1576~1636) 영정	서산시 대요리	지곡면	·중요민속자료 제36호
	이시백(1581~1660) 영정	천안시		·문화재자료 제 393호 ·연안이씨 종중
	홍진도(1584~1649) 영정 (2점)	천안시 봉양리	성남면	·문화재자료 제 318호 ·김진규(1658-1716)이 그렸으며, 이모본임
	권상하(1641~1721) 초상화			
	박경후(1644~?) 영정	부여군 가곡리	은산면	·향토유적 제30호
	청양향교 공자상	청양군 교월리	청양읍	·향토유적 제5호
	강현(1650~1733) 영정			·보물 제 589호 ·공주 진주 강씨 백각공파 종친회
	권성(1653~1730) 영정	서천군 화산리	기산면	·문화재자료 제325호
	류성하(1657~1712) 영정			·공주 진주류씨 함평공 종중
	김정운(1677~1735) 초상화			
	이삼(1677~1735)장 군 영정(2점)	논산시 주곡리	상월면	·유형문화재 제63호
	이만유(1683~1750) 장군 영정(3점)	당진군 거산리	신평면	·유형문화재 제84호
	전운상(1694-1760) 영정	홍성군 신기리	홍동면	·유형문화재 제 147호 ·김희겸 작품
	전일상(1700~1753) 영정 및 한유도	예산군 호음리	고덕면	·유형문화재 제 127호 ·김희겸 작품
	강세황(1713~1791) 영정			·도화서 회원 이명기 작품, 공주 진주 강 씨 백각공파 종친회
	김이교(1764~1832) 영정		충남역사박물관	
	최익현(1833~1906) 영정	청양 모덕사		·회원 채용신 작품
	김동호(1861~?) 영정	부여군 조현리	홍산면	·유형문화재 제 157 ·회원 채용신 작품
	함홍읍도			·공주 능성구씨 첨추공 종중
	주자 영정 6점	공주 공암리	반포면	·충현서원
	동북오세세덕십장			·공주 동북오씨 목재공 종회
	정규한(1750~1824) 영정	공주시 화현리	계룡면	·화산영당
불화	문수사 지장시왕탱화	1774	예산군 사천리	·영조50년 ·유형문화재 제173호

	공주 영은사 칠성탱화		공주시 금성동	·문화재 자료 제377호
	논산 쌍계사 칠성탱	철종1년	국립중앙박물관	
	무량사 미륵불괘불탱	1627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인조 5년 ·보물 제1265호
	무량사 극락전 삼장보살탱	1747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영조 23년 ·문화재자료 제380호
	갑사 삼신불괘불탱	1650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효종 원년 ·국보 제298호
	갑사 삼세불도	18세기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유형문화재 제189호
	신원사 노사나불괘불탱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국보 제299호 ·17세기 불화의 대표작
	장곡사 미륵불괘불탱	1673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	·현종 14년 ·국보 제300호
	수덕사 노사나불괘불탱	1673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현종 14년 ·보물 제1263호
	수덕사 지장시왕 탱화	1774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영조 50년 ·유형문화재 제173호
	수덕사 아미타후불탱화	1861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철종 12년
	용봉사 영산회괘불탱	1690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숙종 16년 ·보물 제1262호
	마곡사 석가모니불괘불탱	17세기 전반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 ·보물 제1260호
	마곡사 영산회상도	1788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정조 12년 ·유형문화재 제191호
	오덕사 괘불탱	18세기	부여군 충화면 오덕리	· ·보물 제1339호
	개심사 영산회괘불탱	1772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	·영조 48년 ·보물 제1264호
	광덕사 노사나불괘불탱		천안시 광덕면 광덕리	· ·보물 제1261호
	광덕사 삼불회도	1741	천안시 광덕면 광덕리	·영조 17년
	천장사 아미타후불탱화	1788	서산시 고북면 장요리	·정조 12년 ·유형문화재 제186호
	세심사 신중도	1794	아산시 염치읍 강청리	·정조 18년 ·유형문화재 제192호
	은석사 아미타극락도	1861	천안시 동남구 북면 은지리	·철종 12년 ·태화산 마곡사 부용암
	영은사 아미타불탱화		공주시 금성동	·문화재자료 제376호
	봉곡사 불화		아산시 송악면 유곡리	·문화재자료 제242호
	부여 은산 금공리 산신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은산면 금공리	·향토유적 제24호
벽화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백의	·마곡사 대광보전 내부 서측면 후불벽 〈백의 관음도〉	

벽화	관음도		
	20세기 초		·외부 동측면 포벽 7점의 〈나한도〉와 〈탄생도〉, 외부 서측면 포벽 6점의 〈나한도〉, 외부 서측면 창방 〈석류도〉와 〈운룡도〉, 외부 서측면벽 〈금강역사도〉와 〈고사인물도〉, 외부 남측면 포벽 2점의 〈화조도〉와 4점의 〈화훼기명도〉, 〈매조도〉, 2점의 〈나한도〉, 3점의 〈여래도〉, 〈백의관음도〉, 〈화훼도〉, 〈송학도〉. 외부 남측면 평방 〈동자유학도〉. 외부 남측면 창방3점의 〈운룡도〉. 외부 남측면 평방 〈천녀비천도〉, 〈천동비학취적도〉, 〈신선도〉. 내벽화 동측면 포벽 4점의 〈산수도〉. 내부 서측면 포벽 4점의 〈산수도〉, 〈매화도〉. 내부 남측면 포벽 14점의 〈산수도〉. 내부 남측면 창방 〈초충도〉, 4점의 〈화조도〉. 내부 북측면 포벽 13점의 〈산수도〉. 내부 북측면창방 〈화조도〉
	19세기 초		·내부 동측면 벽 〈고사인물도〉, 〈한산습득도〉, 〈나반존자도〉.내부 북측면 벽 3점의 〈신선도〉, 〈철괴선생도〉, 〈하마선인도〉, 〈이비체도〉.후불벽 〈백의관음도〉
	18세기 후반		·내목도리 윗벽 동측면 5점의 〈나한도〉. 내목도리 윗벽 서측면 4점의 〈나한도〉. 내목도리 윗벽 남측면 13점의 〈나한도〉. 내목도리윗벽 북측면 12점의 〈나한도〉. 내부 중랑 〈동자기룡도〉. 내부 대랑 6점의〈운룡도〉
마곡사 대웅보전 벽화	19세기 초		·내목도리 윗벽 남측면 3점의 〈나한도〉.내부 대랑 2점의 〈운룡도〉.
마곡사 영산전 벽화	19세기 초		·내부대랑 6점의 〈운룡도〉, 〈천인취적도〉, 〈천녀무용도〉.
마곡사 응진전 벽화	19세기 후반		·내부 서측면 포벽 2점의 〈나한도〉. 내부 남측면 포벽 〈나한도〉. 내부 남측면 평
신원사 중악단	19세기 후반		·내목도리 윗벽 동측면 〈천동타장고도〉, 〈천동탄주해금도〉.내목도리 윗벽 남측면 〈천동취적도〉, 〈천동비학도〉, 〈천동비봉도〉, 〈청오공도〉, 〈천동타바라도〉. 내목도리 윗벽 서측면 〈천동타고도〉, 〈천녀탄주비파도〉. 내목도리윗벽 북측면 〈천동탄금도〉, 〈천동봉지도〉, 〈천동유희도〉,〈천동취생도〉, 〈천동봉도지도〉. 내삼문 2점의 〈신장도〉. 외삼문 2점의 〈신장도〉.
논산 쌍계사 대웅전	19세기 초반		·내벽화 동측면 〈용마도〉, 〈신선도〉, 〈운룡도〉, 〈서왕모도〉. 내벽화 남측면 〈운학도〉, 4점의 〈운룡도〉, 〈사자도〉, 〈봉황도〉, 〈모란도〉. 내벽화서측면 2점의 〈사자도〉, 〈한산습득도〉, 〈운룡도〉, 〈자현금강도〉, 〈정제재금강도〉, 〈적성금강도〉, 〈백정수금강도〉. 내벽화 북측면 2점의 〈운룡도〉, 〈벽독금강도〉, 〈황수구금강도〉, 〈청제재금강도〉, 〈나한도〉, 〈기상보현동자도〉,〈기사문수동자도〉. 내벽화 양시도 8점의 〈운룡도〉.
당진 영탑사 유리광전 벽화	19세기 후반		·내부 서측면 벽 〈천녀취적도〉.
개심사 명부전 벽화현황	19세기 후반		·내부 중도리 〈봉황도〉.
문수사 극락보전 벽화현황	19세기 후반		·내벽화 남측면 〈천녀비파탄주도〉, 〈천녀무용도〉, 〈천인무용도〉, 〈나한도〉, 〈여래도〉, 〈봉황도〉, 〈사자도〉. 내벽화 북측면 〈천녀취적도〉,〈천녀무용도〉, 〈나한도〉, 〈토룡도〉, 〈동자비학도〉. 내벽화 양시도 5점의 〈운룡도〉.
수덕사 대웅전	조선		·내벽화 동측면 〈서수도〉. 내벽화 서측면 2점의 〈서수도〉,

		초기	〈운룡도〉, 내벽화 양식도 7점의〈운룡도〉, 〈서조도〉, 3점의 〈연화도〉, 〈봉황도〉, 〈서수도〉.
--	--	----	--

③ 서예

서예는 백제 서예유물, 통일신라 서예유물, 고려시대의 서예 유물과 주요 인물, 조선시대 서예 유물과 주요 인물 등이 있다.

● 백제서예

구분	명칭	시기	소재지	내 용
백제 서예	칠지도(七支刀)			·백제와 일본간의 서예 교류를 확인해줄 수 있는 유물
	창왕명사리감 (昌王銘舍利龕)			
	양직공도 (梁職貢圖)			·웅진시기에 중국과의 교류를 알 수 있는 자료(양(梁)을 방문한 25개국 정도의 외국 사신의모습을 그렸는데, 지금 남아 있는 자료는 12개국 정도)
	우전팔번경 (隅田八幡鏡)	백제시대		·예서·행서·해서의 필의(筆意)가 섞인 간백체(簡帛體: 진·한대에 죽간·목간·비단에 쓰인 글씨체)에 가까움
	무령왕(武寧王)의 지석(誌石)	백제시대		·무령왕 지석, 무령왕비 지석, 매지권, 방위표
	무령왕비(武寧王妃)의 지석(誌石)	백제시대		·왕의 지석보다 늦게 각자(刻字)된 「무령왕비 지석」은 「무령왕 지석」이나 「매지권」에 비하여 글자 크기나 자간·행간의 변화, 장법, 서풍 등에서 차이를
	매지권(買地券)	백제시대		· 「매지권」은 왕비 지석 뒷면에
	명문전(銘文塼)	백제시대		
	양관하위사의 (梁官下爲師矣)			·전(塼)의 제작과정과 왕릉을 축조하는 과정 등을 알 수 있는 주요 자료이다
	임진년작(壬辰年 作)	임진 (壬辰) (512)		·명문은 무령왕릉의 축조시기나 와전(瓦塼) 등의 편년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무령왕 생존시에 이미 전(塼)을 만들었음
	갑을(甲乙) 묵서(墨書)	백제시대		·왕비의 두침(頭枕)에 쓰인묵서
	사택지적비 (砂宅智積碑)	백제시대		·백제 말기 해서의 정수라 할 정도로 단연 돋보이는 유일한 비문 자료
	창왕명사리감 (昌王銘舍利龕)			·사비시기 서예자료로는 드물게 예서로 분류
	목간(木簡)			·사비시기 서예를 논하는데 최우선 자료로 거론되어야
	능산리(陵山里) 목간			
	숙세결업(宿世結 業) 목간			·목간의 전면에는‘慧暈△前’이라는 명문으로 보아 혜훈에게 보내는 글로 보임

	육부오방(六部五方) 목간			·서역종차법위지(書亦從此法爲之)'라는 글로 보아 필법 혹은 문장, 간찰 등에 대한 글로 추정
	궁남지(宮南池) 목간			·묵서(墨書)로 된 행초(行草)이기 때문에 용묵(用墨)과 용필(用筆)의 묘함을 살피기에 용이함

● 통일신라 서예

구분	명칭	시기	소재지	내 용
통일신라 서예	성주사지(聖住寺址) 낭혜화상(朗慧和尚) 백월보광탑비(白月光塔碑)	통일신라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글씨는 비신 전면에만 빼곡하게 새겨져 있으며 무려 5,120자의 장문으로 최치원이 지은 사산비문(四山碑文) 중의 하나로 유명

● 고려 서예

구분	명칭 및 이름	시기	소재지	내 용
고려 서예	보원사지(普願寺址) 법인국사비(法印國師碑) 보승탑비(寶乘塔碑)	경종 3년 (978)	서산시 운산면	·보물 제 106호 ·내용은 가야산보원사고국사제증시법인삼중대사지비(伽倻山普願寺故國師制贈諡法印三重大師之碑)로 단아한 소전으로 쓰임
	봉선홍경사갈기 (奉先弘慶寺碣記)	현종 12년 (1021)	천안시 성환읍 대흥리	·국보 7호 ·여민동락(與民同樂)하려는 위정자의 정신을 전하고 있음
	이색신도비 (李穡神道碑)	조선시대		·전면을 1876년에 이용원(李容元, 1832~1911)이 찬서 하고 송병준(宋秉峻, 1858~1925)이 찬명 하였으며, 이용직(李容植, 1852~1932)이 글씨를 썼다고 기록, 후면을 보면 송시열(宋時烈, 1607~1688)이 짓고, 이수경(李壽慶, 1627~1680)이 글씨를 썼으며 김수항(金壽恒, 1629~1689)이 전서(篆書)를 썼다고 되어 있어 현종 7년(1666)에 다시 세울 때 것임
	이존오(李存吾)	고려후기 (1341-1371)		·이존오 필적(명가필보)
	사경(寫經)			
	감지은니묘법연화경 (紺紙銀泥妙法蓮華經)	고려 시대로 추정	국립중앙박물관 (마곡사)	·보물 제 269호 ·변상도와 은니글씨가 뛰어나다
	감지금니묘법연화경 (紺紙金泥妙法蓮華經)	우왕 14년 (1388)	국립중앙박물관 (마곡사)	·보물 제 270호 ·『묘법연화경』 권 제6에 해당하며

• 조선시대 서예

구분	명칭 및 이름	시기	소재지	내 용
조선 시대 서예	길재(吉再)			
	지주중류비 (砥柱中流碑)	조선영조 33년 (1757)		·백이 숙제가 절의를 잃지 않고 지키는 것 같아 이 정신을 상징하여 비문을 쓴 것 이다
	백세청풍비 (百世淸風碑)	조선영조 4년 (1728)		·절의(節義)를 권장하기 위해 백이 숙제를 모신 묘우를 짓고 주자의 글씨를 새겼다
	김구(金絿)	조선시대 (1488- 1534)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조선 전기의 4대 서예가의 한 사람으로 중종 때의 문신이며 성리학에 밝았고 서 예와 음악에 뛰어났다
	증별시첩 (贈別詩帖)			·자형의 대소변화와 묵색의 변화가 자유분 방하고 유려한 운필로 조화를 이룬 뛰어 난 작품임
	쌍수정사적비 (雙樹亭事蹟碑)	숙종 34년 (1708)	공주시 공산성 진남루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35호 ·인조 2년(1624) 이괄의 난으로 6일간 이곳으로 파천하였다가 돌아갔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
	김장생신도비 (金長生神道碑)		논산시 연산면 돈암서원	·신도비는 장유(張維, 1587~1638)가 찬 하고, 신익성(申翊聖, 1588~1644)이 글씨를 쓰고, 김광현 (金光 炫, 1584~1647)이 두전(頭篆)을 씀
	이귀신도비 (李貴神道碑)	효종 1년 (1650) 추정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89호 ·연평부원군 이권의 신도비임을 나타내는 비명이 적힘
	이안눌신도비 (李安訥神道碑)	1712년	당진시 정미면 사관리	·김상헌이 찬하고, 송준길이 비문을 썼으 며, 김수항이 두전
	김집신도비 (金集神道碑)	1663년	논산시 벌곡면 양산리	·충남 문화재자료 제296호 ·초려 이유태가 비문을 짓고, 미촌 윤선거 가 글씨를 썼음
	돈암서원원정비 (遯巖書院院庭碑)	숙종 25년 (1699)	논산시 연산면 돈암서원	·비문(碑文)은 송시열(宋時烈)이 짓고, 송 준길(宋浚吉)이 글씨를 썼으며, 비신 상 단의 두전(頭篆)은 김만기(金萬基)가 쓴 것이다. 송준길의 대표적인 글씨로 칭해지 는 비문 글씨는 태세의 변화가 많은 행서 로 운필이 정밀하고 유려하며 각자한 것 이 정밀함
	돈암서원 응도당			·설암체(雪庵體)
	입덕문			·독특한 팔분에서(八分隸書)로 필세가 활 발함
	양성당			·고예(古隸)가 섞인 것으로 필세가 강건하 고 우직하면서 굳셈
	석문(石門)		대문산 태고사	·우암의 친필
	이시방(李時昉)	조선중기		·행서와 초서에 능하였으며, 필획이 굳세고

				강하며 자유로운 운필을 구사함
서봉일기 마곡사(麻谷寺) 내의 글씨들				
대웅보전				·신라 김생(金生)의 글씨로 전하는데 필세가 늠름하고 호방하며 능숙한 운필이 돋보임
영산전				·세조대왕어필(世祖大王御筆)
대광보전				·표암(豹菴) 강세황(姜世晃, 1712~1791)의 글씨
심검당				·송하(松下) 조윤형(曹允亨, 1725~1799)의 글씨
갑사사적비 (甲寺事蹟碑)	효종 10년 (1659)	공주시 학봉리	반포면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52호 ·여주목사 이지천(李志賤, 1589~1683)이 찬하고, 공주목사 이기징(李箕徵)이 글씨를 썼으며, 전행무장현감(前行茂長縣監) 홍석구(洪錫龜, 1621~1679)가 전서(篆書)로 '공주계룡산갑사사적비명(公州鷄龍山甲寺事蹟碑銘)'이라 씀
충현서원(忠賢書院) 내의 글씨들		공주시 공암리	반포면	
충현서원사적비 (忠賢書院事蹟碑)	숙종 38년 (1712)			·글은 대제학 최규서(崔奎瑞, 1650~1735)가 짓고, 글씨는 우의정 조상우(趙相愚, 1640~1718)가 해서로 썼으며, 비액은 이조판서 윤덕준(尹德駿, 1658~1717)이 전서로 씀
충현서원사실병 우암송선생추향 기비 (忠賢書院事實并 尤庵宋先生追享 記碑)'	영조 28년 (1752)			·비문 글씨는 대사헌 김진상(金鎭商, 1684~1755)이 기필과 파책을 과장되고 독특하게 표현한 예서로 씀
김정희(金正喜)				
천축고선생택 (天竺古先生宅) 과 시경(詩境)		예산군 용궁리	신암면	·화암사(華巖寺) 경내 후원에 있는 병풍암 암벽에있는 암각서
추수루(秋水樓)				·화암사에 있는 목판본으로 추사 특유의 묘미를 잘 드러낸 예서

④ 전통공예

전통공예는 상징성, 조형성에 앞서 실생활에 직접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시대 미의식의 표상일 뿐 아니라 산업이나 기술 분야의 총화라 할 수 있다. 충남의 전통공예는 선사시대와 백제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등으로 시대적인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공예의 특징을 이루었다.

● 청동기시대

구분	명칭	소재지	내 용
토기	송국리형토기	부여 송국리	
	서산 휴암리의 발	서산	
	송국리의 홍도	송국리	
	보령의 홍도와 점토 덧띠 토기, 손잡이달린 토기	보령	
	부여구봉리 흑도	부여	
	예산의 흑도	예산	
금속 공예	검파형동기	예산 동서리	·정확한 용도는 증명되지 않았으나 의식 용구로 추정
	나팔형동기	예산 동서리	
	한국식동검	예산 동서리	
	청동거울	부여 구봉리	
	동검, 청도거울, 깍창	아산궁평리 (연기봉암리)	
	농경청동기		
유리 공예	유리대롱옥	부여군 합송리	·한반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유리
	대롱옥, 유리	부여 송국리	
	꾸밈구슬	아산 백암리	
	대롱옥 목걸이	예산 동서리	·찬란한 백제의 공예품 시대를 예고

● 백제시대

구분	명칭	소재지	내 용
토기 공예	유개흑색마연토기	천안 용원리	·청동기시대의 흑도에서 발전된 기법 위에 손잡이가 달린 뚜껑, 그리고 안정되고 세련된 형태 등 조형적 특징에서 백제공예의 걸작
	연통토기	부여군 능산리	·토기류에서 기념비적인 데다가 조형성도 뛰어나 현대 공예품으로도 손색이 없음
	벼루와 호자		·부여일대에서만 출토되는 토기로 중국 남조의 영향이 감지
	마구리장식기와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추상화된 연꽃문양과 점문 등이 매우 이색적이고 이국적인 느낌
	도깨비무늬벽돌, 산수무늬벽돌	부여군 규암면 외리	·벽돌에는 산수풍경을 비롯하여 도깨비·용·봉황·구름·연꽃 등의 회화적 문양이 뛰어난 기법으로 표현됨
	글자새김 벽돌	공주시 송산리	·이 글자의 원문은 '양관와위사의(梁官瓦爲師矣)'이며, 그 뜻은 "양나라의 관영기와를 본보기로 삼다."로 해석됨
철기와 금동 제품	철기공방	서천군 지산리, 공주시 남산리	
	덩이쇠	충청남도일원	·서천오석리, 서산 명지리와 가지리, 공주남산리, 해미 가지리, 부여 논치리

		금동광배편	부여 부소산성	·투조된 당초문과 연주문 그리고 가운데 약간 돌출된 연화문에서 금동공예의 진수
		금동제꽃모양장식	부여 능산리 절터	
		금동광배편	부여 능산리 절터	
		금동제널꾸미개	부여 능산리 고분군	
		무령왕릉 출토 공예품		
		금제 관꾸미개 (오라관(烏羅冠))	공주시 송산리	
		다리 작은 팔찌	공주시 송산리	·“경자년이월다리작대부인분이백주주이(庚子年二月多利作大夫人分二百州主耳)”
		동탁은잔		·무령왕릉 왕비의 두침 옆에서 나온 연화문으로 장식된 은잔은 뚜껑과 잔, 잔대의 세 부분으로 구성됨
		식리(飾履)		·왕과 왕비의 금동신발이 한 쌍씩 출토
		백제금동대향로		·수준 높은 금속공예기술과 현존하는 모든 향로를 압도하는 크기(61.8cm), 뛰어난 조형미와 작품에 담겨 있는 상징성과 사상 등 사비시기 백제공예의 기념비적인 작품
		왕흥사지 출토 사리감	부여군 규암면 신리 왕흥사지	·청동의 외함 속에 은제의 향아리, 다시 그 속에 황금사리병, 함께 출토된 금세공품을 비롯한 유물들도 14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믿기 어려울 만큼 정교하고 화려함
		수촌리 출토 금동관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은제꾸미개		·길쭉한 창날 같은 형태에 우아한 곡선의 장식을 달아 관(冠)에 꽂아 장식함
		유리 공예		
목칠 공예		유리제동자상	공주시 송산리 (무령왕릉)	
		유리도가니	부여군 능산리 절터	
		목제두침(베개)	공주시 송산리 (무령왕릉)	
		족좌(足座, 발베개)	공주시 송산리 (무령왕릉)	
직물 공예		목제새조각	부여 궁남지	·지금까지 발견된 장의용 새가 아닌 장식품으로써 의미
		저포(苧布)		·기왓장 내외면에 찍힌 흔적이나,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금동신의 내부에 붙어 있던 3중으로 겹쳐진 포, 다리미의 바닥에 붙어 있던 저포(苧布) 등으로 그 흔적
초고 공예		짚신	부여궁남지	·왕골·부들·짚 등을 활용한 백제의 초고공예 또한 당연히 발달하여 일반 서민의 생활용구를 제작하는 데 널리 사용
타 국 과 의 교	고 구 려	암문토기(暗文土器), 수막새	부여 궁남지, 능산리 절터, 용정리 절터, 쌍북리	
		동하총(東下塚)의 사신	부여 능산리	

류	도	고분군	
	백제	백제토기	부여 규암, 석정, 염창리
	신라	은제허리띠장식, 금제허리띠장식	공주 송산리고분군
	중국	공주 송산리의 벽돌무덤(塼築墳)	
		양직공도(梁職貢圖)	
		계수호 등 청자류·동전·백자벼루·호자·도옹	
	일본	칠지도	
		무령왕과 왕비의 목관(금송(金松))	
		의자손수대경(依子孫授大鏡)	
		금동식리	

● 고려시대

구분	명칭	소재지	내 용
도자 공예	초기청자요지	서산시, 보령시	·고려시대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보령시 천북면 사호리
금속 공예	장하리 석탑사리구		·고려시대 ·금동제사리기는 백제 전성기의 공예품을 연상시키는 단아하고 수려한 형태에 음각된 장식과 양 귀에 매어 있는 사슬이 이색적임
	청동은입사상감표류수 금문정병		·통일신라, 고려초
	명문기와(천흥(天興), 천흥사(天興寺)) 9점 천흥사 동종	천안시	·고려 현종 ·천안시 성거면 청흥리 천흥사지
			·현종 1년(1010)
	개태사 대형금고(金鼓)		·고려시대 ·금고(金鼓)는 절에서 시간을 알리거나 사람을 불러 모을 때 사용하는 쇠북

● 조선시대

구분	명칭	소재지	내 용
도자 공예	백자생산지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분청사기	공주시 계룡면 학봉리	
	분청귀얄문대접	공주시 계룡면 학봉리	

	철화분청항아리	공주시 계룡면 학봉리	
석공예	남포벼루	보령시 남포면	·17세기 이전부터 사용
	김정희 벼루 중 2개 (남포벼루)		
	석재산지	충청남도 일대	·아산의 백옥, 수정, 당진의 청옥석, 덕산의 황옥, 태안의 백옥, 논산 은진의 백옥석 등
직물 공예	저산 팔읍(苧山八畝)	임천, 서천, 이인, 남포, 홍산, 청양 및 부여 등지	·모시산지로 유명함
	면화의 생산지 "임천"	부여군 임천면	·18세기 직조공예요 면직물 생산이 발전함
종이 공예			·충청지역의 관청에 등록된 지장(紙匠)은 130명이었고, 이 중 충남의 장인이 80명으로 전체의 62%에 해당함
자리 공예			·『경국대전』에 의하면 충청도에 58명의 석장(席匠) 중 35명이 소속되어 있어서 60%에 해당함
목공예			·『경국대전』에 의하면 충청 도에는 목기와 버들고리[柳器]가 중요한 공물임
금속 공예	암포철소		·17세기

⑤ 전통조각

전통조각은 선사시대에서 백제시대의 조각과 통일신라시대의 조각, 고려시대의 조각, 조선시대의 조각 등을 거치면서 조각미 형성하면서 충남의 정신이 반영되었다.

• 선사시대

구분	명칭	소재지	내 용
선사 시대	공주석장리유적 (세석기)	공주 석장리	·세석기를 주로하는 중석기 문화층
	부여 구석기(뎨석기)	부여군	·정림사터, 쌍북리, 부소산, 향교뒷산 ·뎨석기 출토 ·굵개, 몸돌
청동기 유적	고인돌	서산시	·서산 둔당리 고인돌, 남정리 고인돌, 고북면 신정리 아래활굴, 예덕리 마제석부
		서천군	·남산리고인돌, 사곡리 절골고인돌, 오석리 고인돌,가곡리고인돌, 광암리 쌍암고인돌, 월기리고인돌, 시사리감나무재 고인돌, 아사리 구렁목고인돌, 은곡리고인돌
		예산군	·만사리고인돌, 연리고인돌, 저격리고인돌, 화천리고인돌 ·건지화리 무문토기(無紋土器), 종경리 마제석기, 장신리 마제석기
		논산시	·원복리고인돌, 초정리고인돌, 신기리고인돌, 원복리 유적내 석관묘, 마전리 유적내 석관묘
		보령시	·삼계리, 삼곡리

선돌	청양군	·지곡리
		·학산리, 금국리, 가송리, 고산리, 대현리, 천태리, 행정리, 금당리, 효학리, 상하리, 성호리, 홍성지석묘
	예산군	·서초정리 선돌, 원노전선돌, 건지화리선돌, 화전지선돌, 성리선돌
	서산시	·고북면 정자리 선돌, 가구리 선돌, 신송리 탐동선돌, 장요3구선돌, 웅암리 선돌


• 백제시대

구분	명칭	소재지	내 용
불상 조각	금동여래상	서산시	·6~7세기 ·서산 보원사지 출토 금동여래입상
		부여군	·6~7세기 ·부여 규암면 신리 출토 금동여래좌상, 남궁연소장 금동여래좌상, 부여 가탑리사지 출토 금동여래입상
	금동관음보살상	공주시	·공주 의당면 송정리 출토상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출토상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부소산성 출토상, 한웅일 소장 불상
	금동봉보주보살상	부여군	·부여 신리출토입상
석탑	석탑		·밖에'계미(癸未)'명 금동삼존불, '정지원'명 금동삼존불
		부여군	·부여군수리석탑, 구아리사지, 금강사지, 부여정림사지탑

• 고려시대

구분	명칭	소재지	내 용
고려시대	개태사지 석불입상		
	홍성 신경이 마애석불		
	부여 홍산 마애불입상		
	은진 관촉리 비로자나 석불입상		

• 조선시대

구분	명칭	소재지	내 용
고려시대	예산 상항리 석불		
	홍성 고산사 아미타불 좌상		
	서산 간월암 목조보살 좌상		
	천안 장산리 석불입상		
	서천 영수암 목조보살 좌상		
	수덕사 소조불상좌상		
			예산 상항리 석불

⑥ 전통무용

충남의 전통무용은 상고시대의 춤과 고대 부족국가시대로부터의 춤의 기원과 발달을 거쳐 삼국시대의 춤, 고려시대의 춤, 조선시대의 춤 등으로 시대별 발전과 특징을 이루고 있다.

● 백제시대의 춤

명칭	과장(순서)	내 용
기악무(伎樂舞)	치도(治道), 오공(吳公), 사자무(獅子舞), 가루라(迦樓羅)·금강(金剛), 바라문(婆羅門), 곤륜(崑崙), 역사(力士), 대호(大弧), 취호(醉胡), 무덕악(武德樂),	·미마지(味摩之)가 전수시켜 석가탄생일과 우란분회일에 연행 ·재앙과 사귀를 물리치는 의식무
양주산대놀이	고사(告祀)(1), 상좌춤(2), 움(3,4), 연잎과 눈감적이(5), 팔먹중, 침놀이(6), 사당놀이(7), 노장(8), 취발이(10), 미알할미(12), 양반(11), 무당넋두리	·재앙과 사귀를 물리치는 의식무
봉산탈춤	西상좌춤(1), 사자춤(5), 사당춤(3), 노장춤(4), 취발이(4), 미알춤(7), 양반춤(5), 다리굿	·재앙과 사귀를 물리치는 의식무
산대도감놀이		·파계승을 욕하고 양반을 비웃는 등 당시의 귀족, 즉 상류사회에 대한 비판
소도(蘇塗)		·마한 ·일종의 계절, 제마한에서는 5월에 곡식을 뿌리고 모두가 모여서 춤을 추면서 신에게 제사를 올렸으며, 10월의 추수감사절 때에도 마찬가지로 모임
대동춤		·민속춤의 공동체적 기능으로서 두레꾼들의 연대의식과 노동의 결속으로 강화, 탈춤, 소리춤과 같은 집단춤

4.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현황

1) 등재 개요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부여·익산)의 대상 지역은 8개소이다. 대상지역은 충남의 공주(2개소)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과 부여(4개소)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 나성 등이며, 전북 익산(2개소)의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등이다.

① 등재기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준에서 해당사항은 다음과 같다.

- (ii) 특정 기간·지역 내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류의 증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고고학 유적과 건축물은 한국, 중국, 일본의 고대 동아시아 왕국들 사이의 교류를 보여주며, 그 교류의 결과로 나타난 건축기술의 발전과 불교의 확산을 보여주는 유산임.

- (iii) 문화적 전통 또는 문명에 관한 독보적이거나 특출한 증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수도 입지 선정을 통해 백제의 역사를, 불교 사찰을 통해 백제의 내세관과 종교를, 성곽과 건축물의 하부구조를 통해 백제의 독특한 건축기술을, 고분과 석탑을 통해 백제의 예술미를 찾아볼 수 있음.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사라져 간 백제 문화와 역사의 뛰어난 증거임.

- 당사국이 제시한 등재기준 (ii), (iii), (iv) 중 (ii), (iii) 충족

* 등재기준(ii): 특정 기간과 문화권 내 건축이나 기술 발전, 도시 계획 등에 있어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류의 증거
⇒ 한국, 중국, 일본의 고대 왕국들 사이의 상호교류를 통해 백제가 이룩한 건축기술 발전과 불교 확산을 보여줌
* 등재기준(iii): 문화적 전통 또는 문명에 관한 독보적이거나 특출한 증거
⇒ 수도 입지 선정, 불교 사찰, 성곽과 건축물의 하부구조, 고분과 석탑을 통해 백제의 역사, 내세관과 종교, 건축기술, 예술미를 보여주는 유산이자 백제의 역사와 문화의 특출한 증거

② 유산등재 의의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우리나라 고대국가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세

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새롭게 조명될 기회가 될 것이며,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와 문화강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백제유적지구 등재 현황

① 공주(2개소):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공산성(사적 12호)은 백제 웅진시대의 왕궁을 방어하기 위해 지은 산성이다. 위치는 충남

1,400여년 전의 찬란한 백제문화를
오늘에 되살려, 세계인과 함께합니다.



◆ 백제문화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

1) **백제문화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세계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백제문화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란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며, 현재와 미래세대의 인류에게 있어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또는 자연적 중요성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 해당 유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보호 및 관리체계를 구비해야 한다.

2) **백제문화의 진정성**
진정성(眞正性)이란 어떤 물건이 진품이거나 출처가 분명하고, 어떤 사상(事象)이 사실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문화유산의 존엄근거로서 중요한 요소이다.
백제문화유산이 분포하고 있는 공주와 부여, 그리고 익산은 백제중진·시비기에 왕도(王都) 또는 왕성(王城)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증명하는 유적들이다. 특히 한 왕조의 공성관련유적인 공산성과 부소산성, 익산왕궁성, 왕실의 분묘유적인 송산리왕릉군과 능산리왕릉군, 익산방축, 도성의 방비체계를 보여주는 나성과 청아산성, 청산성, 마륵산성 등의 산성유적, 당시의 중심였던 불교사상을 알수있는 정림사지, 왕흥사지, 능산리사지, 마륵사지, 그리고 정림사지·충추사와 마륵사지서탑 등은 원래의 위치와 구조를 일정부분 유지하고 있어 진정성이 확인된다.

3) **완전성 조건에 대한 부합성**
완전성(完全性)은 유산이 지닌 속성의 전체적인 본연성을 가능케 하는 척도로서, 유산의 물리적 구조 또는 중요한 특징이 양호한 상태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주·부여·익산역사유적지구는 백제시대 웅진~시비기의 왕도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왕궁시설과 조정시설, 사상적 발전을 보여주는 종교시설과 고분유적, 군사체계를 보여주는 관방유적, 도성에 생활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건물지, 그리고 당시의 기술수준을 알수 있는 각종 공예품들이 종합적으로 확인된다. 즉, 고대국가의 왕도로서 갖추어야 할 운영체제와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를 전체적으로 갖추고 있다. 이는 한 왕조의 물리적 도성구조 및 정신문화, 기술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화유산으로서의 완전성을 충족하고 있으며 웅진기에서 시비기로의 체계적인 문화발전 단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 있다. 공주, 부여, 익산지역 백제문화유산은 보존관리측면에서 백제문화유산은 완전성을 갖추고 있다

◆ 세계유산 등재대상 백제역사유적지구

- 공주지역 :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 부여지역 : 사비성, 정림사지, 나성지구
- 익산지역 : 왕궁리유적, 마륵사지

어느곳을 걸어도 도시 전체가
문화유산인 **공주**

◆ 공주역사유적지구

● **공산성지구** 사적 제12호



▲ 공산성 전경



▲ 왕궁주성지 ▲ 공산성 토성 ▲ 연지 및 연터 (연지·송림(576)을 복원)

● **송산리고분군지구** 사적 제13호



▲ 무령왕릉 전경



▲ 무령왕 관망사 (국보 제154호) ▲ 석수 (국보 제162호) ▲ 무령왕 지석 (국보 제163호)

백제의 왕도가 자리잡았던 공주 지역에는 왕궁이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산성과 왕실의 분묘군인 송산리고분군, 제사유적인 정지산유적, 그리고 사찰유적인 대흥사지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산재하고 있다. 이들 많은 문화재 가운데 4개 지구 6개의 유적이 세계유산 등재 대상 지정목록으로 선정되었다.

웅진기 63년간 재위하였던 왕과 왕족의 분묘군이다. 현재 벽돌무덤과 흙·과식등으로 만든 돌방무덤 10여기가 있는데, 송산리고분군을 구성하고 있는 고분은 모두 77이며, 이들 고분의 분포를 보면 계곡 서쪽에는 무령왕릉과 5~6호분, 동쪽에는 1~4호분이 있다. 먼저 1~5호분은 모두 굴식돌방무덤(형식식석분)으로, 무덤방구에서 시신 이 안치되어 있는 널방(한실)에 이르는 널길(연도)이 널방 동쪽벽에 붙어 있는 특징이다.

자료 :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 리플렛(2015)
공주의 백제역사유적지구

공주시 산성동 2번지이다. 백제가 웅진에 수도를 두었던 475년부터 부여로 천도하는 538년까지 약 63년간 왕성은 웅진성이라 불리었는데 지금의 공산성이다.

성은 공주시 금성동·산성동에 걸쳐 있는 약 20만㎡ 규모의 거대한 산성이다. 성체 총길이 2,660m(석성 1,925m, 토성 735m). 공산성은 토성구간과 석성구간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이 석성구간인데 처음에는 토성을 쌓았지만 나중에 여러 차례 고쳐 쌓으면서 석성으로 변화되었다.

토성은 동쪽 구역의 내·외성으로 구분된 범위에 위치한다. 이 중에서 외성 구간은 백제시대에 쌓았던 것으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공산성 대부분은 석성으로 남아 있고, 대부분 조선시대에 쌓은 것이지만, 부분적으로 백제시대에 쌓았던 석성의 흔적도 발견된다. 성곽의 현황을 통해 최초 백제시대에 토성으로 쌓았고 부분적으로 토성을 석성으로 고쳐 쌓았음을 알 수 있다. 백제 멸망 후 본격적으로 석축으로 쌓는 개축과 보축의 과정이 있었다. 성곽, 왕궁지, 성안마을 유적, 기타산성내 건물지, 저장시설, 연못 등이 있다.

송산리 고분군(사적 13호)은 무령왕릉을 비롯한 웅진시대의 왕과 왕족의 무덤이다. 위치는 충남 공주시 금성동 산5-1번지이다. 송산리고분군은 충남 공주시 금성동 송산리에 있는 웅진시대의 백제왕실의 능묘군이며, 백제 왕릉 혹은 무령왕릉이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금강의 남안에 솟아 동남쪽으로 뻗어 내린 작은 구릉의 동남향 능선 8부 정도에 고분군이 위치하는데 표고 75m 내외 지점이다.

현재 벽돌무덤과 할석·괴석 등으로 만든 돌방무덤 10여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7기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현재송산리고분군을 구성하고 있는 고분은 모두 7기이며, 이들 고분의분포를 보면 계곡 서쪽에는 무령왕릉과 5~6호분, 동쪽에는 1~4호분이 있다. 먼저 1~5호분은 모두 굴식 돌방무덤(횡혈식석실분)으로, 무덤 입구에서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널방(현실)에 이르는 널길(연도)이 널방 동쪽 벽에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② 부여(4개소) :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 나성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은 백제시대 최후의 도읍인 사비의 왕궁으로 추측되는 유적과 배후 산성이다. 위치는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쌍북리 일원이다.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은 사비시기(538-660) 백제의 왕궁으로 부여시가지 북편에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금강과 인접해 있다. 관북리유적은 대형건물지와 도로, 상수도, 석축, 공방을 포함한 왕궁과 관련된 다양한

유구들을 포함하고 있다.

부소산성은 평상시에는 왕궁의 정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비상시에는 대피시설로서 사용되었다. 산성의 성벽은 판축기법으로 축조되었다. 고고학적 연구가 진행되어 산성이 백제시대에 만든 성곽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현재 백제 왕궁의 구조 대부분이 확인되었다. 관북리유적으로 대형건물지, 상수도시설, 저장시설, 연못, 백제시대 건물지, 도로, 석축 공방시설 등이 있다.

능산리고분군은 사비시대 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며, 위치는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15번지이다. 고분군은 3기씩 앞뒤 2열을 이루고, 여기서 북쪽 후방으로 50m의 거리를 두고 1기가 자리하고 있어 모두 7기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부여 시가지를 둘러싼 나성의 동쪽 부분 바로 밖에 위치한다. 최근 고분군 서쪽에서 절터가 발굴되어 백제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와 567년 제작된 석제사리감(국보 제288호)이 출토되었는데, 이로 인해 능산리고분군이 사비시대의 백제왕실 무덤이라는 것을 재확인시켜주었다.

정림사지는 사비시대 도읍의 중심에 있었던 사찰로 국보 제9호 정림사지 5층석탑이 있다. 위치는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254번지이다. 정림사지지구(定林寺址)를 비롯해 그 주변에 자리한 쌍북리가마터를 포함한 지역을 말한다. 관북리 부소산성지구의 바로 남쪽이자 부여 읍내의 한가운데에 해당되는 곳이다. 정림사지(定林寺址)는 부여읍내의 한가운데, 관북리의 남쪽에 자리하고 있다. 정림사지지구는 이러한 정림사지를 비롯해 그 주변에 자리한 쌍북리가마터를 포함한 지역을 말한다. 사비시대 수도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찰은 단연 정림사였다. 정림사지에 우뚝 서있는 석탑 표면에는 당나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전승기념의 내용이 새겨져 있는데, 백제 왕조의 명운과 직결된 상징적인 공간으로 정림사가 존재하였음을 시사한다. 정림사지 5층석탑(국보 제9호)이 있다.

나성은 사비시대 수도 방어 목적으로 지금의 부여읍을 둘러싸고 있는 건축물이다. 위치는 충남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565번지이다. 나성은 부여의 서편과 남편으로서 금강이 자연적인 방어시설로 기능하였고 자연제방이 성벽의 역할을 대신하였다. 하지만 동쪽의 경우 산지 사이로 평지가 분포하므로 인공적인 시설물이 필요하였다. 나성은 고고학적조사 결과 총 6.3km의 구간이 확인되었다.

나성은 북나성과 동나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나성은 부여 북단에 자리한 부소산성에서 시작하여, 동으로 청산성의 외곽을 돌아 석목리에 이른다. 동나성은 석목리에서 염창리까지이다.

북나성은 백제 멸망 후 그 기능을 상실하여 현재 육안으로 성벽이 확인되는 구간은 많지가 않다. 그렇지만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성벽이 고고학적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고고학적 조사가 진행되면 전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나성은 현재도 그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다. 20여 년간의 고고학적 조사를 통하여 축조 시기, 성벽의 축조기법, 문지를 비롯한 시설물 등 전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1400여년 전으로의 시간여행

백제인의 숨결 가득한 부여

❖ 부여역사유적지구

● 정림사지지구



▲ 정림사지

백제사의 가장대표적인 사찰중에 하나가 정림사지다. 정림사지(定林寺址)는 부여읍내의 한가운데, 관북 리와 남쪽의 자리하고 있다. 정림사지지구는 이러한 정림사지 틀 비롯 해 그 주변에 자리한 쌍벽의 기마터를 포함한 지역을 말한다.



▲ 정림사지 5층 석탑



▲ 정림사명 외편



▲ 정림사지전경

● 사비성



▲ 사비성 전경

사비성(부소산성)은 부여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으로 백제의 왕궁과 왕궁 관련시설, 그리고 그 배후시설이 자리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사비성에서는 백제의 대형건물지, 공방과 저장시설, 언지, 수부명, 5부명, 명문화 등이 발견되었다.

▲ 사비성의 연못

● 나성지구

나성은 도읍지 전체를 에워싼 성곽으로 나성은 방어와 구별의 목적으로 성안쪽 사람과 바깥사람을 구별하고, 산사람과 죽은 사람의 공간을 구별하는 것이 나성이다. 백제시대 고분이나 성벽에 자리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나성 지구는 나성과 나성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능선리고분군, 나성과 능선리고분군 사이에 자리한 능선리사지 등으로 되어있다.



▲ 나성 전경(나성지구)



▲ 능사 석조사리경(나성지구)



▲ 백제금동대향爐(나성지구)

선화공주의 이야기속에서

무왕의 광대한 꿈을 만난 익산

❖ 익산역사유적지구

● 미륵사지 사적 제150호



▲ 미륵사지 전경

1980년부터 17년간의 발굴조사에서 백제시대 유물을 포함 약2만 여점의 유물이 출토되어 『삼국유사』 창건기록의 진정성을 보여 주었다. 기암구조는 탑과 불전을 3곳에 배치하고 주변을 회랑으로 구획한 삼원병치(三院並置) 형식이 완전한 형태로 발굴되었다.

흥화신(현미륵신) 자락에 건립한 삼원병치의 배치형식은 미륵심원이 동화보리수 아래에 하생상(下生相)하는 모습을 가람으로 구성하였다고 하는 점에서 탁월한 백제문화의 독창성을 엿볼 수 있다.



▲ 출토된 사리장엄구



▲ 동탑지 출토 금동명탁



▲ 미륵사지 출토 녹유연목와

● 왕궁리유적 사적 제408호



▲ 왕궁리유적 전경

왕궁리유적은 발굴조사에서 남북 492m, 동서234m, 폭3m 규모인 궁성이 확인되었다. 이안에서는 대형 건물지·장원시설·후원시설 공방시설·환수구시설 등이 남아 있다. 그리고 토기·기와·유리나 금계품과 도가니등 4,000 여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기외중에는 '수부(首府)'라고 인각된 명문와가 출토되어 백제왕궁의 진정성을 보여준다.



▲ 왕궁리유적 출토 토기류



▲ 왕궁리유적출토 출토 사리장엄구

자료 :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 리플렛(2015)

부여와 익산의 백제역사유적지구

③ 익산(2개소):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은 수도 사비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별궁유적이다. 위치는 전북 익산시 왕궁면 산80-1번지 외, 금마면 동고도리 1109-8외 등이다. 왕궁리유적은 백제 왕실이 수도 사비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만든 별궁 유적이다.

용화산에서 시작하는 능선의 말단부에 형성된 낮은 구릉 위에 만들어졌다. 높은 곳은 깎아내고, 낮은 곳은 성토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실시하여 왕궁이 들어설 공간을 마련하였다. 담장이 들어설 지점은 바깥쪽을 경사지게 깎아내서 왕궁 내부가 담장 바깥보다 3-4m 이상 높게 조성되었다. 이와 같은 공간 조성은 중앙부를 높게 만들기 위한 의도에서였다. 높은 대지 위에 만들어진 건물이 공장 밖에서 보면 더욱 장엄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왕궁리 유적은 1976년 이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고고학적 조사를 통하여 그 전모가 확인되었다. 백제시대 왕궁관련 시설, 금과 유리 등을 생산하는 공방시설, 사찰로 구성되어 있다. 왕궁관련 시설은 장방형의 석축 공장을 비롯하여 동서석축, 총 33기의 건물지이다. 특히 정전으로 추정되는 대형건물지가 발견되어 백제 왕궁 구조 및 공간구획의 원리를 밝힐 수 있게 되었다. 이 건물지는 부여의 관북리에서 발견된 것과 비슷한 규모와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왕궁은 뒤에 그 기능이 사찰로 바뀌었는데, 사찰로 기능이 바뀌는 시기에 대해선 백제 말기(7세기 중엽)~통일신라 초기(7세기 후엽)라는 이견이 존재한다. 현재 남아있는 오층석탑이 이를 보여준다. 주요 시설로는 궁장(宮牆), 석축(石築), 대형 건물지, 와적기단 건물지, 정원(庭園), 공방과 생활관련 시설, 사찰관련 시설 등이 있다.

미륵사지는 백제 무왕때 건립된 국가사찰로 동아시아 최대 규모이다. 위치는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32-2번지이다. 백제 사찰로는 이례적으로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미륵사 창건 설화가 전한다. 즉 무왕 부부가 사자사(師子寺)에 가던 도중 용화산 밑의 연못에서 미륵삼존(彌勒三尊)이 나타났는데, 왕비의 부탁에 따라 이 연못을 메우고 세 곳에 탑과 금당, 회랑을 세웠다고 한다. 이 설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우선 미륵사가 백제의 국력을 모은 국가적 가람이었고, 습지를 매립하여 평지를 조성하였으며, 미래의 부처인 미륵이 하늘에서 내려와 세 번의 설법을 통해 모든 사람을 구제한다는 불교경전의 내용에 따라 가람배치를 구현했다는 점이다. 이들 사당은 1974년부터 이어진 23년간의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사찰의 창건 연대는 무왕 재위기인 7세기 초이고, 임진왜란(壬辰倭亂)을 전후하여 폐사(廢寺)된 것으로 밝혀졌다.

□ 부록3. 충남 주요 문화관광축제(문화유산 유형)

구분	축 제 명	개최기간	축제 주요내용	주최/주관	최초 개최 연도	축제종류
계	139건					
천안시 (6)	북면벚꽃축제	4월	위례벚꽃노래자랑, 사생대회, 건강걷기대회 등	천안북면위례벚꽃축제추진 위원회	2013	관광이벤트
	천안판페스티벌	5월	전국민요경창, 댄스경연 등	천안시/천안예총	2004	전통예술
	입장거봉포도축제	9월	포도따기체험, 공연 등	입장거봉포도축제추진위원 회	1993	관광특산
	천안흥타령춤축제	9월말~1 0월초	춤경연, 거리퍼레이드, 국제민속춤 등	천안시/천안문화재단	2003	전통예술
	천안호두축제	10월	호두가요제, 호두음식체험, 민속놀이 등	천안시/천안호두축제추진 위원회	2006	관광특산
	천안성환배축제	11월	농산물(배)전시 판매, 무대공연, 불꽃놀이 등	천안배원예농협	1996	관광특산
공주시 (12)	웅진성수문병 근무교대식	5~10월 (매주 토, 일)	수문병근무교대식, 왕/왕비체험 등	공주시/웅진문화회	2000	문화유적
	정안밤꽃축제	6월	명사와 함께 밤꽃길걷기, 꽃마차체험 등	정안밤꽃축제추진위원회	2003	관광특산
	계룡산산신제	5월	산신제례, 민속놀이, 국악공연 등	계룡산 산신제 보존회	1998	민 속
	마곡사신록축제	6월	보물창기, 민속공연, 템플스테이 등	마곡사	2004	민 속
	고마나루 축제	7~8월	시민참여행사, 지역 예술인 공연 등	매년 공모	1996	현대예술
	박동진판소리 명창·명고대회	7월	명창·명고대회, 추모공연, 축하공연 등	박동진판소리선양회	2000	전통예술
	금강자연미술 비엔날레	10월	미술작품전시, 자연미술 워크숍	한국자연미술가 협회	2004	현대예술
	국제미술제	10월	전시회 다양한 미술체험	임림미술관	2004	현대예술
	고마나루전국향토 연극제	10월	향토연극제, 향토민속공연	(사)한국연극협회/고마나 루 전국향토연극제 집행 위원회	2004	전통예술
	백제문화제	9~10월	웅진성퍼레이드 빛터널, 다양한 체험·전통공연 등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백 제문화제집행위원회	1955	문화유적
	공주알밤축제	10월	알밤전시회, 알밤 줍기, 알밤체험, 이벤트행사	공주알밤축제추진위원회	2001	관광특산
	공주항공축제	10월	항공기 탑승체험	공주 경비행기	2008	관광이벤트

구분	축 제 명	개최기간	축제 주요내용	주최/주관	최초 개최 연도	축제종류
보령시 (13)	주산벚꽃축제	4월	주민노래자랑, 축하공연 등	주산벚꽃축제추진위원회	2005	관광이벤트
	무창포 주꾸미도다리축제	3~4월	주꾸미, 도다리 잡기체험 등	무창포축제추진위원회	2001	관광특산
	옥마산벚꽃축제	4월	벚꽃길걷기행사, 미니콘서트	옥마산벚꽃축제추진위원회	2000	관광이벤트
	보령머드축제	7월	머드체험, 연계행사 등	보령시/보령머드축제추진 위원회	1998	관광특산
	무창포신비의 바닷길축제	8~9월	햇불어업 재현, 조개잡기 체험 등	보령시/무창포축제추진 위원회	1999	관광특산
	무창포해변예술제	9월	노래자랑, 대하, 전어잡기 체험 등	무창포관광협의회	2001	관광특산
	대천항수산물축제	9월~10월	수산물판매, 축하공연 등	보령시/보령수협	2000	관광특산
	온새미로축제	10월	커피바리스타체험, 특산물시식판매, 축하공연 등	보령시/온새미로축제추진 위원회	2004	관광특산
	무창포대하전하축 제	10월	수산물판매, 축하공연 등	무창포어촌계	2007	관광특산
	청라은행마을축제	10월	전통음식체험, 은행마을사진전	청라은행마을축제추진위원 회	2011	관광특산
	천북굴축제	12월	굴시식, 굴까기, 노래자랑 등	보령시/천북굴축제추진 위원회	2001	관광특산
	성주산단풍축제	11월	단풍사생대회, 시낭송 등	보령시/성주산단풍축제추 진 위원회	2001	관광이벤트
	대천바다김축제	12월	김시식 및 판매, 축하공연	보령시 김생산협의회	2015	관광특산
아산시 (8)	설화달맞이축제	2월	짚풀공예, 국궁체험, 달집태 우기	설화달맞이축제위원회	2004	민속
	정월대보름민속축 제	2월	쥐불놀이, 풍등날리기, 달집 태우기	인주면민속보존회	1998	민속
	내리랑달맞이축제	2월	달집태우기, 지신밟기, 쥐불 놀이, 전통혼례, 내리랑줄다 리기, 강강술래, 소원지쓰기	내리랑달맞이축제위원회	1998	민속
	성웅이순신축제	4월	기념행사, 홍보	아산시/아산문화재단	1961	문화유적
	신정호 별빛축제	7월	영화관람, 문화공연	아산시/아산문화재단	1998	현대예술
	짚풀문화제	10월	짚풀문화체험, 짚공예전, 전 통연회극	아산시/아산문화재단	민속	민속
	온양온천문화 예술제(中설화예술 제)	10월	온궁행렬재연, 맹사성축제, 전시회, 공연 등	아산시/예총아산지회	2007	전통예술
	은행나무길 축제 (대한민국 코미디 핫 페스티벌)	10월	개그공연, 프린지페스티벌	아산시/아산문화재단	2014	관광이벤트

구분	축 제 명	개최기간	축제 주요내용	주최/주관	최초 개최 연도	축제종류
서산시 (7)	류방택 별 축제	5월	금헌류방택선생 기념	서산시(사)류방택기념사업회	2006	문화유적
	팔봉산감자축제	6월	농.특산물 전시.판매 및 체험	팔봉산감자축제추진위원회	2002	관광특산
	삼길포 우럭 독살체험 축제	7~8월	독살체험, 맨손고기잡기	삼길포 축제위원회	2012	문화유적
	서산해미읍성역사 체험축제	10월	중요문화재 공연 및 조선시대 500년 역사체험	서산시/서산해미읍성역사 체험축제추진위원회	2000	문화유적
	삼길포 우럭축제	10월	어울가요제, 갯벌체험	삼길포 축제위원회	2005	관광특산
	중왕리 갯마을 빨낙지 축제	10월	수산물판매, 낙지잡기	서산갯마을빨낙지축제추진 위원회	2014	관광특산
	서산국화축제	11월	국화전시, 농.특산물 전시. 판매 및 체험	서산국화축제추진위원회	1998	관광특산
논산시 (6)	대둔산 논산 수락계곡 얼음축제	1월중	눈썰매, 얼음썰매등 체험행사 및 얼음조각, 눈조각 등 전시	논산시/대둔산수락계곡얼 음축제추진위원회	2013	관광특산
	논산딸기축제	4월초	공식문화행사, 딸기따기체 험, 딸기판매 및 홍보	논산시/추진위	2003	관광특산
	상월명품 고구마축제	9월중	문화공연, 체험행사, 고구마 판매등	상월면/고구마축제추진위 원회	2008	관광특산
	연산대추축제	10월말	연산대추의 명성을 홍보, 각종공연 및 대추홍보	연산면/연산대추축제추진 위원회	2002	관광특산
	강경발효젓갈축제	10월중순	젓갈김치담아가기, 젓갈주먹밥사먹기, 황석어젓 만들기, 젓갈판매 및 홍보	논산시/강경젓갈축제추진 위원회	1997	관광특산
	양촌곶감축제	12월초	불거리공연, 농촌생활체험 곶감판매	양촌면/양촌곶감축제추진 위원회	2003	관광특산
계룡시 (1)	계룡군문화축제	10월초	계룡군(軍)문화축제 및 지상군페스티벌	계룡시/계룡군문화발전재 단	2005	관광이벤트
당진시 (15)	안섬풍어당굿	2월	당제, 용왕제, 지신밟기	안섬풍어당굿보존회	-	민 속
	면천 진달래 민속 축제	4월	진달래축제학술대회, 진달래그림그리기	당진시/추진위	2001	민 속
	기지사줄다리기	4월	당제, 용왕제, 사물놀이, 줄 다리기	당진시/보존회	1982	민 속
	우강벚꽃길 건강달리기행사	4월	건강달리기	당진시/우강면체육회	2003	관광이벤트
	장고항 실치축제	4월	실치회시식, 뱀어포 만들기, 맨손고기잡이 체험 등	당진시/포구번영회	2000	관광특산
	순성 매화, 벚꽃축 제	4월	벚꽃축제	당진시/순성면번영회	2005	관광특산
	한진 바지락축제	5월	바지락 채취체험, 바지락까기대회	당진시/포구번영회	2005	관광특산
	당진 황토감자축제	6월	감자케기 체험, 농산물 직거래	당진시/송악농협	2010	관광특산

구분	축 제 명	개최기간	축제 주요내용	주최/주관	최초 개최 연도	축제종류
당진	해와 달의 만남 당진愛 바다불꽃축제	8월	견우직녀만남행사, 불꽃놀이	당진시/추진위	2011	민 속
	남이흥 장군문화제	10월	풍물패두레한마당, 화관무 시범 등	당진시/추진위	1988	문화유적
	상록문화제	9월말~1 0월초	백일장, 심훈선생 추모식, 풍물놀이 등	당진시/상록문화제집행위 원회	1977	문화유적
	삼교호 조개구이축제	10월	붕장어잡기 체험, 바지락캐 기체험, 수산물경매행사 등	당진시/삼교회번영회	2005	관광특산
	왜목해돋이축제	12.31~1 .1	해돋이행사, 불꽃놀이 등	당진시/석문면개발위원회	2000	민 속
	한진해돋이축제	12.31~1 .1	해돋이행사, 불꽃놀이 등	당진시/추진위원회	2004	민 속
	송악산해맞이행사	12.31~1 .1	해돋이 행사	송악자율방범대	2005	민 속
금산군 (8)	산꽃나라걷기여행	4월중	숲속 걷기대회, 산꽃관련 문 화예술행사 등	금산문화원/보곡산골 마을회	2000	관광이벤트
	금산천봄꽃축제	4월중	청소년콘서트, 송어잡기, 읍 민노래자랑 등	금산천봄꽃축제추진위원회	2008	관광이벤트
	파초유채꽃축제	4월	유채꽃화합노래자랑, 민속놀 이	파초1리마을회	2009	민 속
	금산추부갯잎축제	4월	갯잎따기, 갯잎화분만들기, 갯잎요리만들기 등	추부갯잎연합회/추부갯잎 정보화마을	2006	관광특산
	남일홍도화축제	4월	홍도화산초가요제, 홍도화꽃 차여행, 실개천송어잡기 등	남일면/홍도화축제추진위 원회	2008	관광이벤트
	금강여울축제	7~8월중	물체험, 생태·농촌체험, 공연행사	금산문화원/물페기농요전 승보존회, 농바우끄시기보 존회	1993	민 속
	추부포도주담그기 체험축제	11월	포도따기 및 요리, 포도주담 그기 체험	추부갯잎정보화마을	2005	관광특산
	금산인삼축제	9월중	인삼관련 전시, 체험, 각종 공연, 경연 등	금산군/축제추진위원회	1981	관광특산
부여군 (6)	성흥산 해맞이축제	1월	새해소원행사 등	부여군/부여문화원	2000	민 속
	우여축제	4월중	우여시식 및 예술공연	부여군/면번영회	2002	관광특산
	송국리청동기문화 체험축제	5월	청동기문화체험, 향토음식장 러, 문화예술공연, 농산물판 매장	초촌면/송국리유적정비지 원추진위원회	2006	문화유적
	서동연꽃축제	7월중	경연대회, 연꽃체험 등	부여군/부여문화원	2003	문화유적
	백제문화제	9~10월	제불전, 체험 역사문화이벤 트	부여군/백제문화 선양위원회	1954	문화유적
	굿드래알밤축제	9~10월	알밤시식 및 전시·판매	부여군/부여산림조합	2006	관광특산

구분	축 제 명	개최기간	축제 주요내용	주최/주관	최초 개최 연도	축제종류
서천군 (17)	천방산해돋이축제	1월	축시낭송, 시루떡절단, 소 망풍선날리기, 일출감상 등	문산면 이장협의회	2007	민 속
	남산 해맞이행사	1월	기원문낭독, 모닥불피우기, 남산일출감상	서천읍 주민자치위원회	2010	민 속
	건지산해돋이행사	1월	고사, 시루떡절단, 일출감 상	한산면발전협의회	2000	민 속
	서천김축제	2-3월	손김두부만들기, 손김굽기, 채래손김만들기 등	서천유류피해주민대책위원 회	2015	관광특산
	월명산산성밧기축 제	3월	산성밧기, 갯벌체험, 향토 음식장터 등	비인면발전협의회	2009	민 속
	아리랜드 동백꽃 수선화 축제	4월	비빔밥나눔, 작은음악회, 야생화전시판매, 농산물판 매장	아리랜드	1996	관광특산
	자연산광어·도미축 제	5월	맨손광어잡기체험, 광어낚 시체험, 광어도미요리장터	서면개발위원회	2003	관광특산
	장항항 수산물물갈파축제	5월	꿀갑가요제, 꿀두기 갑오징 어판매, 특산물홍보	서천군어민회	2003	관광특산
	한산모시문화제	6월	저산팔음길쌈놀이, 한산모 시패션쇼, 모시관련체험등	한산모시문화제추진위원회	1989	문화유적
	동백꽃주꾸미축제	3월	동백꽃감상, 전통놀이체험 등	서천군/서면개발위원회	2000	관광특산
	자연산광어도미축 제	5월	맨손 광어잡기체험 등	서천군/서면개발위원회	2003	관광특산
	춘장대해수욕장 여름문화예술축제	7월	청소년가요제, 직장인벤드 경연대회, 관광객노래자랑	춘장대해수욕장운영협의회	2004	관광이벤트
	홍원항 전어 꽃게 축제	9월~10월	전어잡기체험 등	서천군/홍원항축제추진위 원회	2001	관광특산
	서천군평생학습축 제	10월초	문해백일장, 홍보체험관 운 영 등	서천군	2013	민 속
	서천철새여행	11월	철새탐조투어, 생태체험	서천군/서천철새여행행사 추진위원회	2004	관광특산
	달빛문화갈대축제	11월	신성리갈대밭 갈대체험, 미 니콘서트, 전통놀이체험 등	갈숲마을영농조합법인	2013	민 속
	마량포해넘이 해돋이 축제	12.31~1. 1	해넘이,해돋이 행사	서천군/서면개발위원회	2000	민 속
청양군 (8)	칠갑산 얼음분수축제	1-2월	얼음분수, 썰매장 체험	천장리알프스마을 운영위 원회	2009	관광이벤트
	칠갑산산꽃마을축 제	4월	야생화전시회, 농촌체험 등	광금체험관위원회	2009	관광이벤트
	고운어울림축제	4월초	야생화전시, 자연체험학습 등	고운식물원	1999	관광이벤트
	칠갑산세계조롱박 축제	8월	조롱박터널, 승마체험 등	천장리알프스마을운영위원 회	2011	관광이벤트
	청양고추· 구기자 축제	9월초	고추·구기자홍보 도·농교류 행사	청양군/농업지원과	1998	관광특산
	칠갑산장승문화축 제	10월중	장승대제, 장승짜기, 웃다리농악 시연 등	칠갑산장승문화축제선양위 원회	1999	문화유적
	까치네밤참축제	10월	참게잡기체험, 지천참게줄 다리기, 풍물시연 등	까치네밤참축제추진위원회	2011	민 속
	칠갑산공축제	11월(예정)	공타작체험, 공가공식품판 매	천장리알프스마을운영위원회	2014	관광특산

구분	축 제 명	개최기간	축제 주요내용	주최/주관	최초 개최 연도	축제종류
홍성군 (4)	남당항새조개축제	1~2월중	새조개까기, 노래자랑	남당리축제추진위원회	2004	관광특산
	남당항대하축제	9-11월중	대하잡기, 관광객노래자랑	남당리축제추진위원회	1996	관광특산
	홍성역사인물축제	9월	역사위인 주제공연	홍성역사인물축제추진위원회	2004	문화유적
	광천토굴새우젓· 재래맛김축제	10월중	김치담그기, 보부상체험	광천토굴새우젓광천김대축 제추진위원회	1996	관광특산
예산군 (8)	예산 옛이야기축제	9월중순	공연행사, 체험행사, 경연대회 등	옛이야기축제추진위원회	2008	민 속
	예산달집축제	2월초	풍년기원제, 달집태우기, 불꽃놀이 등	예산문화연구소	2000	민 속
	윤봉길문화축제	4월 (4.28~5. 2)	기념다례제, 노래자랑, 씨름대회, 사생실기대회 등	월진회	1975	문화유적
	광시한우축제	5월	한우체험 시식회, 노래자랑	광시상인회/한우협회	2015	관광특산
	예산삼배길쌈마을 축제	6월	대마깍질벗기기, 삼베짜기, 산삼기 등 삼배길쌈 체험	예산삼배길쌈마을	2007	문화유적
	추사추모전국회호 대회	10월	추모제, 청소년회호대회, 전국회호대회	예산문화원	1990	문화유적
	예산황토사과 축제 (사과와인페스티벌)	10월말	사과품평회, 사과따기체험, 사과파이잼만들기	예산황토사과축제 추진위원회	1992	관광특산
	삼교삼다리곰창축 제	11월말	삼다리 재현, 곰창콘서트 및 시식	삼다리축제추진위원회	2013	관광특산
태안군 (20)	백화산 해맞이 행사	1월	대북공연 등	태안반도청년회	2004	민 속
	몽산포주꾸미축제	4월~5월	어살체험, 시식회, 관광객 노래자랑, 각설이 공연 등	주꾸미축제추진위	2009	관광특산
	이원가재산벚꽃축 제	4월	점등식 등	태안반도 이원청년회	2010	관광이벤트
	튤립꽃축제	4월	튤립꽃 전시 등	태안군꽃축제추진위원회 네이처영농조합법인	2012	관광이벤트
	신진도꽃게축제	5월	수산물시식회, 먹거리장터	태안군/신진도꽃게축제추 진위원회	2008	관광특산
	다알리아축제	8월	다알리아꽃 전시 등	태안군꽃축제추진위원회 네이처영농조합법인	2012	관광특산
	전국바다낚시대회	5월	선상낚시대회	낚시대회추진위원회	2000	관광특산
	희망서해안한마당 축제	5월	국제워크숍, 희망서해안축 제, 힐링체험행사	충청남도/해양수산부	2015 /1회	관광이벤트
	산수향육쪽마늘축 제	6월~7월	마늘캐기, 전시회 등	태안군/산수향육쪽마늘축 제추진위원회	2005	관광특산
	백합꽃축제	6월	백합꽃 전시 등	태안군/모향향수산물축제 추진위원회	2006	관광특산
	모향향수산물(해삼) 축제	6월	수산물시식회, 맨손물고기 잡기	태안군꽃축제추진위원회 네이처영농조합법인	2012	관광특산
	태안연꽃축제	6월	연꽃전시, 판매행사	태안군/태안그린리치팜	2004	관광특산

구분	축 제 명	개최기간	축제 주요내용	주최/주관	최초 개최 연도	축제종류
태안	바다황토축제	8월	황토마사지, 농특산물판매	태안바다황토축제추진위원회	2011	관광특산
	백사장대하축제	9월~10월	어살체험, 시식회, 관광객 노래자랑, 각설이 공연 등	백사장대하축제추진위원회	1997	관광특산
	몽산포 모래 조각페스티벌	8월	모래조각경연	몽산포해수욕장 번영회	2003	관광이벤트
	태안바다황토축제	7월	황토체험 등	태안관광발전협의회	2011	관광특산
	원두막페스티벌	9월	농어촌체험, 작은음악회	태안관광발전협의회	2014	민 속
	솔향기 북불북 축제	10월초	북불북 걷기, 염전체험, 굴 까기체험	이원면자치위원회	2014	관광이벤트
	백화산해넘이 행사	12월31일	연날리기, 희망엽서 쓰기 등	태안반도안면청년회	1998	민 속
	태안 빛축제	연중	빛축제	태안군꽃축제추진위원회/ 네이처영농조합법인	2013	관광이벤트